

독서아카고라연구 3호
Acagora Reading Research
통권3호

2021. 10.

차례

기획논문: 온택트 시대 독서의 열린 활동성

홍영일 : 비대면 수업의 상상 세계	003
김명석 : 온라인에서 운동주 읽기 -유튜브 콘텐츠를 중심으로-	025
김연옥 : 온라인에서 논어 읽기	057
김윤경 : 옛이야기의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대한 실행연구 -유튜브 「말글살림연구소」의 〈오늘이〉 시리즈를 중심으로-	079
문영하 : 과학교사와 함께하는 과학고전읽기의 성과 -코스모스(칼 세이건)을 중심으로-	117
사토 유키나 : 일본 초등학교 독서교육에서 본 온라인 독서에 대한 고찰 -전자책 활용을 중심으로-	151

일반논문

권애영 : 중국 초등학교의 경전(고전)읽기 교육 현황	177
김경희 : 손진태의 〈개미전설〉에 나타난 동화작법	205
김현경 : 문화해석방법론으로 그림책 세계관 읽기 -앤서니 브라운의 『돼지책』을 중심으로-	229
박해미 : 시냇가 반 유아들이 사용하는 갈등 해결 전략	259

윤수진 :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음악프로그램 개발 연구 -만 5세를 대상으로-	281
---	-----

윤지아 : 그림책과 멀티미디어 동화를 활용한 독서교육에서 유아의 반응연구 -언어적 반응과 비언어적 반응을 중심으로-	295
---	-----

홍유화 : 재미 한글학교의 발전적 방향에 대한 연구 -재미 한글학교 교사 대상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중심으로-	315
--	-----

책세상

박종진 : 평화와 공생을 꿈꾸고 실천했던 동화작가 미야자와 겐지의 그림책 시리즈 〈미야자와 겐지 컬렉션〉	339
---	-----

부록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회칙	345
『독서아카고라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354
『독서아카고라연구』 논문 투고 규정	357
『독서아카고라연구』 논문 심사 규정	362
『독서아카고라연구』 연구 윤리 규정	365

비대면 수업의 상상 세계

홍영일*

【 목 차 】

- I. 여는 말
- II. 실시간 화상수업의 매력
- III. 우리의 상상력은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까?
 - 1. 비대면 요가 수업
 - 2. 비대면 등산 수업
 - 3. 비대면 토론 수업
 - 4. 비대면 독서 수업
- IV. 맺는 말

국문초록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교육 환경의 디지털화를 앞당겼다. 특히 교실에서 일어나는 대면 수업처럼 쌍방향으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화상수업은 교수실재감을 높여줌으로써 교실에서와 같은 소통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실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장점들이 확인되면서 이제 새로운 모임 문화를 형성해가고 있다. 비대면 요가 수업에서는 참가자들이 옆 사람 눈치를 안봐도 되므로 자신의 자세에 더 몰입할 수 있다. 비대면 등산 수업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따로 또 같이 등산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비대면 토론 수업에서는 화상과 채팅을 동시에 활용하며 모든 참가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의견을 쏟아내면서 활발한 소통과 토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비대면 수업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서로 공유하는 모임도 활성화되면서 많은 교육자들이 자신감도 회복해나가고 있다. 향후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전면 등교 수업이 진행되더라도 이미 경험하여 장점을 맛본 비대면 수업의 요소들은 그대로 활용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교육팀장, hong01@snu.ac.kr

핵심어 : 비대면, 화상수업, 교수실재감, 코로나 팬데믹, 수업 나눔, 비대면 독서 토론,
메타버스

I. 여는 말

전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교육자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였다. “학습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교육인가? 아니면 학습 내용을 매개로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교육인가?” 마땅히 후자가 교육의 본질을 잘 드러낸다. 아동 청소년의 기본 권리인 교육¹⁾을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상황에서도 교사와 학생간의 소통을 통한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교육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업 형태는 실시간 화상수업, 영상콘텐츠 수업, 과제학습 수업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²⁾ 이 중에서 교사와 학생 간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실시간 화상수업이다. 쌍방향 실시간 화상수업은 교수 실재감(teaching presence)을 높여주어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과 애착, 공동체 의식 형성에 도움을 준다.³⁾ 그러나 실제 학교에서 행해지는 비대면 교육의 모습은 동영상 강의를 녹화해서 내용을 전달하기에 바빴다. 대구미래교육연구원이 대구광역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⁴⁾에 따르면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도 교수실재감을 높여줄 수 있는 실시간 화상수업이 진행된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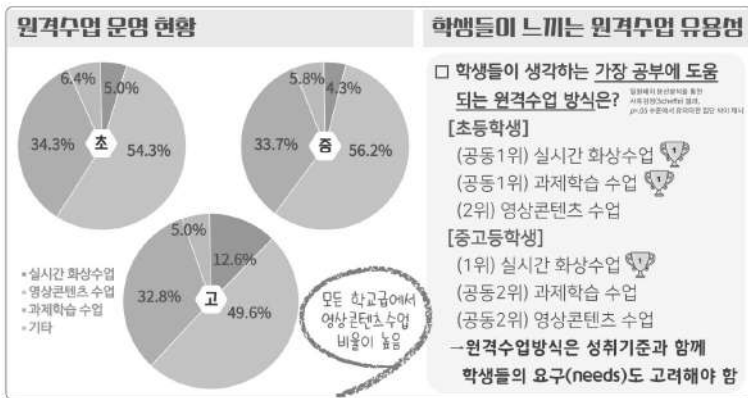
1) Hammarberg, T., *A school for children with rights: The significance of the United Natio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for modern education policy*, Innocenti Lectures no. 2, UNICEF International Child Development Centre, 1998.

2) 임성애 · 신경희 · 박상은 · 서봉언, 「원격학습,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다」, 『이슈텔링』 통권24호, 대구미래교육연구원, 2020.

3) 최경애 · 이성혜 · 채유정, 「온라인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에서의 학습자의 교수실재감, 수업인식, 학습결과간의 관계」,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2권 2호,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2016.

4) 임성애 외, 위의 자료.

율을 초등학교 5.0%, 중학교 4.3%, 고등학교 12.6%에 불과한 반면, 동영상으로 전달 위주의 수업을 진행한 영상콘텐츠수업 사례가 초등학교 54.3%, 중학교 56.2%, 고등학교 49.6%로 실시간 화상수업보다 그 비율이 10배에 이르렀다. 이 조사에서 초중고 남녀학생 50,7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모두가 실시간 화상수업이 가장 공부에 도움이 되는 원격수업 방식이라고 응답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자들의 비대면 수업을 대하는 태도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출처: 임성에 외, “원격학습,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다!”, 이슈텔링 통권24호, 대구미래교육연구원, 2020.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이 조사에서는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많은 교사들이 원격수업 자료 제작으로 인한 심한 피로감과 학생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비대면 수업에서의 교사-학생 간 의사소통이 감소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이처럼 비대면 교육 환경은 아무래도 전통적인 대면 교육 환경에 비해

5) 이병민·최정은·김현순·이정은,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코로나19 대응 원격교육 현황 조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 연구보고서』, 서울시교육청, 2020.

서 교수 실재감이 떨어지고 교육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적극적인 비대면 교육 실천을 막는 장애 요인이 되는 것으로 흔히 지적된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비대면 환경과 대면 환경에서의 학습효과를 비교해왔지만, 그 결과들을 메타분석해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no significant difference)으로 밝혀졌다.⁶⁾ 이 말은 비대면 수업도 적절하게 진행된다면 학습 효과가 대면 수업의 학습 효과 못지않다는 뜻이다. 비대면 수업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는 수업 설계이다. 대면 수업도 설계를 잘못하면 학생들은 최악의 수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대면 수업도 설계를 잘하면 학생들은 최고의 수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매체의 특성이다. 온라인 교육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때 매체의 역할은 강의실에서 대면으로 강의할 때 전달할 수 있는 동일한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면대면 교육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종류의 학습이 일어나게 하는 적극적인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상상할 수도 있다.

비대면 수업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실시간 화상 수업, 녹화된 동영상 강의, 그리고 토론 게시판 등을 활용하는 비실시간 상호작용 수업이다. 실시간 화상수업은 실재감을 느낄 수 있는 수업이어서 면대면 수업과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교수님을 혼자 1대1 대면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몰입감을 느끼면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필자는 주된 강의 분야는 행복 교육이다. 그러다보니 감동적인 강의를 할 때가 있다. 그러한 감동적인 강의를 교실에서 할 때는 수강생들의 반응이 “강의가 너무 좋았어요~” 이 정도였다면, 화상수업에서는 아예 울어 버리는 경우가 필자의 경험상 많이 목격된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독립된 공간에서 몰입한 결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동영상 강의는 수강생들이 언제든지 원

6) 이혜정, 『Blended e-Learning 교수전략』, 교육과학사, 2008.

하는 시간에 수강할 수 있고, 원하는 구간을 <다시 보기>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세 번째로 비실시간 토론식 수업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제시한 특정 주제에 대하여 토론 게시판에서 토론을 진행하게 되는데, 게시판에 의견을 작성할 때 충분히 생각하면서 글을 쓸 수 있다. 또한 토론의 댓글을 작성할 때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숙고한 다음에 댓글을 작성하게 되니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관점을 넓히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비동시적으로, 구두가 아닌 문자로, 즉시가 아닌 시간을 두고 성찰할 수 있는 토론을 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대면 강의 교육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비대면 수업은 그 유형에 따라서 대면 수업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처럼 비대면 수업은 기존 대면 수업과는 전혀 다른 학습 경험을 제공해준다.

II. 실시간 화상수업의 매력

실시간 화상수업은 전통적인 교실수업에 비해서 많은 제약조건이 따른다고 편견을 갖기가 쉽다. 이러한 편견을 깰 수 있는 한 가지 사례가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9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백파더’라는 방송이다. 요리 전문가 백종원 씨와 개그맨 양세형 씨가 출연하여 49명의 요리 초보자들과 진행하는 요리 화상수업이다. 그런데 백종원씨는 “재미없으니 채널 돌리세요”라는 말도 서슴없이 던지기도 한다.



이미지 출처 <http://enews.imbc.com/News/RetrieveNewsInfo/286090>

이미지 출처 <http://www.entermmed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78>

요리의 길을 잃은 자여
요리계의 갓파더 백파더에게 오라!

‘백파더’ 엉망진창 생방송, 이러면 백종원도 요리 못한다

정국현 칼럼니스트 thekian1@entermmedia.co.kr 2020.05.21. 13:41

하지만 재야무리 좋은 재료도 요리가 엉망이면 실패내지 못하듯,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갖고 와서도 ‘백파더’ 첫 방송은 **거의 방송사고**의 연속에 가까운 생방송을 보여줬다. 화상으로 연결된 약 50명의 ‘요린이(요리 어린이)’들과 백종원의 소통은 연결 자체가 원활하지 않음으로써 자꾸만 끊겼다. **화상 카메라 속의 영상들은 흐릿했고, 목소리들은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약 50명이나 되는 ‘요린이’들이 순서 없이 쏟아내는 질문들은 음성들이 서로 물리고 엉키는 상황을 만들었고, 몰라도 너무 모르는 요린이들의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질문들** 어떻게 씻어야 하고 물은 어느 정도 맞춰야 하며 심지어 어떤 냄비를 써야 할까 같은 질문이 나오면서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과연 방송이 어떻길래 그럴까? 어떤 칼럼니스트는 이 방송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뜻으로 기획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걸 완전히 방송사고 수준이라고 혹평을 쏟아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백종원씨가 백파더 방송을 또 한대”, “아 그래? 그러면 이번엔 어떤 신종 레시피를 공개할까, 궁금하네 한 번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방송을 본다면 레시피 공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좌충우돌하면서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가니까 “아이고 답답해 언제 레시피가 나오는 거야”하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뭔가 체계적인 지식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이 방송은 답답해서 볼 수가 없다. 체계적인 지식 전달, 군더더기 없는 방송, 이것이 목적이라면 이 칼럼니스트의 지적은 맞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수 연발, 좌충우돌, 현실적인 인간미를 느끼는 이 모습이 어쩌면 화상수업의 진짜 묘미는 아닐까? 이 방송에 참여하는 49명의 요리 초보자들의 표정을 보았는데, 정말 세상 행복을 다 가진 것 같은 즐겁고, 행복한 표정들이었다. 그걸 보다가 문득 생각이 떠 오르길, “내 수업에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반성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천하의 백종원 씨와 양세형 씨도 저렇게 찼찼매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힐링이 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나의 머릿속이 맑아졌다. “교육 목적이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면 차라리 깔끔하게 편집된 동영상을 내보내자! 그러면 진도라도 빨리빨리 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학생들과 화상으로 만날 때는 소통을 하자! 그리고 교감을 나누자!” 이렇게 해서 비대면 수업 유형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말끔하게 생각 정리가 되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콘텐츠 향유방식의 변화!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뇌의 구조는 어떤 새로운 경험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 뇌의 구조가 바뀌게 되고, 그 경험이 끝난다고 해서, 다시 뇌의 구조가 되돌아가지 않는다.⁷⁾ 코로나19가 가져온 우리의 콘텐츠 향유방식의 변화는 백

7) 뇌 조직의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이라고 한다.

신이 보급되고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우리의 콘텐츠 향유방식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후진할 수 없다. 우리는 끊임 없이 직진해야 된다. 결국 인간의 상상력이 미래의 교육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다.

Ⅲ. 우리의 상상력은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까?

1. 비대면 요가 수업

요가 수업을 쌍방향 화상수업으로 할 수 있을까? 한번은 요가 수업을 하는 K 교수가 필자를 찾아와 묻기를, “화상수업을 해야겠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자는 “그게 가능할까요? 요가 수업은 강당에서 한명 한명 코치를 해주시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라고 그랬더니 “교수님의 줌(Zoom) 강의를 듣고 나니깐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라고 하시길래, 도전해보시고 꼭 연락을 달라고 했다. 2주 후에 K 교수로부터 연락이 와서 드디어 비대면 요가 수업의 현장을 취재했다.





출처: 유튜브 ‘홍영일어린왕자’ 채널⁸⁾

예전 같았으면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강의실에 요가 매트 한 개만 놓여있다. 학생들은 어디 있나 둘러보다가 노트북에 눈이 갔다. ‘아하! 다들 여기 있었구나!’ 각자 집에서 요가 매트를 준비한 채 앉아 있는 28명의 수강생들이 모니터 속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K 교수: 호흡을 하실 때는 제 목소리에만 집중해주세요.

K 교수는 실제로 눈앞에 학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수업을 이끌어간다. 모니터 속의 학생들도 K 교수님의 이야기에 따라 호흡에 신경 쓰며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다. ‘화상수업으로 학생 개개인에게 신경을 쓸 수 있을까?’하는 의심도 잠시, K 교수는 매의 눈으로 자세가 정확하지 않은 학생에게 등을 더 말아보라고 이야기한다. K 교수가 학생들이 자세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세심하게 코치해주니 학생들은 수업에 더욱 몰입하는 모습을 보인다.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학생 한 명 한 명과 이야기하며 오늘 해봤던 자세에 대한 감상도 듣는다. 너무 몸이 뻣뻣해서 어려웠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고, 하다 보니 느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방식으로 시도해보자는 K 교수의 조언을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은 마무리되었다. 비대면 요가 수업을 마치고 K 교수의 생각이 궁금하여 인터뷰를 해보았다.

8) 유튜브 ‘홍영일어린왕자’ 채널 <http://www.youtube.com/purespirit01>

필자: 오늘이 몇 번째 zoom으로 하는 요가 수업인가요?

K 교수: 두 번째입니다.

필자: 두 번째인데도 매우 완벽하게 진행하시는 모습이 감동입니다.

K 교수: 처음에는 기능을 잘 다루지 못하고 부족한 게 있었지만, 최대한 오프라인 교육의 질적 수준에 따라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필자: 오프라인 수업과 다른 점은?

K 교수: 디지털 네이티브 대학생들이라 그런지 새로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잘 따라오고, 일상에서 인터넷을 잘하는 친구들이라 그런지 이런 방식의 수업이 재밌었다고 문자도 오고 그랬습니다.

필자: Zoom 화상수업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K 교수: 첫째는 장소의 제한이 없다는 점. 둘째는 가장 중요한 게, 서로 의식하지 않아서 집중에 도움이 됩니다. 모여서 진행할 때는 옆자리 친구들 눈치 보아가며 자신의 동작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각자의 편안한 장소에서 참여해서 그런지 제 목소리에 집중하면서 각자의 동작과 마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날 취재한 K 교수의 체육 수업은 ‘체육 수업만큼은 온라인 수업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편견’을 깨주는 환상적인 비대면 수업이었다.

2. 비대면 등산 수업

또 다른 사례는 바로 등산 수업이다. S대학교 교양 강좌인 ‘산과 인생’은 함께 산을 오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직접 느끼는 수업 방식에 매력적이라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수업이다. 그런데 이미 90명이 넘는 인

원이 수강신청을 한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여서 산을 가는 계획 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야기만 들어도 막막해진다.

S 교수: 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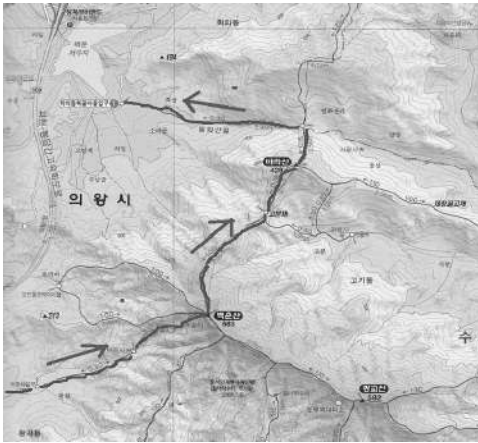
산과 인생 수업을 담당하는 S 교수가 고민 끝에 나를 찾아오셨다. 어떻게 이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까 의논한 결과 zoom의 소회의실 기능이 실마리가 되어주었다. 실제로 수업은 동영상 강의와 화상수업을 적절히 활용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S 교수는 산행 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체크리스트들을 설명한다. 체크리스트에는 필수적인 물품인 산행 지도와 등산화,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음식, 에너지 보존을 위한 적절한 옷과, 등산을 위한 도구부터 보험까지 산행에 필요한 리스트가 상세히 준비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법과 페이스 조절을 위한 방법도 소개되어 있어 마음이 놓인다. 학생은 이 동영상을 통해 산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숙지한 후에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철저한 체크리스트를 보니 혼자서도 충분히 산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심이 된다.

학생 1: 탄천에 나와 있습니다! 저기 오리가 보이시나요?

학생들은 산행 장소와 일시, 산행의 전체 일정을 포함한 계획서를 미리 제출한 이후 수업 시간이 되면 자신의 계획에 따라 등산을 하게 된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 모든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zoom에 접속해 자신의 위치를 보고하면서 출석체크를 한다. 모두가 참석한 사실을 확인한 S 교수는 소회의실 기능을 이용해 학생들을 10명씩 짝을 지어준다. 이렇게 한 팀이 된 학생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스마트폰 하나를 들고 산행을 하면서, 자신의 카메라를 통해 주변의 풍경을 가리키며 대화도 나눈다. 두 시간 동안의 산행 이후 학생들이 스스로 안전 점검과 현재 위치 보고를 하면서 수업은 마무리 된다.

학생 2: 오늘 사이버 강의 관련해서도 링크가 작동하지 않아 당황했는데 이 상황을 조원들끼리 공유하고 해결하면서 매우 안심되었습니다. 비 오는 와중에 하이킹하는 서로를 걱정해주면서 유대감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함께하는 즐거움’을 더 많이 느껴야겠다는 생각이 하이킹하는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개별 산행 계획서			
참가자	김OO		
산행지	백운산(경기도 의왕시)	일 시	2020년 4월 17일
공통 준비물	등산화, 배낭, zoom 실행이 되는 핸드폰(카메라, 데이터 확인)		
개별 준비물	등산화, 배낭, zoom 실행이 되는 핸드폰		
전체 일정	백운산 입구 집합 -> 백운산 정상 -> 백운산 하산		
세부 일정			
팀	예상시간	장소	비고
개인	13:00	지지대고개 입구 집합	출석 체크(zoom 이용), 걷기 어플리케이션 시작
	14:00	백운산 등산로	걷기 어플리케이션 작동 확인
	15:00	백운산 정상	2차 출석 체크(zoom 이용)
	15:30	하산	올라왔던 길을 따라 하산
당초 계획된 지도			실제 등산 지도
			실제 일정과 다를 경우 지도에 표시하여 실제 등산 경로 제시

우리를 미처 상상하지 못한 곳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비대면 토론 수업

교실에서만 가능한 줄 알았던 열띤 토론, 비대면 수업에서도 가능할까? 이 수업은 필자가 실제로 진행한 수업의 사례로서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사례이다. 학생들에게 먼저 질문을 던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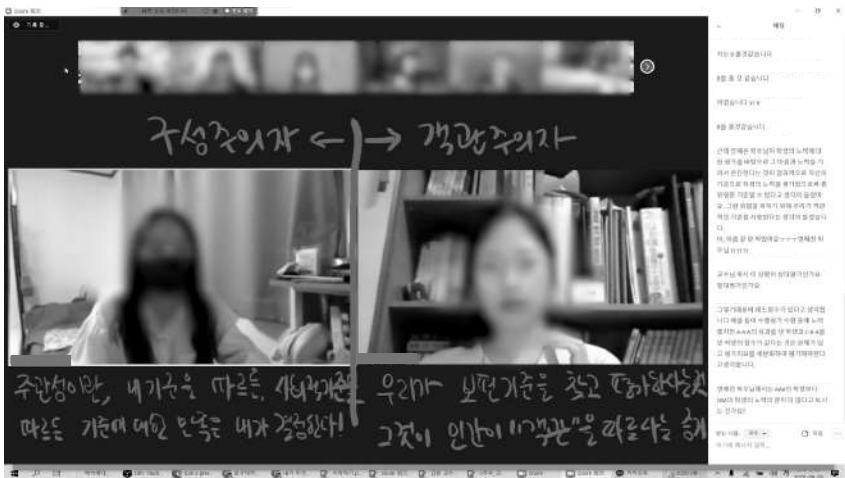
필자: 여러분이 교사가 되어 강의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강의를 수강하는 어떤 한 학생이 있는데, 학기 초에 이 학생의 성적이 C였어요. 그리고 학기 중에 B가 됐어요. 그리고 학기 말에는 A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랬을 때 이 학생의 최종 성적은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즉, 성적표에 어떤 성적을 기재해야 할까요? 평균인 B를 주어야 될까요? 아니면 최종 성적인 A를 주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이 필자의 실제 수업에서 토론 주제였다. 의견이 양분되었다. 평균을 주는 것이 맞다는 학생도 있고, 또 그 의견에 만만치 않게 A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1시간 동안 뜨겁게 토론이 진행되었다.

교실에서만 가능할 줄 알았던 열띤 토론! 비대면 수업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했더니 학기 말에 학생들의 강의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은 이러한 경험과 여운이 ‘기말고사가 끝난 시점에도 사라지지 않더라, 그 여운이 가시지 않더라’는 의견들을 많이 남겨주었다.

이런 수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아주 간단한 요령이기 때문이다. 토론을 이끌어가는 대단한 능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적절한 질문과 판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토론은 적절한 주제가 주어지면 수강생들이

알아서 진행할 수 있다. 오히려 대면 수업이 아닌 온라인 화상수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되는 것일 수도 있다. 실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강의실에선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게 줌(zoom)으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다고도 말한다. 그리고 교수자로서 필자는 화면상에서 한두 명의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고 한두 명의 학생들은 서로 토론을 함과 동시에, 동시다발



적으로 다른 학생들이 채팅창에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 채팅창에 올라온 의견들을 쭉 보면서 “이 의견 너무 좋다!”, “그러면 이 친구를 불러서 또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하게 되니까, 실제로 목소리로는 1:1의 수업이지만 채팅창을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동시에 모든 학생과 소통이 되는 셈이다.



여기에 더하여 주식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학생들의 의견을 화면에 기록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니까 시각화(Visualize)까지 되는 연출을 할 수 있었다.

4. 비대면 독서 수업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17개 시도 전역에서 200명 이상의 교육 실천가들이 한자리에 모여든다. 모이는 장소는 줌(Zoom)과 유튜브다. 이 모임의 명칭은 17-18세기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귀족과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사교 모임이었던 살롱의 이름을 따와서 행복줌살롱이라고 붙여졌다. 이

모임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학교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혼란을 맞게 된 전국의 초중고 교사, 대학 교수, 전문 강사 등을 위해 비대면 수업 기법이나 사례들을 나눌 목적으로 2020년 3월에 시작되었다. 줌(Zoom) 외에도 구글 클래스룸, 패들렛, 멘티미터, 소크라티브, 카훿 등 교수자와 학습자 간 소통과 협업을 촉진하는 다양한 온라인 도구들을 활용한 수업 사례들이 공유되었다. 뿐만 아니라 작가, 음악가, 마음챙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초대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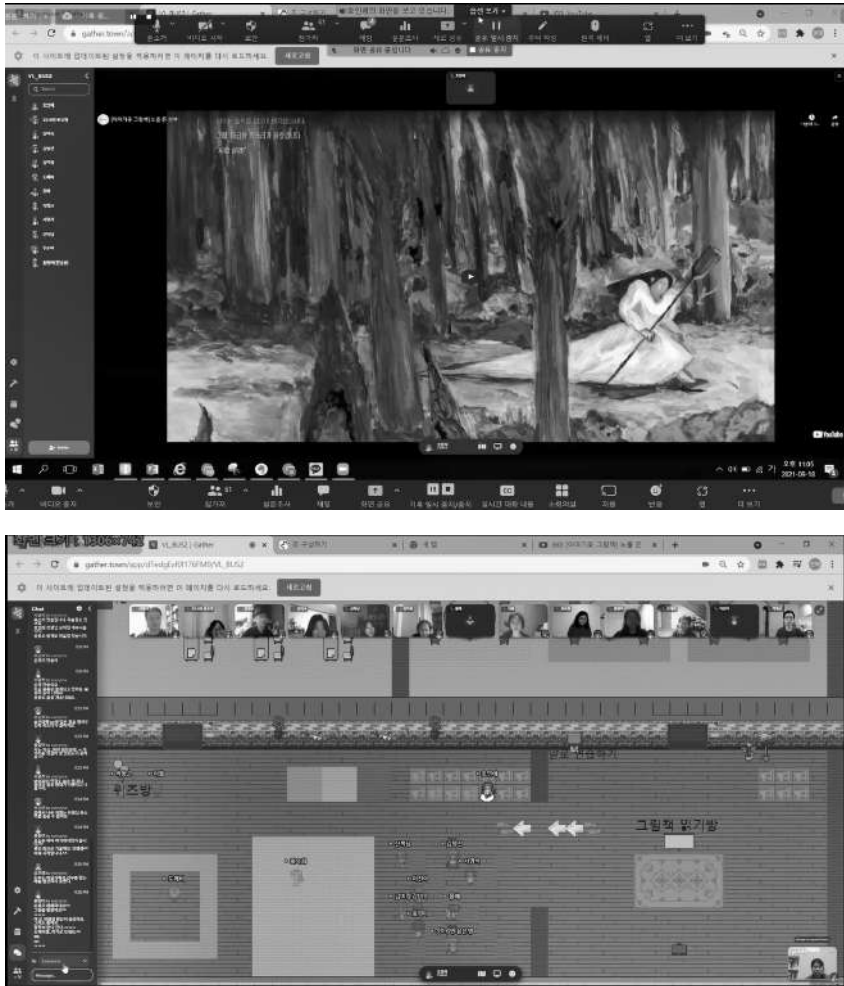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었던 수업 사례는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이었다. 아예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 밤에는 그림책 수업 나눔 시간을 고정하고 정기화하여 진행 중이다.



비대면 수업은 디지털 환경에서 진행되지만, 참가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며 몰입을 유도하는 기술은 그림책이나 스토리텔링과 같은 아날로그적 기법들이 의외로 효과가 크다.

최근에는 메타버스 환경을 교육에 접목한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 대

표적인 사례로 게더타운 안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실제 교실을 본떠 설계한 환경에서 교사가 안내하는 책을 함께 읽고, 모둠을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고 발표하는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게더타운에서 진행하는 비경쟁 독서 토론 수업의 장면]

Ⅳ. 맺는 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백신이 보급되고 사태가 잔잔해지더라도 우리의 콘텐츠 향유 방식은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선생님과 학생의 인격적 만남은 온라인 환경에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린다. 비대면 수업의 상상 세계를 펼쳐가 보자.

참고문헌

- 이병민 · 최정은 · 김현순 · 이정은,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코로나19 대응 원격교육 현황 조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 연구보고서』, 서울시교육청, 2020.
- 이혜정, 『내 강의를 업그레이드해주는 Blended e-Learning 교수전략』, 교육과학사, 2008.
- 임성애 · 신경희 · 박상은 · 서봉언, 「원격학습,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다」, 『이슈텔링』 통권24호, 대구미래교육연구원, 2020.
- 최경애 · 이성혜 · 채유정, 「온라인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에서의 학습자의 교수 실재감, 수업인식, 학습결과간의 관계」,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2권 2호,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2016.
- 홍영일, 『줌(Zoom)으로 강의하라』, 성안당, 2021.
- Hammarberg, T., *A school for children with rights: The significance of the United Natio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for modern education policy*, Innocenti Lectures no. 2, UNICEF International Child Development Centre, 1998.

The Imaginary World of Non-face-to-face Classes Opens Up

Hong, Young Il

(Center for Happiness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has accelerated the digitalization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n particular, video classes, which allow real-time communication in two directions, such as face-to-face classes in classrooms, are now forming a new gathering culture as they are not only capable of communicating in classrooms but also have advantages that are difficult to experience in classrooms by enhancing teaching presence. In non-face-to-face yoga class, participants don't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person next to them, so they can be more immersed in their posture. In non-face-to-face hiking class, participants can enjoy the effect of hiking separately and together while keeping Social Distancing. In the non-face-to-face debate class, video and chat were used at the same time, and all participants poured out opinions simultaneously, showing that active communication and discussion were possible. As the experiences of these non-face-to-face classes accumulate, meetings that share with each other are also being activated, and many educators are also recovering their confidence. In the future, even if face-to-face classes are held in the With Corona era, the elements of non-face-to-face instructions that have already experienced and tasted advantages are expected to be used as they are.

Keywords : Non-face-to-face, Zoom, video classes, teaching presence, COVID-19 Pandemic, non-face-to-face debate, metabuses

투고일 : 2021. 09. 19. / 심사일 : 2021. 10. 05. / 심사완료일 : 2021. 10. 10.

온라인에서 윤동주 읽기

—유튜브 콘텐츠를 중심으로—

김명석*

【 목 차 】

- I. 머리말 - 시의 길, 새로운 길
- II. 유튜브에서 윤동주 찾기, 검색어 ‘윤동주’
 - 1. 「별 헤는 밤」에서 〈당신의 밤〉으로
 - 2. 윤동주에 대한 모든 지식
 - 3. 윤동주와 노래하다
 - 4. 언택트 시대의 랜선 문학기행
- III. 맺음말 - ‘쉽게 꺾어진 시’와 독자

국문초록

이 연구는 온라인에서 윤동주 읽기를 통한 시 읽기의 변화 고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윤동주’라는 키워드 검색에서 시작해 유튜브에 업로드된 다양한 윤동주 콘텐츠를 살펴보고, 스마트폰 세대가 윤동주를 찾아가는 새로운 길을 조망해보았다.

매체의 다양화와 함께 읽기의 대상이 변하고 있다. 종이책 읽기에서 PC를 거쳐 스마트폰 읽기로 나아가며 시 읽기의 중심 역시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시도 인터넷에서 찾아 읽는 시대가 왔다. 구글과 유튜브는 네티즌들이 어제도 클릭하고, 오늘도 클릭하는 새롭고도 익숙한 길이다. 대표적인 검색엔진 구글에서 검색창에 ‘윤동주’를 입력하면 검색결과는 약 209만 개에 달한다. 멀티미디어 시대에 시라는 텍스트도 영상과 오디오와 결합해야 온라인에 존재할 수 있다. 다음에는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를 보기 쉽게 제공해주는 유튜브를 경로로 선택해 보았다.

본론에서는 유튜브 조회수 1위 콘텐츠인 ‘[무도 결방특집] 윤동주-황광희&개코, 위

* 성신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mskim528@sungshin.ac.kr

대한 유산'를 살펴본 결과 시와 음악, 작가와 독자, 가수와 청중, 그리고 역사와 현재가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읽기'가 '쓰기'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확인했다. 이어서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윤동주 시인 소개 콘텐츠, 강연, 다큐멘터리 중 정재찬 교수의 강의 동영상 분석 결과 일방적 교실 시 강의를 넘어 열린 교육의 현장이 되고 있지만, 한편 대중적 방송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윤동주 시 '읽어주기'가 수동적인 '듣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튜브가 영상을 찾아보고, 구독과 댓글을 다는 곳만이 아니라 모두가 생산자 겸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 '다시 보기'가 아닌 크리에이터들의 순수 창작 윤동주 콘텐츠가 늘어나야 한다. 또 네티즌의 많은 사랑을 받는 뮤지컬 <윤동주, 달을 쏘다>를 독자 측면에서 분석하고, 코로나 시대 여행의 대안인 윤동주 문학기행 콘텐츠들을 차례로 분석하였다.

온라인 윤동주 읽기는 오프라인 읽기와 무엇이 다를까. 인터넷으로 검색해 네티즌 손에 '쉽게 쥐어진 시', 모니터와 키보드 혹은 스마트폰 창 너머에 여전히 문학적 감동이 존재할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온라인 시 읽기의 핵심은 매체 문제가 아니라 소통 문제이다. 시를 노래하던 시대, 시를 눈으로 읽던 시대가 독서의 대상인 시와 시인의 시대였다면, 독서의 주체인 독자 시대의 서막이 온라인 독서의 장에서 열린다. 이제 시를 배우고 토론하는 '아카고라'로서 독서의 열린 활동성 모색이 온라인 시대 시 읽기의 과제가 될 것이다.

핵심어 : 윤동주, 유튜브, 별 헤는 밤, 당신의 밤, 문학 기행, 열린 활동성

I. 머리말 - 시의 길, 새로운 길

매체의 다양화와 함께 읽기의 대상이 변하고 있다. 종이책 읽기에서 PC를 거쳐 스마트폰 읽기로 나아가며 시 읽기의 중심 역시 변화하고 있다. 서가에서 고른 시집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던 시절은 지났다. 시집을 구하기 힘들던 시절 누군가는 어렵게 빌린 시집을 통째로 베껴 쓰기도 했다. 이를테면 문학 소년 윤동주는 숭실중학교 시절 백석 시집 『사슴』 한정판을 노트에 필사해 소중히 간수하였다. 시인 지망생 윤동주는 원고지에 쓴 습작에 일일이 집필 일자를 기록했다. 연희전문 학생 윤동주의 미발표 필사본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후배 정병옥은 고

향집 마루 밑에 보관했다가 해방 후 출간하였다. 일본 유학 시절 윤동주는 릿교 대학 편지지에 다섯 편의 작품을 적어 절친 강처중에게 보냈다. 그중 「쉽게 씌어진 시」가 강처중 기자가 근무하던 경향신문에 발표된다. 동주의 작품을 모아 정지용의 발문이 붙은 유고 시집이 정음사에서 출간된다. 독자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노트, 원고지, 신문지 혹은 잡지, 시집에 실린 작품을 읽어왔다. 그런데 이제는 시도 인터넷에서 찾아 읽는 시대가 왔다. 이 길은 여태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다.

그러면 지금의 한국 독자들에게는 윤동주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몇 년 전 윤동주 시인 탄생 백주년을 기념해 조사한 설문 역시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 독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당시 1,086명의 설문 결과 윤동주의 이미지는 저항시인(8.7%, 89명), 민족시인(7.7%, 79명)보다는 자기성찰하고 실천을 꿈꾸었던 시인(51.7%, 529명), 자기성찰의 시인(26.9%, 275명)이라는 의외의 결과를 보여줘 화제가 되었다.¹⁾ 물론 이 설문이 네티즌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과거의 교육을 받은 높은 연령층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다. 또 최근 한일관계 악화나 위안부 문제, 중국의 동북공정과 조선족 시인 윤동주 설에 대한 반감으로 민족저항시인 이미지를 재구축하고 있는 현상도 눈에 띈다.

그런데 이제 네티즌들에게 있어 시인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저장되는 것, 아니 검색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검색엔진 구글에서 윤동주를 검색하면 무엇을 읽을 수 있을까. 검색창에 ‘윤동주’를 입력하면 나오는 검색결과는 약 209만 개에 달한다.²⁾ 수많은 윤동주 콘텐츠들이 어떤 순서로, 어떤 모습으로 제시되는지 특성을 파악해보면, 우선 그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위키피디아와 나무위키의 윤동주 항목이다. 잘 정리된

1) 김용교, 「윤동주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2017년 3월 인터넷 사용자의 윤동주 인식」, 『시대의 폭력과 문학인의 길-2017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 자료집』, 대산문화재단·한국작가회의, 2017.4.17, 81-101쪽.

2) 이 논문의 검색 순위와 조회 수는 논문 투고 시점인 2021년 9월 26일 기준으로 검색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정보와 여기서 링크된 페이지로 이동하며 독자들은 윤동주의 생애와 작품을 읽을 수 있다. 윤동주에 대한 사전적 정보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윤동주 항목 역시 구글 첫 페이지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뒤를 이어 「부끄러움의 시인」 윤동주, 그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울댓아트), 「[아직도 풀리지 않는 恨] 윤동주의 ‘서시」(경남일보), 「시인 윤동주에 관한 놀라운 기록」(오마이뉴스)과 같은 신문, 잡지 기사가 차례로 검색된다. 동영상 카테고리 첫 번째는 「인물백과사전」 윤동주 시인의 인생(세상의 모든 지식)이며, 다큐멘터리 「잊지 못할 윤동주」(여수 MBC), 「펜으로 쓴 독립운동」(국방TV) 등 TV 방송물 검색결과도 확인된다. 그런데 사실 그 대부분은 순수하게 인터넷 콘텐츠로 제작된 것보다는 이미 방영된 방송물의 ‘다시 보기’가 중심이다. 또 검색어가 ‘윤동주’이기에 시인에 대한 정보에 비해 시 작품을 곧바로 찾아볼 수 없었다. 멀티미디어 시대에 시 텍스트도 영상과 오디오와 결합해야 온라인에 존재할 수 있다. 다음에는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를 보기 쉽게 제공해주는 유튜브를 경로로 선택해 보았다. 『유튜브는 책을 집어 삼킬 것인가』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대담집에서는 2018년 『뉴욕타임즈』 특집 기사 「탈텍스트 미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Welcome to Post-text Future)」를 인용하면서 온라인에서 경험하는 시간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변화로 텍스트의 쇠퇴와 오디오, 비디오의 파급력의 폭발적 증가라는 선언과 함께 문자 매체가 조만간 사라질 일은 없겠지만 적어도 온라인에서만큼은 주도적인 자리를 내줄 것으로 예측했다. 책이나 백과사전 심지어 검색엔진도 아닌 유튜브가 지식의 제1원천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³⁾ 지금 유튜브는 네티즌들이 어제도 클릭하고, 오늘도 클릭하는 새롭고도 익숙한 길이 되고, 유튜브의 세계는 시의 길로 가는 지도가 된다. 나침반이 정확하게 북쪽을 향하듯 검색어는 윤동주 시인 앞으로 독자들을 데려다줄 것이다.

이 연구는 온라인에서 윤동주 읽기를 통한 시 읽기의 변화 고찰에 목

3) 김성우·엄기호,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파비, 2020, 11쪽.

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운동주’라는 키워드 검색에서 시작해 유튜브에 업로드된 다양한 운동주 콘텐츠를 살펴보고, 스마트폰 세대가 운동주를 찾아가는 새로운 길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II. 유튜브에서 운동주 찾기, 검색어 ‘운동주’

유튜브는 수많은 콘텐츠와 다양한 기능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가장 즐겨 찾는 미디어 플랫폼이다. 유튜브는 초국적 기업이자 최대의 검색 포털 서비스를 운영하는 구글의 영상 콘텐츠 플랫폼이다. 매일 수만의 콘텐츠가 업로드 되고 소비된다. 유튜브는 단순한 하나의 플랫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추동하는 장치로서 기능한다.⁴⁾ 2005년에 출발한 유튜브는 특히 모바일 미디어가 대세가 되면서 미국에서는 넷플릭스, ESPN에 앞서 시장 랭킹 1위를 지키고 있고, 한국에서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앞선 시장 랭킹 1위이다.⁵⁾ 글로벌 매체로서의 압도적인 영향력은 월 평균 이용 시간, 평균 재방문 일수로 알 수 있듯이 네티즌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영국의 기술 칼럼니스트 크리스 스토클-워커는 “유튜브(YouTube)는 ‘너를 위한 튜브’일 뿐아니라, ‘나를 위한 튜브(MeTube)’이기도 하고, ‘우리를 위한 튜브(UsTube)’이기도 하다면서 이제 유튜브가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렵고, 유튜브는 언제나 켜져 있고, 늘 무언가 올라온다고 했다.⁶⁾ 즉 유튜브는 인간이 세상과 접속하는 하나의 방법이자 일상의 일부분이 되었다.

유튜브 메인화면에서 ‘운동주’를 검색하면 네티즌들은 어떤 콘텐츠들을 만나게 될까. 그 순서는 검색어와의 관련성, 업로드 날짜, 조회 수, 평점 등 네 가지 정렬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

4) 대중문화연구회, 『유튜브와 K-콘텐츠 레볼루션』, 작은우주, 2019, 5쪽.

5) 노가영, 『유튜브 온리』, 미래의 창, 2017, 35-37쪽.

6) 크리스 스토클-워커, 엄창호 역, 『유튜버들』, 미래의 창, 2020, 316쪽.

는 「[인물백과사전] 윤동주 시인의 인생」은 1년 전에 유튜브에 올라온 조회 수 5만 5천 회의 콘텐츠로서 필터가 기본값 ‘관련성’에 맞춰져 있으면 맨 앞에 나온다. 13분짜리 시인 소개물로 가장 대표적인 윤동주 콘텐츠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티즌 입장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콘텐츠이기에 무시할 수 없다. 그 밑으로 「[무도 결방특집] 윤동주-황광희&개코, 위대한 유산」은 MBC 예능 프로 일부를 업로드한 것으로 가벼운 예능을 선호하는 젊은 층의 취향을 반영해 준다. 다음으로 「2020 윤동주문학제 ‘동주와 함께 걷는 길’ 창작음악제 편」은 윤동주의 아름다운 시에 곡을 붙인 노래들이다. 윤동주 사망 70주년 경과로 저작권이 풀리면서 윤동주 시를 가사로 한 노래들이 다수 등장하는데, 특히 종로구 종로문화재단에서는 매년 윤동주문학제 프로그램 중 윤동주 창작음악제를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축제가 취소되면서 많은 행사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는데 네티즌들은 유튜브에서 그 노래들을 찾아 들을 수 있다. 다음 순서로 「[차클마스터클래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던 윤동주…」를 비롯한 한양대 정재찬 교수의 jtbc 강연이 나온다. 베스트셀러 저자인 정재찬 교수의 시 강의 외에도 유튜브에서는 수많은 윤동주 시 교육 콘텐츠들을 작품별로 검색해 찾을 수 있다. 다음에 나오는 「[길위의 인문학-교보인문기행×유성호] 윤동주와 서울을 걷다, 별이 된 시인 윤동주」는 대산문화재단이 기획한 인문학 답사로 코로나 시대에 시 독자를 위한 랜선 문학기행이다. 그 밑으로는 「[만화로 즐기는 한글 이야기] 하늘의 별이 된 시인 윤동주」(국립한글박물관)와 「윤동주 별 헤는 밤 낭독 feat. 영화 동주」 등이 이어진다.

한편 ‘조회 수’를 기준으로 하면 4년간 309만 회를 기록한 「[무도 결방특집] 윤동주-황광희&개코, 위대한 유산」(MBC)이 선두이고, 한 달 만에 54만 회를 기록한 「故 윤동주 시인 중학 동창 102세 철학자 “인생 얼마나 살아보셨나요?”」[김형석 철학자](SBS)가 뒤를 잇는다. 검색화면 앞쪽에 나오는 콘텐츠는 이미 TV에서 방송한 것을 다시 올려놓은 것이 많

고, 크리에이터 자체 제작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윤동주 시 낭송으로는 김윤아의 「별헤는 밤」(27만 회)과 강하늘의 「서시」(11만 회) 등이 상위권에 올라와 있다. 윤동주 시에 곡을 붙인 노래로 윤동주 콘서트에서 포레스텔라 고우림이 부른 「별 헤는 밤」(12만 회)을 들을 수 있고, 뮤지컬 <윤동주, 달을 쏘다>의 삽입곡들도 앞쪽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평점’을 기준으로 하면 「길-윤동주×아하」(187회), 「캘리그라피-윤동주의 나무」(13회) 등 유튜브 콘텐츠로는 조회 수가 매우 적은 콘텐츠들도 검색된다. ‘필터’를 업로드 순으로 하면 6시간 전에 업로드한 「윤동주-시인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조회 수 0), 15시간 전에 올린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조회수 10회)처럼 당일 업로드로 아직 방문자가 거의 없는 콘텐츠도 나온다.⁷⁾ 물론 이 순서는 새 콘텐츠가 업로드 되면 계속 바뀔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유튜브 검색 시 가장 먼저 나오는 콘텐츠 중 조회 수 1위 콘텐츠인 「[무도 결방특집] 윤동주-황광희&개코, 위대한 유산」을 시작으로 윤동주 시인 소개 콘텐츠, 강연, 다큐멘터리를 찾아본 뒤,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는 윤동주 관련 곡 중 네티즌의 많은 사랑을 받는 뮤지컬 <윤동주, 달을 쏘다>의 수록곡, 윤동주 문학기행 등을 차례로 소개하겠다.

1. 「별 헤는 밤」에서 <당신의 밤>으로⁸⁾

2017년 삼일절에 방영된 무한도전(결방 특집)을 편집한 「윤동주-황광희&개코, 위대한 유산」은 11분 분량의 콘텐츠로 309만에 달하는 조회수로 보면 가장 많은 사람이 찾은 윤동주 콘텐츠 중 하나이다. 이는 2016년 11월 19일부터 12월 31일에 방영한 MBC TV 무한도전 ‘위대한 유산’ 시리즈의 윤동주 편 하이라이트 다시 보기이다. ‘위대한 유산’은

7) 2021년 9월 26일 16시 기준.

8) 김명석(「TV 다큐·예능 속의 윤동주」, 『돈암어문학』 32, 2017, 191-200쪽)의 내용을 보완하였음.

탄핵 정국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과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만들어 주기 위해, 역사적 변혁기마다 등장한 위대한 영웅을 상기하고 역사에서 길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특히 윤동주 편은 시인의 삶과 시로 노래를 창조해 예능의 ‘새로운 길’을 보여준 성공적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구성은 ‘역사 특강(설민석)-멘토 탐방(김응교)-힙합곡 창작 작업 및 발표(광희, 개코, 오혁)’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역사 특강은 영화 <동주> 장면을 배경으로 창씨개명의 부끄러움을 담은 「참회록」과 「쉽게 씌어진 시」를 출연자들이 직접 낭송하면서 시작한다. 처음 보는 시 「쉽게 씌어진 시」를 낭독한 유재석과 출연자들은 생체실험으로 인한 사망 의혹과 독립운동의 의미에 대한 설민석의 강의에 귀 기울인다. 시 듣기와 자막 읽기, 강연자의 작품 해석을 통해 시청자의 윤동주 시와 삶 읽기도 동시에 진행된다. 그리고 ‘읽기’는 자연스럽게 ‘쓰기’로 발전한다.

가수 광희와 래퍼 개코는 윤동주 시를 가사에 삽입하자는 아이디어⁹⁾를 낸 후, 연세대 윤동주기념관을 방문해 윤동주 전문가 김응교 교수의 해설을 듣고 「별 헤는 밤」에 다섯 번이나 등장하는 ‘이름’이란 단어에 주목하게 된다. 그리고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로 시작된 시 낭송 화면은 가수 오혁의 피처링과 <당신의 밤> 전주로 바뀐다. 밑에는 “일제의 말살 정책 속에서도 한글로 시를 쓴 시인 윤동주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소개 자막이 나온다. 즉 독자 입장에서 쓴 일종의 팬레터로서, 윤동주 당신을 향한 그리움과 자신에 대한 성찰을 담은 곡이다. 무대에서는 가면을 쓴 죄수들이 주사를 맞으려 줄지어 움직이는 춤 장면 사이로 개코와 광희가 무대 중앙으로 나오면서 시작된

9) 작업실에서 광희는 시인 아닌 팬 입장에서 가사를 써보자는 아이디어로 팬레터, 부끄러움, 감사라는 세 단어를 키워드로 삼는다. “시를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지금 시대를 비춰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며 자신들의 노래가 창구가 된다면 성공이라는 바람대로 윤동주 탄생 100주년이란 시기에 <당신의 밤>은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며 젊은이들에게 소통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랩에서는 시 인용이 아닌 독자의 감상을 노래한다. “난 왜 느끼지 못하고 외우려 했을까 / 용기 내지 못하고 뒤로 숨으려 했을까 / 그에게 총칼 대신 연필 끝에 힘이 있었기에 / 차가운 창살 건너편의 하늘과 별을 바라봐야 했네 / 나의 이름 나의 나라가 부끄럽지 않게 / 오늘도 나아가야지 흠으로 덮여지지 않게”라는 가사처럼 느끼지 않고 외우는 역사 교육, 시 교육에 대한 반성, 총칼 대신 연필로 쓴 독립운동, 절망의 감옥 창밖으로 별을 보며 간직한 희망, 그리고 부끄러움과 각오 등을 표현하고 있다. 두 번째 랩 부분에서는 ‘촛불 위의 바람’과 ‘광장 위를 비추는 빛’이라는 구절로 2016년 12월 당시의 한국 상황을 표현하고, 그 앞에서 부끄럽지 말자는 결의를 다진다. 관객들의 스마트폰 불빛이 마치 광장의 촛불처럼 화면을 채우면 감동은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무한도전 멤버 6명의 단체 사진 아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자막으로 끝나는 인상 깊은 엔딩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가 역사라는 제작진의 역사관을 반영한다. 이렇게 <당신의 밤>은 과거 역사와 현재의 문제의식을 힙합으로 결합시킨 콜라보레이션으로 ‘위대한 유산’ 프로젝트 취지를 잘 살려냈다.

한편 문화 교육적 측면에서는 역사와 힙합의 만남이라는 과제를 받고 자기주도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광희, 개코 두 독자는 ‘시 읽기’에서 ‘노래 쓰기’로, 수용자를 넘어 또 하나의 생산자로 성장한다. 그들은 교실을 나와 현실에서 부끄러움 없는 청년으로 자신만의 ‘삶 쓰기’를 보여줄 것이다. 프로그램을 시청한 네티즌들 역시 또 하나의 독자로서 그들을 응원하며, 자신들의 밤을 운동주의 별로 밝히고, 시인이 노래한 새로운 길을 따라 걸을 것이다.

사실 전달을 표방하는 다큐 못지 않은 강력한 파급력을 갖춘 예능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 시공간적 제한을 넘어 운동주와 그의 시를 찾는 독자들에게 이어진다. 네티즌들의 반응을 댓글로 살펴보면 “시가 완벽하여 가사가 좋을 수밖에 없다.”, “너무 완벽한 시와 곡과 목소리의 조합...”처럼

시와 노래의 탁월함에 대한 찬사뿐만이 아니다. “윤동주 시인의 삶을 정말 잘 나타낸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곡의 분위기까지 윤동주라는 사람을 잘 담은 것 같습니다. 좋은 곡 써주셔서 불러주셔서 광희 개코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시를 써준 윤동주 시인님께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도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주신 분께도 곡을 만들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와 같이 시인과 독립지사, 나아가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도 넘쳐난다. “이런 예능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단순히 재미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해준 예능이었음.”라는 평가나 “우리는 무조건 외우기만 하는 수업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수업을 받고 싶습니다.”와 같은 바람에서 교육적 효과도 찾아볼 수 있다.

종이책 시집 읽기에서 온라인 시 읽기로의 변화는 텍스트가 영상, 사운드와 결합하는 다매체적 읽기라는 기술적 차이 외에도 문학 독자 고유의 고독한 시 읽기로부터 함께 나누는 독서의 열린 활동성을 요청한다. 시와 음악, 작가와 독자, 가수와 청중, 그리고 역사와 현재가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유튜브 매체가 시 읽기를 어떻게 바꾸는지 윤동주를 사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언택트 시대에 육체적 위치와 물리적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시의 영혼은 경계를 넘는다.

2. 윤동주에 대한 모든 지식

이 장에서는 유튜브의 윤동주 소개 콘텐츠, 강연, 동영상을 살펴본다. 33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채널 ‘세상의 모든 지식’의 「인물백과사전」 윤동주 시인의 인생」은 구글을 비롯한 검색 사이트와 유튜브 첫 페이지에 등장해 5만 4천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윤동주의 생애를 내레이션과 애니메이션을 동원해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연희전문학교, 윤동주의 서시 순으로 정리했고, ‘서시’에는 직접 노래와 작곡을 맡

은 정진채의 음원을 사용했다. 전달하는 정보의 분량이나 수준이 윤동주에 대한 ‘모든’ 지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13분 5초 분량의 인터넷 콘텐츠로 개발되어 모바일 세대의 취향대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철 타고 이동하는 짧은 시간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만들었다. 사용자들의 반응은 172개에 달하는 댓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윤동주 시 강의로는 정재찬 교수의 강연 동영상들이 유튜브에 다수 올라와 있다. 그중 「[차클 마스터클래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던 청년 윤동주...」(jtbc insight)가 검색 순위 상위에 있다. 래퍼 비와이의 독립운동가 헌정곡 <나의 땅> 도입부에 이어 정재찬 교수(한양대 국어교육과)가 등장한다. 이어서 팬텀싱어3 포송포송 4명의 멤버가 윤동주 시에 곡을 붙인 <무서운 시간>을 불러준다. ‘시를 노래로 듣는 색다른 감동’이라는 자막처럼 시가 다시 노래와 결합한다. ‘길’ 찾기로 시작된 본격적인 강의에서는 영화 <동주>의 낭송 장면을 배경으로 시 「자화상」을 통해 ‘윤동주가 본 윤동주’를 설명해준다. 같은 제목의 노래를 작곡했던 비와이의 경험을 비롯해 방청 패널들과의 대화식 강의를 이어진다. 한편 남들이 바라본 윤동주는 어떤 모습인지 후배 정병욱의 묘사를 소개한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했던 사람이 윤동주였다. 창씨개명과 조선어 말살 상황에서 일본어로 시를 쓸까 절필할까 선택해야 했던 윤동주에게 긴 침묵의 기간이 지나고 마침내 탄생한 「별 헤는 밤」 낭송이 이어진다. ‘폭망’, ‘갑툭튀’와 같은 젊은이들에게 익숙한 언어로 청중을 사로잡는 시 해설에서는 ‘우리 이름은 우리 부모님이 붙이신 한 편의 시’라면서 가장 아름다운 시, 그 이름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으로 창씨개명의 상황을 설명한다. 중간중간 청중들의 감상도 물어본다. 「참회록」, 「쉽게 씌어진 시」 해설과 유고시집 출간 배경 설명에 이어 시만 해도 훌륭한데 삶까지도 바친 시인이라는 마지막 멘트와 함께 강의는 끝이 난다. 일방적인 교실 시 강의를 넘어 윤동주 독서모임 현장중계와 같은 방송 진행으로 열린 교육의 현장이 된다.

그러나 또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점도 없지 않다. 방송 시간의 제한으로 소개되는 작품이 몇 작품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 편의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지적이 아니라 여러 방송에서 반복되는 윤동주 프로그램에서 늘 비슷비슷한 시만 언급되고 있다. 시청자 독자들은 시집 전체를 읽고 거기서 감동받은 자기만의 시를 찾아내기보다는 추천받은 시를 설명 듣는 방식으로만 윤동주를 이해하게 된다. 때로는 영상 속 권위자의 친절할 설명이 독자의 주체적인 해석을 억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몇몇 프로그램에서처럼 작품 「병원」을 ‘병든 조선’으로만 해석한다면, 「님의 침묵」의 ‘님’을 ‘조국’으로만 한정하는 것과 같다. 종이책이, 당연히 시집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대중적인 방송프로그램들이 윤동주를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읽다’와 ‘읽어주다’가 다르듯 시 ‘읽기’가 아닌 시 ‘읽어주기’가 수동적인 ‘듣기’가 되면 곤란하다. 독자들은 시 해설서보다는 시집부터 찾아 읽어야 한다.

한편 여러 프로그램에서 시인 설명이나 작품 낭송 중 배경 화면으로 배우 강하늘이 출연한 영화 <동주>의 장면을 배경에 깔고 있다. 윤동주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독자들에게는 시를 낭송해주는 배우의 목소리가 더 익숙하다. 반복적으로 주입되는 이러한 영화의 줄거리나 영상의 이미지들은 독자들에게 윤동주에 대한 일종의 집단기억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 기억의 내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모두 똑같은 기억을 갖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 어느 노래 가사처럼 네모난 세상에서 ‘네모’라는 도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모와 세모, 동그라미가 함께 꿈꾸는 세상만들기가 문제이듯이. 윤동주를 직접 만나 지인들은 윤동주의 성품에 대해 한결같이 비슷한 증언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조금은 다른 의미로 유튜브에서 윤동주를 만난 이들 또한 결국 윤동주는 이런 사람이라고 똑같은 기억을 품게 되는 것은 아닐까. 유사한 콘텐츠들이 선별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제공될 때 검색은 주체적인 행위가 되지 못하고, 수동적인 독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윤동주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들은 윤동

주를 어떻게 기억하고, 기억하게 만들고 있을까.

유튜브에서 검색한 윤동주 TV 다큐멘터리¹⁰⁾ 중 조회 수 1, 2위는 <특집 다큐-잊지 못할 윤동주>(여수MBC, 2013)와 <MBC 스페셜 : 가을, 윤동주 생각>(MBC, 2011)이다. <특집 다큐-잊지 못할 윤동주>는 조회 수 15만 회의 풀버전(46분 30초) 외에도 짧은 콘텐츠를 선호하는 네티즌에 맞춘 요약본(9분 6초)과 1부(12분 1초), 2부(16분 55초), 3부(17분 38초)로 자른 콘텐츠도 별도로 업로드되어 있고, 삽입곡인 가수 김현성의 노래 <서시>(2분 8초), <자화상>(1분 50초), <참회록>(56초), <별 헤는 밤>(2분 4초) 및 <쉽게 씌어진 시>(48초) 낭독도 찾아 들을 수 있다. 다큐의 내용은 윤동주의 19편의 시가 담긴 필사본 『하늘과 바람과 시』 3부 중 한 권을 후배 정병욱에 맡겨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게 된 이야기이다. 일본 유학을 떠나는 윤동주가 맡긴 이 원고는 학병으로 끌려가게 된 정병욱이 섬진강 하구 망덕포구 고향집 주조장 마루 바닥 밑에 항아리에 담아 숨겼다. 덕분에 윤동주 사후 3년이 지난 1948년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발간될 수 있었다. 윤동주 시집의 ‘흰 그림자’에서 따온 백영(白影)이란 호처럼 윤동주의 그림자를 자처한 정병욱 교수는 자신이 평생 한 일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동주의 시를 보관했다가 세상에 알린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전라도 광양에는 정병욱 가옥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윤동주를 기념하고 있다. 두 사람의 우정뿐만 아니라 다큐에서는 연변 명동춘 윤동주 생가와 시인 윤동주의 묘지를 비롯해 일본 도쿄 릿쿄대학의 윤동주 모임, 교토의 윤동주 시비 등 사적지를 소개하면서 국내외 독자들의 ‘잊지 못할 윤동주’의 기억을 보여주고 있다. 183개에 달하는 유튜브 댓글을 보면 “힘든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시를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동주 시인님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가 얼마나 힘들게 나왔는지는 알게 되었고 또 시집을 끝까지 지

10) 윤동주 다큐멘터리의 사적 전개와 문제점은 앞에 인용한 김명석, 「TV 다큐·예능 속의 윤동주」(174-189쪽)에서 상세히 다루었음.

켜 세상에 내어주신 정병욱, 강처중 두 분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시기에도 계속 시를 써 주신 윤동주 시인의 위대함과 감사함이 느껴지는 영상이었다.”와 같은 네티즌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윤동주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기억이란 기억하고자 하는 주체와 기억되는 대상 사이에 수행되는 문화적 실천인 동시에 그 실천의 결과로 재구성된다. 현대 사회에서 영상은 기억 (재)구성 과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기억 자체를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이자 방법으로 본다. 기억이 영상을 통해 (재)구성되는 과정과 결과에는 필히 당대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기억의 대상을 불러내는 것은 오직 개인의 몫이 아니며, 개인의 사적 기억도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 따라 선택, 배제의 선별과정을 거치기에 어느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집단기억이 중요하다.¹¹⁾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또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일본과 한국의 독자 사이에서 윤동주가 기억되는 방식을 비교해 보자.

<MBC 스페셜 : 가을 윤동주 생각>은 한국 유학생 출신 기시 카나코가 윤동주의 일본 행적을 추적하는 내용과 일본의 윤동주 독자들 이야기이다. 도쿄, 교토, 후쿠오카로 이어지는 윤동주의 행로를 따라가면서 일본 교과서에 윤동주를 소개한 시인 이바라키 노리코, 윤동주의 무덤을 최초로 발견한 오오무라 마쓰오 교수, 윤동주를 기념하는 텃밭모임 대표 야나기하라, 후쿠오카 윤동주의 시를 읽는 모임 대표 마나기 미키코 등의 독자를 만난다. 이들의 공통점은 시를 통해 만난 윤동주의 삶과 죽음 앞에 일본인으로서 눈물로 미안함을 표하는 태도이다. 특히 윤동주 생전 마지막 사진을 찍은 교토 우지강 다리 곁에 기억과 화해의 시비를 세우는 과정을 취재하고, 저항시로만 알려진 윤동주 시에 국경을 넘은 사랑이 담겨 있다는 인터뷰를 삽입했다. 다큐에 소개된 일본인 애독자들은

11) 강승묵, 『문화 보기 영상 읽기』, 한울, 2018, 212-214쪽.

운동주를 통해 자신들의 전쟁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고 운동주에게서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다. 이 프로는 운동주를 한국의 민족시인을 넘어 평화라는 인류 모두의 숙제를 일깨워주는 상징적 존재로 승화시키는 일본 독자들의 시각을 전달한다. 2000년 후반부터 운동주 다큐멘터리가 생애 소개와 사망의 의혹으로부터 한일 화해와 인류 평화로 방향 전환하면서 민족시인 운동주의 저항 이미지도 평화의 이미지로 바뀌어간다. 국정교과서와 획일적 학교 수업에서 형성된 민족시인으로서 일방적 이미지 전달보다는 국적에 상관없이 독자가 직접 운동주의 작품으로부터 어떤 이미지로 시인을 불러내는가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한편 위에 소개한 운동주 콘텐츠 중 다수가 원래는 TV 프로그램에서 제작된 점도 주목해야 한다. 심야 교양 프로나 다큐멘터리 시청률을 고려할 때 시청자들이 본 방송보다는 다시 보기를 이용할 확률이 높다. 또 유료 미디어 서비스보다는 접근성이 높고 무료인 유튜브를 선호할 것은 당연하다. 사용자들은 자신이 놓친 TV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서비스에 모여든다. TV 시청 시간은 줄어드는데 유튜브로 옮겨온 TV 콘텐츠는 늘어나고 있다. 자사 프로그램의 영상 클립을 업로드하는 방송사들이 늘어남에 따라 플랫폼 내 TV 콘텐츠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TV에 방송이 나간 후 몇 시간 안에, 심지어 몇 분 안에 새로운 영상을 올린다. 방송사가 TV 콘텐츠를 온라인에 무료로 배포하는 이유는 시청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에서 TV 프로그램을 시청한 사람들이 실물 TV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할 확률이 높아지며, 국제적 플랫폼인 유튜브가 해외 시장 판권 수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¹²⁾ 그러나 제작자나 보급자의 의도와 달리 시청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할 때 스마트폰을 통해 시청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간다는 것이다. 누가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어디서 볼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운동

12) 로버트 칸슬·마니 페이반, 신술잎 역, 『유튜브 레볼루션』, 길벗, 2018, 339-340쪽.

주 콘텐츠를 만든 곳이 대형 방송사인지 1인 미디어의 크리에이터인지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거 시집 ‘독자’들은 이제 유튜브의 ‘구독자’로 운동주를 만난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유튜브가 영상을 찾아보고, 구독과 댓글을 다는 곳만이 아니라 영상 콘텐츠 전문 플랫폼으로서 모두가 생산자,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단순히 편집된 영상만이 아니라 생방송 형식의 라이브 스트리밍까지 가능해졌다.¹³⁾ 유튜브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곳이 아니고, 수용자와 생산자의 경계를 넘어서는 미디어가 된다. 이 점에서 현재 운동주 콘텐츠의 한계는 방송사가 제작한 수준 높은 전문 콘텐츠가 아닌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가 충분치 않으며, 운동주문학제를 비롯한, 기념행사나 공연 프로그램의 라이브 스트리밍도 시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¹⁴⁾ 백석 시를 읽은 독자 운동주가 시인이 되고, 동주의 시를 읽은 누군가가 시인이 되듯이 독자에게 작가로 경계 넘기는 문학의 생명을 이어왔다. 유튜브가 성공한 것은 동영상을 무료로 다운받는 곳만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유튜브의 운동주 구독자가 크리에이터가 되어 동주에게 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길 기대한다.

3. 운동주와 노래하다¹⁵⁾

유튜브에서 ‘운동주’를 검색하면 자동완성기능을 통해 등장하는 검색어 중 하나가 ‘운동주 서시’와 ‘운동주, 달을 쏘다’이다. 뮤지컬 <운동주, 달을 쏘다>를 극장에 가지 않고 유튜브에서 감상할 수 있다. 저작권 때

13) 대중문화연구회, 앞의 책, 6쪽.

14) <운동주창작음악제> 수상곡들은 행사 후에 업로드되었다. 운동주문학제를 주최하는 종로문화재단은 최근 <청운동, 문학산책> 프로그램을 유튜브,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으로 실시간 진행하기 시작했다.

15) 김명석, 「동규와 몽규, 부끄러운 청년들의 시-<동주>, <운동주, 달을 쏘다>를 중심으로」(『우리문학연구』 60, 2018.10, 52-61쪽)의 내용을 보완하였음.

문에 전체 공연을 한 번에 볼 수는 없지만, 검색 첫 화면에 가장 먼저 나오는 13분 짜리 ‘2019 공연 하이라이트’ 영상과 주인공 박영수의 <달을 쏘다>, 중창 <시를 쓴다는 것>, 시낭송 <별 헤는 밤> 등을 들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조회 수가 많은 곡은 5년간 18만 회에 달하는 ‘달을 쏘다’이다. ‘하늘’과 ‘바람’과 ‘별’의 이미지에 익숙한 독자들 앞에 다소 생소하게 들리는 ‘달’이라는 시어는 사실 윤동주 작품 10편에 등장하는 데, 그중에서도 「달을 쏘다」라는 산문에만 5번이나 반복된다. ‘달’을 모티브로 한 <윤동주, 달을 쏘다>는 2012년 서울예술단에서 처음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올린 이래 2017년까지 거의 매해 무대에 올려진 창작 뮤지컬이다. 가장 높은 곳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달’은 내면까지 들여다보는 감시의 시선이요, 스스로 갇힌 자의 자기검열이기도 하다. 자아를 감시하는 그 무엇·도덕이나 규율·을 깨부수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다. 동주는 무사가 되어 화살을 쏜다. 너는 총을 쏘라, 나는 시의 화살을 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거울처럼 둥글고, 우물처럼 자신을 비출 수 있는 달은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기도 하다. 친근해서 화도 내고 때려보기도 하는 그런 친구 같은 달이 어느 가을밤 동주의 곁을 스치울 때 이 작품은 산문으로 쓴 ‘자화상’이 된다. <윤동주, 달을 쏘다>에서도 무대 위의 달이 무대를 내려다보고 있다. 달 아래에서 부르는 동주의 자화상이다.

<윤동주, 달을 쏘다> 뮤지컬 넘버의 공통점이 있다면 어느 한 곡도 윤동주의 시를 그대로 가사로 삼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 자체가 노래이기에 거기에 또 곡을 붙이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대신 「팔복」, 「십자가」, 「서시」, 「별 헤는 밤」 등 8편의 시를 배우들이 낭송한다. 뮤지컬 1부는 1943년 취조실에서 시작해 연희전문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1942년 독일 시점까지 이어진다. 2부에서는 다시 취조실로 돌아가 사망까지 이르는 과정을 다룬다. 영화 <동주>와 시간 구조가 유사하지만 간도 유소년기는 생략하고 있다. 두 작품의 인물 구조도 유사해 동주와 절친 송몽규, 강처중, 정병욱 세 실존인물이 한 축을 이루고, 한편으로는 가상 인물로 동주의

여자 이선헌이 등장한다. 그들 사이 존재하는 공통점은 모두가 동주의 독자들이라는 점이다. 동주의 세 친구는 항상 동주의 시를 미리 읽어보는 첫 번째 독자들이다. 사촌이자 친구 송몽규는 두말할 것 없이 소학교 시절부터 문집을 만들며 서로 작품을 바꿔 읽던 동주의의 가장 오랜 독자로 누구보다도 동주의의 재능을 아끼고, 신춘문예도 통과한 문학도로서의 수준을 갖춘 동주의의 애독자이다. 강처중은 동주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유고집 발간에 앞장 선 애독자이다. 「쉽게 씌어진 시」를 비롯해 윤동주 시집에 실린 일본에서 쓴 시들은 강처중에게 릿교대 편지지에 적어 보낸 것이다. 윤동주 시집 초간본 발문을 쓴 강처중은 동주가 친구들에게 굳이 거부하는 일 중 하나로 “東柱 자네 詩 여기를 고치면 어떤가”하면 절대 응하지 않고 조용히 열흘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곰곰이 생각하여 시를 탄생시킬 때까지는 누구에게도 그 시를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¹⁶⁾ 수정하라는 조언에 응하지 않았어도 초고를 보여준 친구들이 있다는 증거다. 친구들이야말로 완성 전에 초고를 읽어볼 수 있는 애독자, 즉 동주의 최초의 독자들이다. 또 한 명의 애독자인 나이 어린 후배 정병욱이야말로 동주가 자필로 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세 부 중 세상에 전해진 단 한 권을 보관해 「서시」와 「별 헤는 밤」과 같은 윤동주의 시 19편을 읽게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대 교수로 국정교과서 편집에 관여해 윤동주의 시를 전국민이 배우게 만들었다. 박영수, 김도빈, 김용한이 부른 유튜브 조회수 18,000회의 <시를 쓴다는 것>은 친구들과 동주가 함께 부르는 합창으로 동주의 문학관을 표현해준다. 이 노래는 시라는 장르를 정의하기보다는 시 쓰기 행위의 의미를 묻는다. 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세 번에 걸쳐 나누어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반복해 던진다. ‘나에게’ 시쓰기란 일종의 자아성찰 행위이며, ‘너에게’라는 질문을 통해 ‘나’와 ‘너’ 간의 타자와의 소통 행위로서 확장된다. 나아가 ‘우리에게’라는 질문에서는 문학을 넘어 공동체에서 시가 갖는 힘,

16)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정음사, 1948, 70쪽.

제 나라 말과 글을 빼앗긴 민족에게 시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그러나 이 노래에는 질문만 있고 정답은 없다. 그 답을 얻기 위한 대가로 청춘을 바꾼 청년들이 동주와 그 친구들이다. 이들의 합창은 단순히 윤동주 개인의 문학적 견해가 아니라 그 시대 문학청년들이 뼈아프게 배워가는 공동의 과제이지만, 지금 이 시대의 문학도들에게도 여전히 같은 질문이 계속될 것이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답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잘 하는 사람이라는 서양 속담처럼 ‘시는 무엇이다’라는 정의 대신에 이 노래는 ‘시는 무엇인가’란 영원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더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극장을 나선 관객들은 유튜브 동영상을 클릭하며 같은 질문을 반복할 것이다.

4. 언택트 시대의 랜선 문학기행

문학을 즐기는 또 하나의 길은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문학 현장을 방문하는 방법이다. 작품의 배경지, 작가의 출생지나 묘지, 그리고 기념관이나 문학관을 방문하는 것은 작가와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잠시 일상을 벗어난 시공간으로 여행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방문이 제한되고, 문학 행사와 답사도 축소되었다. 언택트 시대에 여행을 좋아하는 네티즌들에게 랜선 여행이란 기획이 탄생했듯이 랜선으로 떠나는 문학기행을 제안해 본다. 유튜브에 접속하면 다양한 문학기행 콘텐츠와 문학관 소개 영상을 만날 수 있다. 검색어로 ‘윤동주 문학관’을 입력하면 「윤동주 문학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TBS 수다북)」, 「[역사탐방] 문화유산 답사기-윤동주 문학관, 시인의 언덕(예다움 패밀리)」 등이 나온다. 최다 조회수 동영상으로 「부암동에서 꼭 가 봐야 할 뚜벅이 코스, 따뜻했던 하루 일상 브이로그」가 31,000 회를 기록했고, 역시 3만 회를 기록한 「가을아 가지마, 윤동주 문학관 찾은 방탄소년단 ‘리더 RM’」(심이슈TV)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유튜버의 브이로그와 유튜브 채널에서 제작한 3분~6분 정도의 짧은 동영상들이 네티즌들의 취향에 맞는 것이다.

언택트 시대에는 축제들도 장소를 바꿔 온라인에서 개최되고 있다. 매년 문학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던 문학제는 중지되지 않았다.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The show must go on)”는 말처럼 축제는 중지될 수 없다. 2021년 윤동주문학제는 늘 열리던 대로 윤동주문학관과 윤동주 시인의 언덕에서 개최되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관객들의 참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유튜브 세계에서 윤동주 시 독자들은 문학제에 참가할 수 있다. 이번에는 검색어를 ‘윤동주문학제’로 바꿔 입력하면 종로문화재단에서 올린 행사소개 영상들과 ‘윤동주문학제 축하 공연’ 동영상처럼 행사 참여자들이 올린 동영상들이 나온다. 문학제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제7회 윤동주 창작음악제”와 “제8회 전국 청소년 윤동주 시화 공모전” 일부를 유튜브에서 볼 감상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작품을 볼 수 없고, 실시간으로 중계하지 않기에 사실상 관객들의 행사 참여라고 보기 어렵다. 윤동주 시 원고지 필사 등 축제 현장에서 이뤄진 관객 참여 행사도 짧게 소개하고 있지만, 현장감 있게 느끼기 위해서는 실제 참여에 소요되는 시간과 공간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장에서 살펴볼 온라인 문학기행은 이 점에서 언택트 시대 문학 독자 행사의 대안으로 주목할 만하다. 「길 위의 인문학-교보인문기행 :윤동주와 서울을 걷다 별이 된 시인 윤동주」는 한양대 국문과 유성호 교수가 진행한다. 동행하는 전승민 평론가는 독자를 대신해서 함께 걸으며 시인 이야기를 들어주고, 작품을 읽고,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시인 윤동주의 발자취를 따라 대학 시절을 거쳤던 중요한 장소들을 거치면서 그분의 젊은 날, 우리의 험난했던 역사, 사람들의 기억을 통해 전승되는 윤동주의 빛과 힘을 만나보자면서 출발한다. 이 문학기행은 신촌 연세대 교정에서 서촌 윤동주 하숙집터와 윤동주문학관까지 1938년부터 1941년까지 윤동주가 공부하고 살았던 공간들을 통한 시간여행이다.

“제1편 - 윤동주, 식민지 수도 경성에서 고향을 찾다”는 연세대 교정에서 촬영했다. 윤동주가 연희전문에 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며 윤동주 시비 앞으로 간다. 시비에는 유명한 서시가 적혀있다. 1941년 윤동주 친필로 쓴 학창 시절의 마지막 작품이 서시가 되었다. 뒤에 있는 건물이 당시 기숙사였던 핀슨홀이다. 연희전문에 입학한 동주는 사촌 송몽규, 동기 강처중과 한 방을 썼다. 2학년 때 기숙사를 나와 잠시 하숙을 하던 동주는 3학년 때 다시 기숙사에 입사해 2년 후배 정병욱과 인연을 맺는다. 기숙사는 이렇게 만남의 장이었다. 윤동주의 사후 동생 윤일주와 정병욱의 동생 정덕희 여사가 결혼해서 두 집안이 사돈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문학 기행이 딱딱한 문학 강의가 아니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산책임을 보여준다. 그 길에서 신입생 윤동주가 쓴 두 편의 시, 즉 대학생으로서의 낭만적 기대, 각오와 희망이 담긴 「새로운 길」과 이와 상반된 느낌을 주는 「슬픈 족속」을 낭독해준다. 민족이란 말 대신 지금은 잘 쓰지 않는 ‘족속’이라 말이 주는 한편으론 정겨운 느낌 속에 두 시를 병치해서 읽으면 자신의 가능성과 현실의 얼룩 사이에 서 있던 1학년 때의 윤동주가 보이는 듯하다. “문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라는 구절을 풀이하면서, 식물, 동물, 사람, 자연현상이 자신의 길을 축복해 주는데, 특히 여기 나오는 ‘바람’의 밝은 이미지가 마지막에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 괴로워했던 바람으로 변화하는 것에 주목한다. 한편 윤동주에게 고향이란 무엇일까. 유교수는 「또다른 고향」 해석을 통해 2중의 실향민 의식을 설명한다. 몇 년 전부터 중국에서는 윤동주 생가에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 윤동주 고거”란 대형 비석을 세우고 윤동주를 중국 조선족 시인이라 부른다. 그러나 조선족이란 명명은 윤동주 사후 마오쩌둥 정부에서 붙인 것이고, 동주는 살아생전에 한 번도 조선족이란 생각 안 했다. 그의 시 「별 헤는 밤」에 나오는 ‘패, 경, 옥’이란 이름을 ‘이국’ 소녀로 부른 것이나,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는 시구는 중국도 일본은 타국으로 인식하고 오직 자신을 조선인으로 생각

한 점을 알 수 있다.”

“제2편 - 청년 윤동주, 시인으로 피어나다”에서는 윤동주가 수업을 들었던 본관 건물 앞에서 대화를 이어간다. 다른 과목보다 조선어 성적이 뛰어났던 윤동주에게 외솔 최현배와의 만남은 조선어에 대한 자각을 줬을 뿐만 아니라 외솔이 창립한 정음사에서의 유고시집 출판으로 이어지는 깊은 인연이 된다. 학년 별로 윤동주의 학창 시절과 작품을 소개하면서 여기서는 2학년 때 쓴 「자화상」, 「소년」, 3학년 때 쓴 「병원」이란 시를 소개해 준다. 그 무렵 후배 정병욱과의 만남을 통해 그에게 전해진 졸업 기념 자필 원고 19편이 유고시집으로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나 일본 유학을 떠나기 전 창씨 과정에 관련된 사실을 소개하며 「참회록」을 낭독해준다. 동영상을 보는 동안 이렇게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윤동주 시를 보고 배우게 된다. 4학년 때 윤동주는 정병욱과 함께 종로구 서촌의 김송 선생 자택에서의 3개월간의 하숙 생활을 하게 된다. 장소를 옮겨 윤동주가 아침에 찾아가 세수를 하고 산책을 하던 수성동 계곡을 배경으로 당시 사정을 전해준다. 그리고 계곡을 비추며 「산골물」이란 동시도 남긴 동주에게 물의 소리란 자연의 소리이자 신의 소리이며, 그 소리를 듣고 우주적인 시인으로 완성되어 가는 곳, 윤동주 시의 클라이막스가 이루어진 곳이 그곳이라고 소개한다. 물소리가 깊어가면서, 보다 심도 깊은 문화적 대화가 이어진다. 1941년 잡지 문장 4월호에 실린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를 읽은 윤동주가 7개월 후 「별 헤는 밤」을 쓰게 되는 과정과 두 작품의 비교를 통해 만주의 백석과 종로의 윤동주, 두 시인들 간의 영향 관계와 백석에 대한 윤동주의 오마주로서 「별 헤는 밤」을 다시 읽어준다. 1955년 여동생 윤혜원이 월남하면서 들고 온 창작 노트 2권에 실린 10주기 기념 시집 재판에 수록된 93편과 이후 발굴한 작품을 포함한 윤동주의 시 총 123편과 산문 4편을 지켜낸 것은 누구일까. 일제하에서 어렵게 작품을 보관했던 정병욱과 시집 출간에 앞장선 강처중 같은 친구들은 윤동주라는 주체를 만들어 낸 조연들이며, 그들의 집단 기

억이 윤동주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유교수는 결론짓는다. “제3편 미완의 삶, 윤동주 하늘의 별이 되다”은 윤동주 문학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우물 이야기에서 시작한다. 간도의 윤동주 생가에서 직접 가져온 목재를 조립한 우물이다. 윤동주 시에서 우물은 거울과 함께 하나의 자아성찰의 도구이다. 「자화상」을 보면 우물에는 추억처럼 한 사나이가 있고, 시인은 그를 혐오하다가 가엽게 여기다가 다시 혐오하고 끝내는 그리워 하지만 결코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문학관 제2전시실은 ‘열린 우물’, 제3전시실은 ‘닫힌 우물’이라고 명명되었듯이 이 문학관 자체가 우물의 상상력으로 기획되어 있다. 동행한 평론가가 우물 안에 있는 솔직한 느낌으로 윤동주 시세계를 온몸으로 체험했다는 충격과 감동을 전해준다. 두 사람은 이제 윤동주 시인의 언덕으로 향하며, 독자들의 시선도 그 뒤를 쫓는다. 동경에서 강처중에게 써 보낸 마지막 시 「봄」을 쓴 시점까지 포함하면 고작 24년 5개월 시인으로 산 윤동주가 20대 후반까지라도 작품을 쓸 수 있었다면 또 어떤 작품을 남겼을까. 불행했지만 불멸이 된 시인 윤동주의 시 세계는 미완이면서 완성이란 역설을 보여준다. 유교수는 민족시인, 아니 민족시인을 넘어선 우주적 시인으로 윤동주라는 브랜드를 재해석하며, 시인의 언덕에 우뚝 선 시비 앞에서 마지막으로 서시를 읽는다. ‘서시’는 사실 시 제목이 아니다. 제목이 없는 시, 시집의 서문으로 뒤늦게 붙여진 시는 이 문학 기행 시리즈에서도 마지막에 읽어보는 시가 되었다. 이 길을 처음 걸으면서 받은 느낌은 어떨까. 동행자는 작품도 낭독하고 장소를 느껴보면서 받은 감동을, 유교수는 익숙한 공간을 내러티브로 엮어서 안내하면서 떠오른 생각들을 들려준다. 또 동주를 민족주의자로 소비하는 동안에는 항상 반대편에 일본이란 타자가 있어야 존재했으나, 이제 그 저항을 품고 넘어서 동주의 시세계를 우주적 상상력, 인류의 평화, 제도과 역사를 넘어서는 가능성의 시인으로 읽자는 바람을 전하며 동주를 우리의 기억 속에 불멸로 만들자고 제안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문학 기행 콘텐츠는 그러나 한계도 없지 않다. 무척 유익하고 수준 높은 문학 기행임에도 불구하고 상호소통적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남는다. 코로나 이후 유행하는 랜선 기행 방식으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고, 정제된 동영상보다는 시청자들이 직접 고개를 돌려보는 듯 카메라 방향을 이동, 회전시키면서 생동감 있는 장면으로 현장에 있는 듯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동시에 실시간 소통으로 안내자에게 궁금한 이야기를 묻기도 하고,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어느 쪽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또 채팅창을 통해 참여자들이 소감을 공유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네티즌의 취향에 맞춘 재미있는 랜선 문학 기행을 한 편 비교해 보자. 「지은쌤의 랜선 문학기행(서촌:별해는 시인 윤동주)」(지은쌤 TV)은 도입부부터 앞에 살펴본 콘텐츠들과는 매우 다르게 출발한다. 2020년 12월 31일에 업로드 된 5분 22초짜리 랜선 문학기행은 유튜브들의 취향을 잘 보여준다. 지하철 내부에서 시작된 첫 출발에서 지은쌤은 자막으로 인사를 나누면서 어제보다 초췌해 보이는 것은 전날 밤새 프렌즈팝을 했기 때문이라는 자막과 함께 프렌즈팝 게임 화면을 겹쳐 띄워준다. 선생님은 16시 이후에 커피를 마시면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게임을 하며 아침 해를 맞이한다는 문학기행과는 아무 상관 없는 자막이 오히려 친근한 느낌을 전해준다. 지하철에서 내려 흔들리는 카메라를 쫓아 2호선 시청역 계단을 오르는 동안 실제로 따라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랜선 기행의 특징이다. 패키지 여행 가이드를 따라 낯선 여행지를 방문하듯이 한 걸음 한걸음 화면만 보며 뒤따라가면 오늘의 목적지인 서촌으로 가는 길이 친절하게 소개된다. 시청역 8번 출구로 올라와 서울의 중심, 시청을 한번 쳐다보고, 8번 출구 앞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종로 09번을 ‘애타게’ 기다려봅시다라는 자막이 이어진다. 초행자처럼 두리번거리다 흔들리는 카메라의 시선은 실시간이 아니더라도 같이 걷는 듯한 효과를 최대한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앉아 멍때리고(?) 있는 듯한 지은쌤의 표정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처럼 셀카에 고스란히 전해진다. 차창 밖으로 전개되는 코로나로 텅 빈 거리와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보도하는 TV 방송 사운드를 결합해서 쓸쓸한 서울 거리와 시대적 분위기도 보여준다. 아직까지 선생님이 운동주를 가르치려는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박노수미술관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어 도착한 운동주 하숙집 문 앞에서 간도 지도, 연희전문학교 본관 사진, 태평양전쟁과 일장기 사진을 이어가면서 밑에는 자막으로 시인의 생애를 아주 짧게 요약해준다. 그리고 그 동네에 살던 때와 비슷한 시기에 쓴 「무서운 시간」(1941)이란 작품을 올려준다. 그런데 모든 설명은 자막으로 이루어질 뿐 지은쌤의 목소리는 들어볼 수 없다. 육성으로 하는 긴 설명 대신 짧은 자막에 문학기행의 느낌을 담아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숙집을 나와 인왕산 중턱을 지난 문학관으로 향하는 길에 계곡이 보이고, 기행 시점이 12월이라 “선생님의 체력처럼 다 얼어버리긴 했지만...” 매일 아침 이 수성동 계곡에서 세수를 하고 연희전문학교까지 등교했다는 자막이 나온다. 예쁜 풍경에 취해 걷는 동안 결국 길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복잡한 표지판을 비춰주며 “시간이 많으니 살살 걸어 올라 가볼까 합니다. / 낯선 길인데 두렵지 않냐구요? / 선생님은 도전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 어디 보자. 어디로 향하는 길인가 / ? / / 가끔은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랍니다.”라는 자막을 따라가다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게 된다. “저 스스로를 맹신한 결과입니다.”란 반성에 이어 “가끔은 지도를 보고, 다른 이들에게 길도 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가족들, 선생님의 잔소리에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라는 선생님다운 잔소리가 이어진다. 어쨌든 좁디 좁은 길을 헤매고 다니다 땀방울에 젖기도 하는 여정을 거쳐 흔들리는 카메라를 들고 뛰어가 7022번 버스를 타고 “쭈... 지치는군요...”라는 자막과 함께 간신히 문학관 앞에 도착하는 데만 전체 분량의 절반이 넘는 2분 51초가 소요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어 선생님의 현장수업이 아니다. 문학관이 운동주 시 「자화상」

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하니 꼭 읽어보라는 당부만 있을 뿐이다. 시 설명은 전혀 없다. 그 대신 다음 화면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반전이다. 문학관 창문에는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한 휴관 안내’가 떡하니 붙어 있고, “…… / 애써 답답한 척 해봅니다. / 마음을 다스리며 시인의 언덕을 올라가 볼까요?”란 자막이 이어진다. 젊은 세대의 새로운 언어관 습은 ‘……’로 감정 표현과 내면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 같다. 일반적 상식으로는 휴관 여부를 파악하고 방문을 했을 것이고, 만약 부득이한 상황에 부딪치면 다음에 재방문해서 콘텐츠를 완성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온라인 현장학습이 아니다. 그야말로 랜선 문학기행은 여행자의 실수를 감추지 않고 전달해야 여행이다. 언덕에서 문학관 외부만 내려다 보며 “다음에 꼭 와야지(부들부들)”이라는 허튼(?) 맹세를 끝으로 더이상 운동주문학관 속편은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운동주 시인의 언덕에서 이어지는 약 2분도 안되는 운동주 시인의 흔적 찾기 설명만 남기고 다시 서촌으로 내려간다. 통인시장에서 엽전을 환전해 유명한 기름떡볶이와 왕 싸고 왕 통통한 마들렌을 구입하고, 마침내 H베이커리 콘브레드까지 집어든 지은쌤의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먹방 편은 마무리된다. “빵이 뭐라고 이렇게 행복해 보이다니 / 숨길 수 없는 미소와 함께 오늘 문학 기행 끝! / 그리고 지은 국어도 끝”이라는 자막 위에는 우유잔과 콘브레드 두 개가 있다. 여타 방송사 프로그램 다시보기와는 전혀 다른 유튜브의 세계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지은쌤의 랜선 문학기행」을 시청한 구독자들에게 운동주는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까. 한 마디로 ‘기억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문학 기행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것은 꼭 ‘운동주’라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하는 것일까. 소설가 구보씨의 산책처럼 목적지가 아닌 과정 자체가 목적인 것이 문학 산책이다. 이럴 때는 그에게로 가는 ‘길’이 문제이지, ‘그’가 누구인가는 문제가 아니다.¹⁷⁾

17) 네티즌의 관심사가 ‘운동주’나 그의 작품이 아니면서 즐겨찾는 검색어로 ‘운동주

Ⅲ. 맺음말 - ‘쉽게 쥐어진 시’와 독자

독서교육의 권위자 톨로레스 더킨은 ‘읽기’를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읽기는 작가가 쓴 텍스트를 독자가 읽는 행위이자 텍스트를 두고 작가와 독자가 나누는 행위이다. ‘읽기’의 범위를 책으로 한정하지 않고 넓혀보면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해진다. 즉 ‘읽기’는 작가(콘텐츠 생산자)와 독자(콘텐츠 사용자)의 상호작용에서 이뤄지는 ‘의미 구성 과정’이 된다.¹⁸⁾ 이러한 의미 구성은 작가와 독자 개인의 방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독자와 독자들이 모인 사회적 광장에서 완성되고, 해체되고, 재구성된다. 그것은 보이는 광장만이 아니라 온라인 광장에서도 이루어진다. 그 광장 어딘가에 운동주가 있고, 그를 둘러싼 독자들이 있다.

온라인 운동주 읽기는 오프라인 읽기와 어떤 점이 다를까. 물론 온라인 시대에도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운동주를 만날 수 있다. 책꽂이에는 아끼는 운동주 시집이 꽂혀 있고, 종이책 교과서로 운동주를 공부하고, 영화나 뮤지컬을 보러 직접 극장에도 가고, 운동주 시비와 문학관 앞에서 사진도 찍는다. 그러나 적지 않은 독자들은 용돈 모아 서점에서 시집을 사보거나 대출증 들고 도서관까지 가는 일 없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읽는다. 무료로, 수고로운 발걸음 없이, 손에 ‘쉽게 쥐어진 시’는 여전히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모니터와 키보드 너머에 감동이 있을지 어떤 이들은 의심하였다. 밑줄을 그어가며 책장을 넘기는 쾌감과 질감이 사라질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은

ASMR*이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 흥미롭다. ASMR(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이란 ‘자율감각쾌락반응’이다. 심신의 안정을 추구하며 영상 속의 고요한 속삭임, 연필 필기, 부시력거리는 소리 등을 통해 릴렉스를 해주는 힐링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운동주의 작은책상 ASMR」(앤티크)은 운동주의 「서시」를 귓속말처럼 낭송하면서 시작하지만, 문학적 목적보다는 공부, 숙면에 도움 되는 펜소리 백색소음과 같은 ASMR 효과를 1시간 37분간 재생해준다. https://www.youtube.com/watch?v=ve_uozvh2k4

18) 이승화, 『미디어 읽고 쓰기』, 시간여행, 2021, 43-45쪽.

과연 없는가.

그러나 온라인 시 읽기의 핵심은 어쩌면 매체 문제가 아니라 소통 문제이다. 보다 손쉽게 시와 시인에 접근하고, 간략 정보에서 전문가의 강 의까지 다양한 수준의 정보와 지식을 인터넷이란 거대한 책의 그물망에서 건질 수 있다. 그리고 거기 시의 광장에는 함께 시를 읽는 독자들이 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이야기처럼 제각각 떠올리는 동주의 이미지는 다를지도 모른다. 사망 77주년이 지난 지금 윤동주를 만나본 독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윤동주의 친구 문익환 목사도 우리 곁에 없고, 102세 할아버지 김형석 교수를 제외하면 윤동주를 직접 본 사람들은 거의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대문을 보지 못하면 더 용감할 수 있듯이, 목청을 높여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다툼이 가능해졌다. 윤동주 시는 저항시다, 아니다 순수시다, 윤동주는 생체실험 주사로 죽었다, 그런 일 없다, 동주는 한국 시인이다, 아니다 중국 조선족이다. 코끼리 코만 만지고, 다리만 만지고, 등과 배를 만진 장님들이 대화를 통해 코끼리라는 퍼즐 맞추기에 성공할 수는 없을까 하는 바람으로 오늘 우리는 시의 광야에 고독히 서 있는 윤동주라는 코끼리를 찾아 나선다. 오래전 시를 노래하던 시대, 뒤이어 시를 눈으로 읽던 시대가 독서의 대상인 시와 시인의 시대였다면, 독서의 주체인 독자의 시대의 서막이 온라인 독서의 장에서 열린다. 이제 시를 배우고 토론하는 ‘아카고라’¹⁹⁾로서 독서의 열린 활동성²⁰⁾ 모색이 온라인 시대 시 읽기의 과제가 될 것이다.

19) ‘아카고라’는 ‘아카데미’와 ‘아고라’의 합성어로서 학문의 광장을 의미한다. 시를 포함한 독서의 장(場)과 독자의 소통을 강조하기 위해 가져온 개념이다.

20) 오길주, 「놀이와 독서교육의 열린 활동성에 관한 탐색」, 『독서아카고라연구』 2,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2020, 5쪽.

참고문헌

-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정음사, 1948.
- 강승묵, 『문화 보기 영상 읽기』, 한울, 2018.
- 김명석, 「TV 다큐·예능 속의 윤동주」, 『돈암어문학』 32, 돈암어문학회, 2017.12.
- 김명석, 「동규와 몽규, 부끄러운 청년들의 시-〈동주〉, 〈윤동주, 달을 쏘다〉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60, 우리문학회, 2018.10.
- 김성우·엄기호,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따비, 2020.
- 김응교, 「윤동주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2017년 3월 인터넷 사용자의 윤동주 인식」, 『시대의 폭력과 문학인의 길-2017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 자료집』, 대산문화재단·한국작가회의, 2017.4.17.
- 노가영, 『유튜브 온리』, 미래의 창, 2017.
- 대중문화연구회, 『유튜브와 K-콘텐츠 레볼루션』, 작은우주, 2019.
- 오길주, 「놀이와 독서교육의 열린 활동성에 관한 탐색」, 『독서아카고라연구』 2,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2020.
- 이승화, 『미디어 읽고 쓰기』, 시간여행, 2021.
- 로버트 칸슬·마니 페이반, 신솔잎 역, 『유튜브 레볼루션』, 길벗, 2018.
- 크리스 스토클-워커, 엄창호 역, 『유튜버들』, 미래의 창, 2020.

Reading Yun Dongju online —Focusing on Youtube contents—

Kim, Myung Seok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changes in poetry reading through reading Yun Dongju online. Starting with the keyword search, Yun Dongju, we looked at various contents uploaded on Youtube, and looked at a new path for the smartphone generation to visit Yun Dongju.

With the diversification of media, the subject of reading is changing. The center of poetry reading is also changing as it moves from reading paper books to reading smartphones through PC. Now is the time for cities and provinces to find and read on the Internet. This is a new path that I have never walked to funding. If you type “Yun Dongju” in the search box on Google, a representative search engine, the search results reach about 2.09 million. In the multimedia era, the text of poetry must also be combined with video and audio to exist online. Next, I chose Youtube as the route that provides various video contents that are easy to see. In the main topic, we first looked at “Infinite Challenge Special - Great Heritage Yun Dongju,” the first content to appear when searching on Youtube. Second, among the contents, lectures, and documentaries introduced by poet Yun Dongju that can be found on Youtube, the lecture video of Professor Jeong Jae-chan was analyzed. Third, among the songs related to Yun Dongju that can be heard on Youtube, the songs in the musical “Yun Dongju, Shoot the Moon,” which is loved the most by netizens, were analyzed one after another.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online Yun Dongju reading and offline reading? Search for and read Yun Dongju's poems on the Internet. It is doubtful whether it will be touching beyond the monitor and keyboard. However, the core of reading online poetry is not a media problem, but

a communication problem. There are readers who read poems together in the online poetry square. If the era of singing poetry and reading poetry with eyes were the era of poetry and poets, the prelude to the era of readers, the subject of reading, will be held in the field of online reading. Now, as an “Acagora” that learns and discusses poetry, the search for open activity of reading will be a task for reading poetry in the online era.

Keywords : Yun Dongju, Youtube, Night of Counting Stars, Literature Trip, Open Activity

투고일 : 2021. 09. 20. / 심사일 : 2021. 10. 07. / 심사완료일 : 2021. 10. 10.

온라인에서 논어 읽기

김연옥*

【 목 차 】

- I. 왜 논어읽기인가?
- II. 논어읽기 과정
 - 1. 수업계획하기
 - 2. 함께 읽고 나누기
 - 3. 교육과정과 연계 독서활동
- III. 논어읽기의 효과와 시사점

국문초록

2021년 6월부터 20회를 계획하여 매주 토요일 아침 두 시간 동안 논어를 한 편씩 읽고 나누는 시간, 코로나 팬데믹시대에 희망자를 모아 비대면 교육으로 계획하였다.

온라인 줌으로 하는 학습이기에 사는 곳 관계없이 희망자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어 8살부터 70대까지 35명이 함께 읽고 나눔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전농초 5학년 2반 24명 학생이 김성경 담임선생님과 교육과정 안에서 논어를 읽으며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교육과 연계하는 방안을 지원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첫째 3대가 함께 논어를 읽고 가족이 함께 공통의 대화를 나누고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둘째, 논어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논어를 생활화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 교과 과정을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온라인 논어읽기 수업에 나이, 공간을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앞으로 고전읽기를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경험을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다.

* 독서습관연구소 모두북 대표, yeon68@daum.net

핵심어 : 온라인, ZOOM, 논어읽기, 선비정신, 카카오톡단체방, 페들렛, 가족대화, 한학
기한권읽기, 3대가 함께

I. 왜 논어읽기인가?

어휘교육과 독서습관형성은 교육의 기본축이다. 의미를 품은 뜻글자, 한자어로 이루어진 우리말을 바르고 정확하게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어휘교육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놀이를 활용한 한자 한문교육, 사자소학, 명심보감 읽기를 지도해 왔다.

어릴 적부터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삶에 스미는 실천으로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인데 그러한 지침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건 바로 인문독서교육이다. 삶에서 품고 가야 할 중요한 가치, 조부모와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정신의 계승, 우리들의 정신유산은 무엇인가에 천착하며 10년간 석 박사논문으로 선비정신을 탐구하였다.

부모와 조부모와 함께 읽으며 삶을 나눌 수 있는 방안으로 논어읽기를 하기로 했다. 수 천년 동안 지침으로 삼고 있는 정신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 성현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며 매일 읽기습관을 몸에 익혀 자연스럽게 자리잡는 평생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한학기 한 권 읽기 독서교육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둔다.

도서관에서 논어읽기, 아빠와 딸이 나누는 논어읽기 사례를 보며¹⁾ 어른과 함께 읽으면 논어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으로 가족이 함께 논어읽기를 시도하였다.

1) 이아영, 『하루 20분 초등 고전읽기』, 비타북스, 2021.

II. 논어읽기 과정

1. 수업계획하기

2021년 6월부터 20회를 계획하여 매주 토요일 아침 두 시간 동안 논어를 한 편씩 읽고 나누는 시간으로, 코로나 팬데믹시대에 희망자를 모아 비대면 교육으로 계획하였다.

온라인 줌으로 하는 학습이기에 사는 곳 관계없이 희망자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어 8살부터 70대까지 35명이 함께 읽고 나눔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전농초 5학년 2반 24명 학생이 김성경 담임선생님과 교육과정 안에서 논어를 읽으며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교육과 연계하는 방안을 지원하였다.

수많은 논어학습 교재 중에서 읽기 편하고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전광진교수가 드라마로 엮은 우리말 속뜻 논어』로 선정하였다.

〈교재의 짜임〉

1 (오늘 따라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 대단히 기뻐서 목소리가 우렁차다.) 공자 배우며 때늦추어 복습하면 그 또한 기쁘지 아니하랴!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오면 그 또한 즐겁지 아니하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그 또한 군자가 아니랴! 2 > 《소승보다 13세 어린 제자 유자도 어느덧 일가를 이루어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친다. 이남떠라 목소리가 낭랑하게 이를 대 한다.》 유자 사람들이 효성스럽고 공경하면서도 윗사람에게 대드는 자는 드물다. 윗사람에게 대들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반란 일으키기 좋아하는 자는 어택못 열었다. 군자가 기본에 힘쓰는 것은 기본이 바르다 사야 나아갈 길이 생기기 때문이다. 효도와 우애는 인도를 실천하는 바탕이다.	1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2 有子曰: 其為人孝弟, 而好犯上者, 鮮矣; 不好犯上, 而好作亂者, 未之有也. 君子務本, 本立而道生.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 한글 공자: 배움과 때때로 복습하는 것은, 기쁘지 않겠는가! 친구들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즐겁지 않겠는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은, 군자의 소양이겠는가! 유자: 그 사람이 효도하고 공경하면서도 윗사람을 잘 대하는 자는, 드물다. 윗사람을 잘 대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자는, 아직 없다. 군자는 근본을 다스린다. 근본이 다스려지면 도가 생긴다. 효도와 우애는, 인도의 근본이겠는가!
--	--

2500년 전 공자와 제자의 대화록인 논어 20편 498장을 드라마 대본으로 구성하고, 주석 없이 본문만 실어, 부담 없는 분량으로 선독국문 후독한 문으로, 펼침면 한 눈에 보이는 배치 또한 사용하기 매우 좋은 편집이다.

공자와 제자, 논어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피고 학이편 첫 장을 보았다.

논어 읽기의 출발

[제 1 편]
학이
學而

배우며 때맞추어 복습하면 그 또한 기쁘지 아니하랴!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오면 그 또한 즐겁지 아니하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그 또한 군자가 아니랴!

•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이 세 줄은 공자의 학문을 가장 잘 요약한 글이라 할 수 있다.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된다. 첫 가르침이 學習이다. 학습이란 실천이며 자기수양이다.

논어의 가르침은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할 때에야 비로소 학문의 완성이라 할 수 있기에 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읽고 나누기로 하였다. 읽은 후 바로 가족이 함께 나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권하였다.

〈학습자 구성〉

1. 가족과 함께 논어읽기(아이와 어른 3대가 함께)
 - 사는 곳 : 서울, 일산, 용인, 대구, 양산, 부산, 포항, 삼척, 보길도 등
 - 연령대 : 8살(1명) 9살(2) 11살(1) 5,6학년 (총 15명)
 30대~50대 부모, 64(1) 70대(2) (총 20명)
 - 수업진행 : 2021. 6. 19(토)~11.6. 11:00-12:30 (20회)

2. 학교에서 담임선생님과 논어읽기
(전농초5학년 2반 24명)

회	날짜	내용(편명)	학습방법 개요
1	6.19	학습 안내	소개하기, 논어, 공자에 대해 OX퀴즈하기 매차시 과제 ; 끝나고 바로 가족나눔 하기
2	6.26	1. 학이 총 16장	16장까지 소리내어 읽기, 편명, 學習의 뜻
3	7.3	2. 위정 24장	한자놀이, 내 삶의 설계(2-4)
4	7.10	3. 팔일 26장	1, 2장 훑어보며 복습. 상호존중이란?
5	7.17	4. 이인 26장	빙고게임하기, 仁의 실천, 君子の 삶
6	7.24	5. 공야장 27장	고지점령게임, 오디오/어른 아이 따로 수업
7	7.31	6. 용야 28장	아는 것,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요산요수 공자의 안회사랑, 나와 안회의 공통점 찾기
8	8.7	7. 술이 37장	한자카드놀이, 필사 경험나누기, 학문하는자세
9	8.14	8. 태백 21장	한자빙고게임, 중국고대 역사이야기
10	8.21	9. 자한 30장	한자메모리게임, 세한도(9-27) 추사이야기
11	8.28	10. 향당 18장	공자와 제자들 관계탐구. 공자의 행동
12	9.4	11. 선진 25장	사전찾기, 공자의 제자사랑. 과유불급 나눔
13	9.11	12. 안연 24장	역할극으로 읽기, 공자님께 질문합니다. 군군신신부부자자, 부모다음 자녀다음. 이문화
14	9.18	13. 자로 30장	역할극. 패들렛 안내, 추석대비 논어백신맛기
15	10.2	14. 현문 47장	뽑아서 읽기, 공자의 인간적인 고뇌 탐구
16	10.9	15. 위령공 41장	사라진 글자찾기 놀이(15-23) 논어(恕)와 성경, 공자와 예수 비교하기
17	10.16	16. 계씨 14장	권력무상, 서춘의 우당기념관 이완용비교 이로운 벼, 경계할 것, 九思, 학문의 등급
18	10.23	17. 양화 26장	인을 실천하는 법, 육언육폐
19	10.30	18.미자 11장	카카오톡 패들렛을 이용 공감나누기. 논어일기
20	11.6	19-20 자장요왈 25+3장	선비론(견위치명 견득사의) 군자론, 나 들여다보기, 생활에서 실천하기

2. 함께 읽고 나누기

아이와 부모가 함께 줌으로 접속하여 책을 읽고 느낌을 발표하고, 아이를 위한 놀이학습도 하고 어른을 위한 깊은 나눔을 진행하였다. 90분이 아이들에게 길기도 하고, 서로 수준 차이로 지루한 시간, 또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의 불편함도 있어 5회까지 함께하다가 6회부터는 어른과 아이들을 분리하여 한시간씩 활동하였다. 사춘기 아이들을 편안하게 해 주고 싶어서였는데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면서 방안을 모색하고 그렇게 아이들은 좀 더 활동적인 놀이방법으로 어른들은 삶의 나눔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었다.



세대도 지역도 모든 삶의 경험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논어 읽는 시간은 삶을 나누는 시간이다. 젊은 엄마가 육아의 어려움을 호소하면 선배가 삶의 지혜를 나눠주고, 패들렛이니 줌이니 익숙치 못한 새로운 도구 앞에서 젊은이가 찾아가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만남을 거듭하며 서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매수업시간 하는 일은 앞부분 훑어보고 복습하기, 문장 필사한 것 읽기, 생활에서 실천 발표하기, 기억나는 구절 발표하기, 패들렛에 글쓰고 공감하기 등의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카톡으로 올려 매일 함께 나누었다.



5학년 학생들과 7월에 6회 줌으로 공부를 함께 하였고, 이어서 담임선생님과 매일 소통하며 논어를 읽었다. 그리고 방학과제로 매일 읽고 필사하고 자신의 생각 적기를 하기로 했다. 아이들은 논어에 대한 거부감 없이 재미있는 공부로 받아들였고, 방학 동안에 끝까지 다 읽은 아이들도 있었다. 배운 내용을 조금씩 실천하는 일기를 쓰기도 하고, 부모님들의 놀라움을 불러일으켰다. 이 내용은 패들렛에 차곡차곡 적으며 친구들끼리 댓글 달기도 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분위기가 충만하였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담임선생님과 한 학기 동안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고, 아이들은 선생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존경하였다. 특별히 독서교육에 열의를 가진 선생님은 자비로 수백 권의 좋은 그림책을 교실에 비치하고 매일 읽었으며, 『초정리편지』 『서찰을 전하는 아이』 등 역사동화를 매일 읽어주고 나눔을 하며 독서습관이 자리를 잡았었다.

수업과정 한 차시만 예를 들어 소개해본다.

15차시, 공자의 인간적인 고뇌를 나타낸 문장 찾아보기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읽어 비슷한 문장을 함께 찾아내었다.

1 학이 1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그 또한 군자가 아니라!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인부지이불온 불역군자호

4 이인 14

자리가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설 수 있을지를 걱정하라.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

子曰 不患無位, 患所以立 子 曰 不患無位 患所以立 子 曰 不患無位 患所以立
不患莫己知, 求爲可知也。 불환막기지 구위가지야

9 자한 12

(고국에서 버림받고 여러 나라를 전전한다. 하루는 자공이 달려와 스승의 의중을 떠본다. 언어에 뛰어나고 사업 수완이 좋은 그다운 말로) 자공 여기 아름다운 옥이 있다면, 껍 속에 그냥 넣어 두시겠습니까? 좋은 장사를 구하여 파시겠습니까?
공자 팔아야지! 팔고말고! 나는 장사를 기다리고 있느니라.

14 현문 32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함을 근심하지 말고, 자기가 능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를 근심하라.
子曰: 不患人之不己知, 患其不能也. 자 왈 불환인지불기지 환기불능야

14 현문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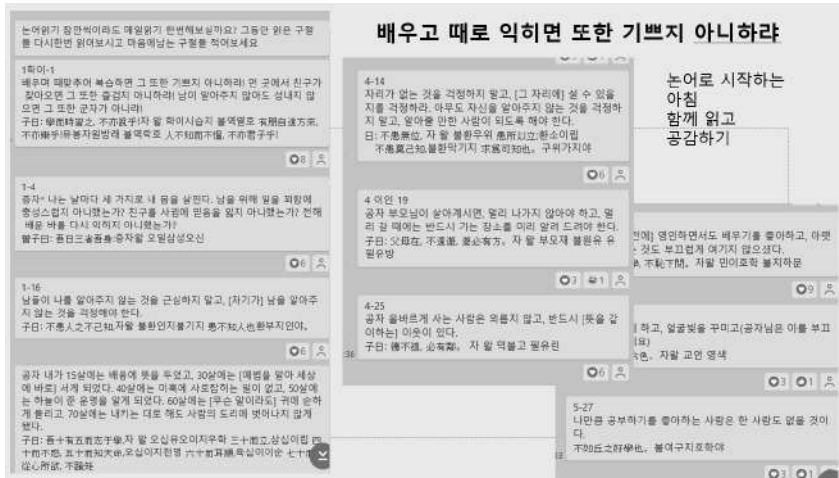
공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자공 어찌 아무도 선생님을 알아주지 않을 것이라 여기나이까?
공자 하늘을 원망하지 않으며, 남을 탓하지 아니하고, 아래로 배워서 위로 통달하니, 나를 알아주는 이는 아마도 하늘일 것이다.
子曰: 莫我知也夫! 자 왈 막아지야부
子貢曰: 何爲其莫知子也? 자공왈 하위기막지자야
子曰: 不怨天, 不尤人, 자 왈 불원천 불우인
下學而上達。知我者, 其天乎! 하학이상달 지아자 기천호

15 위령공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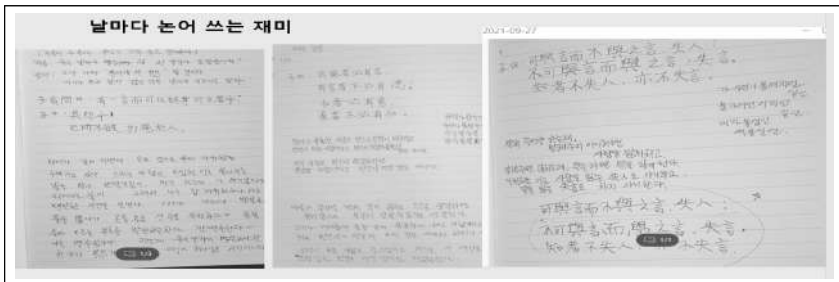
군자는 [자기의] 무능을 병으로 여기고,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은 병으로 치지 않는다.
子曰: 君子病無能焉, 不病人之不己知也。
자 왈 군자병무능언 불병인지불기자야²⁾

2) 전광진 엮음, 『우리말 속뜻논어』, 속뜻사전교육출판사, 2020.

문장에서 찾아보며 이토록 여러 곳에 반복하여 언급이 되는 걸 보며 공자님의 고뇌와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인류의 훌륭한 스승이지만 이런 인간적인 면모로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게 되고 13년 동안이나 주유하며 굶주리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는 모습을 보며 성현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시대가 안타깝고, 2500년이나 지난 지금의 세상 또한 별반 차이가 없는 듯하여 역사의 발전에 대한 깊은 나눔을 하였다.



논어는 연결되는 줄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느때든 어디든 펼쳐서 반복하여 자주 들여다본다. 공책에 필사하기도 하고 카톡과 패들렛에



적어서 나누기도 하고, 다시금 돌아가 수시로 복습하며, 카톡에 올린 글에 공감 표시를 하며 함께 읽는다. 우리 생활에 밀착된 삶의 이야기이고 어디서 들은 듯한 말을 논어에서 만나면 무척 반갑고, 원전을 찾았으니 대단한 공부를 한 것 같은 성취감 또한 대단하였다.



<자료> 한 편을 노트 19장에 꼭꼭 눌러 정성껏 써서 노트를 넘기며 동영상도 찍어 올렸다. 대구에서 쓴 노트를 전국에서 함께 보니 시공간을 초월하여 함께하는 온라인 공부 덕을 톡톡히 보고있는 셈이다.

15편을 배울 때 다시 1편으로 돌아가 전체를 필사하기도 하고, 자신의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논어를 배우는 의미가 없다는 공자님의 말씀에 산에 갈 때도 바닷가에 나갈 때도 쓰레기봉투를 들고 가고, 부모님과 친구와 관계에서 공자님 말씀이 생각나 참았다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콩나물에 물주듯이 보이지 않게 아이들은 자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꼬박꼬박 삶을 나누는 논어공부시간이 있기에 자신의 행동을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는, 그리고 그 내용을 한 편의 완성된 글로 써야하는 숙제



김경열

15년 뒤를 묻고 23년 후를 묻는다는 말이 어울릴까?
 15년 뒤를 묻고 23년 후를 묻는다는 말이 어울릴까?
 주문: 其問曰: 十五而問可以終身之善乎?
 23年而問可以終身之善乎? 其問必其善乎?
 주답: 其問曰: 十五而問可以終身之善乎?
 23年而問可以終身之善乎? 其問必其善乎?
 그대 나의 용서할 행을 찾아라.
 그대 나의 용서할 행을 찾아라.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에게 시키지도 말라.



한영선

수어와 말의요, 나를 위한 것이지요(호수 10년)



김경열

15년 뒤를 묻고 23년 후를 묻는다는 말이 어울릴까?
 15년 뒤를 묻고 23년 후를 묻는다는 말이 어울릴까?
 주문: 其問曰: 十五而問可以終身之善乎?
 23年而問可以終身之善乎? 其問必其善乎?
 주답: 其問曰: 十五而問可以終身之善乎?
 23年而問可以終身之善乎? 其問必其善乎?
 그대 나의 용서할 행을 찾아라.
 그대 나의 용서할 행을 찾아라.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에게 시키지도 말라.



한영선

수어와 말의요, 나를 위한 것이지요(호수 10년)

토닥토닥 마음 나누는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나눔잡지
카톡사용법 패들릿 사용법
사전형 답오받기
삶의 지혜, SNS활용 주고받기

회원주

오늘의 눈높은 열정이 살고있다는 증거겠죠
그러니 다음을 오늘 저녁에 열매를 먹고살은걸로 드시고 건
감하세요
보실만해서 한눈에올 올려야하잖아요

이정다

오늘 눈여겨본 일행하는 시간이었네요~
우릴 즐겁게 잘 보내주세요

정미라 미려나

다들 통달에 미드셨어요

Don't

별첨
게시
주소



인정
격려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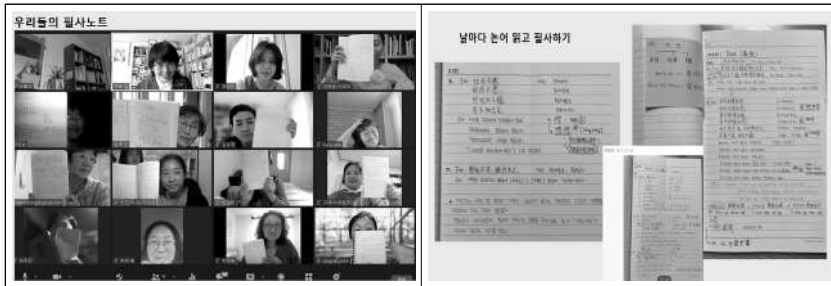


태그 다음 주머니는 누구에게 붙여주세요. 보고 보고고 4
기분잡니다

68 독서아카고라연구 통권3호

아이 때문에 논어를 시작했지만 논어라는 놀라운 숲을 만났고 혼자서는 절대로 읽을 수 없었던, 책장에 20년 동안이나 기다리던 논어책을 드디어 읽게 된 놀라움도 이야기하였다.

수업시간은 1주일에 한번이지만, 카톡으로, 패들렛으로 나누며 날마다 논어를 생각하며 산다고 한다.



3. 교육과정과 연계 독서활동

5학년 논어읽기, 교실에서 『초정리편지』, 『서찰을 전하는 아이』 등 역사 동화를 읽은 아이들은 논어를 읽으며 동화읽기에도 더욱 흥미를 보였다.

『책과 노니는 집』 53쪽, 이 부분을 읽으며 아이들은 논어를 배운다는 데 대한 자부심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훌륭한 선비님들은 <논어>나 <맹자>가 재미납니까? 전 들여다보면 잠만 오고, 봐도 봐도 뭐 소린지 모르겠는데 책방에서는 그 책이 가장 많이 나갑니다.”

서른이 되지 않은 나이에 홍문관 교리에 오른 조선 최고의 수재가 <논어>나 <맹자>같은 경전이 어렵고 재미없다는 말에 장이의 귀가 섰다.

“어렵고 재미없어도 걱정 마라. 네가 아둔해서 그런 것이 아니니. 어려운 글도 반복해 읽고, 살면서 그 뜻을 헤아려 보면 ‘아 그게 이 뜻이었구나!’ 하며 무릎 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어려운 책의 깊고 담백한 맛을 알게 되지.”

주인공 장이의 아버지는 필사쟁이로, 밤낮 가리지 않고 언문(한글) 이야기책을 비롯해 수많은 한자 책을 베껴 쓰며 생활을 이어 나간다. 그런데 어느 날, 천주학 책을 필사했다는 이유로 천주학쟁이라는 오명을 쓰고 관아에 끌려간다. 장이의 아버지는 장독이 오를 만큼 매를 맞고 나와 산송장처럼 누워 사경을 헤맨다.

그렇게 억울하게 아버지를 잃고 고아로 책방 심부름을 하며 아버지의 꿈을 이루는 장이의 이야기이다.

조선 시대 천주교 탄압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필사쟁이의 삶을 통해 사회와 개인의 이데올로기, 지식계층과 일반 백성들의 생활사 및 문제의식 등을 내밀하면서도 섬세하게 그려낸 역사 동화책이다.

『구명난 벼루』를 읽으며 논어의 문장 되새기기

조선 후기 문인이자 화가였던 김정희는 시와 그림은 물론 서예와 금석학에 뛰어난 실력을 보인 당대 최고의 예술가였다. 그에게는 교유하는 벗과 제자, 선배들이 많았는데 그중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함께 보낸 잊지 못할 제자가 있었다. 바로 시골의 그림쟁이였던 허련이었다. 허련은 스승 김정희가 박제가와 완원, 옹방강을 스승으로 섬기기 위해 열정을 다했던 것처럼 부지런히 책을 읽고 화첩을 연구하여 예술의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그런 제자를 기특하게 여긴 김정희는 제주도 유배시절 뿐 아니라 죽을 때까지 허련에게 글씨와 그림을 가르쳤다. 서로가 서로에게 열정을 다해 함께 그림의 꽃을 피운 추사 김정희와 소치 허련, 사제지간의 나눔 이야기이다.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에 나오는 문장을 공자의 논어에서 발견하고 반가워하는 아이들, 그 이야기를 이어 『구명난 벼루』를 읽는다.

‘날씨가 추워진 다음에야 소나무나 잣나무가 나중에 시들을 알겠다.
子曰: 歲寒, 然後知松栢之後彫也’。(자한편 27)



어머니들 또한 동아리에서 『열하일기』를 읽고 있는데 그 작품에 논어가 자연스럽게 톡톡 나오는데 논어를 알고 읽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안 읽었으면 모르고 갔던 글들이 논어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에 어찌나 뿌듯한지 신난다고 한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을 실감한다고 한다.

Ⅲ. 논어읽기의 효과와 시사점

지금까지 패들렛에 자유롭게 올린 글은 A4 pdf파일로 34쪽에 달한다. 그 내용을 자세히 읽고 분석하여 결과를 정리하여야 하는데 일부만 옮겨 보는 것으로 대신한다.

(패들렛 활용)논어공부를 하며

어떤 말이 마음에 남았나요?

논어를 읽으며 혹 내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잘 생각하여 적어볼까요?

1. 기억나는 낱말이나 문장을 적어봅시다.
2. 공책에 필사한 것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것을 적어볼까요?(공책을 사진

찍어도 좋아요)

3. 논어를 읽으며 들었던 생각, 한 가지 주제를 잡아 한 편의 글을 써 보세요.
4. 논어를 읽으며 내 생각이나 생활의 변화를 살펴볼까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5. 가족이 함께 논어공부(엄마, 아빠, 할머니)와 아이가 함께 읽는 논어공부는 어떠했는지요? 어떻게 대화를 나누었는지요?
6. 논어공부 느낌 나누기

논어를 읽으며 생활의 변화(아이)

- 공부가 쉽고 재미있어졌다.
- 바닷가에 쓰레기를 매일 줍는다.
- 효를 더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 한문에 더 흥미를 갖게 되었고 어려운 문장이 나왔을 때 한문으로 알려주면 좀 더 이해하게 된다.
- 한자도 조금씩 알게 되고 공자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 어려운 한자와 논어가 쉬워졌다.
- 내가 더 똑똑해진 것 같다.
- 가족과 얘기할 때 논어에서 배운 단어와 문장을 쉽게 쓸 수 있게 되었다.
- 동생과 관계가 좋아졌다.
-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과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쉬워졌다.
- 실생활에서 다툼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알았다.
- 처음에는 싫었지만 하고 보니 재미있어서 계속하게 된다.
- 따분하고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삶의 지식, 배려와 덕을 알려준다.
- 논어를 열심히 읽어 지도자가 될 것이다.
- 학부모 상담시,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가 논어를 읽어요.”감사의 인

사를 전하는 분들이 많았다.(전농초 김성경선생님)

논어를 읽으며 생활의 변화(부모)

- 바쁜 일상을 살다가 문득 어떤 구절이 스쳐 지나가면 논어책을 펼쳐 보게 된다.
- 마음속에 논어 두 글자가 살아, 좀 더 겸손하고 예의있고 공손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 논어와 성경을 오가며 묵상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 늘 원망스러웠던 엄마와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
-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 혼자 읽으면 절대 못 할 일을 함께 하니 가능하다.
- 출퇴근 운전하는 시간 논어강의를 듣는다.
- 산에 갈 때 쓰레기봉투 10L용들고 간다.
- 여전히 부끄럽지만 자신을 돌아보고 행동에 대한 반성을 한다.
- 仁에 대한 끝없는 묵상, 멀고 먼 길임을.
- 한자를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 카카오톡 한자표기와 패들렛을 배워 재미를 붙였다.
- 아이 셋, 강아지까지 버거운 일상에서 논어 책의 문장들이 떠올라 감정을 추스르며
- 수업 중 어른 선생님들이 나누어 준 이야기가 위로와 힘이 된다.
- 가족이 함께 나누는 공통의 대화가 생겼다.
- 어렵פות이 알았던 문장들이 논어에 근거를 두었다는 사실에 반갑고 놀라웠다. 한문공부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 공책정리를 하며 논어를 익히는 방법이 좋았고, 논어의 주옥같은 문장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울 수 있었다. 논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 2500년 동안 살아있는 가르침, 착한 정치, 바른 정치를 오늘의 우리 사회에 외치고 있다.

논어가 일상이 되었다. 논어가 한 줄기 삶의 빛이 되었다고 한다. 20회 교육의 막바지까지 오자, 모두들 논어 끝나고도 계속하고 싶은데 끝나가서 아쉽다는 얘기를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도 한다.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 교과 과정을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온라인 논어읽기 수업에 나이, 공간을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고전읽기를 통하여 인문고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온라인으로 논어읽기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산하여 전 국민 논어읽기라는 야심찬 목표를 지향해본다.

단지, 세밀한 분석자료를 내지 못하고 소수의 학습자 관찰로 매우 부족한 결과물이어서 일반화하기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참고문헌

- 전광진 엮음, 『우리말 속뜻논어』, 속뜻사전교육출판사, 2020.
이아영, 『하루20분 초등고전읽기』, 비타북스, 2021.

Reading for the Analects of Confucius under On-line

Kim, Yeon Ok

(Reading Habits Research Institute, Modoo Book)

I planned reading and sharing the Analects of Confucius 20 times from June 2021 for two hours each Saturday in COVID-19 Pandemic era for people who wanted to gather for non-face-to-face education.

It was an On-line learning program with Zoom, so anyone who wants to participate can read and share it together. It was run with 35 people from the age of 8 to 70.

I also supported Kim Sung-kyung, the homeroom teacher who read the Analects of Confucius with 24 students from Jeon-nong Elementary School 5th grade class 2 to link one book per semester to reading education.

First of all, through this process, three generations read the Analects together, and the family had a common conversation and wisdom together.

Second of all, I found it is possible to read and enjoy the Analects of Confucius anytime with a new perception of the Analects of Confucius.

Lastly, it was an opportunity that people can understand the school curriculum abundantly in connection with curriculum.

Many people participated in the On-line class on Analects of Confucius beyond age and space. In the future, there is a need to expand understanding of the school curriculum and expand the experience of practicing what you have learned in life through classical reading.

Keywords : On-line, Zoom, Reading Analects of Confucius, Kakao-Talk group Chat, Padlet, Conversation with a family, Reading a book for a semester, Three generations together

투고일 : 2021. 09. 19. / 심사일 : 2021. 10. 06. / 심사완료일 : 2021. 10. 10.

옛이야기의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대한 실행연구*

—유튜브 「말글살림연구소」의 〈오늘이〉 시리즈를 중심으로—

김윤경**

【 목 차 】

- I. 서론
- II. 연구방법
 - 1. 실행연구
 - 1) 실행연구의 개념 및 특징
 - 2) 실행연구의 유형 및 방식
 - 3) 실행연구의 과정
 - 2. 연구설계
 - 1) 연구참여자
 - 2) 연구절차
 - 3) 자료수집
 - 4) 분석방법
- III. 연구결과
 - 1. 문제 발견
 - 1) 문제인식
 - 2) 문제분석
 - 2. 계획
 - 1) 채널 컨셉 만들기
 - 2) 콘텐츠 성격 정하기
 - 3) 콘텐츠 제작 기획하기
 - 3. 실행
 - 1) 채널 개설
 - 2) 세계관 구축 및 캐릭터 설정
 - 3) 촬영

* 이 논문은 제7회 독서아카고라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 말글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salimnamu@hanmail.net

- 4. 성찰
 - 1) 효과분석
 - 2) 평가
- IV.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오늘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옛이야기 기반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영상 제작을 위한 실험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 제작의 효과는 첫째, 옛이야기 디지털 콘텐츠 제작의 즐거움을 경험하였고, 둘째, 디지털 원주민인 딸과 디지털 이주민인 엄마(연구자) 간 디지털 미디어를 매개로 한 소통이 빈번했으며, 셋째,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이 이루어진 것이다. 1차 실험연구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이후에는 디지털 이주민(연구자) 주체의 옛이야기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디지털 원주민(딸) 주체의 자유주제 콘텐츠 제작을 수행할 것이다.

핵심어 : 옛이야기, 유튜브, 오늘이, 디지털 스토리텔링, 디지털 리터러시

I.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옛이야기 기반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을 통해 옛이야기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대한 실험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옛이야기가 어떻게 디지털 콘텐츠화되는지, 옛이야기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효과는 무엇인지 살피고자 한다.

‘옛이야기’에 대한 학문적 정의는 ‘옛날에 지어진 이야기’, ‘옛날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 자체가 옛것인 이야기’, ‘예로부터 전해져온 이야기’ 등으로 다양하다.¹⁾ 본고에서 말하는 ‘옛이야기’란 전래동화²⁾라고도 불

1) ‘옛이야기’라는 용어는 ‘옛날이야기’와 혼용되고는 하는데, 옛날이야기가 ‘옛날에 대한 이야기’인 반면 옛이야기는 ‘이야기 자체가 옛것인 이야기’이다. 옛이야기는 세대 구분 없이 모두가 향유하고 전승한 구비문학이며, 구비문학은 새로운 매체 환경에 들어선 오늘날, 문화적 원형으로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나아가 미래문학에 두루 걸쳐

리는 구비문학 중에서도 전래동화집 또는 전래동화 그림책 등으로 텍스트화된 이야기들로 한정한다. 여러 옛이야기 중에서 본고의 주요 연구참여자인 연구자의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인 점을 고려하여, 4학년 2학기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서사무가인 원천강본풀이를 원전으로 한 <오늘이> 이야기의 영상을 제작하여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시도하였다.

옛이야기의 현대적 변용 관련된 논문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옛이야기의 문화적 원형성에 대한 연구,³⁾ 옛이야기의 현대적 변용 양상 및 활용에 대한 연구,⁴⁾ 현대화된 옛이야기 작품 분석에 대한 연구⁵⁾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옛이야기의 디지털화를 다룬 연구들은 주로 디지털 시대의 구비문학 재인식에 대한 필요성,⁶⁾ 디지털 구비문학의 3차 구술성,⁷⁾ 구비문학의 디지털 서사화⁸⁾ 등이 있다. 옛이야기의 디지털화 및 현대적

있는 보편적이고도 기초적인 문학의 영역이 되고 있다. 이에 구전 민담과 민담의 속성 및 가치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모든 서사문학을 문학 현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지칭할 수 있는 장르 용어로 ‘옛이야기’의 개념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 구광본, 『문학 장르로서의 옛이야기』, 『대중서사연구』 제25호, 대중서사학회, 2011, 157-179쪽.

- 2) 엄밀히 말하면 옛이야기 자체가 동화(童話)라고 할 수는 없다. 옛이야기는 구비문학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신화, 전설, 민담 등의 전통적 생산 및 수용주체는 어른(성인)이며,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나 그릇된 욕망에 대한 인과응보적 처벌을 강조함으로써 교훈을 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근대에 옛이야기, 그중에서도 특히 구술적 ‘민담’이 문자적 ‘전래동화’로 각색되면서 욕망, 잔인함, 노골적 표현 등은 삭제되고 어린이를 수용주체로 하기에 알맞게 순화되었다.
- 3) 김만수, 「‘두 형제’ 이야기의 원형과 현대적 변용」, 『구보학보』 제24호, 구보학회, 2020, 443-466쪽.
- 4) 권혁래, 「옛이야기 캐릭터의 변모와 활용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5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9, 61-99쪽. / 윤지수, 「‘빨간 모자’의 패러디 양상과 교육적 가치」, 『어문학교육』 제47권, 한국어문교육학회, 2013, 141-162쪽. / 이미연 · 허승희,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연극텍스트화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62권, 한국문학회, 2012, 426-459쪽.
- 5) 광영미 · 현은자, 「아기 돼지 삼 형제」 옛이야기를 원전(原典)으로 한 크로스오버 작품 분석: 문학, 애니메이션, 인터넷 광고 중심으로, 『어린이문학교육연구』 제16권1호,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2015, 25-44쪽.
- 6) 임재해, 「디지털 시대의 고전문학과 구비문학 재인식」, 『국어국문학』 제143호, 국어국문학회, 2006, 33-72쪽.
- 7) 임형택, 「구비문학 3.0: 디지털과 3차적 구술성의 문학 환경에 대하여-문학의 전화(轉化)에 대한 미디어철학적 시고(試考)」, 『한민족문화연구』 제59권, 한민족문화학회, 2017, 7-43쪽.

변용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옛이야기의 문화적 원형성, 옛이야기의 현대적 변용의 필요성, 전통적 이야기와 현대화된 옛이야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옛이야기의 전통적인 아날로그 스토리텔링은 텍스트화 이전의 구비전승, 즉 1차 구술성의 특징을 지니는데, 텍스트화된 구비문학은 서사 중심의 문자성이 더해지면서 마치 소설처럼 변하며 본연의 단순성과 환상성을 잃어 왔다. 실제 영상으로 구현된 옛이야기의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1인 크리에이터들이 아닌 거대 콘텐츠 기업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존의 텍스트화된 구비문학을 형형색색의 영상으로 그대로 재현하는 양상을 보인다.⁹⁾



[그림 1] 옛이야기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예시

- 8) 박유희, 「디지털 서사 논의의 현황과 전망」, 『우리어문연구』 제24권, 우리어문학회, 2005, 223-249쪽. / 이재홍, 「구비문학을 활용한 게임의 인문학적 상상력에 관한 고찰」,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0권2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2, 279-286쪽. / 이재홍, 「문화원형을 활용한 게임스토리텔링 사례 연구」, 『한국문화와 예술』 제7권, 한국문화회예술연구소, 2011, 261-290쪽.

- 9) 1인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옛이야기 영상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옛이야기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아닌 전통적 스토리의 구연으로 이루어진다. 이 역시 구술성을 살린 구연이라기보다는, ‘구연동화’류의 연극적 구술이 대부분이다. 댓글 분석 결과, 해당 영상의 향유주체들 역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특히 엄마)이고, 주로 잠자기 전 배경음악처럼 옛이야기 구연 영상을 틀어놓는 향유 방식을 보이고 있다.

(예) 구동TV,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10편(1:31:03) <https://www.youtube.com/watch?v=u9fMWg248XU&t=94s>

알오티비, 전래동화 연속듣기 100분-잠자리동화 (1:44:44) <https://www.youtube.com/watch?v=mawAwv1GyvQ>

콩닥콩닥동화나라, 재미있는 7가지 옛이야기 (1:00:44) https://www.youtube.com/watch?v=H3Cej_oevdc

옛이야기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내용과 수용주체가 다양화되지 못한 이유는 옛이야기 영상의 주된 향유주체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라는 데 있다. ‘옛이야기’라고 했을 때 이미 ‘전래동화’가 전제되어 ‘아이용’이라는 수용층이 결정되고, 대개 아이들에게 디지털 기기로 영상을 보여주는 주체는 부모들이며, 디지털 기기로 아이들에게 짧게는 3분(1~2편, 단편형), 길게는 1시간(여러 편, 모음형) 정도 영상을 보여주게 되는 상황은 주로 부모들이 밖에서 외식을 하거나, 육아 중 잠시 쉬는 때이다. 영유아 시기를 벗어나게 되면 아이들 스스로 선호하는 캐릭터(뽀로로, 토봇, 카봇, 시크릿 주주 등)나 분야(공룡, 자동차, 만들기 등)가 생겨서 부모가 틀어주는 콘텐츠보다는 스스로 콘텐츠를 선택하게 된다.

옛이야기 디지털 스토리텔링 관련 선행연구와 실현 양상에 대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필자는 기존의 옛이야기 디지털 영상과는 다른 성격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옛이야기의 새로운 현대적 변용을 시도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도출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유튜브 기반의 옛이야기 디지털 콘텐츠는 어떻게 제작되는가?
- 둘째, 유튜브 기반의 옛이야기 디지털 콘텐츠 제작의 효과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실행연구

1) 실행연구의 개념 및 특징

본 연구에서 옛이야기의 디지털 콘텐츠화는 실행연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실행연구(action research)’란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삶을 탐구하며 변화와 개선을 위해 자신이 주체가 되어 수행을 하는 연구”¹⁰⁾로

10) 박창민·조재성, 『실행연구 이론과 방법』, 아카데미프레스, 2016.

서, “연구자 스스로가 문화 속에 위치 지어진 자신의 경험에 대한 반성적인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기술하여 개인적인 삶의 양상을 이론적으로 이해”¹¹⁾하는 연구이다. 실험연구와 현장연구가 혼용되기도 하지만, 실험연구는 단순히 현장연구가 아닌, 학문적 철저함을 지닌 방법론적 성격을 지닌다.¹²⁾ 실험연구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행동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을 생성하는 연구방법이다.¹³⁾

실험연구를 본고의 연구방법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콘텐츠 기업이 제작한 옛이야기 디지털 콘텐츠와는 다른 1인 크리에이터로서 개인이 옛이야기 디지털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가게 되는지를 직접 경험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¹⁴⁾ 둘째,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문외한인 연구자가 실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스스로를 디지털 생태계에 노출시킴으로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르하고자 하였다. 셋째, 유튜브 기반 크리에이터, 즉 ‘유튜버’가 되는 체험을 해보고자 하였다. 현재까지는 가장 범용적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해 구독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유튜버로서 어떻게 성장해가는지에 대한 평가적이고 반성적인 탐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
- 11) 김영천, 이동성, 「자문화기술지의 이론적 관점과 방법론적 특성에 대한 고찰」, 『열린교육연구』 제19권4호, 한국열린교육학회, 2011, 1-27쪽.
 - 12) 조용환, 「현장연구와 실험연구」, 『교류인류학연구』 제18권4호, 한민족문화학회, 2015, 1-49쪽.
 - 13) 박창민·조재성, 앞의 책, 59쪽.
 - 14)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지식은 게임, 코딩, 수영, 자동차 운전, 주식 투자 등 실제로 해봐야 아는, ‘실천적 지식’이다.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이란 기술적(technical) 지식처럼 사실이나 규칙의 형태로 명문화될 수 없고 오직 활용하는 과정에서만 드러나는 지식(박창민·조재성, 2016:47)을 뜻한다. 즉 실천적 지식은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닌, 전수되고 획득될 수 있는, 실천 속에서만 존재하고 부단히 실천하는 사람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식(Oakeshott, 1962:15)이다. 그런 면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철저히 경험 중심 학습이라 할 수 있다. 유튜브 관련 이론에 통달해도,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학문적 기반이 튼튼해도, 유튜브 계정 하나 못 개설하고, 콘텐츠 하나 제작 못하고, 구독자 한 명 확보할 줄 모른다면, 디지털 리터러시가 함양되었다고 할 수 없고, 타인에게 가르쳐줄 수도 없다. “꼭 해보야 아냐?”라는 사고실험이 기존 아날로그 학습 방식이라면 “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 또는 “일단 해봐!(Just do it)”라는 행동실천이 디지털 학습 방식이다.

2) 실행연구의 유형 및 방식

실행연구의 유형은 기술적/실천적/비판적 실행연구의 세 가지로 나뉜다. 기술적(technical) 실행연구는 기술·공학적 실행연구라고도 불리는데, 현장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문제들을 직접 확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는 연구¹⁵⁾이며, Lewin이 주축이 되어 빈곤, 인종 차별 등의 사회적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실시한 초기 실행연구의 맥을 잇는다. 실천적(practical) 실행연구는 실천·숙의적 실행연구라고도 불리는데, 연구자의 자주성과 의지를 연구에 적극적으로 투영하고 연구 과정에 대한 반성 및 성찰에 중점이 있다. 현재의 문제에 대한 인간의 숙고 과정을 중시하는 실천적 실행연구는 반복될수록 정교화되고 문제는 명확해진다.¹⁶⁾ 비판적(critical) 실행연구 또는 참여·비판적 실행연구는 이론화를 통한 실천의 이해뿐 아니라 실천에 기반을 둔 이론화를 통해 연구를 통한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적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¹⁷⁾ 다른 유형에 비해 사회재건과 인간해방을 위한 거시적 차원에서의 행위연구이며, 비판이론에 근거한 해방적 성격의 비판적 연구이다.

본고에서는 반성자이자 참여자인 연구자 자신이 디지털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의식 변화를 위해, 그리고 디지털 생태계 속에서 옛이야기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보고 그 과정을 성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실천숙의적 실행연구라고도 불리는 ‘실천적 실행연구’를 수행한다.

실행연구의 질적 연구 방식은 사례연구, 자문화기술지, 현상학적 연구, 자기연구 기반, 통합적 연구 기반 실행연구 등으로 다양하다.¹⁸⁾ 이 중에서 자문화기술지 기반 실행연구는 실천자이자 연구자인 본인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실행연구 방법으로, 연구자가 본인의 맥락에 대해 탐구하고

15) 박창민, 조재성, 위의 책, 110쪽.

16) 박창민·조재성, 앞의 책, 1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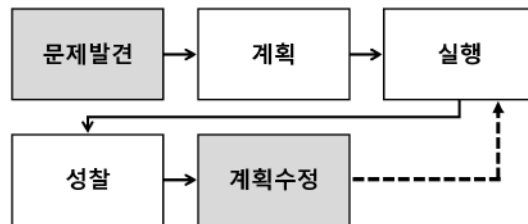
17) 박창민·조재성, 위의 책, 117쪽.

18) 박창민·조재성, 위의 책, 138-144쪽.

개인의 주관적 체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아와 연계된 사회·문화·정치적 이해를 풀어내려 할 때 유용하다.¹⁹⁾ 본고에서는 연구자의 삶의 맥락에서 연구자 자신이 연구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문화적 의미를 해석하고 이론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자문화기술지 기반 실행연구를 수행하였다.

3) 실행연구의 과정

실행연구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문제 상황 및 출발점 찾기>실행 계획 혹은 가설 설정>실행연구의 실천과 반성>계획의 수정]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²⁰⁾ 실행연구의 세 유형 중에서도 실행연구의 과정 중에 연구자의 성찰과 반성을 중시하는 실천·숙의적 실행연구는 [문제인식>문제분석>계획>실행>효과분석>평가>계획수정>재연구]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기존의 실천적 실행연구 과정은 다른 유형에 비해 다소 복잡하고 실천적 실행연구의 성찰성과 순환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순환적, 반성적, 성찰적인 실천·숙의적 실행연구의 특징을 부각시키면서도 중복되는 절차를 합쳐서 간결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그림 2] 재구성된 실천·숙의적 실행연구의 과정

19) Jones, A., Assessing international youth service programmes in two low income countries, *Volunteering Research*, 7(2), 2005, pp.87-100.

20) 박창민·조재성, 앞의 책, 121쪽.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문제발견’ 단계는 기존의 문제인식과 분석이 합쳐진 것인데, 이는 실제 연구에서 문제인식과 분석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모든 연구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하는 문제발견의 행위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장의 상황맥락이 살아있는 실행연구 특성상 생활사태에서의 문제발견은 매우 중요하다. 이론이 아닌 삶 속에서 문제가 발견되고, 그 안에서 연구문제가 도출되고, 연구가 설계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계획’과 ‘실행’은 실행연구의 공통적인 특징이므로 각 단계를 그대로 살린다. ‘성찰’ 단계는 기존의 효과분석과 평가가 동시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실천숙의적 실행연구의 가장 큰 특징이 연구자의 ‘성찰’이므로 과정에서도 그 특성을 살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계획수정 및 재연구 역시 짝말이라고 할 수 있다. 계획수정 후 재연구를 안 하면 수정이 무의미하며, 재연구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획 수정 단계 후 이전의 ‘실행’ 단계로 환원되어 순환하는 구조를 모형화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이렇듯 재구성된 실천·숙의적 실행연구의 과정은 기존의 과정보다 간명하면서도 각 단계가 누락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순환구조가 눈에 띄도록 하였다. 실행연구의 단계들은 일회적이지 않으며 선형적이지 않으므로, 각 과정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²¹⁾

2. 연구설계

1) 연구참여자

연구의 기획 단계에서는 연구자와 친분이 있는 A교수의 영향이 컸다. 옛이야기로 종종 소통하던 A교수와 본인은 이전부터 옛이야기의 디지털화에 관심이 있었는데, 2020년 9월 옛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의기투합하였다. 그런데 A교수는 연구자의 가

21) 박창민·조재성, 앞의 책, 121쪽.

족을 중심으로 한 ‘엄마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옛이야기’라는 컨셉으로 ‘옛이야기의 일상적 구연’ 상황을 그대로 찍어 올리기를 원하였다. 하지만 연구자는 옛이야기의 일상적 구연보다는 옛이야기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옛이야기의 디지털 콘텐츠화’에 관심이 있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로 인해 A교수는 불참의사를 밝혔고 연구자만 남았다. 일단 기획한 것은 반드시 시도해보는 연구자의 행동주의적 성향상 혼자라도 영상을 제작하려 했으나, 디지털 기술이 서툴러서 가족의 도움을 청했다. 처음에는 연구자의 배우자(남편)에게 촬영, 편집 등의 중책을 맡겼으나, 직장과의 병행이 어렵고 편집에 대한 부담이 많아서 빠지게 되었다. 연구자가 남편 대신 MZ세대라고도 불리는 디지털 원주민인 연구자의 큰딸(11세)이 편집을 담당하게 되었고, 디지털 이주민인 연구자는 딸에게 디지털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촬영은 핸드폰을 삼각대에 고정시킨 후 셀프촬영하였다.

2) 연구절차

본 실험연구의 절차는 재구성된 실천·숙의적 실험연구의 과정에 따른다. 문제발견 단계에서는 2020년 9월 즈음, A교수와 연구자가 옛이야기의 디지털 콘텐츠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옛이야기 콘텐츠 중심의 유튜브 채널을 기획하였으나, 견해 차이로 인해 연구자만 이후 연구를 수행하였다. 계획 단계는 2020년 10월에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기존의 옛이야기 콘텐츠를 분석하면서, 옛이야기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했을 뿐만 아니라, 옛이야기 이외의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세계관을 구축하였다. 실행 단계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연구자와 연구자의 가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각 요일별로 해당일에 맞는 콘텐츠를 업로드하였다. 성찰 단계는 수시로 행해졌지만, 좀더 깊은 숙의적 성찰은 연구자의 딸이 불참의사를 밝힌 2021년 6월에 이루어졌다. 그동안 지나치게 연구자(엄마) 주도였으며 딸이 스스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

기를 원하고 있었다. 계획수정 단계는 2021년 7월에 연구자와 딸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연구자의 딸을 중심으로 채널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표 1] 연구절차

단계	기간	주요 활동	연구참여자
문제발견	2020.9	· 옛이야기의 디지털 콘텐츠화가 필요함 · 옛이야기 콘텐츠 중심의 유튜브 채널 필요함	A교수, 연구자
계획	2020.10	· 옛이야기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기획 · 옛이야기 이외의 다양한 세계관 구축	연구자
실행	2020.11 -2021.5	· 말글살림연구소 설립 및 동명의 채널 생성 · 요일별로 주제에 맞는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	연구자, 가족
성찰	2021.6.	· 지나치게 연구자(엄마) 주도였음 · 연구참여자(딸)가 다양한 콘텐츠를 원함	연구자, 딸
계획수정	2021.7.	· 연구참여자(딸)에게 채널 운영권 이양 · 연구참여자(딸)가 원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연구자, 딸
【재실행】	2021.8-현재	· 연구참여자(딸)의 주도로 채널 운영 중 · 디지털 문화기술지의 일환으로 촬영일지 제작	딸

재실행 단계는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연구자의 딸을 중심으로 채널을 운영하되, 디지털 문화기술지의 일환으로 연구자가 딸에게 촬영일지 제작을 권유하였고, 이에 딸이 촬영일지도 업로드하고 있다.

3) 자료수집

여느 질적연구와 마찬가지로 실행연구에서는 자료의 다양성을 중시한다. 자료의 다양성은 관점의 다양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연구자의 주관 이 강하게 개입되는 질적연구의 특성상, 연구자가 아닌 다른 관점의 자료는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검토의 삼각성(삼각 검증)에 빗대어 ‘자료의 삼각성’이라고도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연구자의 기억자료 및 자기성찰 자료, 현장메모 등 참여관찰 자료, 제작된 영상

및 영상캡처 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은 기술적 분석, 담화분석, MMDA가 주로 이루어진다. 기술적 분석이란 연구자가 본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나 이론적 배경들을 제시하여 독자들을 이해시키는 분석법으로, 수집한 자료 중 중요한 기록을 본문에 인용 형태로 제시하고 자세히 분석하는 것이다.²²⁾

담화분석(DA, Discourse Analysis)이란 ‘말은 행위(Speech is action)’라는 화행론(Speech Act)의 관점에서 화자의 말과 글을 분석하는 것이다. 주로 인간의 말이나 글에 나타난 심층적 의미, 심리, 자리매김 등을 탐구한다. 본고에서는 언어 외에 사진 및 영상자료에 대한 분석을 시행해야 하므로 복합양식적 담화분석(MMDA)도 함께 실시하였다. MMDA(Multimodal Discourse Analysis)는 사회기호학(social semiotic theory)적 관점의 담화 분석 방법으로서, 말과 글 등 언어뿐만 아니라 영상, 이미지, 소리, 색깔 등 다양한 양식을 모두 담화로 간주하고 담화분석의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이다.²³⁾ 필자의 딸과 같은 MZ세대 디지털 원주민에게는 입말/글말과 같은 기존 언어보다 ‘영상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영상 플랫폼에서는 기존 언어보다 영상 언어가 훨씬 중시되므로,²⁴⁾ <오늘이> 콘텐츠에 대한 MMDA를 실시하고자 한다.

22) 박창남·조재성, 앞의 책, 238쪽.

23) Kress, G., Mutimodal discourse analysis, In J. P. Gee & M. Handford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Routledge, 2012, pp. 35-50.

24) 김윤경, 「‘팬수 화법’의 특징 및 의의 탐구: 사회언어학적 담화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54권, 이화어문학회, 2021b, 333-361쪽.

Ⅲ. 연구결과

1. 문제발견

1) 문제인식

옛이야기 전문가이신 A교수님과 함께 평소에 종종 옛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보자는 대화를 나누고는 하였다. A교수와 연구자에게는 현대에 이르러 옛이야기가 더 이상 구연되지 않고 영상으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옛이야기 소재의 콘텐츠가 기업에 의해 우후죽순 만들어지면서 옛이야기 본연의 성격이 훼손된 채 영상으로만 소모된다는 공통의 문제의식이 있어왔다. 요즘 아이들은 검색도 문자 기반 포털이 아닌 영상 기반 유튜브로 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이에 옛이야기를 유튜브로 찍어보자고 합심하게 되었다.

박사 때의 전공은 화법교육이지만 학부 때는 고전문학, 석사 때는 미디어교육을 전공했던 연구자는 말과 글이라는 언어뿐 아니라 미디어에 항상 관심이 있었는데, 유튜브는 소비만 했지 막상 제작은 할 생각조차 못 하고 있었다. 디지털 기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얼굴을 공개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0년 8월 즈음, 필자가 속한 교육연극단체에서 교육연극에 대한 유튜브를 촬영한 경험을 한 번 하고 나서는 유튜브 촬영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인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하는 교사로서, 디지털 콘텐츠 제작 경험을 통해 해당 역량을 길러야겠다고 생각했다.

2) 문제분석

① 연구참여자의 문제

본격적인 촬영 전, 파일럿 촬영을 위해 A교수의 시나리오를 받았다. A교수는 철저한 구술을 원하셨지만, 이미 문자문화에 익숙한 나로서는 온전한 구술이 어려운 상태라서 거의 전체 시나리오를 외워야할 지경이었다. 교수는 편안하게 구술하라고 하셨지만, 1차 구술성이 아닌, 책이나 텍스트 기반의 문자성에 익숙한 연구자로서 완벽히 자연스러운 구연은 어려운 상태였다. 공동사업의 어려움을 서로 체험하면서 A교수는 콘텐츠 제작 불참의사를 밝혔다. 이에 옛이야기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 무산될 상황에 이르렀으나, ‘기왕 하기로 한 거, 일단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연구자 본인과 연구자의 가족이 직접 촬영해 보기로 하였다. 이때 주안점은 연구자가 익숙하지 않은 옛이야기의 구술성을 살리기보다는, 연구참여자가 익숙한 영상성을 살려서 <오늘이> 모티프로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다.

② 옛이야기 콘텐츠의 문제

아날로그 콘텐츠와 달리 디지털 콘텐츠는 ‘놀이’라는 향유방식과 ‘밈(meme)’이라는 특성을 지닌다.²⁵⁾ 유튜브로 ‘옛이야기’를 검색하면 주로 ‘핑크퐁’ 등 대기업 중심의 영유아 대상 콘텐츠만 가득하다. 기업이 아닌 일반인이 ‘옛이야기’를 소재로 찍은 영상은 간혹 있지만, 이 역시 기존 옛이야기를 영상으로 충실히 구현한 정도였을 뿐 옛이야기를 마음껏 가지고 노는 콘텐츠가 거의 없었다. 또한 옛이야기 콘텐츠 및 캐릭터들이 밈화되지 않았다.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들에게는 옛이야기가 트랜스문화적 요소로서 각광받아 웹툰, 게임, 드라마 등의 모티브로 자주 활용되고

25) 김윤경, 「고전시가의 향유방식 특징 탐구: 한국관광공사 <범 내려온다>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53권, 이화어문학회, 2021a, 5-31쪽.

있는 현상과 달리, 유튜브 사용자들에게 ‘옛이야기’는 디지털 콘텐츠 수용 및 제작에 있어 인기 없는 소재이다.

이에 연구자는 옛이야기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있어 서사 및 캐릭터에 mimetic 요소를 가미하면서 마음껏 갖고 노는 콘텐츠 제작을 기획하였다.

2. 계획

1) 채널 컨셉 만들기

말을 하면서 구성되는 서사, 즉 ‘담화적 서사(discursive narrative)’를 전공한 연구자는 평소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하면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비선형적 측면을 보완할 방법을 고심하고 있었다.

유튜브는 디지털 영상 플랫폼인데, 유튜브 콘텐츠는 비선형적이어서 ‘이야기(story)’를 담고 있지 않다. 그로 인해 각 영상들이 연속성이 없이 파편화되어 영상들의 궁극적 지향점이나 전체적 맥락에서의 의미를 시청자가 알 수 없게 된다. 이에 연구자 본인이 유튜버로서 채널을 운영할 때에는 마치 게임처럼 특정한 세계관을 구축하고 캐릭터를 설정하여 구독자들이 그 캐릭터를 키워가게 해보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비선형적 디지털 콘텐츠들에 서사적 선형성을 부과하여 구독자들로 하여금 ‘다음 시간에 계속(to be continued)’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채널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마블(Marvel) 유니버스’를 차용하여 다음과 같은 <말글살림 유니버스>를 구축하였다.²⁶⁾

26) <말글살림 유니버스>는 초기에는 위와 같은 5개의 세계관으로 구성되었으나, 이후 연구자의 부캐 ‘릴리’의 특별한 일상을 담은 토요계 [마담 릴리]와, 연구자 가족 부캐 ‘별꽃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담은 일요계 [별꽃극장]이 추가되면서 7개의 세계로 이루어진 말글살림 세계관이 완성되었다.

말과 글과 이야기의 살림으로 삶의 살림을 꾸꾸는 연구소: 이론과 실천, 연구와 교육, 육아와 놀이의 조화!

- * 월요일엔 [이야기밥]: 명랑순수 오늘이 & 열심히지 내일이의 달콤쌈쌀 옛이야기 맛집
- * 화요일엔 [편카데미]: 편카리스마 Dr. K-mos의 재미가득 연구놀이터(Funcademy)
- * 수요일엔 [말글살림]: 미소전사 오글썸 & 소통박사 이말글의 시원통쾌 말글살림터
- * 목요일엔 [낭만제작소]: 낭만장미(feat. 김박순 & 난공공)의 일상생활 영상제작소
- * 금요일엔 [놀이육아]: 유래발랄 별꽃맘과 함께하는 별꽃가족의 우당탕탕 육아놀이터

#국어교육#이야기교육#예술교육#미디어교육#질적연구#놀이육아

[그림 3] 유튜브 「말글살림연구소」의 채널 소개글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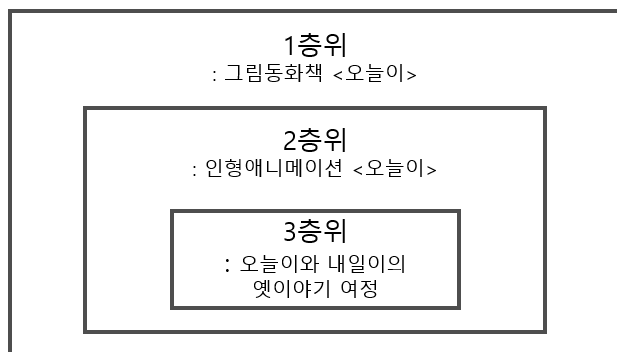
2) 콘텐츠 성격 정하기

본고에서는 7개의 세계 중에서 ‘옛이야기’가 주 콘텐츠인 월요일계 [이야기밥]을 중심으로 콘텐츠 성격 및 제작 기획을 기술하고자 한다. ‘이야기밥’이란 ‘이야기’와 ‘밥’의 합성어로서, 한국전래동화는 물론 세계민담까지 아우르는 “갓 지은 옛이야기로 속 든든해지는 월요일의 은하계”를 창출하고자 했다. 명랑하고 순수한 오늘이(딸)와 뭐든지 열심히고 진지한 내일이(엄마)의 이야기 여정 속에서 다양한 옛이야기와 캐릭터들을 만나고자 하였다.

3) 콘텐츠 제작 기획하기

월요일마다 업로드되는 월요일계 [이야기밥]의 콘텐츠는 액자 구조를 취하며 세 층위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7) https://www.youtube.com/channel/UCwICeS_3HODeCGnmuw03pLw/about



[그림 4] 월요계 [이야기밥]의 세 층위

첫째 층위는 금요계 [놀이육아]에서 별꽃맘이 세 자녀인 한별, 두별, 세별에게 <오늘이> 그림동화책을 읽어주는 장면이며, 일상생활 속에서 옛이야기 동화책을 매개로 부모-자녀 간 대화가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독서 대화가 펼쳐진다. 둘째 층위는 월요계 [이야기밥]의 끝이야기로 인형애니메이션 <오늘이>가 제작된다. 그림동화책 <오늘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여 오늘이와 내일의 만남이 이루어지며 이후 옛이야기 캐릭터와의 만남을 이끌어간다. [이야기밥]의 속이야기로서 오늘이와 내일의 옛이야기 여정 중에 만난 이야기와 이야기 속 캐릭터의 만남이 펼쳐진다.²⁸⁾

이 같은 서사적 변용 외에 옛이야기의 현대적 감각을 표현하기 위하여 L.O.L이라는 장난감 캐릭터 활용하였다. L.O.L은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 있는 장난감 캐릭터이다.²⁹⁾ 연구자의 딸도 한동안 L.O.L의 팬

28) 기존의 <오늘이> 콘텐츠와 달리 [이야기밥]에서는 <오늘이>가 본격적인 옛이야기 탐방이 펼쳐지는 이야기판의 역할을 하므로 기존의 서사를 모두 구현할 필요가 없기에 오늘이와 내일이 만나는 부분까지만 제작되었다. 이후 <오늘이> 시리즈가 계속 될 경우, <오늘이> 이야기의 거시적인 서사구조(부모찾기 + 타인돕기)는 따르되,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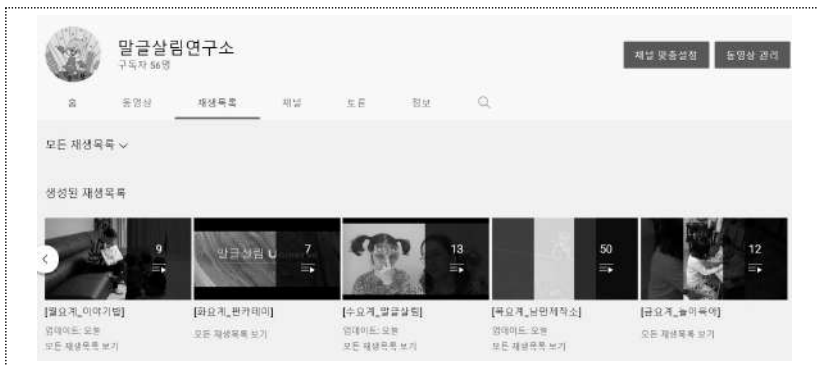
29) 하나당 2만원 정도하는 적지 않은 비용의 손바닥만한 작은 인형이 밀봉된 통에 들어 있는데, 어떤 인형이 나올지는 통을 열기 전에는 알 수 없기에 소비자의 구매욕과 수

이어서 상당수의 L.O.L 인형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듯 다른 캐릭터로 관심이 옮겨져서 값비싼 L.O.L 인형들이 정리상자 구석에 덩그러니 자리하고 있었다. 옛이야기 캐릭터의 밈성을 더하기 위하여 이미 매니아층을 확보한 L.O.L 인형을 활용하여 <오늘이> 캐릭터로 삼았다.

3. 실행

1) 채널 개설

2020년 2월 11일 구글 계정을 만들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였으나 전혀 운영을 하지 않았었다. 2020년 11월 30일부터 <말글살림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본격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하였다. 2021년 9월 21일 현재까지 업로드된 동영상은 110개이며 구독자는 56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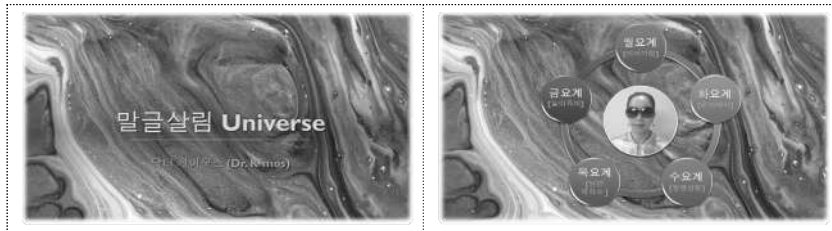
[그림 5] 유튜브 「말글살림연구소」 채널³⁰⁾

집벽을 자극한다. 최근에는 자녀의 인형을 사주다가 본인이 더 광적인 L.O.L 매니아가 되어 L.O.L.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블로거나 유튜버들도 늘고 있다.

30) https://www.youtube.com/channel/UCwICeS_3HODeCGnmuw03pLw

2) 세계관 구축 및 캐릭터 설정

말글살림 유니버스의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세계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을 화요계 [편카데미]에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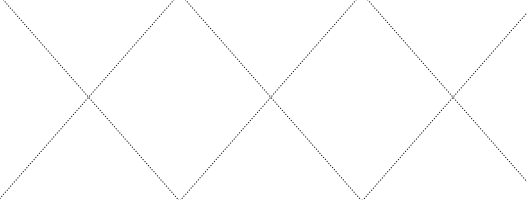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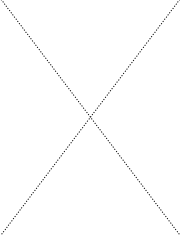
[그림 6] 말글살림 유니버스³¹⁾

동시에 말글살림 유니버스의 세계관별로 캐릭터를 설정하였다. 이렇게 세계관별 캐릭터를 설정하는 이유는 콘텐츠 제작 당시 유행했던 ‘부캐 신드롬’ 때문이다. 공중파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부캐(부수적인 캐릭터, sub-character)’란 현실의 캐릭터와는 다른 캐릭터를 뜻하는 신조어다. 이러한 부캐는 ‘다중 정체성(multiple identity)’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현실 세계에서 특정한 역할 - 엄마, 교사, 신앙인 등 - 을 맡게 되는데 그 역할에 맞는 사회적 기대가 형성되고 그러한 캐릭터는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언행을 하게 되어 역할별 정체성으로 점점 고착화된다. 하지만 부캐는 제3의 공간을 형성하여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역할을 시도해봄으로써, 본캐(본래의 캐릭터, main-character)가 현실 세계에서 억눌렀던 욕망이나 하고 싶었던 꿈들을 펼치며 다중 정체성을 실현하게 한다.

말글살림 유니버스 역시 각 세계관별로 다음과 같이 캐릭터를 다르게 설정하여 생산-주체의 다중 정체성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각각의 캐릭터

31) <https://www.youtube.com/watch?v=LfbDbZEO2k0&list=PLKgUVppRqbszNw9VGJERYi-GEv7nr7G3s>

[표 2] 말글살림 유니버스의 세계관별 캐릭터

현실계 말글계	연구자(엄마)	첫째(딸)	둘째(아들)	막내(아들)
월요일계 ³²⁾ [이야기밥]				
	내일이	오늘이	[매일이]	[백주할멈]
화요일계 [편카데미]				
	닥터 케이모스			
수요일계 [말글살림]				
	오글썸	이말글 박사	캡틴 코리어나	전대화 교수
목요일계 [낭만 제작소]				
			낭만장미	김박순
				
	난콩콩			
금요일계 [놀이육아]				
	별꽃맘	한별이	두별이	세별이

들은 각 세계관별로 특징적인 외모나 성격을 지닌다. 예를 들어 수요계 [말글살림]에서 ‘오늘썸’은 본캐인 연구자(엄마)와 달리 매우 친절하고 항상 웃음이 가득하며 바른 말을 사용한다. ‘이말글 박사’는 본캐인 초등생 딸과 달리 어르신 같은 말투로 “자네~한가”라는 말투이다. ‘전대화 교수’는 본캐인 막둥이처럼 웅얼이 같은 말을 하지만, 말풍선을 통해 교수로서 바람직한 화법에 대한 전문적 견해를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현실 세계와는 다른 가상 세계에서의 다중 정체성을 창출한다.

3) 촬영

① 1층위: 그림동화책 <오늘이>

1층위는 연구자와 자녀들이 동화책을 매개로 대화하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상태에서 촬영하였다. <오늘이> 이야기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그대로 담았으며, 이야기 전편을 읽어주지 않고 ‘오늘이와 내일이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부분까지 총 3편의 영상을 제작하였다.



[그림 7] 그림동화책 <오늘이>와 함께 하는 독서 대화³²⁾

32) 월요계에서 둘째아들과 막내아들은 ‘오늘이 목소리’에 카메오로 출연했다. 매일이와 백주할멈은 대사가 많아서 연구자(엄마)가 담당하였다. 첫째딸은 오늘이 외에도 이무기, 각종 생명체 등의 더빙을 담당하였다.

33) **오늘이 이야기1** (2020.12.7.) https://www.youtube.com/watch?v=vWqZfeY_AD0
오늘이 이야기2 (2020.12.14.) <https://www.youtube.com/watch?v=XAE0Y14uCm0>
오늘이 이야기3 (2020.12.21.) https://www.youtube.com/watch?v=0Fj_lwfuekE

② 2층위: 인형애니메이션 <오늘이>

제주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를 원전으로 하는 <오늘이> 이야기는 그동안 다양한 양태로 변용되어 왔다. <오늘이>의 원전설화인 ‘원천강본풀이(袁天綱本解)’는 본래 제주지역의 서사무가로서, 여자아이 ‘오날’의 부모 찾는 여정을 풀어낸 이계(異界)여행담인 박봉춘 본과, 왕이 될 운명이었던 남편이 나라에 잡혀가 죽게 하는 부인 원천강의 이야기를 풀어낸 조술생 본이 있다.³⁴⁾ 이 중에서 동화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타인을 돕는 여신(또는 여자아이)’의 화소를 지닌 박봉춘 본이다. 박봉춘 본 ‘원천강본풀이’는 동화책으로 만들어졌는데, 대표적인 작품으로 서정오(2007)³⁵⁾와 이성강(2004)³⁶⁾의 <오늘이>가 있다. 이중 이성강의 동화책은 이전해 작가가 기존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각색하여 제작한, 16분 정도 분량의 애니메이션 <오늘이>(2003)의 장면을 그림책으로 엮은 것이다.³⁷⁾



[그림 8] 애니메이션 <오늘이>의 장면³⁸⁾

34) 이종호,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와 애니메이션 <오늘이> 비교 연구」, 『온지논총』 제27호, 온지학회, 2011, 193-230쪽.

35) 서정오, 『서정오 선생님이 들려주는 우리 신화: 오늘이』, 봄봄, 2007.

36) 이성강, 『오늘이』, 문공사, 2004.

37) 애니메이션 <오늘이>는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국어교과서 1-2단원에 수록되어 있다. 해당 단원은 ‘만화 영화를 감상하고 사건을 생각하며 이어질 내용을 쓰고 이야기책 만들기 생각하기’라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교과서에는 캡처된 장면이 사진으로 제시되지만, 수업 상황에서는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본 후 학습활동이 수행된다.

38) 애니메이션 <오늘이> https://www.youtube.com/watch?v=11J9A-3_6qA

인형애니메이션 <오늘이>는 제작 기획에 따라 L.O.L 인형을 활용하
 되, 인형 크기에 맞는 무대를 세팅하여 사진을 촬영한 후, 해당 사진으로
 PPT를 제작하였다. PPT는 영상녹화 프로그램 Doc Zoom을 활용하여
 PPT 화면을 넘기면서 즉흥적으로 녹음 및 녹화가 진행되었다. 둘째 아
 들(7세)과 막내 아들(4세)은 사전에 대사를 녹음하여 PPT 녹화 시 삽입
 하였다. 음향은 저작권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우려가 적은 휴
 대폰 벨소리를 활용하여 필요한 장면에 삽입하였다. 유튜브 영상 콘텐츠
 라는 특성을 살려 시작 장면(intro)과 마무리 장면(outro)을 만들었고, 영
 상의 말미에는 ‘구독’과 ‘좋아요’를 독려하는 문구를 넣었다.



[그림 9] 시작 & 마무리 장면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함께 제작한 인형애니메이션 <오늘이>는 총5
 편으로서 5개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다. 1편은 오늘이가 탄생하는 장면
 을 보여주었고, 2편은 오늘이가 부모를 찾으러 여행을 떠나다가 백주할
 멈을 만나는 에피소드를 다루었다. 3편에서는 오늘이와 매일이의 만남,
 4편에서는 오늘이와 이무기의 만남을 보여주었다. 5편에서는 오늘이와
 내일이가 만나 함께 옛이야기 여행을 떠나는 장면으로 시리즈를 마무리
 하였다.³⁹⁾

39) 교과서에 수록된 애니메이션 <오늘이>와 <원천강본풀이>의 서사 비교는 이종호(2011)
 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표 3] 〈오늘이〉의 서사적 변용 양상

Ep.	원천강본풀이 (서사무가)	교과서 (애니메이션)	동화책 (그림동화집)	유튜브 (인형애니메이션)
1	-	원천강의 오늘이	-	-
2	강림들의 오늘이	물으로 온 오늘이	강림들의 오늘이	강림들의 오늘이
3	백씨 부인과 만남	-	백주할머니 만남	백주할멈과 만남
4	장상(男)과 만남	매일(男)과 만남	장상도령과 만남	매일이(男)와 만남
5	연꽃나무와 만남	연꽃나무와 만남	연꽃과 만남	-
6	-	구름(소년)과 만남	-	-
7	큰 뱀과 만남	이무기와 만남	이무기와 만남	이무기와 만남
8	매일이(女)와 만남	-	내일이(女)와 만남	내일이(女)와 만남
9	옥황 시녀와 만남	-	선녀와 만남	-
10	부모님과 만남	학 ‘야야’와 재회	부모님과 만남	-
11	-	원천강의 회복	-	-
12	오늘이의 귀환	고민들의 해결	오늘이의 귀환	-
13	선녀 되어 승천함	-	선녀가 된 오늘이	-
특징	• 무속적 • 신과 만남 • 신이 되기 위 한 통과의례로 서 타인의 팔 자를 해결함 • 신녀(神女)가 된 오늘이	• 환상적 • ‘행복’이라는 감정에 초점 • 이무기의 도움 으로 고난 극복 • 부모 등장 없음 • 오늘이 그 자체 가 된 오늘이	• 교훈적 • 타인을 도와주 는 오늘이의 행위에 초점 • 원전설화의 서 사구조에 충실 • 선녀(仙女)가 된 오늘이	• 유희적 • 현대적 (인간) 캐릭터와 만남 • 길이야기로서 원전설화의 서 사 부분 차용 • 여행자가 된 오 늘이와 내일이

인형애니메이션 <오늘이>의 각 에피소드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Ep1. ‘오늘이의 탄생’

- 업로드일: 2020.12.28.
- 줄거리: 바람만 가득한 광활한 강림들(#1-1)에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물체가 언젠가부터 놓여 있다. 곤충, 어류, 공룡 등 각종 생명체들이 등장(#1-2)하여 해당 물체 주변을 기웃거린다. 그러던 어느날, 특별한 탄생의 기운(#1-3)이 강림들을 감돌았고, 물체가 열리며 이름도, 성별도, 나이도 알 수 없는 어떤 존재가 탄생한다(#1-4).
- 변용: 강림들은 태초의 땅이며 각종 생명체들은 지구의 역사에 따라 등장한다. 기존 서사에서는 ‘여자’로 설정된 강림들의 아이는 이번 서사에서 혼종적 정체성의 성격으로 설정되었다. 오늘이는 여성도, 아이도 아닌,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모두의 현현(懸懸)이다.

Ep2. 오늘이의 여행

- 업로드일: 2021.1.4.
- 줄거리: 태어나자마자 콧노래를 부르며 어딘가로 떠나던(#2-1) 강림들의 존재는 여정 중에 다양한 생명체들을 만나 “나는 누구?”라며 물어보지만 모두들 모른다고 답한다(#2-2). 이때 갑자기 백주할멈이 나타나 “넌 오늘이”라고 말하며(#2-3) “원천강 가서 부모를 만나라”고 한다(#2-4).
- 변용: 원전에서는 각종 생명체가 강림들의 아이를 보살피주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번 서사에서는 강림들의 아이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였다. 백주할멈은 기존에 ‘할머니’로 재현되고는 하지만, 제주에서 ‘할멈’은 여성에 대한 존대어라는 점에 착안하여 할머니가 아닌 핑크색 욕조를 타고 다니는 발랄한 여인으로 설정하였다.

Ep3. 오늘이와 매일이

- 업로드일: 2021.1.12.
- 줄거리: 백주할멈의 말을 듣고 “나는 오늘이”라는 자작곡을 부르며 원

천강으로 향하던 오늘이(#3-1)는 허름한 오두막집에 살고 있는 매일이를 만난다(#3-2). 아침마다 출근하기도 전에 퇴근을 꿈꾸는 매일이는 언제까지 일만 해야할지 고민이다(#3-3). 매일이의 고민을 부모님께 전 해드리기 위해 오늘이는 다시 원천강으로 길을 떠난다(#3-4).

- 변용: 기존 서사에서 매일이(또는 장상도령)는 글만 읽는 청년(남성/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서정오의 동화책 <오늘이>에 따라 청년남성으로 설정하였다. 영문도 모른 채 하루종일 글만 읽는 기존 서사의 매일이와 달리, 이번 서사에서는 매일의 생계를 위해 일만 하는, 그와 동시에 빨리 부자가 되어 조기은퇴를 꿈꾸며 열심히 일하는 현대 사회의 청년들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바꾸었다.

Ep4. 오늘이와 이무기

- 업로드일: 2021.1.19.
- 줄거리: 원천강으로 향하던 오늘이는 드넓은 바다에 도착하게 된다(#4-1). 조용하던 바다에서 갑자기 이무기가 나타나(#4-2) 오늘이에게 자신이 수집한 수많은 여의주에 대해 자랑한다(#4-3). 그러면서 오늘이에게 이렇게 여의주가 많은데 왜 아직도 용이 되지 않는지 부모님께 물어봐달라고 부탁한다(#4-4).
- 변용: 이무기는 탐욕적인 인간 또는 욕망이라는 감정의 원형이다. 이무기와 여의주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약간의 엉뚱함과 반전적 재미를 위하여 만화캐릭터(터닝메카드)와 당구공으로 재현하였다. 이무기의 탐욕적인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 마음 속에 가득한 욕심과 타인에 대한 무례함이 잘 살아나도록 연구참여자(딸)가 연극적인 목소리로 표현하였다.

Ep.5. 오늘이와 내일이

- 업로드일: 2021.1.26.
- 줄거리: 원천강으로 향하던 오늘이는 멋진 저택에 사는 내일이를 만나게 된다(#5-1). 내일이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공부만 하는데 그 내일이 대체 언제 오는지 궁금하다(#5-2). 이에 오늘이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오늘”이라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더 나은 오늘”을 살아야한다고 답한다(#5-3). 이에 용기를 얻은 내일이는 오늘이와 함께 옛이야기의 여정을 시작한다(#5-4).
- 변용: 기존 서사에서 내일이(또는 매일이)는 장상도령과 같이 글만 읽고 있지만, 이번 서사에서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설정하였다. 오늘이가 내일이의 고민에 화답하며 함께 떠날 것을 제안하지만 내일이는 내일을 위한 오늘의 공부를 위해 떠나지 않겠다고 한다. 하지만 오늘이가 재차 합류를 권유하자, 내일만 위해 살아왔던 오늘이는, ‘지금 이순간’을 위해 오늘이와 함께 집을 떠나 옛이야기 여행을 떠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유튜브 기반의 옛이야기 디지털 콘텐츠인 인형애니메이션 <오늘이>는 ‘부모 찾아 떠나는 오늘이의 여정’이라는 서사적 줄기는 유지하되, 각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 매일이는 청년노동자, 내일이는 입시준비생 등 - 및 재현(representation)하였다. 속 이야기의 이야기판을 펼치고 이끌어가는 겉이야기로서 인형애니메이션 <오늘이>는 기존 서사와 달리 ‘오늘이와 내일이의 만남’까지만 다룬다. 이계탐험담으로서 <오늘이> 이야기는 자칫 이야기들의 파편적 나열이 될 수 있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비선형성에 서사성을 부여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전체에 중심을 잡아줌과 동시에 시청자들의 채널 충성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그림 10] 인형애니메이션 <오늘이> Ep1. ‘오늘이의 탄생’⁴⁰⁾



[그림 11] 인형애니메이션 <오늘이> Ep2. ‘오늘이의 여행’⁴¹⁾

40) 인형애니메이션 <오늘이> Ep1. <https://www.youtube.com/watch?v=Qru6B6ozdVE>

41) 인형애니메이션 <오늘이> Ep2. <https://www.youtube.com/watch?v=8oYTfFH5TWc>



[그림 12] 인형애니메이션 <오늘이> Ep3. ‘오늘이와 매일이’⁴²⁾



[그림 13] 인형애니메이션 <오늘이> Ep4. ‘오늘이와 이무기’⁴³⁾

42) 인형애니메이션 <오늘이> Ep3. <https://www.youtube.com/watch?v=givXCu38eLc>

43) 인형애니메이션 <오늘이> Ep4. <https://www.youtube.com/watch?v=Os4nuKK6PfQ>



[그림 14] 인형애니메이션 <오늘리> Ep5. ‘오늘리와 내일리’⁴⁴⁾

이후 오늘리와 내일리가 여행에서 만나는 다양한 옛이야기들과 캐릭터들로 이루어지는 3층위를 촬영할 예정이었지만, 연구참여자인 딸이 옛이야기 콘텐츠 제작에 더 이상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잠정적으로 보류되었다.

4. 성찰

1) 효과분석

① 옛이야기 디지털 콘텐츠 제작의 즐거움

디지털 기술과 생태계에 낯선 디지털 이주민으로서 연구자는 이번 실험연구를 통하여 옛이야기 디지털 콘텐츠 제작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

44) 인형애니메이션 <오늘리> Ep5. <https://www.youtube.com/watch?v=ce2iEwxAqzU>

예전에는 전문가의 영역이라고만 여겼던 영상 촬영·편집이 별도의 장비 없이 손안의 작은 핸드폰을 활용하여 쉽게 이루어진다는 점이 정말 신기했다. 물론 디지털 원주민인 연구참여자(딸)에 비하면 촬영·편집 기술이 현저히 떨어지지만 머릿 속으로 구상했던 아이디어를 영상으로 구현하고, 이를 유튜브에 올려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이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경험이었다.

지인들에게 <말글살림> 채널과 <범 내려온다> 커버 영상을 공유하였다. 유튜버 데뷔냐고 난리. 000(큰딸)이 열일했다고 난리. 아직 시작이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 아이디어가 넘친다. 집에만 있으니 상상력만 늘어간다. **상상했던 것들을 하나씩 실현해가다 보면 뭔가 또 재밌는 일들이 펼쳐질 듯.** - 성찰일지(2020.12.3.)

인형애니메이션 <오늘이>를 본 시청자들은 “재밌다, 신선하다, 잘 만들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으며, 콘텐츠에 대한 평가 외에도 “자녀들이 귀엽다, 모녀의 끼가 넘친다” 등 생산주체에 대한 평가도 해주었다. 수용주체의 피드백은 이후 여러 콘텐츠를 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② 디지털 콘텐츠 매개의 부모-자녀 간 소통

유튜브를 운영하던 시기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연구자의 세 자녀들이 보육 및 교육기관에 가지 못하고, 연구자와 함께 집에 있던 때였다. 하루종일 자녀들과 있자니 딱히 할 일도 없어 지루하고, 형제자매끼리 투닥거리며 싸우거나 온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일쑤였다. 특히 초등학생인 큰딸과는 공부 문제로 인해 종종 다투고는 하였다.

그러다가 함께 유튜브 콘텐츠 제작하면서 엄마와 딸의 공동목표가 생기게 되었고, 콘텐츠 제작을 위해 대화하거나 협업하는 기회가 많아져서 빈번한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모녀 간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또

한 디지털 원주민인 딸은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편집 등 디지털 기술이
엄마보다 탁월하고, 디지털 이주민인 엄마는 디지털 콘텐츠 비판 능력이
딸보다 뛰어났다.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통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해주고 각자 잘하는 역량을 발휘하면서 영상 제작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었다.

③ 디지털 이주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옛이야기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하여 디지털
이주민으로서 연구자 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상당히 함양되었다. 유
튜브 시청조차 거의 하지 않았던 연구자는 이제 채널 컨셉과 운영 방
안을 기획하고 나름 유튜버로서 책임감을 갖고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하게
되었다.⁴⁵⁾

지금 꾸준히, 매일 영상을 업로드 하고 있다. 애초부터 각 요일별로 별도
의 은하계를 만들었고 은하계마다 새로운 부캐가 새로운 인격으로 등장하
다. 일단 던져놓고 키워가는 느낌이다. (...) 이전까지 영상은 기존 영상을 올
리거나 딸이 알아서 편집한 걸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어제 수요계
[말글살림]에서는 제대로 시늉을 짜고 영상을 찍고 내가 편집도 다 했다. 7
분짜리 영상인데 거의 4시간 넘게 했다. (...) ‘유튜버’, ‘인플루언서’라고 하
기에는 아직 이르지, 뭔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가고, 나 스스로 시대의 흐름
에 발맞춰가는 느낌이라 참 재미있다. 이러다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새로운 탐험과 도전을 하는 나 자신을 아주 칭찬한다! - 성찰일지
(20.12.10.)

실행하면서 배우는 실천적 지식으로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앎과 함의
조화가 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것을 이번 실험연구를 통해 절실히

45) 디지털 원주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에 대한 부분은 추후연구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깨닫게 되었다. 모바일로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툴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누구나 1인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다.

2) 평가

유튜브 기반 <오늘이> 콘텐츠 제작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효과도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

첫째, 지나치게 연구자 중심의 제작이었다. 전반적으로 연구자가 중심이 되어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였고 채널을 운영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연구참여자의 참여가 떨어지고 있었다. 대화를 나눈 결과, 연구참여자는 옛이야기 외에도 다양한 주제와 장르의 콘텐츠를 시도하고 싶어 했으며, ‘엄마의 개입’ 없이 자기 주도적으로 마음껏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어 하였다.

둘째, 영상 제작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성찰 기록을 하지 않았다. 연구자는 습관적으로 무엇을 하든 성찰일지를 기록하는 편이지만, 연구참여자는 별도의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경험 및 성찰을 알 수 없었다.

셋째, 채널의 구독자가 너무 적었다. 유튜브의 장점은 생산주체와 수용주체의 상호소통인데, 해당 채널의 구독자가 적어서 조회수도 적었고, 댓글도 많이 달리지 않아서 옛이야기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수용자들의 반응을 잘 알 수 없었다.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고 업로드하는 것에 비해 구독자수가 늘지 않는 현상으로 인해 점차 제작에 대한 의욕이 줄어들었다.

이상의 성찰을 바탕으로, 1차 실행연구에 대한 계획수정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2차 실행연구에서는 채널 운영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있어 연구참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야 한다. 둘째, 연구문제의 이원화가 필요하다. 옛이야기 디지털 스토리텔링 영상은 이에 관심이 많은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만들고 싶은 콘텐츠를 마음껏 만들되 디지털 문화기술지의 일환으로서 촬영일지를 함께

만들어 제작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게 한다. 셋째, 구독자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 운영 방법에 대한 영상이나 책을 통해 유튜브 생태계를 깊이 이해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이 연구는 제주 서사무가 ‘원천강본풀이’를 원전으로 하는 옛이야기 <오늘이>의 디지털 스토리텔링으로서, 연구참여자와 함께 연구자가 직접 유튜브 플랫폼을 기반으로 <오늘이> 이야기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시도한 실행연구이다.

연구결과, 연구자 본인은 옛이야기 디지털 콘텐츠 제작의 즐거움을 경험하였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 매개로 하여 연구참여자인 딸과 연구자인 엄마가 빈번한 상호소통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이주인이었던 연구자가 직접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튜버로서 채널을 운영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옛이야기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연구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 디지털 생태계를 체험한 자문화기술지 기반의 실행연구를 수행하였다. 둘째, 옛이야기의 디지털 콘텐츠화를 통한 현대적 변용 가능성을 실험하였다.

1차 실행연구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연구자 주도의 ‘옛이야기 디지털 콘텐츠화’와 연구참여자 주도의 ‘유튜버 경험에 대한 디지털 자문화기술지’의 연구로 이원화시켜 연구를 지속해 나아갈 것이다.

참고문헌

- 곽영미·현은자, 「아기 돼지 삼형제」 옛이야기를 원전(原典)으로 한 크로스오버 작품 분석: 문학, 애니메이션, 인터넷 광고 중심으로, 『어린이문학교육연구』 제16권1호,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2015.
- 교육부,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4학년 2학기(가), (주)미래엔, 2021.
- 구광본, 「문학 장르로서의 옛이야기」, 『대중서사연구』 제25호, 대중서사학회, 2011.
- 권혁래, 「옛이야기 캐릭터의 변모와 활용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5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9.
- 김만수, 「‘두 형제’ 이야기의 원형과 현대적 변용」, 『구보학보』 제24호, 구보학회, 2020.
- 김영천·이동성, 「자문화기술지의 이론적 관점과 방법론적 특성에 대한 고찰」, 『열린교육연구』 제19권4호, 한국열린교육학회, 2011.
- 김윤경, 「고전시가의 향유방식 특징 탐구: 한국관광공사 <범 내려온다>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53권, 이화어문학회, 2021a.
- 김윤경, 「‘뽕수 화법’의 특징 및 의의 탐구: 사회언어학적 담화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54권, 이화어문학회, 2021b.
- 박윤희, 「디지털 서사 논의의 현황과 전망」, 『우리어문연구』 제24권, 우리어문학회, 2005.
- 박창민·조재성, 『실행연구 이론과 방법』, 아카데미프레스, 2016.
- 서정오, 『서정오 선생님이 들려주는 우리 신화: 오늘이』, 봄봄, 2007.
- 윤지수, 「‘빨간 모자’의 패러디 양상과 교육적 가치」, 『어문교육』 제47권, 한국어문교육학회, 2013.
- 이미연·허승희,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연극텍스트화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62권, 한국문학학회, 2012.
- 이성강, <오늘이> 애니메이션, 디앤엠커뮤니케이션, 2003.
- 이성강, 『오늘이』, 문공사, 2004.
- 이재홍, 「구비문학을 활용한 게임의 인문학적 상상력에 관한 고찰」,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0권2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2.
- 이재홍, 「문화원형을 활용한 게임스토리텔링 사례 연구」, 『한국문학과 예술』 제7권, 한국문화회예술연구소, 2011.
- 이종호, 「서사무가 <원탄강본푸라>와 애니메이션 <오늘이> 비교 연구」, 『온지논총』 제27호, 온지학회, 2011.
- 임재해, 「디지털 시대의 고전문학과 구비문학 재인식」, 『국어국문학』 제143호, 국

- 어국문학회, 2006.
- 임형택, 「구비문학 3.0: 디지털과 3차적 구술성의 문학 환경에 대하여-문학의 전
화(轉化)에 대한 미디어철학적 시고(試考)」, 『한민족문화연구』 제59권, 한
민족문화학회, 2017.
- 조용환, 「현장연구와 실행연구」, 『교육인류학연구』 제18권4호, 한민족문화학회,
2015.
- 최혜실, 「디지털 문화 환경과 서사의 새로운 양상」, 『구비문학연구』 제16호, 한국
구비문학회, 2003.
- Jones, A., Assessing international youth service programmes in two low income
countries. *Volunteering Research*, 7(2), 2005.
- Kemmis, S., & McTaggart, R., *The action research reader*, Geelong: Deakin University
Press, 1988.
- Kress, G., Multimodal discourse analysis, In J. P. Gee & M. Handford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Routledge, 2012.
- Leedy, P. D., & Omrod, J. E., *Practical Research Planning and Design* (5th ed.).
New Jersey: Pearson Merrill Prentice Hall, 2005.
- Oakeshott, M., *Rationalism in politics and other essays*, Indianapolis: Liberty Press,
1962.

An Action Study on Digital Storytelling of Folklore
—Focusing on the <Onuri> series of YouTube
「Word Work Center」—

Kim, Yun Kyoung
(Word Work Center)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onduct an action study for the production of digital storytelling video based of an old story focused on <Onuri> story.

The effect of digital content production was first, experienced the joy of creating old-fashioned digital content, second, communication through digital media was frequent between a digital native daughter and a digital migrant mother (researcher), and third, the cultivation of digital literacy through digital content production.

Based on the reflection on the first action research, thereafter, digital content production of old stories by digital migrants (researchers) and free-themed content production by digital natives (daughters) will be carried out.

Keywords : old story, Youtube, Onuri, digital storytelling, digital literacy

투고일 : 2021. 10. 02. / 심사일 : 2020. 10. 05. / 심사완료일 : 2021. 10. 10.

과학교사와 함께하는 과학고전읽기의 성과*

—코스모스(칼 세이건)를 중심으로—

문영하**

【 목 차 】

- I. 여는말
- II. 『코스모스』 읽기 준비 과정
 - 1. 학생 모집
 - 2. 코스모스 사전 모임
- III. 『코스모스』 읽기 6회 과정
 - 1. 1회 모임
 - 2. 2회 모임
 - 3. 3회 모임
 - 4. 4회 모임
 - 5. 5회 모임
 - 6. 6회 모임
- IV. 『코스모스』 과학고전읽기를 통한 성과
 - 1. 과학적 상상력의 신장
 - 2. 과학적 질문과 탐색
 - 3. 함께 읽는 즐거움
- V. 맺으며

* 과학고전읽기 수업은 매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홍영일 박사의 헌신으로 진행된 행복죽살롱(행복가교)을 통해서 배운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줌(ZOOM) 사용 기법과 다양한 분야에 나눔을 해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과학 고전 함께 읽기라는 작품이 나온 것이다. 전국적으로 비대면 활동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독서 모임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발표 기회를 주신 학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 경북영광여자중학교 과학교사, m691115@naver.com.

국문초록

본 연구는 코스모스(칼 세이건) 과학고전 읽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비대면 상황에서 열린 독서의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영주과학교사모임이 주관한 과학교사와 함께하는 과학 고전 읽기 전 과정을 정리해 보고 비대면 상황에서 줌(ZOOM)을 통하여 학생들과 함께할 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과학 고전 읽기 모집과 준비과정, 진행된 상황들을 공유하고, 변화된 생각들을 통해 함께 읽는 즐거움과 나눔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세 가지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과학고전 읽기를 통하여 과학적 상상력, 과학적 질문과 탐색, 협력을 통한 효과를 얻었다.

첫째, 과학 고전 읽기를 함께함으로써 방대한 분량의 책을 완독하고, 책에 담긴 내용을 통해 과학적 상상력을 신장시키고자 했다.

둘째, 독서를 통하여 학생 스스로 질문하고 그 해답을 직접 찾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경험하면서 과학적 질문을 생성하고 답하는 탐색 과정에서 과학적 사고능력을 키우고자 했다. 생각하는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탐색 하는 시간을 주고자 했 학생들이 해결하지 못한 과제는 교사들과 함께 나누고 상호 교감의 시간을 통해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했다.

셋째, 학생들이 자신이 읽은 분야를 직접 PPT를 만들어보고 발표하는 훈련을 통하여 학생이 직접 결과를 도출하여 문제해결력을 키우고 함께 하는 독서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였다. 착박한 과학의 토양에서 찬란한 꽃을 피우기 위해 영주과학교사모임이 추구하는 과학 고전 읽기 프로그램은 씨앗이 되어 학생들이 저마다의 찬란한 꽃을 피워 과학발전에 기여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핵심어 : 칼 세이건, 과학고전읽기, 과학적 상상력의 신장, 과학적 질문과 탐색, 함께 읽는 즐거움

I. 여는 말

영주과학교사모임은 1999년 3월에 영주지역 과학 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수업을 나누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과학 활동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결성된 교사 연구 조직이다. 청소년들에게 여름 방학에는 과학캠프를 통하여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과 탐구 능력을 키워주고, 겨울 방학에는

천문캠프를 통하여 천체망원경을 직접 조립하여 밤하늘의 별을 직접 관측하여 행성과 별들의 특징을 알게 되었고, 천문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외에도 영주과학축전을 기획하고 준비하여 학생들에게 더 큰 과학의 꿈을 심어주고 이를 실천하도록 쉬지 않고 활동을 이끌어왔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주과학교사모임에서 주관하는 과학캠프, 천문캠프, 과학축전 행사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1년 동안 하지 못한 행사로 인하여 학생들과 떨어진 과학 활동을 다시 시작해보고자 학생들과 함께 과학 고전 읽기를 제안하였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가만히 있을 것을 요구했지만, 2021년은 용기를 내어서 줌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비대면 과학 캠프와 과학 고전 읽기를 진행하게 되었다. 새로운 환경에 맞는 과학 고전 읽기를 기획하여 온택트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그동안의 과정들을 정리하여 그 효과의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줌을 통한 소통과 과학 나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그동안 과학 행사는 손으로 만지고, 조립하고, 완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또한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대안으로 독서를 통한 방법을 생각했는데, 학생들의 상상력을 키우는 작업이야말로 비대면 상황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를 가지고 진행하게 되었다.



발족식(1999. 4.27)



제1회 과학캠프



제2회 천문캠프

과학교사와 함께하는 과학 고전 읽기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 고전 읽기를 함께함으로써 방대한 분량의 책을 완독하고, 책에 담긴 내용을 통해 과학적 상상력을 신장시키고자 한다.

둘째, 독서를 통하여 학생 스스로 질문하고 그 해답을 직접 찾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경험하면서 과학적 질문을 생성하고 답하는 탐색 과정에서 과학적 사고능력을 키우고자 한다. 생각하는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스스로 여유 있는 시간을 주고자 한다. 학생들이 해결하지 못한 과제는 교사들과 함께 나누고 상호 교감의 시간을 통해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한다.

셋째, 학생들이 자신이 읽은 분야를 직접 PPT를 만들어보고 발표하는 훈련을 통하여 학생이 직접 결과를 도출하여 문제해결력을 키우고 함께 하는 독서의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칼 세이건 코스모스에서 ‘책은 씨앗과 같다. 수 세기 동안 싹을 틔우지 않은 채 동면하다가 어느 날 가장 척박한 토양에서도 갑자기 찬란한 꽃을 피워내는 씨앗과 같은 존재가 책인 것이다.’¹⁾ 척박한 과학의 토양에서 찬란한 꽃을 피우기 위해 영주과학교사모임이 추구하는 과학 고전 읽기 프로그램은 씨앗이 되어 학생들이 저마다의 찬란한 꽃을 피워 과학발전에 기여하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코스모스』 읽기 준비 과정

1. 학생 모집

22년간 영주과학교사모임이 구축해 온 인적 네트워크는 훌륭하다. 먼저 포스터를 제작하여 카톡방에 안내하였다. 공문의 형식을 빌리는 것은 또 하나의 업무가 될 수 있어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1) 칼 세이건 저, 홍승수 옮김, 『코스모스』, 사이언스북스, 2016, 560쪽.

참가도 학생 본인이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진행하였다. 관내 중, 고등학교 12개교에 안내하였으며, 개인 SNS를 보고 신청한 초등학생도 있어 흥미로웠다.

- 1) 과학교사와 함께하는 과학고전읽기 포스터를 제작하여 학생들 개인에게 안내하였다.
- 2) 구글 폼을 통해서 학생들의 참가 신청서를 받았다.

 책 어디까지 읽어봤니? 과학교사와 함께 하는 과학고전 읽기 2021년 도서 코스모스(칼세이건) #정말 궁금했던 그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과학이란 인생이란? 주최처 신청기간: 4월20일(화)~5월8일(목) 신청처: 교사 문영하 (010-8770-7637) 후모임 사전모임: 5월9일 (일) 20시 모임: 월1회, 20시~21시30분 줄(200회) 5월23일 / 6월13일 7월25일 / 8월15일 9월12일 / 10월24일 ※ 별마는 밤(한재관주최) 8월15일 예정 ※ 참가학생에게 코스모스 책 제공 6회 참가자 선물 제공 영주과학교사모임	코스모스 고전 읽기 참가신청서 *과학교사와 함께 하는 과학고전 읽기 2021년 도서: 코스모스(칼세이건) ① 줄(200회), 월1회 밤8시~9시30분 ② 신청기간: 5월11(토)~5월15(토) ③ 사전모임: 5월9(일) 밤9시 ④ 모임: 5월23/6월13/7월25/8월15/9월12/10월24 ⑤ 별마는 밤(한재관주최)8월15 예정 ⑥ 참가자별 코스모스 책 제공, 6회 참가자 선물 1. 소속학교/학년 반 번호/성명(예: 영광여중/210/문영하) 담당할 텍스트 2. 지도교사 연락처(예: 010-8770-7637) 담당할 텍스트 3. 집 주소(책방을 집주소 우편번호, 주소) 정확하게 기입하세요. 담당할 텍스트 4. 자신을 알려주세요(姓) 담당할 텍스트 5. 책 읽기에 참가하는 생각/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은? 담당할 텍스트
과학고전읽기 포스터	구글폼 활용 학생 참가신청서

신청 인원은 학생 46명과 교사 18명(영주과학교사모임 교사 6명과 소소한 책방 교사 12명)으로 총 62명이 신청하였다.

- 3) 참가 학생들을 위한 카톡방을 개설하여 사전모임을 안내하였다.
- 4) 참가 학생들에게 코스모스(칼 세이건) 책을 카톡 선물로 보내 주기

도 하고 학교별로 과학 교사에게 구매하여 나누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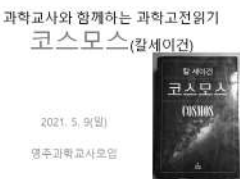
- 5) 비대면 모임을 위해 줌(ZOOM) 아이디와 비번을 카톡방에 안내하였다. 이후부터는 학교별 지도교사의 도움없이 카톡방에서 모든 일정을 안내하고, 행사 참여를 수시로 점검하였다.

2. 코스모스 사전 모임

1) 일 시: 2021년 5월 9일(일) 20:00~21:00

2) 참가자: 53명

3) 내 용: 참가 학생들이 서로 다른 학교로 낯설어하는 분위기를 줄이기 위해 먼저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비대면 줌을 통한 인터넷 예절 및 함께 읽기를 위한 안내를 하였다. 인터넷 예절 교육에 당부한 것은 타인의 얼굴 사진을 캡처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으니 하지 않기를 당부했으며, 줌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사유가 없으면 화면을 켜고 적극적으로 참가하기를 당부하였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지 모두 화면을 켜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과학교사와 함께하는 과학고전읽기 코스모스(칼세이건) 2021. 5. 9(일) 영주과학교사모임	3. 과학이 있는 밤 '과학교사와 함께 하는 과학고전 읽기' 2021년 도서: 코스모스(칼세이건) 월1회[일 9시~10시30분(6회)] 5,6,7,8,9,10월 문화행사로 별관측회 1회 책 제공, 6회 참가자 선물	
사전모임 PPT	사전모임 PPT	참가자 사진

Ⅲ. 『코스모스』 읽기 6회 과정

코스모스 읽기 과정 6회를 다음 표로 정리하였다. 발표 일시, 발표 단

원, 발표자, 모임 형식에 대한 내용이다.

내용 횟수	일시	발표, 나눔 단위	발표자	비고
1회	5.23(일)	1. 코스모스 바닷가에서 2. 우주 생명의 푸가	문영하 교사	비대면 (ZOOM)
2회	6.13(일)	3. 지상과 천상의 하모니 4. 천국과 지옥	권석용 교사	비대면 (ZOOM)
3회	7.25(일)	5. 붉은 행성을 위한 블루스 6. 여행자가 들려준 이야기	문영하 교사	비대면 (ZOOM)
4회	8.13(금)	7. 밤하늘의 등뼈 8.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 9. 별들의 삶과 죽음	권도운 학생(중) 송시윤 학생(초) 문정현 학생(고)	대면 (영주발 명센터) 비대면 (ZOOM)
5회	9.12(일)	10. 영원의 벼랑 끝 11. 미래로 띄운 편지	문영하 교사	비대면 (ZOOM)
6회	10.24(일)	12. 은하 대백과사전 13. 누가 우리 지구를 대변해 줄까?	문정현 학생(고) 김옥경 교사	비대면 (ZOOM)

1. 1회 모임

1) 일 시: 5월 23일(일) 20:00~21:30

2) 참가 인원: 53명

3) 특 징: 첫 모임이라 참석 인원이 많았다. 패들렛에 많은 질문을 남겨 주었다. 문영하 교사가 40여 분간 1, 2장을 PPT로 설명하고, 권석용 교사가 학생들이 올린 질문을 받아서 설명해 주었으며, 감명 깊은 문장도 정리해 주었다. 학생들이 줌 화면을 켜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4) 활동 사진

		
참가자 단체사진	발표자: 문영하 교사	발표 화면

2. 2회 모임

1) 일 시: 6월 13일(일) 20:00~21:30

2) 참가 인원: 4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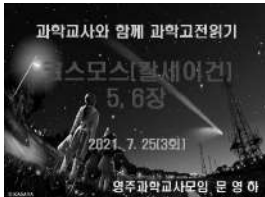
3) 내 용: 권석용 교사가 3, 4장을 설명하고 질문을 받았다. 1회 모임보다 참석 인원은 적었지만 코스모스를 즐겨 읽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패들렛 질문은 문영하 교사가 안내해 주었다. 학생들의 질문 내용이 1회보다 많았다. 후기에 남김 글들을 보니 적극적인 책임기 학생들이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생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 고등학생들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 마무리 시간에 문정현 학생이 신청곡을 받아서 줌으로 들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4) 활동 사진

		
참가자 단체 사진	발표자: 권석용 교사	발표 화면

3. 3회 모임

- 1) 일 시: 7월 25일(일) 20:00~21:30
- 2) 참가 인원: 35명
- 3) 내 용: 여름 방학을 하고 하는 모임이라서 참석이 조금 저조했다. 문영하 교사가 5, 6장을 안내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마치고 전에 학생이 틀어주는 음악으로 마무리하였다.
- 4) 활동 사진

		
참가자 단체 사진	발표자: 문영하 교사	발표 화면

4. 4회 모임

- 1) 일 시: 8월 13일(금) 17:30~21:00
- 2) 참가 인원: 34명(대면 18명, 비대면 16명)
- 3) 내 용: 영주발명센터에서 대면 행사로 진행하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참석인원이 적었다. 저녁 식사를 도시락으로 하고 먼저 플라네타리움에서 여름 별자리를 안내 하였다. 저녁 7시부터 대면, 비대면 행사를 함께 진행하여 7, 8, 9장을 학생들이 직접 준비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7장 송시운 초등학생, 8장 권도윤 중학생, 9장 문정현 고등학생이 발표를 하였다. 학생들이 직접 준비하고 발표하는 능력이 좋았다. 한 번 씩 학생들에게 발표 기회를 줌으로써 더 열심히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주게 된 계기가 되었다.

4) 활동 사진

		
대면 참가자 단체 사진	비대면 참가자 단체사진	플라네타리움 관람

		
발표자: 송시윤(초) 학생	발표자: 권도윤(중) 학생	발표자: 문정현(고) 학생

5. 5회 모임

- 1) 일 시: 9월 12일(일) 20:00~21:30
- 2) 참가 인원: 30여명
- 3) 내 용: 문영하 교사가 10, 11장을 발표하고 학생들의 감명 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교사들의 참여가 많았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나눔 활동에 감동을 받았다는 후기를 남겼다. 보이저호에 탑재한 레코드판을 회상하며 문정현 학생이 레코드판을 틀어주고 직접 음악을 송출하였다.
- 4) 활동 사진

		
참가자 단체 사진	발표자: 문영하 교사	레코드판으로 음악 송출

6. 6회 모임

1) 일 시: 10월 25일(일) 20:00~22:30

2) 참가 인원: 38명

3) 내 용: 발표자는 소소한책방 김옥경 교사, 문정현 학생이 담당하고, 고 홍승수 교수님 제자 초청 박순창(메타스페이스)대표를 초대하여 번역한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교수님의 천문학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제자를 통해서 듣는 시간을 가졌다. 문영하 교사는 학생 설문조사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고 이후 일정과 2022년 과학 고전 읽기 활동

		
참가자 단체사진	발표자: 문정현(고) 학생	발표자: 김옥경 교사
		
마무리 정리자: 문영하 교사	플룻 연주: 문정현(고) 학생	박순창(홍승수 교수님) 제자

이 지속적으로 되기를 희망하며 마무리 하였다. 학생이 만든 영상을 상영하고 마무리는 문정현 학생의 플룻 연주로 마감하였다.

열심히 참석한 학생들을 위하여 수시로 간식(바나나우유, 아이스크림, 편의점 사용권, 딸기 빵, 빙수 등)을 제공하여 참여를 독려했다. 선물은 비대면 환경에서 카카오톡으로 선물 하였다.

IV. 『코스모스』 과학고전읽기를 통한 성과

6회의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의도한 목표를 어떻게 이루었는지 그 성과와 효과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우리가 제시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 고전 읽기를 함께함으로써 방대한 분량의 책을 완독하고, 책에 담긴 내용을 통해 과학적 상상력을 신장시키고자 한다.

둘째, 독서를 통하여 학생 스스로 질문하고 그 해답을 직접 찾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경험하면서 과학적 질문을 생성하고 답하는 탐색 과정에서 과학적 사고능력을 키우고자 한다. 생각하는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스스로 여유 있는 시간을 주고자 한다. 학생들이 해결하지 못한 과제는 교사들과 함께 나누고 상호 교감의 시간을 통해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한다.

셋째, 학생들이 자신이 읽은 분야를 직접 PPT를 만들어보고 발표하는 훈련을 통하여 학생이 직접 결과를 도출하여 문제해결력을 키우고 함께 하는 독서의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척박한 과학의 토양에서 찬란한 꽃을 피우기 위해 과학 고전 읽기 프로그램은 씨앗이 되어 학생들이 저마다의 찬란한 꽃을 피워 과학발전에 기여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글을 읽고 감명 깊은 문장을 적게 하고 자신이 느낌점을 패들렛을 만들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올려주면 교사가 답변하며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다. 고전 읽기

과학교사와 함께하는 과학고선원기 설문조사

코스모스 프로그램 참가에 관심 있는 과학고선원기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2022년 운영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양심껏 답변해주신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1. 자신과 프로그램(예, 일출여름 등)을
연결한 키워드

2. 코스모스 참여 횟수(총 7번 제공, 사전 제공 포함, 마지막 제공은 참가 가능한 사람은 1회 추가해 주십시오)

☐ 1번 참가
☐ 2번 참가
☐ 3번 참가
☐ 4번 참가
☐ 5번 참가
☐ 6번 참가
☐ 7번 참가

3. 자신이 직접 참가한 날짜는(모두 체크해 주세요)

☐ 8월 2일(수)
☐ 1회 8월 22일
☐ 2회 8월 16일
☐ 3회 8월 17일
☐ 4회 8월 18일(과일/비대면 오프라인)
☐ 5회 8월 19일
☐ 6회 8월 19일(24) 참가 가능한 사람은 제공해 주세요.

4. 코스모스 참가에 참가해서 좋았던 점(주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중요도 1~5로)

답변할 키워드

5. 코스모스 참가에 참여한 점,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주세요.

답변할 키워드

6. 2022년에 과학고선원기 프로그램들을 진행 할다면 참가 이유는?

☐ 1. 학업기회제공
☐ 2. 참가비용
☐ 3. 여가 제공
☐ 4. 참가비가 저렴하다.

7. 2022년 과학고선원기 프로그램에 주제를 결정한다면?

☐ 1. 자연 생태 기원
☐ 2. 화석의 발견과 지구과학 유전자
☐ 3. 천문학과 우주과학
☐ 4. 지체장애 아이들과의 공동 연구

8. 우리 학교에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추천해주세요.

답변할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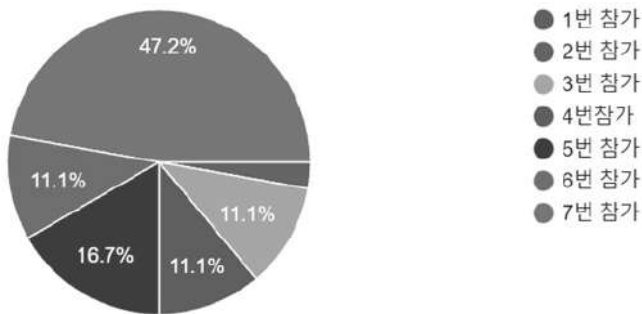
9. 팀 세어달려(코스모스)는 나에게()이다

답변할 키워드

10.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참가기를 통해 느낀 점, 감사, 나눔과 소통 이야기 등)

답변할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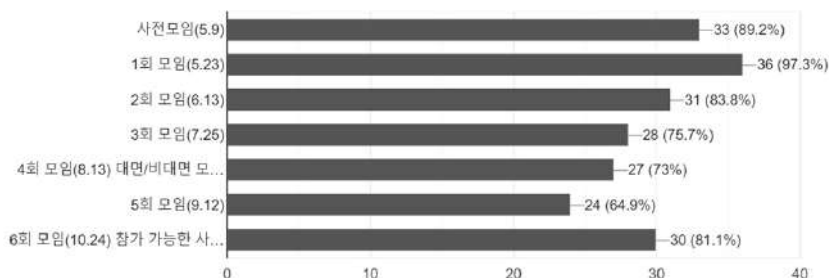
① 코스모스 참여 횟수에 대한 설문조사 (설문 참가자 3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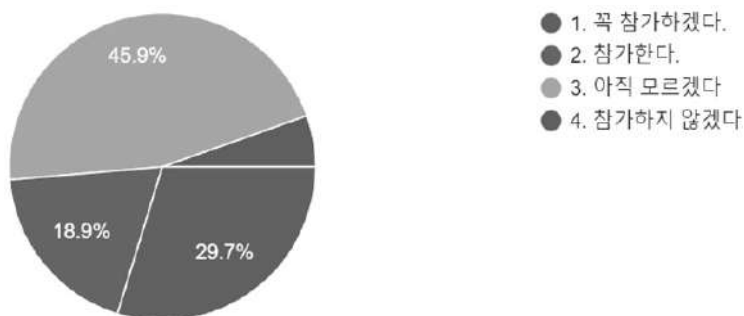
7회 참석자는 17명, 6회는 4명, 5회는 6명, 4회는 4명, 3회는 4명, 2회는 1명입니다. 5회 이상 참가자가 27명으로 꾸준히 참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② 월별 참가자 현황 조사

평균 30명이 매회 참석을 하였다. 모임이 중반으로 가면서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앞으로 중간 점검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면 좋겠다.



③ 2022년에 과학 고전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참가 여부 조사



참석하겠다는 학생은 18명, 아직 모르겠다는 학생은 17명, 참가하지 않겠다는 학생은 2명으로 50% 학생들이 참가 의사를 표시했다.

④ 2022년 과학 고전 읽기 프로그램에 도서를 선정에 대한 조사



이기적 유전자:16명, 종의 기원: 11명, 총균쇠: 9명, 코스모스(앤드루 얀): 1명으로 나타났다. 가능하면 학생들이 선정한 도서인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하면 좋겠다. 기타 도서로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스티븐호킹의 ‘시간의 역사’등이 있었다.

⑤ 코스모스 읽기에 참가해서 좋았던 점에 대한 의견

코스모스를 몇 년 전에 몇 번 읽으려 했지만 그때마다 번번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모스 읽기 모임에 참가해 조금씩 읽어 가다 보니 완독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 덕분에 꾸준하고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선 먼저 책을 읽고 그에 대한 많은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다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다. 같은 책을 읽고 각자 중요하고 기억에 남는 내용이 달랐기에 생각을 나누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참가자 모두의 생각을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경청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소외되는 사람없이 소통망을 연결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영하 선생님의 ppt는 화려한 기교가 없어도 핵심 내용을 잘 전달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고, 풍부한 과학 지식을 가진 선생님들의 말씀들이 과학으로부터의 나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주었다. 코스모스 책 읽기 모임을 이어나가시려는 노력이 눈에 잘 보였기에 감사했다. 코스모스라는 책을 인생에서 읽은

가장 두껍고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책으로 남을 수 있게 되어 좋았고, 완독으로 성취감을 얻었다.

어렵고 힘든 책을 함께 읽고 특별한 해설을 듣고 느낀 감상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내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다른 이에게도 인상적인 점들, 내가 생각지 못하던 부분에 대한 의견 등

어려운 책을 다 읽었다는 뿌듯함과 어려운 책이라 뜻도 어렵고 혼자 읽기 버거웠지만 해석해 주시면서 나랑 같은 책 읽는 친구와 책을 주제로 대화할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코스모스가 엄청 어려운 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읽기가 겁났는데, 친구들과 함께 쉽게 그리고 꾸준히 읽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혼자 가기 힘든 길을 함께라서 목적지까지 즐겁게 올 수 있었어요.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온라인 속 만남이 풍성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두께의 책을 나 스스로의 의지로 끈기 있게 읽어나간다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과, 나이가 비슷한 친구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각지에 계신 선생님분들과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코스모스라는 책을 읽고 느낀점과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좋은 경험이라고 느낄 수 있었고, 또 똑같은 내용을 읽더라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고, 좁은 관점보다는 시야를 넓혀 넓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 또한 새로웠고, 좋은 점이었다고 생각한다.

책을 많이 읽진 못했지만 조금만 읽어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책이었다. 왜냐하면 한페이지씩만 읽어도 나의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우주에 관심이 없었던 나를 우주에 관심이 생기게끔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가끔 친구와 우주 관련 얘기도 하고 관련 동영상도 보게끔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우주를 보는 시각도 변화시키게 해주어서 많

이는 못 읽었지만 큰 영향을 준 책이었다.

코스모스를 읽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과학분야의 전문적인 분들이 계셔서 궁금한 점을 바로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평소에 읽을 생각도 하지 못한 과학 분야의 책을 읽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 다른 사람들과 책을 읽고 토론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어 몇번이고 다시 읽었던 부분을 ppt로 정리하여 설명해주셔서 이해하기도 쉽고, 더깊은 지식을 알아가는 것 같아 정말 좋았다.

코스모스를 같이 읽어서 완독할 수 있었다. 혼자 읽으면 글자만 읽는 경우가 있는데 모임에서 설명해주셔서 내가 읽은 것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같이 이야기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감동을 받았다. 학생들이 자신이 이해한 만큼 이야기하면서 나의 독서도 풍부해지는 것 같았다. 문영하 선생님이 맛있는 걸 자주 보내 주시며 격려해 주셔서 더욱 잘 참여하게 되었다. 과학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 코스모스를 읽으면서 다른 책에도 관심이 생기고 찾아 읽게 되었다.

코스모스 책을 주셔서 모임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읽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그리고 같은 부분을 읽어도 모두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이 달라 서로 그런 부분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평소에 읽었던 책들보다 훨씬 두껍고, 신비스러운 느낌을 확 받을 수 있는 책일 것 같다- 싶어서 함께 읽어보았는데, 내용이 쉽지는 않았으나, 줌을 통해 다함께 얘기를 나누고, 다시 배우고, 감상하는 시간들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⑥ 코스모스 읽기에 부족한 점,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의견

매주 읽을 분량 챕터를 교육과정처럼 미리 받아보고 스스로 독서계획을 하며 수시로 독려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톡방에서 중간 중간 책에

대한 언급하기, 좋은 구절 공유하기 읽을 분량의 세세한 개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각 모임마다 정한 책의 분량을 모두 읽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모임 때까지의 시간을 조금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코스모스를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ppt로 강의를 해주실 때 그 단어에 대한 뜻도 같이 적어 주시면 좋겠다. 한 번 시도했었던 대면, 비대면 모임으로 학생들 또는 다른 선생님들이 함께 읽은 부분을 발표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방식을 더 많이 해 봤으면 좋겠다.

체계적으로 독서를 격려하기 위한 수시 점검과 개양의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해 세세한 계획을 세워 주는 것도 좋겠다. 어려운 용어를 해설해 주는 것과 함께 읽은 부분에 대한 깊은 토론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살펴 보아야 하겠다.

학생과 교사들이 패들렛에 남겨 준 글들을 정리하며 『코스모스』과학고전읽기를 통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1. 과학적 상상력의 신장

과학은 눈에 보이고 실제적이며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과학이 실용화되기까지는 상상력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허구적이며 광활한 그 무엇이 존재하는 과학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100세, 120세 시대를 얘기하는 사람이 운운한 이 시대에 나는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120세는 정말 오래 사는 것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인류가 존재한 것은 시간상으로 아주 조금이다. 또한, 이 우주 앞에, 코스모스 앞에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고 우리가 사는 지구도 수많은 별과 행성 중 하나일 뿐인데 왜 인간들은 사소한 시련을 겪고 힘들어할까? 생각했다. 나는 힘든 시간이 나에게 왔을 때 우주에서 본

내 모습은 암흑 속에 숨겨져 안보이므로 나의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다. 힘
내자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우주 앞에서 나는
작아진다.

시공간에 대한 8장의 이야기가 특별히 재미있었다. 8장을 읽으면서 빛은
1초에 지구 약 7바퀴 반을 돌 정도로 빠르데 별들과 별 사이에는 수십 광년
이 걸리고 지구에서 퀘이사까지의 거리는 수십억 광년이 걸린다는 것을 다
시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살고 있는 지구는 참 작고초라 하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옥대초 송시윤)

초등학생 송시윤은 코스모스를 읽으면서 자신이 존재하는 현재의 시
공간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였다.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어 삶의 연장을
느꼈지만, 우주의 시공간에서 인간이 지닌 존재의 의미를 인식하고 그것
을 자기화하여 자신이 겪고 있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과학적 상상력의 크기를 통해, 현재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을 키운 것이다.

화성에 생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잊지 않을까라
는 생각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나서 나는 화성의 생물이 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화성에 생물이 있다면 이 글처럼 화성은 지구처럼 건물이 있고 길으로 봤을
때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화성은 지구와 달리 변화가 없다. 그래도 칼 세이
건은 희박한 가능성을 두고 세균이 살 수 있는가에 대해 연구를 했고 난 그
점을 아주 흥미롭게 보았다. (영광여중 박예원)

칼 세이건이 정말 살아 계셨다면 우리 지구가 훨씬 더 과학적으로 발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화성에 생명체가 살 수도 있을 것이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화성 이주 프로젝트 같은 것을 한다면 참여해 보고
싶다. (동산여중 권나영)

중학생 박예원과 권나영은 화성의 생물체에 대한 동경과 함께 화성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고 싶다는 의견을 통해 좀 더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이론적인 내용으로만 알고 있던 케플러와 뉴턴의 이론들이 나오게 된 배경, 그리고 그들이 처했던 다양한 어려움들을 알게 되면서 다시 한번 연구자의 갈등과 고뇌가 느껴졌습니다. 만약 나라면...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밤입니다. (영주중 김지숙 교사)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주의 광대함에 더욱 감탄하게 된다. 코스모스 책이 출간된 이후 우주탐사가 꾸준히 이루어졌음에도 미지의 영역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우주의 창조주의 능력 앞에 겸허해지는 시간이다. (운양고 강남희 교사)

보이저 함장의 가상 항해 일지는 감동의 쓰나미이다. 개개인의 인생 중 가장 기억이 강렬한 부분만을 연결하여 기록한 듯한 느낌을 받는다. (강천중 김옥경 교사)

책을 읽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과 느낌이 들지만 막상 글을 적으려고 기억을 떠올리면 잘 회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책을 읽으면 제가 했던 생각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마치 칼 세이건의 옆에서 같이 우주에 대해 연구하는 동료연구원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칼 세이건과 함께 우주를 탐험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모험도 기대됩니다. (미상)

교사 김지숙은 책을 통해 과학자의 갈등과 고뇌를 느끼고, 강남희는 책의 깊이에 폭 빠져서 우주의 광대함과 미지의 영역에 대한 겸허함을 표현했다. 김옥경은 무인 우주선인 보이저호의 가상 항해 일지에 강렬한 인상을 받고 자신이 칼 세이건의 동료연구원이 된 듯한 느낌을 받는 모험과 상상의 나라를 펴고 있다.

2. 과학적 질문과 탐색

과학의 출발점은 호기심이다.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하고 질문하고 탐색하기 위한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코스모스에 대한 동경에서 출발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는 탐구가 지속되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과학 교사가 읽기에 수준 높은 책이다. 천문학, 생물학, 역사, 과학사, 고대 신화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어서 학생들의 질문들이 많았다. 학생들이 패들렛에 올려 준 질문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지구의 인구는 늘어가고 있는데 별들도 많아지고 있을까?
- 쌍성계와 항성계는 왜 생기는 것일까?
- 과연 지구와 비슷한 행성과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이 다른 행성에 있을까?
- M31 은하는 어떤 은하인가요?
- 우리 은하는 얼마나 큰가요?
- 지구와 달은 쌍성계인가요?
- 별뿔별이 아주 많이 나타날 때가 있고, 또 적게 나타날 때도 있다. 이런 일도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별뿔별이 언제 나타나는지, 개수의 많고 적음을 예측할 수 있나요?
- 지구도 금성처럼 엄청나게 뜨거웠던 시절이 있나요?
- 화성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지구 같은 행성이 될 수 있을까요?
- 통그스카 대폭발이 운석 충돌인 것이 확실한가요?
- 통그스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또 있을까요?
- 황산 구름의 성질이 뭔지 궁금해요?
-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 뉴턴도 코스모스를 연구하는데 기여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나요?
- 케플러 이전에도 중력을 언급한 학자가 있을까요?
- 우주는 1초에 얼마나 팽창하나요?

학생들은 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내용들을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미흡한 부분들은 질문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패들렛에 질문을 올려 함께 보며 교사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질문을 쉽게 답하기 위하여 참고서적과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쉽게 설명해 주었다. 그 결과 학생과 교사들은 코스모스 읽기에 만족감을 보였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선생님께서 하나씩 찬찬히 정리해 주시며 인상 깊은 문장 같은 것도 함께 말씀해 주셔서 좋았다. 그리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정말 본격적으로 하나씩 설명해 주실 줄 몰랐는데 과학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궁금증이 풀리고 감사했다. 앞으로 궁금한 점을 많이 남겨야겠다. 다음 내용은 어떻게 궁금하고 또, 다음 모임은 어떻게 기대된다. (동산여중 장민주)

PPT를 준비해 주신 문영하 선생님과 질문에 답변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준비해주시고 학생들과 다른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더욱 재밌었던 생각 나누기 시간이었습니다. 2회를 기대하는 부푼 마음으로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여중 조민경)

책을 읽으며 궁금한 점이 꽤 있었는데 몇 가지는 유튜브와 인터넷을 찾아 해결했지만 몇몇 궁금한 점들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회의를 통해 궁금한 점들이 다 해결이 되어 좋았고 3장을 읽을 때는 100%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며 읽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동산여중 권나영)

퀘이사, 펄서, 광조, 청동 등 낯선 단어들이 많아 사전을 찾아가면서 천천히 읽는 모미가 있는 책입니다. 예전에 교과서에서 배운 과학자들의 이름이 반가웠는데 칼세이건은 이들의 활약을 교과서보다 훨씬 상세하게 설명해 주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김보성 교사)

10장에서 코스모스의 시작과 끝을 주제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계속 궁금했던 주제라 흥미롭게 읽었지만 헛갈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도플러효과나 적색편이 현상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 프리드만의 우주론 같이 또 부가 설명을 해 주셔서 머릿속으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었고, 또 칼 세이건 작

가님이 11장에서 말한 것과 같이 외계의 지적생물과의 교신에 큰 관심을 가지고있는 것도 좋지만 인간과 같이 살고 있는 지구의 지적생물이 보내는 메시지를 읽고, 같이 교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이제 완독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꼭 끝까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여중 김채은)

3장에서 케플러와 같은 위대한 과학자의 진리 앞에서의 겸허한 수용, 자신의 오류를 담대하게 받아들임에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에 입각한 진리에 대한 탐구가 말고 오늘날 인류가 이룩해 놓은 과학의 가장 큰 결실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모두가 Yes라고 말할 때, 혼자서 No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모두가 잘 알거예요.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대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그 시대에서는 Top이 아니었지 싶어요. 이번 기회에 케플러에 대해서 좀 더 자세 히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뉴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고, 교과서에서도 많이 접하고 있어서 친숙한 인물이었는데, 케플러가 왜 그동안 자주 지구과학에 거론되었는 인물이었나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모임에는 저도 필사를 하며 좀 더 자세히 읽도록 해보고 싶어요. (옥대초 우성준)

서문에서도 나왔듯이 한 사람이 코스모스 전체를 일생에 연구할 수 없다. 아니 일 세대, 이 세대, 삼 세대.....에 이르기까지도 코스모스의 모든 비밀을 풀 수 없다. 왜냐하면 우주는 초마다 팽창해서 새로운 행성 항성 성단은 하 등 인간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코스모스의 모든 걸 다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케플러는 당시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혁신적이고 신기한 것들을 발견해 냈다. 특히 중력과 만유인력의 개념을 예견한 것에 대해 정말로 놀랐다. 뉴턴 이전에도 중력 비슷한 것을 언급했다니... 나는 케플러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엄청난 업적을 가진 위인이란 걸 오늘 알게 되었다. (미상)

분명 혼자 읽고 엄청난 용어와 과학적 법칙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책을 읽으며 왜?라는 생각을 하고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고, 직접 검색도 해보는 시간을 거쳐 탐색하며 이해하는 시간이 과학 고전 읽기의 흥

미를 유발시켰다.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해하거나 기존에 알았던 내용을 위주로 ppt를 만들고 진행하다 보니 많은 부분을 놓친 것 같아 아쉬움도 남습니다. 이 책을 학창 시절에 읽을 때는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작가가 우주를 바라보는 시점을 생각하며 읽었는데, 이제는 무언가 이론적인 내용이 있으면 더 궁금하고 파고들게 되는 거 같아요. 참 매력 있는 책입니다.(영주발명센터 권석용)

발표를 맡은 교사 권석용은 학생들에게 이론적인 내용을 충실히 설명해 주고자 깊이 있는 연구를 했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었다.

3. 함께 읽는 즐거움

과학 고전 읽기를 통하여 학생과 교사가 느낀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가장 의미있는 영역은 바로 이 부분이다. 함께 읽기의 즐거움, 감동, 새로운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들을 볼 수 있었다.

함께 읽기는 역시 힘이 세군요. 코스모스를 혼자 읽으면서 느낀 생각의 단편들이 책 나눔을 통해 다양한 방향으로 펼쳐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이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이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연령을 초월한 이런 신선한 만남이 참 좋습니다. (운양고 강남희)

첫 모임에 이어 두 번째 모임에서도 어린 학생들의 열정과 지적 호기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이와 지역을 뛰어넘어 책을 공통분모로 하여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코스모스 책모임이 참 좋습니다.(김보성 교사)

책을 혼자 읽을 때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니 제가 생각 못했던 점도 많이 배우고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들도 많이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미있고 다음 모임도 많이 기대돼요. (옥대초 우성준)

과학 고전 읽기 모임을 하던 중에 다른 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다 똑같은 내용을 읽었는데 인상 깊게 읽은 문장, 궁금한 점, 새롭게 알고 싶은 점 등이 다르다는 것이 신기했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동산여중 장민주)

쭈스로만 하다가 직접 만나서 모임을 하니 반갑기도 하고 더 생생하고 더 재미있었고 또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직접 가길 잘한 것 같다. 같이 책을 읽고, 선생님들과 형, 누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읽은 부분들이 이해도 더 잘되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벌써 다음 시간이 기대돼요. 감사합니다. (옥대초 우성준)

아쉬웠던 코스모스 독서를 이번에 완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척 즐겁고 고맙다. 칼 세이건의 지적 능력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로의 뛰어난 역량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그의 생전에 만날 수도 있었음에 매우 아쉬움이 남으면서도 이전에 만났어도 나의 능력이 충분하지 못해 여전히 아쉬울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라도 그를 이렇게 만날 수 있음이 정말 유쾌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영주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감사함을 전달합니다. (강천중 김옥경 교사)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PT를 본인의 시간을 써 만들어 주신 문영하 선생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매회 그랬지만 이번에도 다 읽지 못하였다. 앞으로는 더 많이 읽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리고 발표할 때 인상 깊은 문장을 잊어버린 것도 아쉬웠다. 이젠 더 노력해야겠다. (동산여중 김혜원)

과학 고전 읽기의 가장 큰 성과는 함께 읽기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학생과 교사들이 알게 되었다. 연령을 초월한 만남을 통해 서로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다. 생각을 서로 나누는 즐거움을 맛보았다. 비대면 모임과 대면 모임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나눔의 다양한 예를 만들면 좋겠다.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구와 인류 사이 속의 묘한 감정을 느꼈다. 아름

답고 푸른 행성 지구는 우리 인류가 아는 유일한 삶의 보금자리이고 인류에게 지구라는 존재는 낙원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구의 기후변화는 물론이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오는 변화까지 눈치채지 못하고 무지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느꼈다. 또 이렇게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거나 일상을 빼앗긴 이유도 우리가 지구가 보내는 메시지를 눈치채지 못하고 소중하게 다루어 주지 않아서라는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미상)

나는 코스모스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느낀 것이지만 인간은 갑자기 나타나 문명을 이루고 다른 생물을 앞질러 갔다. 그리고 자기가 마냥 최고라는 낯 다른 생물들을 학살하고 지구의 수천만 년 동안 생성되어 왔던 자원을 마구 뽑아서 쓰고 10장에도 나왔다. 신화에는 인간 특유의 뻔뻔함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가. 인간이 자기 생각만한 그 결과로 지구라는 우주의 작은 푸른 보물이 망가지고 있다. 과학을 발전시킨다면 더 이상 지구를 망치지 않는 쪽으로 또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인류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일이다. (옥대초 송시윤)

인간이 지구에서 적응했기 때문에 당연한 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칭찬했고, 잘 적응하지 못한 종은 사라져 버렸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과거에 지구 환경에 잘 적응한 유기물에 후손이라는 사실에 감사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연이 인간과 같이 자연에 적응한 개체수보다 훨씬 많은 후손을 남기에 자연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은 죽게 되므로 안타까웠다. 엄청난 종류의 모든 생물들이 주위에 적응을 하면 지구는 생물들로 꽉 차서 생활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연은 소수의 생물만 남기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며 자연의 위대함을 느꼈다.(영주중 김지숙 교사)

납작이 나라 비유를 통해 4차원 세계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재미있었고 힌두교의 시간 의식도 놀라웠고, 고래의 높은 지능과 사랑 노래도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우주와 지구의 속성이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명을 잉태하고 키우는 자애로운 모습도 있지만 화가 났을 때 화산처럼 포효하는 모습도 있음이....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상이변을 보면서 우리 지구의 분노 게이지가 상당함이 느껴져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 해야 지구의 마음이 평안해질까? (운양고 강남희 교사)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또 하나의 경각심을 일으킨다. 하나뿐인 지구를 더이상 인류가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를 한다. 지구를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인식들을 많이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는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크고 광활한 우주 속에 아주 작은 지구. 또 그 속에 먼지만한 인간이 존재하고 그 인간의 뇌 속에 대략 2,000만권의 책 더미와 비교될 만큼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간다니 정말 경이롭다. (옥대초 우성준)

우리는 현재의 코스모스를 알기 위해 과거의 코스모스의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또 코스모스라는 넓은 세상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많지 않다고 이 책에서 계속 말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는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옥대초 송시윤)

보이저 1, 2호의 항해를 통하여 목성과 그 위성, 토성이 탐사된 것을 우리가 영상으로 볼 수 기회를 가진 것에 감동이다. 지금은 태양계를 벗어나 은하로 떠나는 망망대해의 기분으로 계속 나아갈 것 같다. 앞으로 2025년에는 에너지원의 고갈로 우주미아가 된다면이라도 제3의 새로운 우주선을 발사하고 탐사하는 인간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영광여중 문영하 교사)

보이저호의 기록처럼 문영하 선생님의 시도로 시작된 이 ‘코스모스 과학 고전 읽기’를 통해 시작된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통해 미래에 훌륭한 과학자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확고해지게 됩니다. (대영중 김해룡 교사)

내가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공기, 물, 온도가 이 책에서는 당연하지 않고 이유가 있다고 접근해 오면서 나는 신선하게 느껴졌다. 엄청나게 큰 별들의 생성과 죽음이 우주속 미물인 우리네 삶과 비슷한 점이 있다는 생각에 친근감이 느껴졌다. 어떻게 의미있게 살고 때가 되었을 때 담담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이 생긴다. (운양고 강남희 교사)

고등학교, 대학교, 교사가 되어서 여러 번을 도전하였지만 늘 두꺼와 낫 선 용어 등에 좌절하여 성공 하지 못하였지만, 오늘 모임을 하고선 이번

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각자 다른 코스모스가 모여 하나의 거대한 코스모스가 되는 이 모임이 너무나 좋고 다음이 기대됩니다.
(영주발명센터 권석용 교사)

여러분들과 함께 칼 세이건을 읽는 기쁨을 표현한 것 같다. 지구라는 행성에서, 우주의 역사로 보면 아주 짧은 한 인간의 시간 ‘찰나’. 우리가 함께 한 것은 확률로 불가능한 만남임에도 여러분과 함께 코스모스를 읽는 것에 감사합니다. 칼 세이건이 첫 장에 적은 명문장이다. 나도 책을 쓰면 첫 문장에 무엇이라고 적으면 좋을까 생각해 본다. (영광여중 문영하 교사)

어느덧 마지막 만남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오늘도 제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참가해 주신분들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봅시다! 문영하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언급하셨던 ‘종의 기원’ 처음에는 코스모스보다 어려울거라는 선입견을 가졌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제가 살아가면서 꼭 읽어야 할 책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다음 책읽기가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앞에 있는 코스모스부터 꼭! 완독하고 다음 책읽기도 참석하겠습니다 (영광여중 조민정)

코스모스 읽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주기도 한다. 특별한 문장에 마음을 놓기도 하고 칼 세이건의 아름다운 문장에 심취되어 곱씹어 보는 시간이 되었다. 위 글들은 학생과 교사들이 생각하고 느낀 점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

		
토퍼를 제작해 주신 선생님	과학 고전 읽기 소개 (행복줍살롱)	코스모스 내용 필사하기

행사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 토퍼를 직접 제작해 준 선생님도 계셨고, 행복줍살롱(행복가교)에 강사로 과학 고전을 함께 읽는 즐거움을 안내하였다. 경상북도 과학교육연구회에 참가하여 과학교사들이 과학 고전 읽기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코스모스 내용 일부분을 필사하여 선보인 선생님도 계셨다. 700여 쪽의 책을 혼자 읽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함께 느리게 읽고, 나누며 6개월이 지났다. 칼세이건의 코스모스를 통하여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였고, 다양한 역사적 인물에 대해 배운 점과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자신의 이야기도 나누었다. 진술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연령을 초월한 신선한 만남과 다음 모임이 벌써 기다려지는 학생들도 있었다. 분명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책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그 출발점을 영주과학교사모임이 시작한 것에 큰 의의가 있었다.

V. 맺으며

영주과학교사모임은 22년간 과학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며 지역사회에서 과학 대중화에 이바지했다. 코로나19로 막혀 있던 길을 뚫고자 비대면 과학 캠프, 비대면 고전 읽기 등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중에 있다. 학생들을 위해 탐구 사고 능력 향상에 많은 에너지를 쏟았지만, 비대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가 과학 고전 함께 읽기를 계획하였다. 독서를 통해 사고를 확장시키고 지평을 넓히는 것을 과학교사들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첫째, 과학 고전 읽기를 함께함으로써 방대한 분량의 책을 완독하고, 책에 담긴 내용을 통해 과학적 상상력을 신장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둘째, 독서를 통하여 학생 스스로 질문하고 그 해답을 직접 찾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경험하면서 과학적 질문을 생성하고 답하는 탐색 과정에서 과학적 사고능력이 향상 되었다.

셋째, 학생들이 자신이 읽은 분야를 직접 PPT를 만들어보고 발표하는 훈련을 통하여 학생이 직접 결과를 도출하여 문제해결력을 키우고 함께 하는 독서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였다.

척박한 과학의 토양에서 찬란한 꽃을 피우기 위해 과학 고전 읽기 프로그램은 씨앗이 되어 학생들이 저마다의 찬란한 꽃을 피워 과학발전에 기여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처음 시도한 일이라 성과도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았다. 특히, 치밀하게 준비하여 학생들의 질문에 좀 더 준비된 답을 해주지 못한 점도 나타났다. 비록 ‘칼 세이건’의 생각들을 깊이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7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함께 읽고 나누는 즐거움을 맛본 시간이었다. 앞으로 우리의 여력이 계속된다면 1년에 한 권씩 과학 고전 읽기를 계속 진행할 것이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학 고전은 참으로 많다. 특히, 혼자 읽다가 덮어둔 책들은 많다. 답은 함께 읽기다. 2022년은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함께 나눌 예정이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독서 모임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과학 교사들이 할 수 있는 분야의 노력들을 경주한다면 더 좋은 모습의 독서 활동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열린 독서의 지평을 넓히는 길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홍승수 저, 『나의 코스모스』, 사이언스북스, 2017.
홍승수 저, 『하늘을 디디고 땅을 우러르며』, 공존 2018.
앤 드루얀 저,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 사이언스북스, 2020.
사샤 세이건 저, 홍한별 역, 『우리, 이토록 작은 존재를 위하여』, 문학동네, 2021.
칼세이건 저, 임지원 역, 『에덴의 용』, 사이언스북스, 2014.
칼세이건 저, 현정준 역, 『창백한 푸른 점』, 사이언스북스, 2021.

Effect of Reading Science Classics with Science Teachers -Focused on Cosmos (Carl Sagan)-

Moon, Yung Ha
(Gyeongbuk Yeonggwang Girls' Middle School)

This study tri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open reading in non-face-to-face situations through the Cosmos (Carl Sagan) science classic reading program.

The entire process of reading a science classic with a science teacher hosted by the Yeongju Science Teachers Association was summarized, and a plan to be with students through ZOOM in a non-face-to-face situation was suggested. We shared the recruitment, preparation process, and progress of science classic reading, and examined the importance of sharing and the joy of reading together through changed ideas.

First, by reading the classics of science together, we tried to complete a vast amount of books and to expand scientific imagination through the contents of the books.

Second, through reading, students ask themselves questions and experience the time to find and understand the answers themselves, and to develop scientific thinking skills in the search process to generate and answer scientific questions. In order to give students who lacked time to think time to ask questions and explore on their own, the problems that the students could not solve were shared with teachers, and solutions were sought by cooperating through time for mutual communication.

Third, through the training of making and presenting PPTs in the fields they read, the students drew results directly, so that they could develop problem-solving skills and enjoy the pleasure of reading together.

The science classic reading program pursued by the Yeongju Science Teachers Association in order to make a brilliant flower bloom in the barren scientific soil was to become the seed and lay the foundation for

each student to bloom their own brilliant flower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Keywords : Carl Sagan, Reading a science classic, Expansion of scientific imagination, Scientific questioning and exploration, Fun to read together

투고일 : 2021. 09. 18. / 심사일 : 2021. 10. 07. / 심사완료일 : 2021. 10. 10.

일본 초등학교 독서교육에서 본 온라인 독서에 대한 고찰 —전자책 활용을 중심으로—

사토 유키나*

【 목 차 】

- I. 여는 말
- II. 일본 초등학교의 독서교육
 - 1. 독서교육의 변천
 - 2. 초등학교의 독서활동
- III. 온라인 독서의 현황
 - 1. 온라인 독서 환경
 - 1) 1인 1대 태블릿을 실현하는 GIGA 스쿨 구상
 - 2) 전자책 이용현황
 - 2. 전자책 활용 사례
 - 1) 도치기현 아이타시 (栃木県 矢板市)
 - 2)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熊本県 熊本市)
 - 3) 시즈오카현 아타미시 (静岡県 熱海市)
- IV. 독서교육과 온라인 독서에 대한 고찰
- V. 맺는 말

국문초록

일본 정부가 제시한 Society 5.0 사회를 대비한 GIGA 스쿨 구상으로 인해 의무교육 학교에 1명 1대 태블릿이 도입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새로운 교육 환경에서의 독서교육에 대해 탐구하고자 했다. 문헌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 박사과정, ymks46@gmail.com

을 중심으로 일본의 독서교육과 온라인 독서의 현황에 대해 특징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독서교육과 온라인 독서에 대하여 논하였다.

그 결과, 일본에서 독서는 학력을 형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서 중시되어 있고, 1인 1대 태블릿이 정비되었지만 전자책 이용은 미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온라인 독서는 다양한 독서 방법의 하나로서 아이들이 그 유용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교육을 위해서 교사는 “독서교육”과 “독서”에 대한 인식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으며, 아이들이 독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관점에서도 온라인 독서 환경의 정비가 시급함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1인 1대 태블릿이 일반화된 학교 현장에서 독서활동 및 교사 인식에 대한 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핵심어 : 일본 초등학교, 독서교육, GIGA 스쿨, 온라인 독서, 전자책

I. 여는 말

2016년 일본 정부에 의해 ‘제5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발표됨으로써 스마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초스마트사회(Society 5.0)가 제시되었다.¹⁾ Society 5.0의 사회에서는 센서를 탑재한 모든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접속되어 데이터를 교환함으로써 IoT(Internet of Things)가 실현된다. 모든 사람과 물건이 연결되어 다양한 지식이나 정보가 공유되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의 두 가지 목표의 양립이 이루어진다고 기대하고 있다. 즉, 정보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지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이다. 학교 교육은 이렇게 다가올 Society 5.0 사회에서 아이들이 살아남기 위한 교육으로 변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현재까지 문부과학성(한국의 교육과학기술부)이 제시하는 ‘교육진흥기본계획’에 의해서 교육의 IT화가 진행되었다. 2018년에 제시

1) Society 5.0은 수렵사회(Society 1.0), 농경사회(Society 2.0), 공업사회(Society 3.0), 정보사회(Society 4.0)로 이어지는 새로운 사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일본이 지향해야 할 미래사회의 모습으로 제시되었다. (文部科学省, 「第5期科学技術基本計画」, 2016.)

된 ‘제3기 교육진흥기본계획’²⁾에서는 ‘2018년도 이후의 학교에 있어서 ICT(정보통신기술)환경 정비 방침’³⁾에 근거해 학습자용 컴퓨터나 대형 제시 장치, 초고속 인터넷, 무선 LAN 정비 등에 의해서 계획적인 학교의 ICT 환경 정비의 가속화를 도모하는 것이 명기되었다.

이어서 2019년 12월 문부과학성은 ‘GIGA 스쿨 구상 실현에 대해’를 발표했다. GIGA는 “Global and Innovation Gateway for All”의 약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세계적이고 혁신적인 입구’를 의미한다. GIGA 스쿨 구상은 ‘Society 5.0 시대를 살아갈 다양한 아이들을 누구 하나 남기지 않게’ 개별 최적화된 창조성을 기르는 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이다.⁴⁾ GIGA 스쿨 구상에서는 의무교육 학교에서 아이들이 1인 1대의 태블릿 등을 비롯한 단말기(이하 태블릿)를 사용한 학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들의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 독서의 기본방향에 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일부 지자체에서 전자책에 의한 독서를 장려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⁵⁾ Society 5.0의 사회, GIGA 스쿨 구상에 의한 1인 1대 태블릿과 같은 새로운 지도법이 도입되어 가는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는 독서 추진 방법, 학교도서관의 학습 지원 방법 등의 기본방향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학교에서 전자책 이용 가능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富山, 2014),⁶⁾ 학교도서관에 전자책 도입에 대해 검토한 연구(植村・野口, 2020, 植村, 2020)⁷⁾⁸⁾등을 볼 수 있지만 초등학교의

2) 文部科学省, 「第3期教育振興基本計画」, 2018.

3) 文部科学省, 「平成30年度以降の学校におけるICT環境の整備方針について」, 2017.

4) 文部科学省, 「GIGAスクール構想の実現について」, 2019.

5) 예를 들어, 효고현(兵庫県)에서는 「효고 어린이 독서 추진계획」에서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책 독서를 장려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兵庫県教育委員会, 「ひょうご子どもの読書活動推進計画 第4次」, 2020.)

6) 富山哲也, 「中学生の読書指導における電子書籍端末利用の可能性についての実証的研究」, 『全国大学国語教育学会国語科教育研究: 大会研究発表要旨集』, 2014, 127쪽.

7) 植村八潮・野口武悟, 『学校図書館における電子書籍利用環境構築のための実証的研究』, 2020.

독서교육과 전자책을 비롯한 온라인 독서의 관계를 검토한 문헌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선행연구, 학습지도요령(한국의 교육과정), 각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일본의 독서교육을 개관하고 ICT를 활용한 온라인독서의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온라인 독서와 독서교육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일본 초등학교의 독서교육은 어떻게 실시되어 있는가.
2. 일본 초등학교의 온라인 독서 현황은 어떤가.
3. 새로운 교육환경에서의 국어과 독서교육과 전자책의 관계는 어떤가.

본 논문에서 ‘독서’는 일본의 교육 지침이 되는 교육과정인 학습지도요령에 제시된 “책을 읽는 것과 함께 신문이나 잡지를 읽거나 무언가를 조사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읽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⁹⁾ 또한 이 독서의 정의를 토대로 ‘온라인 독서’는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는 인터넷 환경에서 전자책을 읽는 것과 함께 디지털 화 된 신문이나 잡지를 읽거나 무언가를 조사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읽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어과에서 실시되는 독서를 중심으로 고찰하기 때문에 전자책 활용을 중심으로 논한다.

8) 植村八潮, 『学校図書館における電子書籍利用の現状と課題』, 『コンピュータ&エデュケーション』, 2020, 20~25쪽.

9) 文部科学省, 『小学校学習指導要領(平成29年告示)解説 国語編』, 東洋館出版社, 2017, 26쪽.

II. 일본 초등학교의 독서교육

1. 독서교육의 변천

제2차 세계대전 전이나 전시 중에 일본 독서교육은 아이들의 인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으로, 사회에 적용해 나가는 능력을 몸에 익히기 위해 이용되어 왔다.¹⁰⁾ 국민의 사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도서관을 포함한 교육기관의 역할이며 아이들의 사고의 흐름을 통제하려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교육제도나 교육관이 소개되면서 교육개혁이 이루어져 실생활에 관계된 다양한 읽을거리를 지도하려는 분위기가 생겼다.¹¹⁾ 1948년 문부상(현재의 문부과학성)이 발행한 『학교도서관 이용지도(学校図書館の手引)』¹²⁾에서는 학교도서관을 매우 중요한 의의와 역할을 가진 시설로 강조하였으며, 학습지도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제시했다. 이 『학교도서관 이용지도』에서 독서지도는 아이들이 독서에 친밀감을 가지는 것, 독서를 하는 마음과 독서를 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시기인 1951년 학습지도요령 국어과에서도 읽기 영역 목표는 목적에 따른 다양한 독서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1940년대의 목표였던 사고의 흐름을 통제하려는 독서에서 변화가 생겼다.¹³⁾

그러나, 스푸트니크 쇼크 등의 영향을 받아 교육 정책은 국가에 의한 통제 강화의 방향으로 전환되었다.¹⁴⁾ 학교도서관이 필요한 새로운 교육

10) 森美紀子, 「図書館と『読書指導』」, 国際文化研究紀要, 2006, (13), 1~25쪽.

11) 足立幸子, 「国語科学習指導要領における読書指導の位置付けと課題」, 新潟大学教育学部研究 紀要 人文・社会科学編, 2015, 8(1), 1~11쪽.

12) 文部省, 『学校図書館の手引』, 1948.

13)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해, 경험을 넓히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널리 책을 읽으려는 습관과 태도를 기르고 기술과 능력을 닦는 것”이 읽기 영역의 목표로 제시되었다.

14) 今井康晴, 「我が国の『教育内容の現代化』におけるブルーナー理論の受容に関する考察」, 明星大学教育学研究紀要, 2008, (23), 97~106쪽.

은 경험을 중시한 나머지, 기초 학력의 조하를 초래했다는 등의 비판을 받게 되었다.¹⁵⁾ 각 교과는 계통성을 중시하게 되어 1953년에는 학교 도서관법이 제정되었으나 문부성은 도서관 활용에 소극적인 자세로 도서관 활용을 위한 정책은 정채되어 갔다.¹⁶⁾

이러한 영향은 1958년 이후의 학습지도요령 국어과 읽기 영역에 관한 목표에서 ‘독해’와 ‘독서’의 두 가지로 나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⁷⁾ ‘독해’는 국어과 학습으로서 교과서 교재를 학급이라는 집단으로 읽는 것, ‘독서’는 가정에서 수업 외 시간에 책을 개인이 마음대로 읽는 것이며, 독서는 개인에게 맡겨져 환원되는 ‘습관’ 혹은 ‘태도’라는 풍조가 확산하였다.¹⁸⁾ 이러한 이분구조는 결과적으로 현재 일본 많은 선행연구들¹⁹⁾이 지적하는 국어교육의 ‘독해지도’와 ‘독서지도’의 이분화 된 지도관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 텔레비전이나 게임 등의 발달로 활자 이탈이나 짧은 이들의 독서 기피 현상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독서 교육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2001년 ‘어린이의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의 성립, 2002년 ‘어린이의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기본 계획(1차 계획)’²⁰⁾ 2005년 ‘문자·활자문화진흥법’의 공포·시행 등이 실시되었다.

이어서 2006년 ‘교육기본법’, 2007년 ‘학교교육법’이 개정되었다. 이때 의무교육의 목표로서 ‘독서에 친밀감을 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국어를 올

15) 木幡智子, 「学校図書館の活性化に関する考察-学校図書館活動の活性化に向けた理論枠組みの検討:活動理論を応用した学校文化の変革に向け」, 愛知県立大学教育福祉学部論集, 2014, (62), 49~62쪽.

16) 塩見昇, 『学習社会・情報社会における学校図書館』, 2004, 風間書房, 29쪽.

17)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제1학년 목표는 “(4) 문장을 읽는 방법의 초보를 알 수 있도록 한다. (5) 문장을 읽기 위해 필요한 문자나 어휘를 익히도록 한다. (6) 쉬운 읽을거리 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로 제시되었다. (4),(5)는 독해, (6)는 독서에 대한 내용이다.

18) 足立幸子, 「国語科学習指導要領における読書指導の位置付けと課題」, 新潟大学教育学部研究 紀要 人文・社会科学編, 2015, 8(1), 1~11쪽.

19) 예를 들어, 生野金三・豊澤弘伸(2006), 足立幸子(2015), 塚田泰彦(2016).

20) ‘어린이의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은 2008년에 제2차 계획, 2013년에 제3차 계획, 2018년에 제4차 계획이 발표되었다.

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기초적인 능력을 기르는 것'이 제시됨에 따라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지역 사회를 포함하여 '독서'를 촉진하려는 법적 정비 정책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법률의 개정과 함께 개정된 2008년 국어과 학습지도요령에서 예전에는 지도 내용에 대한 언어활동의 일부였던 독서에 관한 내용이 '지도내용'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독서 활동에 필수인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독서 센터'의 역할에 더하여 '학습·정보 센터'의 역할을 가질 것을 명확히 하며, 학교도서관을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자발적인 학습활동을 하는 주체적인 아이들을 육성할 것이 지향되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독서는 학습의 필요한 요소이며, 독서를 학력으로 보는 움직임이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행인 2017년 학습지도요령에서 독서는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다.²¹⁾ 국어과에서는 개정 전까지 '독서 활동의 충실'로 제시된 독서에 관한 내용이 '독서 지도의 개선·충실'로 문언이 변경된 것은 더욱 독서 지도를 촉진하려는 것을 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내용으로 독서에 관한 항목이 '지식 및 기능'의 하나로 위치를 잡고 [표 1], 독서를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명확해졌다. 또한 '읽기' 영역에서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한 언어활동이 예시 되어있다 [표 2].²²⁾ 이 언어활동에서는 책 등을 이용하여 어떻게 정보를 얻는 것인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학습이 단계적으로 제시되었다. 개정 전에 이어서 아이들의 독서 의욕을 높이면서 일상의 독서로 이어가려는 것을 지도의 유의점으로 제시하였다. 국어과의 학습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일상 생활에서의 독서로 이어질 수 있게 고려해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21) '독서는 국어과에서 육성을 목표로 하는 자질·능력을 보다 높이는 중요한 활동의 하나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文部科学省, 『小学校学習指導要領(平成29年告示)解説 国語編』, 東洋館 出版社, 2017, 10쪽.

22) 文部科学省, 『小学校学習指導要領(平成29年告示)解説 国語編』, 東洋館出版社, 2017, 26쪽, 200쪽, 206쪽에서 저자가 번역, 작성.

[표 1] [지식 및 기능] (3) 일본의 언어문화에 관한 사항 ‘독서’

제1학년 및 제2학년	제3학년 및 제4학년	제5학년 및 제6학년
독서에 친밀감을 가지고 다양한 책이 있음을 알 것.	폭넓게 독서에 친밀감을 가지고 독서가 자신의 생각을 넓히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을 깨닫는 것.	일상적으로 독서에 친밀감을 가지고 독서가 자신의 생각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것.

[표 2] ‘읽기’영역에 대한 언어활동 예

제1학년 및 제2학년	제3학년 및 제4학년	제5학년 및 제6학년
학교도서관 등을 이용해, 도감이나 과학적인 것에 대해 쓴 책 등을 읽고, 알게 된 것 등을 설명하는 활동.	학교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사전이나 도감 등에서 정보를 얻어 알게 된 사실 등을 정리하여 설명하는 활동.	학교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복수의 책이나 신문 등을 활용하여 조사하거나 생각한 것을 보고하는 활동.

여기까지 일본 독서교육의 변천을 살펴보았다. 일본에서는 1955년 이후 ‘독해 지도’, ‘독서 지도’라는 두 가지 지도관을 가지면서 독서 교육이 진행되어 왔고, 독해가 ‘능력’으로 파악된 데 반해 독서는 ‘태도’로서 강조되어 왔다.²³⁾ 그러나 2008년 이후 학습지도요령 개정에서 독서의 역할이 재확인되며, 이어 2017년 학습지도요령 개정으로 독서가 국어과의 지도사항으로 위치하게 된 것을 감안할 때 독서는 ‘태도’가 아니라 학력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독서에 대한 이분구조의 학습관은 현재까지도 일본 독서교육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 이분구조가 반드시 독서 생활에 활용되지는 않았다는 지적²⁴⁾도 고려하면 학력으로서의 독서지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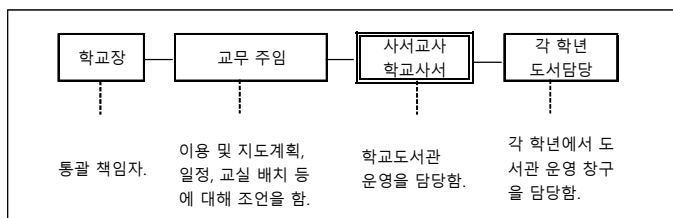
23) 足立幸子, 「国語科学習指導要領における読書指導の位置付けと課題」, 新潟大学教育学部研究 紀要 人文・社会科学編, 2015, 8(1), 1~11쪽.

24) 滝浪常雄, 「子どもの読書活動における『楽しみ読み』に関する考察」, 名古屋学院大学論集 人文・自然科学篇, 2020, 57(1), 15~23쪽.

2. 초등학교의 독서활동

① 학교도서관 운영

일본의 학교도서관에서는 주로 ‘사서교사’와 ‘학교사서’가 전문적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서교사는 교사로 채용된 자가 학교 내의 역할로서 그 직무를 담당한다. 학교도서관 자료의 선택·수집·제공이나 아이들의 독서활동에 대한 지도, 나아가 학교도서관의 이용 지도계획을 입안·실시한다.²⁵⁾ 따라서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의 운영·활용에 대해 중심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학교사서’는 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으로 채용된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학생과 교직원에 의한 학교도서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한 직원이다. 일반적으로 사서교사와 학교사서를 중심으로 학교장, 교무주임, 학년 내 도서 담당 등의 학교 내 연계로 학교 전체의 독서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림 1].²⁶⁾



[그림 1] 학교 내 도서관 운영 조직 예

학급 담임은 학년도서관 담당이나 사서교사, 학교 사서에게 도서관 이용방법이나 수업에서 필요한 도서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일

25) 文部科学省, 『学校図書館 司書教諭について』, 2012.

https://www.mext.go.jp/a_menu/shotou/dokusho/sisyo/1327733.html (인출일: 2021년 9월 13일)

26) 小森茂・松野 洋人, 『キーワードでわかる新国語科』, 2000, 国土社, 160쪽을 참고로 작성.

본 학교의 독서에 대한 조직적인 구조로 인해 학교도서관 이용 및 독서 활동을 계획적,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② 교과학습에서의 독서

국어과에서는 다양한 독서활동을 실천해 왔다. 읽어주기, 비교 읽기, 평행 독서, 지정 독서, 동작화, 역할극 등을 시작해서, 아이들의 독서 영역을 넓히는 등의 목적으로 동일 테마나 동일 작가의 작품을 소개해 나가는 활동인 북 토크(Book Talk), 문제를 내는 애니메이터의 진행으로, 아이들이 게임을 해결하면서 스토리나 등장인물의 심정을 파악해 가는 활동인 아니마시온(Animacion), 어느 하나의 이야기를 외워 그림 등의 힘을 빌리지 않고 말로만 소개하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 등이 있다. 또한 미술과와 관련해서 책에서 읽어낸 풍경이나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독서감상화 그리기 활동도 있다.

독서를 국어과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목에서 관련지어 지도하는 것은 학습지도요령에서 제시된 내용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받아 이과(理科)나 사회과(社会科)에서는 주제 및 학습내용 심화를 위한 조사활동이 일반적으로 실시되어 있다. 또한 교과 외의 학습인 횡단적 종합적 학습과 탐구적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총합적인 학습(総合的な学習)에서는 자신의 주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방법으로 책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 검색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학습에서 독서는 아이들의 주체적·협동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다.

③ 특별활동에서의 독서

2000년 이후 전국에서 독서교육이 추진되는 가운데 초등학교에서도 특별활동에서의 독서활동이 활발해졌다. 특별활동은 교과목이 아니라 교과 외에 해당하는 학급 활동, 아동회 활동, 클럽(동아리) 활동, 학교 행사

를 말한다. 주로 학급 활동이나 아동회 활동에서 독서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 전국적으로 진행된 아침에 독서를 시작으로 각지에서 특색 있는 독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서활동에 대해서 특색 있는 활동을 한 학교가 문부과학 대신에 의해서 표창되는 「레이와 3년도(2021년도) 아이의 독서 활동 우수 실천학교」로 선택된 가나가와현 아즈기시의(神奈川県厚木市) 초등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을 하고 있다.²⁷⁾

- 아침독서 (아침 10분간 전교 일제히 독서를 교실에서 진행.)
- 담임이 읽어주기, 북 토크 (아침독서 시간을 이용하여 담임이 책을 읽어주거나 추천하는 책을 소개하기도 한다. 타 학년・타 교실에서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 도서위원・교원의 추천 책 소개 (추천 책 소개글을 도서관 앞에 게시함.)
- 장마의 독서 주간, 가을 독서 주간 설정 (아이들이 직접 만든 서포를 배포.)
- 도서위원회의 활동 (추천 책의 팝 포스터 만들기, 도서관의 물북 작성)
- 도서위원회에 의한 읽어주기 (저학년)
- 지역 자원봉사자가 아침독서 시간에 읽어주기 (전학년)

도서위원회는 5, 6학년 아이들이 하는 특별활동 ‘아동회 활동’ 중 하나로, 각 학급에서 정해진 인원이 소속되어 학교 내 독서환경 개선,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의 지도는 사서교사나 학교사서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이들을 중심으로 학교도서관의 위해 다양한 활동을 운영・실시하고 있다. 지역 자원봉사의 읽어주기에는 매주 보호자를 포함한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가 교실을 찾아 책이나 종이 연극, 낭독 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봉사단의 독서활동(학교도서관 지원, 읽어주기 활동 등)은 가나가와현 초등학교 82%에서 실시되었고,²⁸⁾ 많은 학교에서 지역과 협

27) タウンニュース, 神奈川県厚木市立愛甲小学校 読書活動で文科大臣表彰, 2021-05-14.
<https://www.townnews.co.jp/0404/2021/05/14/574532.html>. (인출일: 2021년 9월 13일)

28) 神奈川県, かながわ読書のススメ～第四次神奈川県子ども読書活動推進計画～, 2019.

력을 하면서 아이들의 독서활동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원의 부족이나 지역의 협력을 얻을 수 없는 지역도 있어 독서활동이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일률적으로 단언할 수 없다. 또 최근에는 기초학력의 보장으로서는 아침독서가 아침학습으로 변경되는 학교나, 노동 시간문제로부터의 교사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독서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이 삭감되어 가는 추세도 보인다.

Ⅲ. 온라인 독서의 현황

1. 온라인 독서 환경

1) 1인 1대 태블릿을 실현하는 GIGA 스쿨 구상

2019년 12월에 제시된 GIGA 스쿨 구상은 의무교육 단계에서 2023년도까지 아이들 개개인이 각각 태블릿 등의 단말기를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의 실현을 목표로 할 것을 제시한 정책이다. ICT 활용을 통해 모든 아이들의 배움을 보증하고, 새로운 시대의 배움을 뒷받침하는 목적이 있다.

2021년 8월 문부과학성 보고에 따르면, 공립 의무교육 과정의 학교²⁹⁾ 가운데, 96.1%의 지자체에서 1인 1대의 학습용 태블릿과 인터넷 연결 등의 학습 환경이 정비되었다.³⁰⁾ GIGA 스쿨 구상이 발표된 2019년에는 교육용 컴퓨터 1대당 학생수가 5.4명³¹⁾이었던 것을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태블릿 정비가 가속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용 태블릿의 이용 개시 상황을 보면, 공립초등학교 중 84.2%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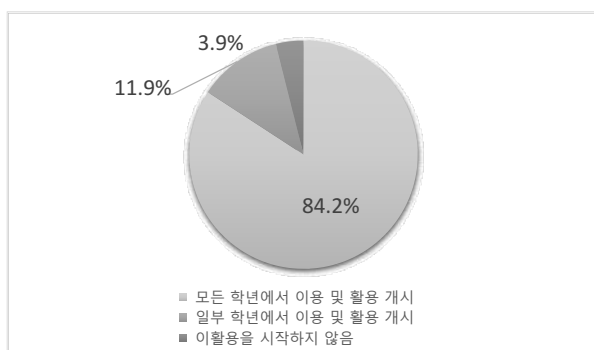
29) 일본의 의무 교육과정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 교육 학교, 중등 교육 학교의 전기 과정, 특별 지원 학교(특수학교)의 초중 학부를 말한다.

30)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지자체 1812 중, 1742(96.1%)가 학습 환경이 정비되었다. [文部科学省, 端末利活用状況等の実態調査(令和3年7月末時点), 2021.]

31) 文部科学省, 学校における教育の情報化の実態等に関する調査結果, 2019.

모든 학년에서 태블릿을 이용 및 활용이 시작하고 있고, 11.9%가 일부의 학년에서 태블릿을 이용 및 활용을 개시하고 있다 [그림 2].³²⁾ 95%를 넘는 초등학교에서 태블릿의 이용 및 활용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IGA 스쿨의 실현을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태블릿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 학교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ICT활용 상황에 대해 조사한 연구를 보면 PC 나 태블릿은 정비되어 수업 외 업무 (문서 작성, 평가 등)에서 활용되어 있지만 수업에서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지적되었다.³³⁾ 앞으로 수업에서 원활하게 태블릿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태블릿 활용에 대한 이해와 스킬의 향상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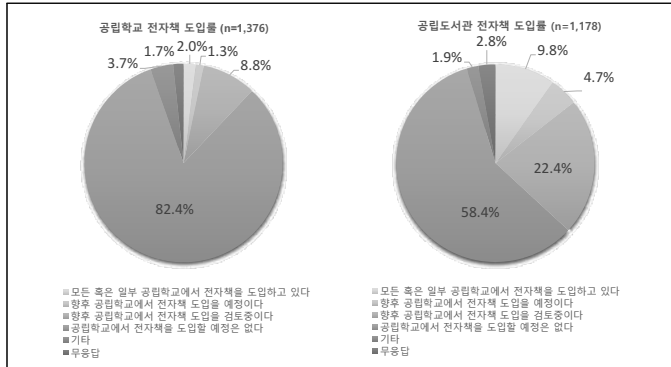
[그림 2] 초등학교 등의 단말기 이용 및 활용 상황 (n=19,719)

2) 전자책 이용현황

문부과학성은 지자체에 대해 2020년 12월 시점에서 전자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그림 3].³⁴⁾

32)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지자체 1812 중, 1742(96.1%)가 학습 환경이 정비되었다. [文部科学省, 端末利活用状況等の実態調査(令和3年7月末時点), 2021.]

33) 日高純司・小林博典, 「GIGAスクール構想の実現に向けた校内研修の推進に関する研究」, 『宮崎大学教育学部紀要』, 2021, (96), 1~14쪽.



[그림 3] 공립학교 및 공립도서관 전자책 도입률

그 결과 전부 또는 일부 공립학교에 전자책을 도입한 지자체는 전체의 약 2%였다. 태블릿 이용 및 활용이 활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책의 도입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는 약 1%에만 한정되어 있고 80% 이상의 학교는 향후도 전자책을 투입할 예정이 없다고 대답하고 있다. 공립학교 전자책 도입에 대한 과제는 「전자책 구입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66.9%)」, 「전자책 구입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31.7%)」, 「전자책 관련 시스템 관리하는 인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22.3%)」 등, 예산이나 인재의 관점에서의 과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었다. 그 외에도 「학교 측의 ICT 환경이 충분하지 않다(17.3%)」, 「이용자 강의 ICT 환경이 충분하지 않다(17.3%)」 등 환경 정비의 관점에서 걸림돌도 들 수 있었다. 환경 정비의 걸림돌에 대해서는 GIGA 스쿨의 추진에 의해 태블릿의 유무가 해결되었다고 해도 인터넷 환경, 통신 문제 등의 과제가 남는 것이다. 우에무라(2016)는 학교도서관의 전자책 미도입 문제에 대해 전자책 이용에 해당하는 문제점이나 과제 추출이 미흡하다는 점, 사서교사·학교사서에 대한 연수 커리큘럼이 확립되지 않은 점, 도서관 자료의 회계처리 문제와 그 판단 근거가

34) 文部科学省, 『令和2年度 子供の読書活動の推進等に関する調査研究』, 2021, 2쪽.

되는 법률상의 미비 등을 지적하고 있다.³⁵⁾ 이와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공립학교에서의 전자책 도입률은 낮은 실정이다.

공립 도서관에서 전자책 서비스 도입의 검토가 본격화된 것은 2010년 대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보고에서 공립 도서관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에 전자 서적이 도입되고 있는 도서관은 9.8%이다. 공립학교에 비하면 도서관의 전자화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전자책이 종이책처럼 이용되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30%에 가까운 자치체가 향후 전자책의 대출을 예정·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도서관에서도 공립학교와 같이, 「전자 서적 도입의 예산이 부족하다(67.4%)」라는 이유가 전자책 도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입 후에는 「적당한 전자 서적의 콘텐츠가 적다(67.8%)」라는 걸림돌이 가장 많다. 전자책의 출판은 늘어나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적합한 전자책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도 전자도서관의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태블릿이 거의 모든 초등학교에 정비되었다. 이것을 통해 전자자료 검색 등은 더 활발해 질 것이 예상되지만, 전자책 정비는 아직 미흡하고 전자책을 사용하는 독서를 추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현황이다. 또한 전자책 활용 환경이 미흡한 가장 큰 원인은 재정문제로 추측할 수 있다. 현재 온라인 독서 도입은 학교나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있지만 그 방대한 비용 부담을 고려하면 신속한 환경 정비를 위해서는 정부가 예산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전자책 활용 사례

문부과학성 ‘2020년도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 등에 관한 조사연구’³⁶⁾에 보고된 초등학교에 전자도서관을 도입한 사례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알아봤다.

35) 植村八潮・野口武悟・他, 電子図書館・電子書籍貸出サービス調査報告, 印刷学会出版部, 2016, 61쪽.

36) 文部科学省, 『令和2年度 子供の読書活動の推進等に関する調査研究』, 2021, 7~9쪽.

1) 도치기현 아이타시 (栃木県 矢板市)

주체 : 아이타시 교육위원회

2020년 10월 전국 최초로 학교 전자도서관을 개설했다. 대상이 된 지자체에서는 GIGA 스쿨에 의한 교육용 태블릿은 2020년 9월에 배포가 완료되었다. 초등학생들의 독서량을 개선하는 타개책으로서 전자도서관을 학교에 도입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운용 개시로부터 3개월에 6000건 이상의 대출이 있었다. 특히 소리가 나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그림책은 인기를 끌며, 추가구입으로 이어졌다. 아침독서와 국어 시간에 전자책을 활용하거나 저학년층을 대상으로 움직이는 그림책을 읽어 주었다. 향후, 북 토크나 비브리오 배틀의 이벤트 개최, 타교과에서의 조사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정비를 진행시켜 나간다.

2)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熊本県 熊本市)

주체 : 구마모토 시립도서관

2019년 11월 구마모토 시립도서관은 전자도서관을 도입했다. 2020년 5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독서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 이용 카드로 전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집에서 전자도서관에 접속해 독서가 가능해졌다. 시립도서관 이용률은 10%이지만 전자도서관은 40%로 큰 차이를 보였다. 태블릿의 정비에 따라 향후 읽어주기 기능이 붙은 그림책이나 영어 텍스트 등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갖추어 갈 예정이다.

3) 시즈오카현 아타미시 (静岡県 熱海市)

주체 : 아타미 시립 도서관

2018년 12월 아타미 시립도서관에 전자책을 도입했다. 지리적으로 도서관에서 거리가 있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 중고등학생들의 독서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후 초중학교와 연계해 독서 추진에 힘썼다.

전자도서관의 효과적 이용을 목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음성이 딸린 영어 그림책을 태블릿에서 모니터에 비춰 해설하는 등 아침독서를 활성화했다. 전자책을 통해 원어민 영어로 그림책을 읽을 수 있고, 아이들도 이질감 없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사례를 정리 하면, 1) 아타미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학교 전자도서관이 개설된 선진적인 사례이지만 아침독서나 국어 시간 사용에 한정되어 ‘전자책으로 읽는 것’이 중심이 된 것이 특징이었다. 2), 3)의 사례는 시립 도서관이 주체가 되어 학교에 전자도서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특징인데, 온라인 독서를 만나는 첫 단계이었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초등학교에서의 전자책을 활용한 독서교육은 아직 시작단계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제공하는 전자도서관을 학교나 교육위원회가 계약하여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제공되어 있다. 2019년 4월 서비스를 시작한 ‘School e-Library (<https://www.schoolelibrary.info/>)’에서는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전자책 정액제 독서서비스를 제공하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인터넷을 통해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COVID-19의 인한 학교 휴교 등에 영향을 받아, 전자책 도입을 검토할 지자체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이 전자 도서관·전자책을 공립학교에서 이용하는 방안이나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그 움직임은 아직 미비하다. GIGA 스쿨 구성이 촉진되면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아이들이 1인 1대의 태블릿을 소지하고 있지만 태블릿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은 디지털 교과서에 한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자체의 82.4%가 “향후 전자책을 도입할 예정은 없다”라고 대답하고 있으므로[그림3], 우선은 도입을 방해하고 있는 요인을 제대로 파악해, 그 걸림돌을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Ⅳ. 독서교육과 온라인 독서에 대한 고찰

여기까지 확인한 일본의 독서교육, 그리고 온라인 독서의 현황을 토대로 앞으로의 새로운 교육환경에서의 독서교육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독서’는 앞으로 아이들의 배움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임은 명확하다. 교육현장 밖에서는 다양하게 사용되어 있는 전자책이 Society 5.0의 사회에서도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은 용이하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러한 미래에서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 온라인 독서도 교육에 도입되어야 한다.

국어과 수업에서는 온라인 독서를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독서 방법의 하나로서 아이들이 전자책의 유용성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과서 소재에 맞춰 진행되는 평행독서에서는 그동안 책 수량의 한계로 학급별로 돌아가며 읽어야 했던 책을 동시에 읽을 수 있게 된다. 또 교과서에 일부만 실렸던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 아이는 전자도서관을 통해 전문을 바로 읽을 수 있게 된다. 독서지도에서 진행되는 북 토크나 애니메이션에서는 관심을 가진 책을 바로 전자도서관에서 빌릴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해온 독서 교육에 온라인 독서의 이점을 더한 수업이 이어나는 것을 기대한다.

특별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독서활동에서는 학교전자도서관이 일반화되더라도 앞서 특별활동에서 소개한 도서위원회 활동, 지역 교류인 자원봉사자의 책 읽어주기 등을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온라인 독서라는 인터넷 환경을 최대한 살린 새로운 독서활동의 기본 방향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개인 클라우드 상에 학습에 사용하고 있는 책이나 읽고 있는 책을 축적해 나가는 것, 혹은 도서위원회나 자원봉사자가 권장한 책을 클라우드 상에 보관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책 서비스를 학교 전자도서관에 적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대출 이력을 활용해 아이들 개개인에게 추천하는 책을 소개하거나 학교 내 대출 순위를

곧바로 화면에 반영함으로써 아이들의 독서 흥미를 유발하고 독서량 증가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온라인 독서 현황에서 확인했듯이 학교교육에 전자책이 도입 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초등학교에서의 전자책 이용에 관한 선행연구가 적다는 것은 앞서 언급했지만 문부과학성이 학교도서관에서 전자책에 대해 처음 언급한 것은 2016년이며,³⁷⁾ 이어서 2017년에 제시된 ‘학교도서관 가이드라인’에서 전자책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도서관의 정보 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언급한 것이며 전자책을 독서에 활용하는 것까지는 언급되지 않았다.³⁸⁾ 전자책의 필요성과 이용 및 활용에 대해 검토되는 가운데 전자책을 이용한 독서를 ‘독서’에 포함한다고 명시된 것은 2018년의 일이다.³⁹⁾ 즉, 전자책에 의한 독서는 이제 시작 단계이다.

앞으로 전자책이 도입되고 활발한 독서지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지도요령에 제시된 독서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교사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에서 독서교육은 현재까지도 ‘독해지도’와 ‘독서지도’의 이분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독서의 지도방법 및 평가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 과제라는 지적⁴⁰⁾이 있는 것처럼, 독서가 지도해야 할 [지식 및 기능]으로 제시된 현행 학습지도요령에 대한 이해와 지도 방법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독서에 대한 이해를 학교 내에서 공유하고 독서지도를 조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

37) 文部科学省, 「これからの学校図書館の整備充実について(報告)」, https://www.mext.go.jp/b_menu/shingi/chousa/shotou/115/houkoku/1378458.html (인출일:2021년 9월 24일)

38) 학교 도서관에 있어서의 도서관 자료에 대해서 “도서 자료외, 잡지, 신문, 시청각 자료(CD, DVD 등), 전자 자료(CD-ROM, 네트워크 정보 자원(네트워크를 매개로 얻을 수 있는 정보 콘텐츠) 등), 파일 자료, 팜플렛, 자교 독자적인 자료, 모형 등의 도서 이외의 자료가 포함된다”고 제시 되었다.(文部科学省, 『学校図書館ガイドライン』, 2017.)

39) 文部科学省, 第4次 子供の読書活動の推進に関する基本的な計画について, 2018.

40) 足立幸子, 「国語科学習指導要領における読書指導の位置付けと課題」, 新潟大学教育学部研究 紀要 人文・社会科学編, 2015, 8(1), 1~11쪽.

력의 하나로서 독서의 지도를 학교 전체로 실행하기 위해서 독서교육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다. 무엇을 어떻게 지도해 나갈지가 명확해짐으로써 전자책의 이용 및 활용법에 대한 의론이 활발해 질 것이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종이책을 읽는 것이 독서라고 하는 도서관⁴¹⁾이, 교사에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서관에서는 독서의 방법이 다양해지고, 1인 1대의 태블릿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교과서는 태블릿으로, 독서는 종이로’라고 하는 지도 방법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전자책의 수요는 늘지 않은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자신의 도서관에 대해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대에 맞는 독서가 무엇인지 독서 교육의 이해와 함께 교내에서 공통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온라인 독서가 초등학생의 독서 습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자책 이용에 관한 제도적인 문제, 태블릿 학습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1인 1대 태블릿의 교육이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전자책을 사용한 독서 교육을 현장에 활발히 도입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아이들이 Society 5.0 시대에 자신만의 도서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종이책과 전자책 각각의 우수성을 배울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학교도서관에 전자책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온라인에서의 독서경험을 통해 아이들 각자가 최적의 독서나 학습방법을 선택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Society 5.0에 대응하는 독서의 형태이자 독서를 즐기는 것에 이어질 것이다.

41) 植村八潮, 「学校図書館における電子書籍利用の現状と課題」, 『コンピュータ&エデュケーション』, 2020, 20~25쪽.

V. 맺는 말

일본 정부가 발표한 앞으로의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인 Society 5.0을 향한 사회 변화가 일어나면서 교육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GIGA 스쿨 구상으로서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1명 1대의 태블릿을 도입되고 주체적으로 깊은 배움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인터넷,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독서는 어떤 형태가 되어 나가는가의 의문을 출발점에 연구를 실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현재까지의 일본 독서교육의 변천에 대해 개관했다. 일본의 국어과 교육에 대해서 오랫동안 “독해교육”과 “독서교육”의 이분 구조가 유지되고, “독서”는 태도의 문제로 파악됐지만, 점차 학력 중 하나로 파악할 수 있게 된 것, 2017년 학습지도요령에서는 독서가 [지식 및 기능]으로 제시되어 독서지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실천 사례로 각 교과나 특별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독서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에 온라인 독서의 환경에 대해 학교전자도서관이나 전자책의 이용 현황에서 살펴봤다. 태블릿은 전국적으로 도입되어 있지만 태블릿을 이용하고 독서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의 정비는 진행되지 않고, 앞으로 전자책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어 있는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예산이나 연수 제도 등의 정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교육방식에서의 온라인 독서와 독서교육에 대해 고찰했다. 온라인 독서는 다양한 독서 방법의 하나로서 아이들이 그 유용성을 배울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독서교육’과 ‘독서’에 대한 인식을 교사 자신과 학교 내에서 공통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 공통 인식 속에서 교사는 아이들 스스로가 독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학습 경험을 쌓아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전자책에 관한 걸림돌의

해결에 대한 연구, 초등학생의 전자책 이용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 등 온라인 독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시급하다. 책, 전자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학습 환경에서 배우면서 학생 자신에 최적의 독서 방법을 찾아 학습에 활용하거나 즐기는 독서를 위한 독서지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헌과 학습지도요령, 조사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따라서 독서에 대한 본 논문의 논의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 연구를 심화하기 위해서는 GIGA스쿨이 촉진된 현장에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교사의 독서지도에 대한 생각과 인식을 질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독서 교육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교사들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植村八潮・野口武悟・他,『電子図書館・電子書籍貸出サービス調査報告』,印刷学会出版部,2016.
- 小森茂・松野 洋人,『キーワードでわかる新国語科』,国土社,2000.
- 塩見昇,『学習社会・情報社会における学校図書館』,風間書房,2004.
- 文部省,『学校図書館の手引』,1948.
- 文部科学省,『小学校学習指導要領(平成29年告示)解説国語編』,東洋館出版社,2017.
- 文部科学省,『学校図書館ガイドライン』,2017.
- 足立幸子,「国語科学習指導要領における読書指導の位置付けと課題」,『新潟大学教育学部研究人文・社会科学編』,2015. 8(1), 1~11頁.
- 生野金三・豊澤弘伸,「読書教育論について」,『白鴎大学論集』,2006, 20, (2), 123~143頁.
- 今井康晴,「我が国の『教育内容の現代化』におけるブルーナー理論の受容に関する一考察」,『明星大学教育学研究紀要』,2008, (23), 97~106頁.
- 植村八潮,「学校図書館における電子書籍利用の現状と課題」,『コンピュータ&エデュケーション』,2020, 20~25頁.
- 木幡智子,「学校図書館の活性化に関する考察--学校図書館活動の活性化に向けた理論枠組みの検討:活動理論を応用した学校文化の変革に向け」,『愛知県立大学教育福祉学部論集』,2014, (62), 49~62頁.
- 滝浪常雄,「子どもの読書活動における『楽しみ読み』に関する考察」,『名古屋学院大学論集 人文自然科学篇』,2020. 57(1), 15~23頁.
- 富山哲也,「中学生の読書指導における電子書籍端末利用の可能性についての実証的研究」,『全国大学国語教育学会国語科教育研究: 大会研究発表要旨集』,2014, 127頁.
- 日高純司・小林博典,「GIGAスクール構想の実現に向けた校内研修の推進に関する研究」,『宮崎大学教育学部紀要』,2021, (96), 1~14頁.
- 森美紀子,「図書館と『読書指導』」,『国際文化研究紀要』,2006, (13), 1~25頁.
- 植村八潮・野口武悟,学校図書館における電子書籍利用環境構築のための実証的研究, 2020.
- 兵庫県教育委員会, ひょうご子どもの読書活動推進計画(第4次), 2020.
- 文部科学省, 第5期科学技術基本計画, 2016.

文部科学省, 平成30年度以降の学校におけるICT環境の整備方針について, 2017.
 文部科学省, 第3期教育振興基本計画, 2018.
 文部科学省, 第4次 子供の読書活動の推進に関する基本的な計画について, 2018.
 文部科学省, GIGA スクール構想の実現について, 2019.
 文部科学省, 学校における教育の情報化の実態等に関する調査結果, 2019.
 文部科学省, 令和2年度 子供の読書活動の推進等に関する調査研究, 2021.
 文部科学省, 端末利活用状況等の実態調査(令和3年7月末時点), 2021.

文部省, 「昭和26年(1951)改訂版 小学校学習指導要領 国語科編」, 1951.
<https://erid.nier.go.jp/files/COFS/s26eja/index.htm> (인출일: 2021년 9월 13일)
 文部科学省, 「学校図書館 司書教諭について」, 2012. https://www.mext.go.jp/a_menu/shotou/dokusho/sisyo/1327733.htm (인출일: 2021년 9월 13일)
 文部科学省, 「これからの学校図書館の整備充実について(報告)」,
https://www.mext.go.jp/b_menu/shingi/chousa/shotou/115/houkoku/1378458.html (인출일: 2021년 9월 24일)
 タウンニュース, 「神奈川県厚木市立愛甲小学校 読書活動で文科大臣表彰」(2021년 05월 14일), <https://www.townnews.co.jp/0404/2021/05/14/574532.html> (인출일: 2021년 9월 13일)

A Study on Online Reading from the Viewpoint of Reading Education in Japanese Elementary Schools —Focusing on using e-books—

Sato, Yukina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ading education in using “one by one” tablet in Japanese elementary schools of Global and Innovation Gateway for All(GIGA) school concept.

Based on research literature and survey reports, the characteristics of reading education in Japanese elementary schools and the current status of online reading were investigated, and the future issue of reading education was discusse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reading is considered important as one of the factors that form academic achievement in Japan, but the online reading environment is still in its infancy. In order to promote effective reading education in line with the GIGA school concept, teachers need to reflect on their perception of “reading education” and “reading”. In order to develop children’s ability to choose their own reading method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arning environment, including e-books.

In future work,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how reading education have changed in schools where “one by one” tablet has become widespread, and how teachers perceive these changes.

Keywords : online reading, digital Reading, Japanese elementary school, Reading education, GIGA school concept

투고일 : 2021. 09. 15. / 심사일 : 2021. 10. 04. / 심사완료일 : 2021. 10. 10.

중국 초등학교의 경전(고전)읽기 교육 현황

권애영*

【 목 차 】

- I. 서론
- II. 경전 읽기교육의 역사
 - 1. ‘경’과 고대 경전교육전통
 - 2. 고대 경전읽기 교육방법
- III. 경전읽기 교육의 실제
 - 1. 경전읽기 교육과정 운영
 - 2. 경전읽기 교육교재
 - 3. 경전 읽기교육에 대한 논란
- IV. 결론

국문초록

최근 중국에서는 ‘경전(고전)읽기 교육’ 열기가 아주 뜨겁다. 경전읽기는 원래 중국 고대 학습의 형태인데, 오늘날 유구한 중화의 전통문화 계승·인문학적 소양 배양·지적 능력 향상과 더불어 도덕교육 효과를 내세우며 전통적인 고전학습 부활을 크게 부르짖고 있다. 2000년 이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경전읽기는 민족정신과 우수한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아끼며, 중화문명을 널리 알리고 민족적 자부심과 문화의 자신감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전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서한(西漢) 이후부터 청말(淸末)까지 전반적으로 꾸준히 유가 위주의 교육을 실시해 왔다. 유가경전 교육이 오랫동안 그 전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전읽기 교육의 기본적인 방법은 ‘송독(誦讀)’으로 ‘낭송을 위주로 하고 이해는 보조’로 하는 방법인데 이는 결국

* 아시아문화콘텐츠 연구소 특임연구원, aeyoung319@hanmail.net

숙독을 향한 과정이다.

경전읽기 교육은 90년대 초부터 산발적으로 진행되다가, 제 8차 교육과정(2011)에서는 어문교육 과정 속에 고시 75편을 선정하여 반드시 암송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본 위에 학교 교육과정의 10%—25%범위 내에서 재량시간을 확보하여 국학·전통문화 등의 교과를 개설하였다. 교재는 중앙에서 지원하는 연구단체나 중점 대학에서 발행한 단일한 교재를 사용하거나 자체 교재를 편찬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각자 가정에서 구입한 교재를 사용하기도 하고, 교재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경전읽기 학습을 평가에 반영 혹은 제외하는 학교도 있어 그 운영 형태는 아주 다양하다.

한편 경전읽기 교육의 폐해를 주장하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는 경전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앞으로 고등학교와 대학입시 시험과목에 전통문화 관련 내용의 비중을 높일 것을 검토하고 있기에 경전교육은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는 앞으로도 더욱 인적·물적 교류가 늘어날 것이므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이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바탕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중국 전 사회에서 광풍이 일듯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경전읽기 교육’에 대한 고찰은 중국인들의 밑바탕에 깔린 기본 사상을 이해하는 좋은 지표가 될 것이다.

핵심어 : 아동 경전읽기 교육, 독경교육, 국학 교육, 송독

I. 서론

최근 대만과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중화문화권을 비롯하여 중국에서는 ‘경전(고전)¹⁾읽기 교육이 한창이다. 경전읽기는 원래 중국 고대 학습의 형태였으나 과거제도의 폐지와 서구의 교육제도 수용,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된 교육이다. 그런데 오늘날 유구한 중화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인문학적 소양을 배양하고, 지적 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덕교육 방면에서도 효과가 있음

1) 중화문화권에서 유가 경전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으로 이들이 지칭하는 경전은 우리에게 고전이라 할 수 있다.

을 내세우며 다시 전통적인 고전학습 부활을 크게 부르짖고 있다. 경전 교육은 본질적으로 그 대상이 어른과 아이의 구별이 없지만, 교육적 측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전교육’이 효과적임을 내세워 각 급 학교와 민간단체, 언론 등을 통해 활발하게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에게 과연 경전 읽기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 역시 20세기 초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 부는 중국의 ‘경전 읽기 교육’의 출발은 1994년 대만의 왕재귀(王財貴) 교수에 의해 시작되어 1997년 홍콩을 거쳐 중국대륙의 큰 호응을 받아 현재 세계 각지의 화교들에게까지 그 열기가 퍼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1995년 3월 제8회 전국인민정치협상 3차 회의 전국위원회에서 <어린이 고전학교의 건립을 긴급히 촉구한다(建立幼年古典學校的緊急呼籲)>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범대학 안에 고전반을 설립하여 교육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이후 중국 청소년발전기금회·중화공자학회·ICI 국제문교기금회(홍콩)와 각 사회기타 각계 인사들의 호응과 추진아래 자국의 아동경전읽기운동이 점차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²⁾

2000년 이후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경전읽기는 민족정신과 우수한 전통문화의 이해와 경전읽기를 통해 중국문화를 아끼고 중화문명을 널리 알리며 민족적 자부심과 문화의 자신감을 높이는 것을 그 지향점으로 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08년부터 교육부·국가언어문자공작위원회·중앙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가 주관하는 ‘《중화송》경전송독운동(《中華誦》經典誦讀行動)’을 펼치고 있다. 이 기구는 아동 뿐 아니라 대학생·성인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경전과 우수한 고전 시문을 주제로 한 경전 암송대회·한자쓰기 대회·작문대회·각종 전통 절기 행사·방학을 이용한 캠프, 초·중·고·대학교별 각종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경전읽기 교육’은 관이 주도적으로 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

2) 賈萬剛, 「從民國讀經思潮看當代“兒童讀經運動”」, 『基礎教育研究』 12집, 2009, 5쪽.

고 파급력이 큰 공영방송(CCTV)에서도 ‘고전’과 관련된 강의를 활발히 진행하여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교육부역시 2011년 개정된 제 8차 국가 교육과정에 중국적 특색의 강화를 가장 첫 번째 목표로 내세우며, 교육 내용에 중화민족 우수전통문화와 성취를 충분히 반영하고 동시에 중국 기초교육의 우수함을 계승하고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지침 아래 지방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전통문화 관련 교과를 개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본고는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이 지향하는 목표를 어떤 형태로 기초교육에 담아 보급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교류하는데 있어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II. 경전 읽기교육의 역사

1. ‘경’과 고대 경전교육전통

허신(許慎)의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의하면 ‘경(經)’의 본뜻은 ‘베의 직선’이다. 베를 짤 때는 경선을 먼저 놓은 다음 복을 움직여서 위선을 교차하여 베를 완성한다. 그러므로 ‘경’은 위선보다 먼저 놓이게 되므로 선재성(先在性), 베의 품질을 결정하는 주도성(主導性), 베를 짤 때 경은 움직이지 않고 위만 움직이므로 불변성(不變性)·영구성(永恒性)의 뜻³⁾을 갖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경서란 인간이 지녀야 할 도리를 지니고 있어서 인간의 삶에 불변하는 이치를 일깨워주는 책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공인된 경서로는 서양의 ‘성경’, 인도의 ‘베다(Veda)’와 ‘불경’, 그리고 중화문화권의 ‘사서오경(四書五經)’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중국에서는 ‘경’이란 유가 경전을 말해왔다. 이런 까닭에 ‘경’에 대한 관념과 범위에 관해서는 경전교육 지지자들 사이에

3) 王財貴 외, 『讀經教育理論與實務』, 臺北：洪葉, 2011, 258쪽.

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가장 보편적으로 공인된 견해는 “경은 곧 경전으로 전범성과 권위성을 가진 저작으로 역사를 통해 선택된 ‘가장 가치 있는 책’이라는 관점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유가의 경전 뿐 아니라 목가·도가·법가·병가 등 제자백가의 경전 뿐 아니라 고대의 전통적인 음악·미술·회화 등 우수한 문화 예술 전적도 포함된다. 곧 중화민족의 철학·사상·문학가치·역사의식·계몽작용을 지닌 고대 문헌이나 문학작품 등의 전통 문화서적을 다 포괄하게 된다. 경전읽기란 바로 이러한 전통문화서적을 읽는 것⁴⁾이며, 현재 중국의 경전읽기 교육은 바로 이 관점을 채택하였다.

고대 중국의 경전읽기 교육은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가히 중국 자체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 되었다. 이처럼 오랜 전통을 가진 경전읽기 교육의 역사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설시대인 하(夏)를 거쳐 은(殷)에도 학교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주(周)나라부터이다. 서주(西周)의 문물제도는 상고시대에 발전된 문화의 집적으로 중국인들은 실재하는 이상적 제도로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전통적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주대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 서주 사회는 봉건제도와 종법제도, 그리고 예를 숭상한 것이 특징이다. 서주가 엄격한 신분제를 기초로 한 봉건제도와 종법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가 필수적이었으므로 서주의 교육은 예악을 가장 중시했고, 교재 역시 예악을 위주로 하였기에 이를 경전교육의 선구로 삼는다.

동주(東周)의 교육 역시 서주와 비슷하였으나 정치와 사회가 불안하고 거듭된 전화로 민생이 어려워 전통관학이 붕괴되어 공립학교가 황폐해져 개인이 강학을 하게 되는데 공자(孔子)가 바로 그 선구자이다. 공자가 사용한 교재는 시(詩)·서(書)·역(易)·춘추(春秋)·예기(禮記)·악(樂)의 육예(六藝)로 문하의 제자는 3천명, 육예에 정통한 제자만 70여 명이

4) 張雪濤, 「小學生誦讀中華傳統文化經典的研究」, 沈陽師範大學碩士論文, 2006, 3쪽.

었다. 공자의 제자인 자하·증자 역시 강학을 했고, 맹자와 순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들의 교육이 바로 경전교육이다.⁵⁾

진(秦)나라 때는 법가사상이 중심이 되면서 분서갱유로 유가교육을 반대하여 경전의 전승과 발전이 크게 손상되었으나 문자를 통일함으로 인해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만들어졌다. 서한(西漢)의 무제에 이르러서는 동중서의 건의에 따라 “다른 기타 사상은 없애고, 오로지 유가의 학술만 존중(罷黜百家, 獨尊儒術)”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오직 유가에만 박사를 두었고 힘껏 유가를 제창하였다.⁶⁾ 유가학술이 정부로부터 존중을 받음으로 인해 유가의 경전이 민간에서도 주요한 교재로 전해져서 역대로 유가가 중심이 되는 경전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는 현학사상이 주를 이루면서 소박한 풍조가 성행하면서 교육은 유(儒)·불(佛)·도(道) 사상이 함께 어우러져 시행되었다. 수(隨)가 중국을 통일한 후 불교연구가 더 활발해지면서 불·도가의 사상이 유행하게 되어 유가는 쇠퇴하였다.

당(唐)대에는 ‘공자를 받들고 유가를 높이는(崇聖尊儒)’ 것이 교육정책이었으므로 주요 교육내용은 바로 유가 경전을 학습하는 것이었다. 당나라 시기에는 과거제도가 정식으로 채택되면서 문관정치에 부합하는 유가가 지식인의 ‘공통된 신앙’이 되어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⁷⁾ 그러나 시험의 내용이 유가 경전에만 국한되지 않았으므로 시·부·책론(詩賦策論) 등 문학 및 실무과목 역시 중요해졌다. 이처럼 시험에 채택된 자료들이 교육의 방향에 깊은 영향을 주었으므로 학문하는 사람들은 경전읽기 외에도 시·부·사장(詩賦詞章)도 아울러 공부해야 했다.

송(宋)대에는 과거제도의 완비와 그 규모의 확대됨으로 인해 교육이 발전하고 널리 보급되어 많은 평민자제들이 과거를 통해 계층 상승을 하

5) 王財貴 외, 앞의 책, 8쪽.

6) 王財貴 외, 위의 책, 8쪽.

7) 김경식, 『중국교육전개사』, 문음사, 2006.

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를 통해 관학이 과거준비 기관으로 전락하자 이에 대한 폐단을 지적하며 등장한 것이 서원이다. 서원은 당나라 때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 원래는 책을 보관하거나 서적을 편찬하는 장소였다.⁸⁾ 송의 서원은 이 당시의 중요한 교육 형태로 주희(朱熹)의 백록동 서원이 대표적이다.

주희는 ‘백록동서원학규(白鹿洞書院學規)’를 제정하여 교육방침으로 오교(五教) 즉, 부자유친·군신유의·부부유별·장유유서·붕우유신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 학규는 유가 도덕수양의 기본원칙을 총괄하고 있으며 고대 봉건사회교육의 주요 정신을 드러낸 것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에도 미친 영향이 크다. 이것은 남송시기 서원의 교칙일 뿐 아니라 원·명·청 시기 서원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일반 관학에서도 이를 채택하였다.⁹⁾ 또한 주희가 풀이한 사서집주(四書集注: 논어·맹자·중용·대학)는 이후 원·명·청나라의 필수 교재였으며, 사서를 해석하는 지표가 되었다.¹⁰⁾ 이로써 이전에는 정치적으로 주공(周公)을 받들어 모셨다면 이제에는 공자와 맹자를 받드는 교육으로 유가사상이 전환되었다.

원(元)나라 때는 몽고족이 중국 전 영토의 통일을 이루어 사회의 안정과 경제회복·번영을 주장하고 문치를 주장하면서 한족의 유교문화를 위주로 한 화하(華夏)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그리하여 공자를 존중하고 유가를 받드는 유교를 국시로 하고 과거를 통한 인재선발시험에서는 정호(程顥)·정이(程頤)와 주희 등이 주해한 ‘사서’와 ‘오경’이 주내용이 되었다. 이러한 정주이학(程朱理學)은 관의 통치사상이 되어 이후 명·청으로 계속 이어져 중세 후기 사상과 문화에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¹¹⁾하였고, 우리나라 교육과 학문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원대에 흥성하였던 사학(私學)과 서원 역시 교학내용은 사서오경의 유가 경

8) 광제가 지음, 이경자 옮김, 『중국의 고대학교』, 서울 : 원미사, 2004, 155쪽.
 9) 광제가 지음, 위의 책, 158쪽.
 10) 박영진, 『중국교육사상가』, 서울 : 장서원, 2005
 11) 주영신 지음, 최영준 옮김, 『근원과 찬란 중국 고대 교육사상사』, 서울 : 어문학사, 2009, 97쪽.

전 위주로 즉 정주이학이 기본내용이었다.

명(明)나라 때는 ‘문으로 천하를 다스린다(文以治天下)’를 천명하면서 경서를 존중하고 유가를 숭상했으며 정주이학을 정통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유학의 기초 위에서 중앙에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는 내용은 주로 ‘사서’와 ‘오경’이었다. 지방학교와 기타학교인 사학(社學) 역시 그 교육 내용은 마찬가지였다.¹²⁾

청(淸)나라 시기는 만주족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였기에 만몽한족 교육을 병행하면서도 명대의 제도를 이어받았다. 그리하여 유가경술의 존중과 정주이학을 제창하여 중앙 관학에서는 사서·오경·성리(性理)·통감(通鑑) 등을 가르쳤다. 지방 관학과 서원 역시 과거와 무관하지 않았기에 정주이학이 정통 사상적 지위를 가졌다.¹³⁾

이처럼 경전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서한(西漢) 이후부터 청말(淸末)까지 부분적으로 쇠퇴기가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꾸준히 유가를 위주로 한 교육을 실시했음을 알 수 있다. 유가경전 교육은 본래 교화와 인재양성이 그 목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가경전 교육이 오랫동안 그 전통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과거제도를 통한 인재선발이 경전에 정통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때문에 1905년 과거제도 폐지 및 1912년 교육부가 ‘소학교에서의 경전읽기 과목을 일률적으로 폐지’를 반포함으로써 경전학습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¹⁴⁾ 1912년 1월 19일 민국 제 1대 교육총장 채원배(蔡元培)는 ‘소학교에서 경전읽기 과목을 전부 폐지’하는 법령에 이어 같은 해 5월에 다시 ‘사범·중·고등학교·소학교에서 경전읽기 과목을 폐지’하는 법령을 반포했다. 이로써 춘추전국시대부터 청말까지 시행되어 오던 경전교육은 학교제도 안에서 정식으로 그 운명을 다하게 되었다. 그리고 1919년 5·4운동이 일

12) 王財貴 外, 앞의 책.

13) 王丙照 外, 『簡明中國教育史』,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8, 210쪽.

14) 林志德, 「愚昧還是啟迪: 香港推廣兒童經典學習的反思」, 『香港教師中心學報』 9집, 2010, 97쪽.

어나 호적(胡適) 등이 백화문을 제창하고, 그의 건의에 따라 민국 9년(1921년)에는 소학어문 교과서가 일률적으로 백화문으로 바뀌었다. 이로써 초등학교에서는 경전을 읽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문언문도 공부하지 않게 되었다.¹⁵⁾

2. 고대 경전읽기 교육방법

예로부터 중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아동교육을 중시했다. 태교와 조기교육, 가정교육 등에 해당하는 고사와 관련 서적이 많은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래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학자들 중에는 아동교육과 관련된 이론과 효과적인 교육법에 대한 언급한 경우도 많아 이들이 바로 훌륭한 교육가의 역할도 했다. 고대 교육가들은 아동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글자 익히기·글씨쓰기·독해·작문 등 네 가지 부분에 주력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경전읽기 교육은 주로 독해, 곧 읽기 교육에 해당한다.

독해란 바로 독서로 중국 고대 교육가들은 독서법 가운데서도 속독을 매우 중시했는데 특히 낭독을 통한 암기와 속독이 초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시했다. 그들은 송독을 계속하면 점차 주요 내용을 알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기억이 되므로 일생에 도움이 된다고 여겼다. 북송 시대의 유교 철학자 장재는 “경서나 서적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비록 순임금과 우임금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이를 읊조리고 말하지 않으면 귀머거리나 장님이 깃발을 들고 지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기억하면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면 행동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하고 낭독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⁶⁾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지식인에게 큰 영향을 미쳐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가의 정통으로 추앙받는 주희 역시 독서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여 이와

15) 王丙照 外, 앞의 책, 357쪽.

16) 주영신 지음, 최영준 옮김, 『근원과 찬란 중국 고대 교육사상사』, 어문학사, 2009.

관련된 내용을 강조하여 그에 따른 독서법을 집필하였다. 《朱子語類》에서 언급한 그의 독서의 기본원칙은 순차적으로 나아가기(循序漸進), 숙독하고 깊이 생각하기(熟讀精思), 마음을 비우고 깊이 몰입하기(虛心涵泳), 자신을 몸소 살피기(切己體察), 꾸준히 힘쓰고 노력하기(着緊用力), 삼가고 조심스런 마음으로 지향하기(居敬持志)의 6가지¹⁷⁾로 정리되는데 이 중 두 번째가 ‘숙독’에 관한 내용이다.

곧 책을 읽을 때는 ‘숙독정사(熟讀精思)’를 하여야 하는데, 숙독정사란 충분히 뜻을 새기면서 글을 읽고 꼼꼼히 생각하는 것으로¹⁸⁾ 글을 읽어서 그 참뜻을 이해하려면 마음과 눈과 입을 오로지 글 읽기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숙독을 하는 방법으로는 마음·눈·입 등의 세 곳에 두루 미치도록(讀書三到) 하고 반복하여 읽을 것을 주장하였다. 곧 마음을 책에 두고 책의 내용을 낭독하면서 계속 반복하여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나라 시대의 학자 최학고(崔學古)도 『유훈(幼訓)』에서 독서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였는데, 그 역시 책을 소리 내어 읽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숙독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속 반복하여 읽되 소리를 내서 읽어야 하며 숙독에 이르는 구체적 방법이 곧 송독이라 할 수 있다. 송독은 ‘낭송을 위주로 하고 이해는 보조’로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송독은 글자의 정확한 발음만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어구나 가락·운율·성조 등의 언어에 대한 감각을 배양할 수 있었기에 고대 문언문과 시문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왔다. 곧 지금 당장 이해하기를 강요하지 않고 반복해서 소리 내어 읽고, 읽는 것을 반복하여 외우게 되면 나이가 들어 성장하게 되면서 점점 내용을 이해하고 깨달음을 얻게 되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화가 된다는 것이다.¹⁹⁾

17) 주영신 지음, 앞의 책, 424-441쪽.

18) 노병성, 「주자의 독서관에 관한 고찰」, 『韓國出版學研究』 51집, 2006, 161쪽.

19) 劉丹, 「國學經典誦讀校本課程開發與實踐探索」, 東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1, 13쪽.

이러한 송독의 특징은 첫째, 소리 내어 읽는 것인데 바로 이런 작용으로 이해력과 기억력에 도움을 준다. 둘째, 반복성으로 반복해서 읽으며 사고를 거듭한다. 곧 반복해서 읽다보면 저절로 그 뜻을 알게 되므로 결국 속독이 되는 것이다. 셋째는 예술성으로 송독은 일종의 언어예술로 반드시 일정한 기교와 예술성을 갖춰야 한다. 곧 끊어 읽기·강약·가락 등을 잘 파악하여야 하는 예술에 해당²⁰⁾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자들은 송독을 통해 음악성과 예술적 감성도 같이 배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고대인들의 경전읽기 교육방법은 소리내어 읽고, 계속 반복하여 읽고, 저절로 암송할 때까지 거듭 읽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송독이라고 하고 송독은 글의 내용을 깨우치는 속독 과정의 하나로 송독을 통해 음악적 아름다움도 느끼면서 그 내용을 완전히 외움으로써 점차 그 깊은 뜻을 음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Ⅲ. 경전읽기 교육의 실제

1. 경전읽기 교육과정 운영

최근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자신감을 회복한 중국은 2011년 제8차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덕육·우수한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교육·민족단결교육과 시대성·법제교육의 내용 등 네 가지 항목을 강화하였다. 새로운 교육과정은 교사들의 자율성을 증가시키고 방과 후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심리적인 건강을 중시²¹⁾하는 방향으로 짜여졌다.

이러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위에 각 지방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전통

20) 李蘊哲, 「“經典誦讀”問題研究-以揚州地區“經典誦讀”活動為例」, 楊洲大學, 2012, 11-12쪽.

21) 양정·김석우·조슬기·이승배, 「중국 2011년도 개정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에 대한 중국 초등 교사들의 관심도와 실행도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7집, 2016, 123-124쪽.

문화'·'국학'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경전읽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학'은 유가 중심의 중화 전통사상 문화와 학술 및 고대 제자백가를 포괄하는 뜻으로 사용되므로 '국학'과 '경전읽기'는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사실 경전읽기 교육은 90년대 초부터 일부 지방이나 학교에서 특색 사업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국가나 교육부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명명한 교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전읽기 교육은 크게 두 갈래로 운영되고 있는데 첫째로 국어(어문) 교과서에 실린 작품을 반드시 외우는 것이고 둘째로는 학교 재량시간이나 품덕(品德) 시간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개정된 2011년 어문교육 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간단한 문언문을 학습하기 시작하여 의무교육을 마치는 중3학년까지 우수한 고시문 240편을 암송²²⁾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고시문을 교과서에 단계별·난이도·주제별로 잘 배치하였는데 초등과정에서는 문은 제외하고 시 75편을 반드시 암송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2001년 <기초교육과정개혁요강(基礎教育課程改革綱要)>을 반포하면서 국가·지방·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정하여 운영²³⁾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10%—25%범위 내에서 탄성과정을 확보²⁴⁾하여 경전읽기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교육청이나 학교 수준의 탄성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독립교과(전통 문화 혹은 국학)로 개설하여 필수 과목으로 교육하는 방법, 둘째로 일반교과 시간 안에 관련된 내용을 삽입하는 방법(語文·品德與生活·品德與社會學科에 포함), 셋째로 우리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처럼 비정기적으로 관련 주제를 통해 수업하거나 혹은 비정기적인 특별활동으로 강좌나 발표회 등에 배치하는 통합 방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²⁵⁾

22)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義務教育語文課程標準』, 2011.

23) 倪文錦, 「當前我國語文課程改革十大特點與趨勢(上)」, 『教學月刊』, 2002, 2쪽.

24) 孔祥豔, 「小學語文教育中古代蒙學校本課程的開發與實施策略研究」, 魯東大學碩士學位論文, 2015.

25) 田立君·陳旭遠, 「小學國學校本課程組織與實施」, 『教育科學』 28(3), 2012, 29쪽.

또 실시 시간도 주기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고정적으로 배치하기도 하고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기도 하는 등 그 형태가 아주 다양하다. 교재 역시 중앙에서 지원하는 연구단체나 중점 대학에서 발행한 단일한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 나름대로 교재를 편찬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또 학습하는 교재는 전통적인 서적들이므로 각자 가정에서 구입한 교재를 쓰는 경우도 있으며 아예 교재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경전읽기 학습을 평가에 포함하는 학교도 있고 평가에서 제외하는 학교도 있다. 평가방식 역시 자기 평가·동료 평가·교사 평가·가정 평가를 독자적으로 하거나 혼합하여 사용하는 등 우리의 수행평가와 유사하다.

교수 방법 역시 고대의 방법을 사용하여 ‘송독’과 ‘배송’을 하도록 하고 있다. 어문교육과정에는 학습목표로 “우수 시문을 송독하고, 어조와 운율·가락 등을 통해 작품의 내용과 정감을 음미하며, 주어진 우수시문을 배송(背誦)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배송이란 책을 보지 않고 글을 읽는 것으로 익숙하게 외워서 입으로 낭독하는 것인데, 이는 지금 당장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반복하여 읽고 또 읽어서 익숙하게 외우는데 그 초점을 맞춘다. 이런 방식으로 중국의 학생들은 앞에서 언급한 경전교육 교재와 선정된 75편의 시문을 완전히 머릿속에 암기해야 한다.

실제로 중국말에는 성조가 있어 그 묘미를 살려가며 글을 짓고 낭송하면 마치 노래를 부르거나 듣는 것과 같은 운율미가 있다. 또한 일정한 압운의 기교를 통해 형식미와 음악미도 느낄 수 있다. 아울러 대우·대구 등의 기법을 잘 가미하면 풍성하고 문학적·음악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기교와 규칙은 시 교육에 아주 중요하고 초보적인 단계부터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암송하는데도 도움이 되므로 현재 활용되는 경전읽기 교재에 운율과 성률에 대한 서적이 포함되는 것도 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암기한 내용을 각 학교와 지역에서는 경전 암송대회·경전 체조나 무용·경전암송 조회·경전암송 축제를 열어 발표한다.

현재 경전읽기 교육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의욕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경전읽기와 관련된 행사는 그 형태가 아주 다양하여 전국적인 대회 뿐만이 아니라 대만과 중국이 연합해서 벌이는 대회도 있다. 덧붙여 2014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중화우수전통문화지도요강(完善中華優秀傳統文化教育指導綱要)》에서는 앞으로 고등학교와 대학 입시에 전통문화 관련 내용의 비중을 높일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기에 앞으로 경전읽기 교육은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 경전읽기 교육교재

앞서 언급했듯이 경전읽기 교육은 크게 두 갈래로 시행되고 있는데 한 갈래는 우리나라의 창의적 체험활동처럼 탄성시수 안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고, 다른 한 갈래는 《어문(語文)》교과 과정 안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어문(語文)》교과 과정은 국가에서 정해진 지침을 따르지만, 탄성시수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교육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교재를 배포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고대부터 사용해왔던 전통계몽교재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전통문화 관련 기구나 출판사에서 앞 다투어 경전교육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여기서는 교육부 산하 국가

[표 1] 국가 교육행정원 초등학교 실험교재 목록

구분	교재명	유형	부록 내용	활용 단계
기초 교육	1 『弟子規』	계몽 유가류	중국 전통역법, 명절	1학년
	2 『三字經』	계몽 유가류	중국의학, 이동보건	2학년
	3 『千字文』	글자 익히기	중화 민속 문화	3학년
	4 『聲律啟蒙』	성운격률	중국 전통음악 감상	4학년
	5 『論語』上	유가	중국 서법·예술 감상	5학년 상
	6 『論語』下	유가	중국 서법·예술 감상	5학년 하
	7 『孟子』上	유가	중국 회화·예술 감상	6학년 상
	8 『孟子』下	유가	중국 회화·예술 감상	6학년 하

교육행정원에서 발행한 전국 초·중등학교 실험교재(中國傳統文化教育全國中小學試驗教材)와 국가 985 프로젝트에 의해 북경사범대학에서 발간한 교재를 통해 초등학교 과정에 선정한 목록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 2] 북경사범대학 초등학교 국학경전 교재 목록

구분	교재명	유형	활용 단계
1冊	『弟子規』	계몽 유가류	1학년 상
2冊	『三字經』	계몽 유가류	1학년 하
3冊	『千字文』	글자 익히기	2학년 상
4冊	『笠翁對韻(選)』	성운격률	2학년 하
5冊	『論語・(選)』	유가	3학년 상
6冊	『大學・(選)』	유가	3학년 하
7冊	『中庸・(選)』	유가	4학년 상
8冊	『孟子・(選)』	유가	4학년 하
9冊	『老子(選)』	도가	5학년 상
10冊	『莊子(選)』	도가	5학년 하
11冊	『史記・資治通鑑(選)』	역사	6학년 상
12冊	『歷代美文選』	문학	6학년 하

위의 <표 1,2>를 보면 글자 익히기 교재인 《천자문(千字文)》과 중국어의 특징인 대구와 음률을 익히기 위한 《성률계몽(聲律啟蒙)》·《입옹대운(笠翁對韻)》외에는 유가에서 받드는 경전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일부 다른 제자백가서와 우수한 문장 그리고 역사책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두 교재 목록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제자규(弟子規)》·《삼자경(三字經)》은 유가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아동들에게 유가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모든 문장을 3자로 구성한 계몽서로 유가류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국가 교육과정으로 초등과정에서 반드시 외워야 할 우수한 시 75편을 선정하여 《어문(語文)》교과서에 학년 단계별·주제별로 배치하는데 그 목록은 <표 3>과 같다.

[표 3] 필수 암송 우수 시

순	작품명	작가	시기	형식
1	「江南」	미상	漢	악부
2	「長歌行」	미상	漢	악부
3	「敕勒歌」	미상	北朝	민가
4	「詠鵝」	駱賓王	唐	오언고시
5	「風」	李嶠	唐	오언절구
6	「詠柳」	賀知章	唐	칠언절구
7	「回鄉偶書」	賀知章	唐	칠언절구
8	「涼州詞」	王之渙	唐	칠언절구
9	「登鸛雀樓」	王之渙	唐	오언절구
10	「春曉」	孟浩然	唐	오언절구
11	「涼州詞」	王翰	唐	칠언절구
12	「出塞」	王昌齡	唐	칠언절구
13	「芙蓉樓送辛漸」	王昌齡	唐	칠언절구
14	「鹿柴」	王維	唐	오언절구
15	「送元二使安西」	王維	唐	칠언절구
16	「九月九日憶山東兄弟」	王維	唐	칠언절구
17	「靜夜思」	李白	唐	오언절구
18	「古朗月行」(節選)	李白	唐	오언율시
19	「望廬山瀑布」	李白	唐	칠언절구
20	「贈汪倫」	李白	唐	칠언절구
21	「黃鶴樓送孟浩然之廣陵」	李白	唐	칠언절구
22	「早發白帝城」	李白	唐	칠언절구
23	「望天門山」	李白	唐	칠언절구
24	「別董大」	高適	唐	칠언절구
25	「絕句」(其三)	杜甫	唐	칠언절구
26	「春夜喜雨」	杜甫	唐	오언율시
27	「絕句」(其一)	杜甫	唐	오언절구
28	「江畔獨步尋花」	杜甫	唐	칠언절구
29	「楓橋夜泊」	張繼	唐	칠언절구
30	「滁州西澗」	韋應物	唐	칠언절구

순	작품명	작가	시기	형식
31	「遊子吟」	孟郊	唐	오언고시
32	「早春呈水部張十八員外」	韓愈	唐	칠언절구
33	「漁歌子」	張志和	唐	교방곡
34	「塞下曲」	盧綸	唐	오언절구
35	「望洞庭」	劉禹錫	唐	칠언절구
36	「浪淘沙」(其一)	劉禹錫	唐	칠언절구
37	「賦得古原草送別」	白居易	唐	오언율시
38	「池上」	白居易	唐	오언절구
39	「憶江南」	白居易	唐	칠언절구
40	「小兒垂釣」	胡令能	唐	칠언절구
41	「憫農」(其二)	李紳	唐	오언절구
42	「憫農」(其一)	李紳	唐	오언절구
43	「江雪」	柳宗元	唐	오언절구
44	「尋隱者不遇」	賈島	唐	오언절구
45	「山行」	杜牧	唐	칠언절구
46	「清明」	杜牧	唐	칠언절구
47	「江南春」	杜牧	唐	칠언절구
48	「蜂」	羅隱	唐	칠언절구
49	「江上漁者」	範仲淹	宋	오언절구
50	「元日」	王安石	宋	칠언절구
51	「泊船瓜洲」	王安石	宋	칠언절구
52	「書湖陰先生壁」	王安石	宋	칠언절구
53	「六月二十七日望湖樓醉書」	蘇軾	宋	칠언절구
54	「飲湖上初晴後雨」	蘇軾	宋	칠언절구
55	「惠崇春江曉景」	蘇軾	宋	칠언절구
56	「題西林壁」	蘇軾	宋	칠언절구
57	「夏日絕句」	李清照	宋	오언절구
58	「三衢道中」	曾幾	宋	칠언절구
59	「示兒」	陸遊	宋	칠언절구
60	「秋夜將曉出籬門迎涼有感」	陸遊	宋	칠언절구
61	「四時田園雜興」(一)	範成大	宋	칠언절구

순	작품명	작가	시기	형식
62	「四時田園雜興」(二)	範成大	宋	칠언절구
63	「小池」	楊萬裏	宋	칠언절구
64	「曉出淨慈寺送林子方」	楊萬裏	宋	칠언절구
65	「春日」	朱熹	宋	칠언절구
66	「觀書有感」	朱熹	宋	칠언절구
67	「題臨安邸」	林升	宋	칠언절구
68	「遊園不值」	葉紹翁	宋	칠언절구
69	「鄉村四月」	翁卷	宋	칠언절구
70	「墨梅」	王冕	元	칠언절구
71	「石灰吟」	於謙	明	칠언절구
72	「竹石」	鄭燮	清	칠언절구
73	「所見」	袁枚	清	오언절구
74	「村居」	高鼎	清	칠언절구
75	「己亥雜詩」	龔自珍	清	칠언절구

위의 시 목록을 보면 국력과 문화가 왕성했던 당·송의 시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해 보면 무려 88%에 달한다. 당나라 시기는 중국의 고전문학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로 특히 근체시로 대표되는 당시(唐詩)는 고도의 문학적 성취로 평가된다. 당시는 일반적으로 중국 고전문학의 금자탑으로 인정된다. 당나라 시기는 왕을 정점으로 하는 고대 유가의 내용을 중시하는 문학관을 주장하던 시기였고, 송나라 시기 역시 관료 사대부의 득세와 중앙집권체제 확립으로 유가 사상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문학 활동이 활발한 시대였다.²⁶⁾ 이러한 시 위주의 편성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우수한 문장도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학습량의 부담으로 현재 소학교 과정에서는 문언문을 다루지는 않는다.

이처럼 경전교육의 교재와 필수 암송 시 목록을 통해 우리는 중국이 유가사상의 바탕 위에서 전통문화의 정수라고 하는 당·송시로 경전일

26) 金學主・李東鄉・金榮九, 『中國文學史・I』,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5.

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대 경전읽기 교육의 역사와 현재 시행되는 교육과정을 보면서 오늘날 중국의 ‘경전읽기교육’ 운동의 지향점도 유추할 수 있다. 곧 전통문화교육을 통해 훌륭한 인격을 배양하겠다는 표면적인 목적 외에 서구의 교육 사조로 인해 무너진 중화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유구한 중화의 전통을 되살려 다시 한 번 찬란했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중국의 전통사상과 문화로 국민을 새롭게 결집하여 개혁개방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회적 갈등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깔려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3. 경전 읽기교육에 대한 논란

이처럼 최근 불고 있는 경전읽기 교육에 대해 찬성과 지지의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전읽기 교육의 폐해를 지적하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은 역사적으로 몇 차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5·4운동(1919)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서방문화를 받아들인 젊은이들이 가치관의 변화를 겪으면서 당시의 중국 문화는 낙후하다고 여겼다. 이들은 전통학문에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격렬하게 전통을 반대하였다. 이 당시 일부 학자들은 비판을 위해 전통서적을 읽으며 전통 속에서 중국발전을 저해하는 독소를 찾아내기도 하였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5·4운동의 거대한 바람 앞에 전통문화의 시련시기였다. 두 번째 시기는 문화대혁명 시기(1966-1976)로 당시의 혁명의 목표가 ‘네 가지 구습(四舊)을 몰아내기’로 즉 ‘낡은 사상·문화·풍속·습관을 타파’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는 역사상 대혼란의 시기로 이천년 이래 ‘동방의 성인’이라 불리던 공자가 타도의 대상이 되었고, 중국의 문물과 고적 역시 대량으로 훼손되었다. 이 시기는 중국 전통문화의 암흑기였다. 세 번째 시기는 개혁개방시기(1978-)로 그동안 닫아놓

있던 문을 활짝 열게 된 시기로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다시 반전통의 바람이 불게 되었다. 서양문화가 다시 중국의 전통문화에 충격을 가하면서 전대미문의 영향력을 발휘²⁷⁾하게 되면서 중국전통문화에 대한 경시가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현재 아동 경전읽기 교육에 반대하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경’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고 단지 교수내용과 교수방법·학습시기에 관해서 지지자들과 논란을 벌이고 있다.

첫째, 교수내용에 관한 논란이다. 경전교육을 지지하는 자들은 전통과 현대는 불가분의 관계로 ‘경’은 중국 학술사상의 정수이며 민족문화와 민족정신의 보고라고 본다. 그 안에는 평화주의, 인도주의 등 여전히 현재에도 본보기로 삼을만한 교훈이 있기에 경전읽기 교육을 통해 전통문화의 정수를 계승하고 중화민족의 우수한 정신을 드높일 수 있으며 문화발전과 민족정신을 재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경전을 송독하면서 유구한 문화를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학지식을 쌓고, 바람직한 독서습관을 갖게 되어 문언문과 백화문 습작의 기초를 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화 전통문화 경전에는 풍부한 도덕교육의 자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경전읽기 교육을 통해 아동들의 착한 심성 및 효·경로사상을 배양하며, 성실하고 바른 도덕적 품성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곧 고대 성현들의 교화를 통해 어릴 때부터 선을 추구하고 나쁜 습관을 멀리하는 몽이양정(蒙以養正)의 올바른 교육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유가경전’은 봉건시대의 산물로 그 사상에 포함된 임금에 대한 충성이나 전제 등이 현대사회 정신에 맞지 않고 일부 내용은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이밖에도 ‘경전’의 내용이 성인들도

27) 宋岱虹, 「小學校本國學教育體系構建研究」, 四川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3, 17쪽.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이므로 아동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전통경전에는 잘못되고 비과학적인 노예적 문화가 은연 중 내포되어 있어서 아동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 이게 되면 그 후과가 자못 두렵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아동들 에게 경전읽기 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가치없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²⁸⁾

둘째, 교수방법에 관한 논란이다.

이는 ‘주입식 이론’으로 대표되는데, 아동들에게 경전 읽기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적극 주장하는 왕재귀 교수는 아동들이 경전을 암송하면서 당시에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이가 먹고 지식과 경험이 늘면서 소가 삼킨 풀을 반추하듯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반대자들은 경전읽기 교육에서 사용하는 송독과 암송 방식은 고대 학습의 연장이므로, 이는 바로 ‘복고’이며 ‘낙후한 교육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러한 ‘무조건 외우는’ 방식의 경서송독의 교육 방법은 아동들의 학습이 경전외우는 데만 그치고 그 밖의 수학·과학·음악·체육 등의 학습을 소홀히 하여 아동들의 창조정신과 개성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아동들이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내용을 억지로 주입하여 피동적으로 만드는 것은 전형적인 ‘주입식 교육’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현대교육학에서 강조하는 호기심·탐색·궁금함이 가장 쉽게 발현되는 연령에 ‘이해할 수 없는 시기에 이해할 필요도 없는’ 경전읽기 교육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교육법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셋째, 학습시기에 관련된 논란이다.

지지자들은 기억력의 ‘황금기’이론을 바탕 위에 발달심리학의 연구 성과를 근거로 하여 3-13세가 사람의 일생 중 기억력의 황금기라고 주장한

28) 胡曉明, 『讀經』,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6. 144쪽.

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 비록 이해력이 부족하더라도 중요한 경전을 선정하여 반복하여 읽고 암송하도록 하면 아동의 뇌를 활성화하고 기억력을 증가시키고 지적능력을 발전시켜 그 지혜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이 경전을 읽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외우기만 하면 겉으로는 단지 좌뇌를 훈련하는 것처럼만 보이나 경전을 외우는 동안에는 전적으로 이완되고 흥미를 갖게 되면서 좌뇌의 β 파가 α 파로 바뀐다고 한다. 그리고 경전읽기와 암송 과정에서 눈으로 문자를 보는 시각 작용을 통해 우뇌를 자극하게 되고, 소리내서 읽고 노래하는 행동은 우뇌를 움직이게 된다고 한다. 또 글자를 변별하여 자세히 정리하여 기억할 수 있도록 좌뇌도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좌·우뇌를 동시에 활용하게 되면 학습능력은 2-5배로 증가하므로 경전읽기는 좌·우뇌 기능을 가동하는 전뇌운동이며, 학습능력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²⁹⁾

그러나 반대자들은 이것은 아동의 심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해도 못한 채 무조건 기계적으로 외우는’ 방식은 아동의 천성을 억누르는 전형적인 반과학적 사상이고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13세 이전이 아동 기억력의 황금기’는 그저 민간에 늘 있어오던 잘못된 관념으로 아동 심리학자의 연구 성과, 즉 아동기억의 안정성은 각종 조건하에 사물의 감각과 지각을 지속적으로 완전하게 축적하고 재현하는 합리성을 가진 성인에 비해 약하다고 반박한다.

그리고 기본적 이념과 교육에는 찬성하나 실제 운영의 측면에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들은 현재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는 경전교육이 소리만 요란할 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각 학교별로 제각기 운영되는 ‘경전읽기교육’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교사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교재 또한 지나치게 다양하여 통일성이 없다는 점, 교사의 자질이 부족한 점, 마구잡이로 외우기만

29) 王財貴 外, 앞의 책, 51-52쪽.

하여 창의성을 해친다는 점, 성과 위주 혹은 보여주기 식의 전시적 학습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부르짖고 있다.

이처럼 경전읽기 교육에 대한 논란은 역사적으로 계속 존재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경전읽기 교육은 갈수록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비단 자국민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은 그들 문화의 우수함을 동아시아의 공동체 의식으로 전환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패권주의에서 벗어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유가를 중심으로 하는 중화사상을 전파³⁰⁾하는데도 힘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IV. 결론

중국인들은 중국은 세계 4대문명 발상의 하나인 나라로 유구한 문화와 역사·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당나라부터 명나라까지는 세계를 선도한 위대한 나라로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유가가 흥기했던 시대는 중국이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강대국이었고, 유가사상이 쇠퇴한 시기는 중국이 이민족이나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 국력이 약한 시기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역사관 위에 개혁개방 이후 경제·군사·과학 방면에 눈부신 발전을 이루면서 이제는 다시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전통문화교육이 더 동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관점과 교육정책 등을 통해 우리는 현재 중국이 ‘경전읽기’에 공을 들이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중국의 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 바로 초강대국이 되는 것이므로 경전교육은 그 기초를 닦는 여러 과정 중의 하나이다.

30) 이철승, 「중국의 동아시아 공동체론- 현대 중국 사상계의 ‘유학열’에 나타난 동아시아공동체의식」, 『오늘의동양사상』 15집, 2006, 139쪽.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는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정치·외교·문화적으로 긴밀하고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앞으로 중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는 더욱 늘어날 것이므로 중국인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바탕에 대한 이해를 소홀히 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적 측면에서 오늘날 중국 전 사회에서 광풍이 일듯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전통문화교육’·‘경전읽기 교육’에 대한 이해는 중국인들의 사고의 근원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창구이다. 경전읽기 교육의 밑바탕에는 중국 역사와 문화·철학·언어 등에 대한 넘치는 자부심과 그 영향력을 전 세계에 떨치겠다는 중국의 거대한 야망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강대한 국가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중국과 긴밀히 접촉하여야 하는 우리로서는 중국 교육의 거대한 방향과 흐름을 잘 파악하여 적절히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날 중국 전 사회에서 광풍처럼 일어나고 있는 중국의 ‘경전읽기 교육’에 대한 고찰은 중국인들의 밑바탕에 깔린 기본 사상을 이해하는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곽제가 지음, 이경자 옮김, 『중국의 고대학교』, 원미사, 2004.
- 金學主·李東鄉·金榮九, 『中國文學史·I』,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5.
- 김경식, 『중국교육전개사』, 문음사, 2006.
- 박영진, 『중국교육사상가』, 장서원, 2005.
- 주영신 지음, 최영준 옮김, 『근원과 찬란 중국 고대 교육사상사』, 어문학사, 2009.
- 王丙照 外, 『簡明中國教育史』,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8.
- 王財貴·馬行誼·周碧香·施枝芳·李芝瑩·陳兆華著, 『讀經教育理論與實務』, 臺北: 洪葉, 2011.
- 胡曉明, 『讀經』,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6.
-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全國委員會, 『全國政協八屆三次會議第003號提案』, 1995.
-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義務教育語文課程標準』, 2011.
- 노병성, 「주자의 독서관에 관한 고찰」, 『韓國出版學研究』, 2006.
- 양정·김석우·조슬기·이승배, 「중국 2011년도 개정 의무교육 교과목 교육과정
에 대한 중국초등 교사들의 관심도와 실행도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2016.
- 이철승, 「중국의 동아시아 공동체론- 현대 중국 사상계의 ‘유학열’에 나타난 동아
시아공동체 의식-」, 『오늘의동양사상』, 2006.
- 賈萬剛, 「從民國讀經思潮看當代“兒童讀經運動”」, 『基礎教育研究』, 2009.
- 林志德, 「愚昧還是啟迪: 香港推廣兒童經典學習的反思」, 『香港教師中心學報』, 2010.
- 田立君·陳旭遠, 「小學國學校本課程組織與實施」, 『教育科學』, 2012.
- 倪文錦, 「當前我國語文課程改革十大特點與趨勢(上)」, 『教學月刊』, 2002.
- 孔祥豔, 「小學語文教育中古代蒙學校本課程的開發與實施策略研究」, 魯東大學碩
士學位論文, 2015.
- 劉丹, 「國學經典誦讀校本課程開發與實踐探索」, 東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1.
- 李蘊哲, 「“經典誦讀”問題研究-以揚州地區“經典誦讀”活動為例-」, 楊洲大學, 2012.
- 宋岱虹, 「小學校本國學教育體系構建研究」, 四川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3.
- 張雪濤, 「小學生誦讀中華傳統文化經典的研究」, 沈陽師範大學校碩士學位論文, 2006.

A Study on the Education of Reading Classics in Chinese Elementary School

Kwon, Ae Young
(Asia Cultural Creativity Institute)

Recently, people's interest in the education of reading classics has been rapidly increasing. Reading classics was an ancient way of learning in China; however, it has been revived for its effects on the inheritance of Chinese tradition, the development of intellectual ability, and the cultivation of moral virtues.

Historically, the education of reading classics had been based on Confucianism from the West-Han dynasty until the last stage of the Qing dynasty. The education of Confucian classics had lasted for ages due to its close relation to the imperial examination system. The basic methods in the education are 'recitation' and 'close reading.' The first is composed of orally reading the words with a complimentary understanding of the book, while the latter calls for a deeper understanding through repeated reading.

The education of reading classics had been carried out sporadically since the early 90's, however it was made a requirement by linguistic education course of the 8th National Curriculum of Education (2011) which stated that students should recite all 75 specified classic poems. Moreover, the curriculum designated an extra 10-25% time out of the basic curriculum for the national heritage and traditions courses. The textbook used could be published by an institution, a University or the school itself. It could also be selected by individual families and even in some cases not necessary. Furthermore, the individual school could decide whether the course is used to assess students therefore its administration is widely varied. Despite oppositions arguing against its adverse effects, the education of reading classics is generally being strengthened,

especially due to the prospect of its inclusion in the national college entrance exam.

Our deep relation with China and an increasing personal and physical exchange means that there is a need to understand their background for smooth communication. In this regard, the study of the phenomenal education of reading classics in recent China would be an important data to understand Chinese fundamental ideology.

Keywords : education of reading classics, education of national heritage, recitation, read aloud

투고일 : 2021. 09. 15. / 심사일 : 2021. 10. 05. / 심사완료일 : 2021. 10. 10.

손진태의 <개미전설>에 나타난 동화작법

김경희*

【 목 차 】

- I. 문제제기
- II. 손진태가 채록한 두 편의 <개미전설>
- III. 구연자 이은상과 채록자 손진태의 관계
- IV. 동화작법의 요소
 - 1. 세밀한 관찰력
 - 2. 교묘한 구상
 - 3. 합리적 교훈성
- V. 결론

국문초록

1928년 『별건곤』에서 조선 자랑호를 기획하였다. 손진태는 이 기획호에 <개미전설>을 조선 최고의 전설로 뽑았다. 이 논문은 손진태가 어떤 의미에서 조선 최고의 전설로 <개미전설>을 선정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손진태는 민속학자로, 조선 민담을 집대성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개미전설>의 내용을 분석하여, 손진태가 생각하고 있는 동화작법의 요소를 찾아보고자 한다.

<개미전설>은 개미허리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유래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개미허리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개미전설>처럼 개미가 굶주려서 허리가 가늘어졌다는 유형과 메뚜기, 물새가 벌이를 실랑이를 개미가 보면서 너무 웃어서 허리가 가늘게 되었다는 <메뚜기, 개미, 물새>유형으로 나뉜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이야기는 <메뚜기, 개미, 물새>유형이 지배적이다. <개미전설>의 두 가지 유형 중에서 개미의 굶주림에 대한 이야기를 조선 최고의 전설이라고 선정한 것은 이 작품에 함유된 동화

* 가천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소 연구교수, trijing@gachon.ac.kr

작법과 관련성이 깊다. <개미전설>에 나타난 세밀한 관찰력, 교묘한 구상, 합리적 교훈성은 동화작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핵심어 : 개미전설, 동화작법, 세밀한 관찰력, 교묘한 구상, 합리적 교훈성, 상상력

I. 문제제기

이 논문의 목적은 손진태가 『별건곤』에 조선 최고의 전설로 <개미전설>¹⁾을 뽑은 이유를 해명하는 것이다. 손진태는 1932년 송석하(宋錫夏)·정인섭(鄭寅燮)과 함께 조선민속학회(朝鮮民俗學會)를 창립하고 1933년 한국 최초의 민속학회지인 『조선민속(朝鮮民俗)』을 발간하여 조선민속학 분야에 있어서 독보적인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다. 지금까지 손진태에 대한 논의는 주로 조선민속학과 관련된 분야에서 이루어낸 업적과 평가에 대한 것이다. 손진태가 편찬한 『조선민담집』에 대한 개별적 연구성과²⁾들이 나오면서 『조선민담집』의 성격과 유형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으로 아동문학과와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³⁾가 시작되었다. 손진태가 민속학자로서 조선의 이야기 채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채록모집한 결과이다. 그는 색동회 회원으로서 당대 『어린이』 잡지에 역사 이야기를 기고하면서 어린이 문학에 참여하였다. 손진태는 민속학자로서의 사명과

1) 손진태, <개미전설>, 『별건곤』 12-13호, 1928.5.1.

2) 김광식, 「한일 설화 채집·분류·연구사로 본 손진태 『조선민담집』의 의의」, 『동방학지』 3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6.; 권혁래, 「손진태 『조선 민담집』 연구 : 설화의 성격과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63, 2013.; 김기형, 「손진태 설화 연구의 특징과 의의」, 『민족문화연구』 58, 2013.

3) 김명옥, 「『강감찬열전』 어린이 책 수용사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8,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1.; 사희영, 「한일 아동문학 비교 및 전개양상 考察 - 1930년 류전국남(柳田國男) 『일본석화집(日本昔話集)』과 손진태(孫晉泰) 『조선민담집(朝鮮民譚集)』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80, 2019.; 류정월, 「손진태 역사동화 연구」, 『한국고전연구학회』 44, 한국고전연구, 2019.; 정선희, 「색동회원 손진태의 재발견」, 『근대서지』 20, 근대서지학회, 2019.; 정선희, 「손진태의 『어린이』소재작품 목록재고」, 『한국문학이론과비평』 76,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7.

함께 방정환 주도의 어린이 문학에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의식이 담겨 있는 작품이 바로 『별건곤』에 소개된 <개미전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손진태의 이야기 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개미전설>을 통해서 그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과 동화작법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Ⅱ. 손진태가 채록한 두 편의 <개미전설>

<개미전설>이 수록된 『별건곤』은 ‘풍자(諷刺), 해학(諧謔), 매도(罵倒), 경계(警戒)’를 본령으로 삼아 세상에 대해 장점보다는 단점 위주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조선 자랑호를 기획하면서 ‘자존(自尊), 자부(自負)의 심(心)’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는데 그 의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다.

독자제군! 그러나 우리가 이때까지 측면으로 우리의 短點만을 적발해 온 대신 한번쯤은 우리의 美點을 들추어내고 우리의 長處를 집어내어 스스로 길러가질 바를 알고 스스로 조흔 바를 간직하게 하는 동시에 넘어 까부러지기만 하는 心情에 조흔 의미의 自尊, 自負의 心を 니르켜 보는 것도 전혀 無意義한 일이 아닐까 하여 이에 朝鮮 자랑號를 짜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 이런 문제를 끌어낸다는 것은 우리의 處地로 보아 無謀의 짓임도 아조 모른 것은 아니였습니다. 그래 과연 웅당 자랑할 것도 자랑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요 그만큼은 자랑해도 관계업스려니 한 것까지 檢閱의 際에 削除를 당하여 원래 계획보다는 왕청 틀리는 이것을 두달 석달 만에야 難産 大難産으로 이러케 讀者諸君의 압해 나오게 된 것임을 김히 諒解하시고 이 자랑빠진 자랑號를 애독하여 주시기를 그웁히 一言으로 仰告 하나이다.⁴⁾

4) 「자랑號 넘으시는 분에게」, 『별건곤』 12-13호, 1928.5.1.

『별건곤』에서 끌어낸 문제는 ‘조선자랑’이다. 조선인이면 마땅히 가질 수 있는 의식임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조선의 것에 대한 자부심은 생각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이는 일제의 검열제도에 의해서 더욱 강화되었고 지금 드러난 자랑호 역시 처음의 기획과는 달리 어그러지고 비틀어진 채로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실제 자랑호의 기사 중에는 전체 기사가 삭제된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삭제된 흔적들이 곳곳에 발견된다. 조선 자랑호에는 조선의 유명한 인물에서부터 조선 언어, 민속, 민요, 이야기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손진태는 자랑호에 <개미전설>과 「온돌예찬」을 발표하였다. <개미전설>을 알기 위해서는 손진태가 채록한 개미 이야기의 두 가지 유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30년 출판된 『조선민담집』에 개미와 관련된 이야기는 우화, 둔지, 소화⁵⁾에 해당하는 <개미와 토끼>와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이다. 이 두 편의 이야기는 모두 개미허리의 유래를 담고 있다. 두 이야기의 서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개미와 토끼

- ① 개미는 게을러서 토끼의 등에 붙어서 피를 빨아 먹고 살았다.
- ② 토끼가 피를 내어 개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하면서 등에서 내려오도록 했다.
- ③ 개미는 토끼의 말을 믿고 등에서 내려와 토끼가 마련한 음식을 먹으려 했다.
- ④ 토끼는 나뭇잎 위에 음식을 올려놓고 잎을 끌면서 개미들이 따라오게 했다.

5) 권혁래, (「손진태 『조선민담집』 연구 : 설화의 성격과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63, 2013, 45쪽)가 손진태가 우화, 둔지, 소화로 분류한 것을 동물 기원담으로 재분류하였다. 개미 허리의 유래를 밝힌다는 점에서 동물 유래담에 속한다. 손진태 역시 이 이야기를 동물연기전설(動物緣起傳説)이라고 의식하고 있어 동물유래담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 ⑤ 토끼가 계속 도망을 가면서 개미들에게 따라오라고 하자, 개미들이 모두 지쳤다.
- ⑥ 토끼가 마침내 나무 위로 올라갔다.
- ⑦ **개미들은 토끼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다 너무 배가 고파서 허리가 가늘어지고 눈이 쑥 들어갔다.**
- ⑧ 개미는 토끼가 남긴 밥풀을 먹으면서 기운을 차려 마을로 돌아왔고 토끼는 달아났다.
- ⑨ 개미는 토끼와 헤어져 스스로 부지런히 살게 되었다.⁶⁾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

- ①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가 잔치를 열기로 하고 메뚜기와 물새는 물고기를 가져오기로 하고 개미는 밥을 가져오기로 했다.
- ② 개미는 아주머니가 점심을 이고 오는 것을 보고 아주머니 음부를 물어 아주머니가 이고 있는 것을 모두 쏟아버렸다.
- ③ 개미는 아주머니가 쏟은 것을 가지고 왔다.
- ④ 메뚜기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숨어있는데 물고기가 메뚜기를 삼켜 버렸다.
- ⑤ 물새는 메뚜기를 잡아먹은 물고기를 물어 왔다.
- ⑥ 메뚜기는 물고기의 입을 통해 밖으로 나왔다.
- ⑦ 메뚜기와 물새는 물고기를 서로 잡았다고 우기면서 싸움이 일어났다.
- ⑧ 이 모습을 보던 개미는 너무 웃어 허리가 가늘어졌다.
- ⑨ 물새가 메뚜기의 입을 물어뜯어 부르뜨게 했다.
- ⑩ 메뚜기가 물새의 뺨을 쳐서 물새의 뺨이 뒤로 돌아갔다.⁷⁾

『조선민담집』에는 두 편의 개미허리 유래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지만 손진태는 『별건곤』에 <개미와 토끼> 이야기를 소개했다. 실제로 현재 전승되고 있는 『한국구비문학대계』, 『임석재 전집』과 출판되고 있는 그림

6) 1928.1월 마산부 이은상 군 담.

7) 1928.2월 경북 김천군 아포면 국사동 김문환 구술.

책에서 개미 이야기의 유형을 찾아본 결과 <개미와 토끼> 이야기보다는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 유형이 많이 전해지고 있었다. 손진태가 채록한 이야기부터 현재 전승되고 있는 이야기의 상황을 일람하면 다음과 같다.

〈개미 이야기〉 목록

번호	연도	저자(구연자)	책	제목
1	1928	손진태	조선민담집	개미와 토끼
2	1928	손진태	조선민담집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
3	1930	정인섭	온돌야화	개미와 토끼
4	1933	정인섭	온돌야화	메뚜기, 개미와 물총새
5	1932	김춘덕	임석재2권	메뚜기 · 왓새 · 개미
6	1933	한성국	임석재2권	개미와 메뚜기
7	1935	신윤덕	임석재2권	방아개비 · 촉새 · 개미
8	1937	강학도	임석재2권	서스레기 · 지렁이 · 물새
9	1932	장명윤	임석재2권	개미 · 지렁이 · 서스레기
10	1934	최원내	임석재2권	지렁이와 서스레기
11	1934	김국병	임석재2권	개미 · 지렁이 · 노래기
12	1935	김응룡	임석재2권	맹나이
13	1932	김원준	임석재3권	메뚜기왓새 · 개미
14	1936	이봉래	임석재3권	메뚜기 · 개미 · 물새
15	1942	김광용준	임석재5권	개미와 물새와 메뚜기
16	1942	광영정남	임석재5권	메뚜기의 이마
17	1942	국본종옥	임석재5권	물새와 메뚜기와 개미와 꿩
18	1943	송전황	임석재6권	개미와 메뚜기
19	1969	배운선	임석재7권	물새 · 메뚜기 · 개미
20	1927	김판동	임석재7권	물새 · 메뚜기 · 개미
21	1927	박차석	임석재12권	개미와 물새와 방아개비
22	1980	이종옥	대계1-1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
23	1980	안병만	대계1-3	메뚜기, 뱀새, 개미의 잔치
24	1980	이항훈	대계1-4	메뚜기 이마, 개미허리
25	1980	김문호	대계4-1	개미와 물새와 땅개비의 유래

26	1980	최관순	대계6-11	메뚜기 이야기
그림책				
27	1994	이영호, 강인춘	동화나라	개미허리
28	2003	채만식	다림	왕치와 소새와 개미
29	2003	유인식, 이철희	IM international	개미와 메뚜기와 왓새
30	2003	이수진, 박경원	웅진닷컴	개미와 물새와 메뚜기
31	2003	이은경, 박지영	아이교육	개미허리
32	2003	신지윤, 오정	여원미디어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
33	2007	이상희	웅진싱크빅	개미와 물새와 메뚜기
34	2007	허은미	국민서관	개미허리
35	2007	윤기현	시공주니어	개미와 물새와 딱따개비
36	2009	이수진	웅진다책	개미와 물새와 메뚜기
37	2011	이수진, 박경원	웅진씽크빅	개미와 물새와 메뚜기
38	2013	유영소	을파소	물새 메뚜기 개미
39	2014	신지윤, 정세연	여원미디어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
40	2016	이상희, 정해왕, 조호상	웅진북클럽	개미와 물새와 메뚜기

개미허리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두 개 혹은 하나의 동물이 나와서 사건을 벌이는 상황이 너무 우스워 개미가 웃다가 허리가 가늘어졌다는 것이 보편적이다. 임석재 전집2권 「맹나이」는 어떤 사람이 이를 크게 키워서 뼈도 없는 맛 좋은 고기라고 속이고 맹나이를 팔았는데 맹나이가 죽는 것을 보고 너무 웃어서 개미가 되었다는 변이형도 있다. 개미가 너무 웃어서 허리가 가늘어지게 된 상황은 변이형이 많다. 현재 남아 있는 작품들은 대체적으로 개미, 메뚜기, 물새가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벌이는 해프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조선민담집』에서 개미가 여자의 음부를 깨물었다는 이야기는 이후 전승되는 이야기 속에는 다리를 깨문 것으로 변했다. 아무래도 후대에 주로 어린이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성의 음부와 관련된 성적인 표현을 그대로 담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야기로 특이한 것은 개미와 지렁이, 서

스레기⁸⁾(노래기)에 대한 것이다. 개미는 지렁이가 색시인 서스레기 밭이 너무 많아 신을 삼아 신기지 못하고 남편 지렁이는 몸이 줄었다 늘었다 하여 옷을 해 입히지 못하는 광경을 보고 개미가 웃다가 허리가 가늘어 졌다는 이야기이다.

채록 전승된 이야기와 1990년대부터 등장한 그림책의 유형을 살펴보면,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 유형이 압도적이다. 이야기의 전승성에서 볼 때, 손진태가 알고 있는 개미허리 유래에 대한 이야기는 <개미와 토끼> 보다는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 유형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손진태는 조선의 전설자랑에 왜 <개미와 토끼>를 선택한 것일까.

Ⅲ. 구연자 이은상과 채록자 손진태의 관계

<개미전설>은 손진태가 1930년에 발행한 『조선민담집』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에는 개미와 관련된 이야기로 <개미와 토끼>,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 두 가지 유형이 전해진다. <개미와 토끼>는 1928년 1월에, <메뚜기와 개미와 물새>는 1928년 2월에 각각 채록되었다. 『별건곤』에 <개미전설>이 실린 시점이 1928년 5월이다. 그러므로 손진태는 1928년 초에 두 가지 유형의 개미 이야기를 채록하고 『별건곤』의 청탁 요구에 <개미와 토끼>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童話 중에는, 그 生物界에 대한 觀察의 情密, 諧謔의 豊富, 說明의 巧妙에 놀랄만한 것이 만치만은 「別乾坤社」의 注文이 傳說임으로, 童話에는 言及치 안이하겠습니다. 그런, 下述코저 하는 一種의 「動物緣起傳說」은, 역시 훌륭한 童話로도 볼 수 있음으로, 나는 특히 이것을 取한 바입니다.⁹⁾

8) 평북지방 방언. 그리마. 절지동물 그리맷과의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지네와 가까운 종류로 다리가 여러 쌍이며 머리에 긴 더듬이가 있다. 어둡고 습한 곳에서 작은 벌레를 잡아먹는다.

손진태는 별건곤사의 주문이 전설이라서 동화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동물연기전설 즉 동물유래담과 관련된 것은 훌륭한 동화로 보고 <개미전설>을 취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당대, 설화와 동화의 개념 정립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개미전설>을 동화로 편입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童話의 童은 兒童이란 童이요 話는 說話이니 童話라는 것은 兒童의 說話, 또는 兒童을 위하여의 說話이다. 종래에 우리 민간에서는 흔히 아동에게 들려주는 이악이를 『옛날 이악이』라 하나 그것은 동화는 특히 시대와 처소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대개 그 初頭가 『옛날 옛적』으로 시작되는 고로 동화라면 『옛날 이악이』로 알기 쉽게 된 까닭이나 결코 옛날 이악 만이 동화가 아닌 즉 다만 『이악이』라고 하는 것이 可畧할 것이다.(『이악이』의 어원에 관하여는 흥미있는 이악이가 있스나 그것은 다음에 자세 쓰기로 한다.)

이 동화라는 어떤 것인가 함에 대하여는 좀더 상세히 말하자면 동화의 형식과 내용을 들어 그 성질을 말하고 그 기원과 발달의 경로를 차저서 동화와 다른 유사한 것과의 구별을 세우고 더 일보 나아가서 순 과학적 입장에서 동화를 관찰하자면 동화의 분류에까지 들어가 그 비교연구를 행하지 아니하면 안될 것인즉 그것은 물론 다음 번에 차례를 밟아 쓰겠거니와 대체의 견지로 보아 아즉 동화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바 「해와 달」 「흥부와 놀부」 「콩쥐 팥쥐」 「별주부(특괴의 간)」 등과 가튼 것이라고만 알아두어도 조할 것이다.¹⁰⁾

방정환에 따르면 동화는 ‘아동을 위한 설화’이고 ‘동화의 형식과 내용을 들어 그 성질을 말하고 그 기원과 발달의 경로를 차저서 동화와 다른 유사한 것과의 구별을 세우고 더 일보 나아가서 순 과학적 입장에서 동화를 관찰하자면 동화의 분류에까지 들어가 그 비교연구’를 통하여 동화

9) 손진태, <개미전설>, 『별건곤』 12-13호, 1928.5.1.
10) 소파, 「새로 開拓되는 「童話」에 關하여, 特히 少年 以外の 一般 큰 이에게」, 『개벽』 제31호, 1923.1,

발생 초기의 개념정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손진태가 언급한 전설은 아동을 위한 설화라는 의미로 동화로 귀속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개미전설>은 전설 가운데 특별히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라는 의미로 동화로 보고자 한다.

먼저 <개미전설>의 탄생배경을 살펴보면, 손진태의 채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조선민담집』에 따르면, <개미와 토끼>는 “1928년 1월에 마산부 이은상 군 담”이라고 되어 있다. 손진태는 이은상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은상은 구전되는 이야기와는 이질적인 <개미와 토끼>를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개작한 것일까. 『조선민담집』에는 손진태가 당시 지식인이면서 어린이문학에 참여하고 있는 이은상, 김량하, 마해송, 방정환, 이상화 등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최인학은 지명도 높은 사람들의 제보 설화에 대해 “개작 미화” 가능성¹¹⁾을 염두해 두었다. 손진태가 서문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충실하게 엮은 것”이라고 표명하고 있지만, 현재의 채록 방식처럼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는 수준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조선민담집』의 내용이 손진태가 직접 채록한 것, 과제로 내 준 것, 지인들한테 들은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연자의 상황에 따라서 내용의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은상과 같이 소년운동에 참여하고 『어린이』 잡지에 글을 소개하는 능력을 지닌 문장가의 경우는 개인의 윤색이 첨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마산부의 이은상은 누구인가. <효자와 동삼>도 1926년 3월 20일 개성부 지정, 고한승 군 담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한승이 당대의 대표적인 아동문학가임을 고려할 때, 00부는 어린이 문학 활동지역의 소년 활동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은상은 어떤 인물인가.

11) 손진태 저, 최인학 역편, 「역자 일러두기」, 『조선설화집』, 민속원, 2009, 314쪽.

경상남도 마산에 갔던 길에 이은상 씨의 안내로 그 곳 창신 학교와 의신 여학교에 가서 여러분 선생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다른 학교 선생님같이 그렇게 완고 같은 고집을 갖지 않으시고 아동들에게 대한 많은 이해를 갖으신 이들이어서 펍 마음이 기뻐했습니다. 더구나 동화를 연구하시는 분이 계신 것이 펍도 반가운 일이었습니다.¹²⁾

방정환은 이은상(1903년~1982)의 도움으로 마산 지역의 학교를 돌면서 선생님들과 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드러난다. 이은상은 1918년 아버지가 설립한 마산 창신학교(昌信學校)고등과를 졸업하고, 1923년 연희전문학교 문과에서 수업하다가 1925-1927년에 일본 와세다 대학(早稻田大學) 사학부에서 청강¹³⁾하였다. 시조문인으로 널리 알려진 이은상이 어린이 문학에 관여한 흔적을 『조선민담집』 마산부에서 활동한 이력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에 「조선공부」를 연재하여 어린이에게 조선의 혼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너희들은 누구보담도 ‘조선’을 더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 이런 것을 너희들에게 일러주고자 하는 것이 ‘조선공부’요, 너희들이 밥을 먹어야 사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 없이 꼭 알아야 쓸 것이 ‘조선공부’인줄을 믿어 다고. 다시 한 번 더 말한다.

조선 사람에게는 조선공부란 것이 밥과 같은 것이니라고. 다음 호부터 한 가지씩 꼭 알아야 할 조선공부를 해 나가보자.¹⁴⁾

12) 소파, 「나그네 잡기장」, 『어린이』 제2권 제4호, 1924. 4 19.

13) 1931・1932년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수를 비롯하여, 동아일보사 기자, 《신가정(新家庭)》 편집인, 조선일보사 출판국 주간 등을 역임하였다. 1942년 조선어학회사건에 연루되어 홍원경찰서와 함흥형무소에 구금되었다가 이듬해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다.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 <http://people.aks.ac.kr>

14) 이은상, 「조선공부」, 『어린이』, 제12권 1호(1934. 1).

이은상과 손진태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는 자료가 있다.

모교인 창신 학교에서 고등과 교원노릇을 하면서 돈을 모아 1925년 10월 일본 동경으로 유학을 떠났다.

다음해 (1926년?) 4월 早稻田 대학 사학부 청강생으로 들어가 조선사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1년 후엔(1927) 동양문고에서 사학가 손진태씨(6.25.피랍)와 함께 국문학을 연구했다는 것.**

그는 3년간의 동경 유학 시절을 꿈결같이 보냈다고 회상했다.

“결코 유학이 아니라 방랑이라는 표현이 옳을 것 같아요. 일본 사람 밑에서 방황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중략) 1928년 5월에 귀국, 최남선 정인보 이윤재 씨 등과 서울 계명구락부 조선어 사전 편찬위원으로 월간 잡지 新生을 편집하였다.¹⁵⁾

이은상의 회고에 따르면, 와세다 대학에서 조선사를 공부하고 손진태와 함께 국문학을 연구했다. 이은상이 『어린이』에 연재한 ‘조선공부’를 통해서 그의 조선이야기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드러나고 있다. 이은상 못지않게 손진태의 실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다.

古談과 이악이라고 하면 일업는 老婦人들이 孫子를 안고하든지, 무식한 사람들이 消夜꺼리로 橫說豎說 짓거리는 것으로만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民間說話 방면의 學問인 「神話學」 「說話學」 등이 研究되기 시작한 뒤로는 民間에서 口碑로 說話되는 古談, 說話 등이 **혹은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學問上에 採用되며, 혹은 詩人이나 小說家에 의하여 藝術化 文學化하게 되었습니다.**¹⁶⁾

손진태가 지닌 이야기에 대한 관심의 변화는 위의 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손진태는 이야기를 무식한 사람들이 지껄이는 의미 없는 이야

15) 동아일보. 1972.10.7.

16) 손진태, <개미전설>, 『별건곤』 12-13호, 1928.5.1.

기로 치부했다. 하지만 신화학과 설화학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민간에서 구비되는 이야기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학문적인 필요에 의해서 채록을 했고 그 결과물이 『조선민담집』이다. 『조선민담집』 서문에서도 민간의 이야기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또한, 민간에서 채록된 이야기가 학문적인 중요성뿐만 아니라, 시인이거나 소설가와 같은 문인들에 의해서 예술적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경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는 1차 원형자료로서의 가치와 더불어 재창작으로서의 활용성을 인정한 부분이다.

철이 들 무렵에는 가난해서 짚시처럼 떠돌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민담에 대한 나의 흥미와 지식은 상당히 빈약한 것이었다. 내가 이것에 흥미와 일종의 책임감을 느낀 것은 10년 전 동경으로 건너가 인류학이나 민속학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한 때부터다.¹⁷⁾

손진태가 1921년 유학에 오른 것을 감안해 보면, 유학에 올라 인류학과 민속학에 대한 수업을 듣게 되면서 민간에 전승되는 이야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¹⁸⁾으로 보인다. 이야기가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니게 되면서 이야기는 민족성의 발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인식되었다.

IV. 동화작법의 요소

<개미전설>에 나타난 주요 특징들을 중심으로 그 특징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개미전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손진

17) 손진태 저, 김현선·강혜정·이경애 역, 『한국민화에 대하여』, 역락, 2000.

18) 이 과정에서 와세다 대학의 인류학 담당 니시무라 신지(西村眞次)와의 만남이 손진태의 연구 방향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전경수, 『손진태의 문화인류학』, 민속원, 2010.)

태는 세밀한 관찰력, 교묘한 구상, 합리적 교훈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동화가 완성된다고 보고 있다.

1. 세밀한 관찰력

『마당을 나온 암탉』으로 유명한 황선미는 『동화 창작의 즐거움』에서 동화 창작의 요소와 단계를 제시하였다. 제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남들과는 다른 새로운 시선이 필요¹⁹⁾하다고 하였다. 새로운 시선은 바로 관찰력에서 얻어지는 결과이다. 누구나가 보는 똑같은 사물이지만,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서 사물은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다. 동화 창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관찰력이 손진태의 <개미전설>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자.

<개미전설>에 나타난 개미의 외형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눈은 물려져서 보이지 안케 되고,
- ② 허리는 끈히질 듯이 잘눕하여졌습니다.
(개암이의 허리가 잘눕하여지고, 눈이 물려져서 못보게 된 것은 그때부터의 일입니다.)
- ③ 그 뒤로 개암이들은 집행이를-장님과 가타-집고 단이게 되였습니다.
개암이의 수염가튼 것이 그것입니다.²⁰⁾

토끼가 개미들을 등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벌인 계략으로 개미는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굶주리게 된다. 위에서 제시한 개미의 외형이 만들어진 사연은 다음과 같다. ①에서 물려지는 것은 함경도 방언 물कु다로 너무 무르거나 풀려서 본 모양이 없어지도록 헤어진 것을 의미한다. 개미가 너무 배가 고파서 눈이 물려져서 본 모양이 없어지고 결국 실명을

19) 황선미, 『동화 창작의 즐거움』, 사계절, 2006.

20) 손진태, 앞의 책, 1928.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미처럼 작은 벌레에서 눈을 찾아 그 눈이 쑥 들어간 모습을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③에서 개미의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장님과 같이 지팡이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개미의 수염이라는 것이다. 개미의 수염은 더듬이를 말한다. 실제로 개미는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듬이로 맛과 사물을 인지한다. 그러니 수염과 같은 더듬이가 지팡이처럼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②는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개미는 머리, 가슴, 배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슴과 배 사이에 있는 허리가 아주 가늘다. 보편적으로 허리가 가늘 때, 우리는 ‘개미허리’라는 표현을 쓴다. 개미허리를 찢다면 과연 어떤 치수가 나올까. 그만큼 재기 어려울 정도로 가늘다는 것을 대표한다. 이러한 외형적인 특징은 개미의 굽주림과 연결되어 재미있는 이야기로 탄생 되었다. 개미를 자세하게 관찰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물에 대한 관심과 세밀한 관찰에서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는 재료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개미의 외형을 보면서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서술을 비교해 보면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아 떨어진다.

손진태가 <개미전설>을 통하여 이러한 관찰력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兒童에게, 聞見하는 사물에 흥미를 甞기게 하며, 觀察의 眼目を 양성케 함에는, 이러한 童話가 絶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日常 事物에 우리는 그렇게 주의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닭의 발고락이 몇치냐고 물어도 열는 대답치 못할 이가 만흐며, 鳳仙花 입사귀가 몇치냐 무려도 대답못할 處女가 허다할 것입니다.

손진태는 어린이에게 사물을 인지하여 흥미를 불러오는 방법으로 동화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평가한다. 수많은 사물을 바라볼 때, 건성으로

지나치면 그 사물이 지닌 특징을 알기 어렵다. 하지만 <개미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얻은 관찰력으로 어린이들은 사물을 주의 깊게 바라볼 것이고 이를 통하여 사물이 지닌 특징을 숙지하게 될 것이다. 어린이에게 ‘사물을 자세히 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지 않고 사물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태도를 저절로 알고 기르게 하는 것이 바로 동화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만일, <개미전설>을 읽은 어린이와 그렇지 않은 어린이가 있다고 가정하면 <개미전설>을 읽은 어린이가 개미의 외형적 특징을 숙지하고 개미를 바라볼 때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에게 개미의 지식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개미전설>을 들려줌으로써 개미에 대한 정보와 관찰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다. 이러한 관찰력은 개미뿐만 아니라 다른 사물에까지 확대되어 어린이의 인지능력을 향상 시킨다. 이는 외부의 강요가 아닌 어린이 스스로의 흥미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어린이의 관찰력을 키우는데 동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2. 교묘한 구상

개미를 세밀하게 관찰하여 얻은 결과(허리가 가늘다, 눈이 움푹 패었다, 더듬이가 있다)를 어떻게 결합하여 동화를 완성하는 것일까. 손진태의 <개미전설>을 통해서 개미의 외형적 특징을 연결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앞서 제시한 바대로 개미허리의 유래는 두 가지 이야기 유형이 있다. <개미와 토끼>유형과 <뚝뚜기와 개미와 물새> 유형처럼 개미허리가 잘록하다는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이유가 생겨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것이 바로 동화를 만들어 내는 교묘한 구성방식이다.

이은상이 이야기한 <개미와 토끼>는 현재 전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유형인데 이를 선택한 이유를 손진태의 관점에서 살펴볼도록 하겠다.

日常事物에 우리 祖先들이 얼마나 緻密한 觀察을 하였으며, 그것을 童話化하기 위하여 얼마나 苦心하고, 巧妙한 說明을 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²¹⁾

손진태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치밀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동화화하기 위해서는 교묘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개미허리가 가늘어지게 되는 이유는 <개미와 토끼>에서 굶주림 때문이다. 원래 개미는 토끼 등에서 편하게 살았지만, 토끼가 개미를 떼어내 버리기 위한 계략에 빠졌다. 먹을 것을 준다고 유인하였기 때문이다. 개미는 토끼의 말만 믿고 따라가다가 먹을 것도 먹지 못 하고, 편안하게 살던 토끼 등마저 빼앗기게 된다.

생물학적으로 토끼에 기생하는 벌레로 벼룩이나 진드기가 있지만 이야기의 구성상 개미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왜 개미를 토끼의 등에 기생하면서 사는 것으로 작품을 구성하였을까. 개미는 부지런함, 근면의 표상이다. 그런데 <개미와 토끼>에서 개미는 게으르다. 1928년 이은상 군이 이야기를 구연하던 당시에 개미와 관련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완전히 다른 성격이다. 손진태도 스스로 <개미전설>의 독특함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개암이(蟻)에 대한 外國의 童話나 傳說을 보면, 대개가 개암이의 부즈런한 것을 단순히 말하고 혹은 懶怠한 매암이(蟬)가 개암이 집에 양식을 빌너 갔다가 망신만 하고 도라 오는 것, 혹은 비둘기가 물에 빠진 개암이를 나무 입사귀로 구해 주었으므로 개암이는 비둘기를 잡고저 하는 砲手의 발을 깨물어, 恩人인 비둘기를 구해 주었다는 敎訓的 舌禍에 지내지 못하고, 개암이는 왜, 허리가 잘록하며, 왜 눈이 보이지 안코, 왜 그러케 부즈런한지, 觸角을 가진 것은 무슨 까닭인지를 자세히 관찰한 동화나 전설은 보지 못하였습니 다. 朝鮮에는 이러한 傳說(혹은 童話)이 있습니다. 이것은 馬山 李殷相君의 말입니다.²²⁾

21) 손진태, <개미전설>, 위의 책.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개미는 부지런하고 그에 반해 귀뚜라미는 게으르다는 것이 보편적인 <개미 이야기>에 드러나는 특징이다. 손진태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야기 속에서 개미의 외형적 특징이 그렇게 된 까닭을 이야기한 것은 드물다. 이은상이 이 이야기를 구연하던 당시에 조선에서 출판된 『이솝우화』의 「기아미와 귀또람이」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너갓흔 게으른 놈에게 귀중흔 식물을 썬일 슈 업다. 너도 싱각 좀 햏야 보아라. 우리들은 삼복 증념 불갓치 더운 날에 비지쌈을 흘니고 한 개, 두 개식 모아셔 오날 안저 편이 먹는 듯 십프나 그 원인을 살펴보면 쫘아기 햏 개에 톻산갓흔 힘이 다 들엿다. 너갓치 잉편햏게 더운 썬 그늘에 안저 노리나 햏고 쥬우며는 양식 썬여 달나고 참 썬썬 햏고 요돌요돌햏다. 너를 끼여 쥬고는 십다마는 톻년 역시 노리만 햏고 지낼 터이니 밧을 날이 어느 날이나? 제가 지은 죄는 제가 밧느니라. 어셔 판 데나가셔 보라.”²²⁾

개미는 귀뚜라미가 여름 내내 노래만 부르면서 놀았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 시기의 다른 『이솝우화』 소재 <개미와 귀뚜라미> 이야기에서도 항상 개미는 부지런한 동물로 나오고 귀뚜라미가 불성실했기 때문에 겨울에 배고픔과 추위로 고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그래서 <개미전설>에서 개미가 부지런한 성격이 아니라 다른 동물에 기생하고 게으르다는 설정은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미가 평생 토끼 등에서 다른 동물의 분비물이나 찌꺼기를 먹고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는 방식과 그 이후의 결과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미는 처음에 토끼 등에 기생하면서 살았지만 토끼의 계약으로 먹을 것이 없는 궁핍한 처지에 이르자 스스로 살아갈 방도를 찾

22) 손진태, <개미전설>, 위의 책.

23) 송헌석, 「기아미와 귀또람이」, 『공전격언』, 보급서관, 1911.10.6. 허경진 외 편저, 『근대 계몽기 조선의 이솝우화』, 보고사, 2009, 105쪽.

아 부지런해졌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개미는 부지런한 성향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손진태는 다른 서양 동화에서 개미는 원래부터 부지런한 캐릭터로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왜 개미가 부지런하게 되었는지를 해명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개미전설>에서 개미가 어떻게 부지런하게 되었는지를 새롭게 구성한 내용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개미가 안락한 토끼의 등에서 사는 삶을 버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독립적인 삶을 선택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로 작용한다. 이 이야기는 어린이들에게 기생하여 사는 안락함이 아니라, 결핍되었지만 독립적인 삶을 살 것을 강조한다. 당대의 삶과 견주어 볼 때, 일제식민지의 어린이들에게 남의 등에 기생하면 사는 편안함이 아니라 불안하지만 스스로 삶을 일구어 나갈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솝우화』의 개미 이야기에 비해 <개미전설>에 드러난 개미의 성격 변화가 더욱 극적이고 흥미롭다. 그 이유는 부지런한 개미와 게으른 귀뚜라미의 일화를 통하여 교훈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미의 외형적 특징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개미는 게으르고 토끼 등에 기생하는 동물이었지만 스스로가 처한 배고픔이라는 현실을 견디지 못하다가 허리도 가늘어지고 눈도 쑥 들어가게 되었다는 유래를 연결시켰다. 또한 성격적인 면에서 게으름에서 부지런함으로 나아가는 주도적인 성향의 개미를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스스로 의존적이고 나태한 삶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부지런한 삶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야기에서 개미처럼 부지런해져야 한다는 당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개미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어린이가 스스로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시하여, 어린이가 이야기를 읽으면서(들으면서) 직접 깨닫게 하고 있다.

3. 합리적 교훈성

어린이 문학의 가장 큰 효용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교훈성일 것이다. 그런데 어린이에게 교훈을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너무 교훈적이기만 하면 흥미가 떨어지고 흥미가 높아지면 교훈적인 면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傳説의 敎訓的 價値로는 「놀지 말고 일을 하라」觀念을 兒童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依賴하는 生活에는 畢竟 破滅이 오게 된다는 信念의 萌芽를 兒童에게 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암이의 부즈런한 것을 본뵈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해들에게 强壓으로, 일을 하여라, 남에게 依賴치 말아라, 백번 말하였다, 그것은 결코 효력이 만치 못합니다.²⁴⁾

손진태는 <개미전설>의 교훈적 가치가 ‘놀지 말고 일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을 하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른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파멸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훈을 전달하는 방식이 <개미전설>은 독창적이다. 어린이들에게 ‘개미처럼 부지런해야 한다. 남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개미가 부지런한 개미로 바뀌는 과정을 통하여 어린이가 스스로 변화하게 만든다.

이는 손진태가 제시한 세 가지 동화작법에 의해서 실현된다. 이 과정에서 토끼 등에 기생하면서 먹을 것을 얻어먹던 개미는 토끼가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자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른다. 이러한 설정은 개미가 처한 위기이면서 동시에 개미가 스스로 독립적이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된다. 이에 따라 개미는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취하게 되고 더불어 부지런한 삶으로 전환하게 된다.

개미의 외형적 특징에서 시작한 이야기는 흥미롭게 어린이에게 다가

24) 손진태, <개미전설>, 앞의 책.

가고 개미의 성격 변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준다. 교훈적 가치가 당위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개미가 보여주는 삶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린이가 공감을 하고 쉽게 체득할 수 있다. 어린이가 동화를 읽거나 들으면서 개미의 이야기를 자신의 삶에 반영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또한, <개미전설>이야기를 들은 어린이는 이후에 개미나 다른 사물을 바라볼 때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동화를 들은 아동은 결코 한 마리 개미라도 가볍게 보지 않게 됩니다. 개미를 볼 때에 이 동화를 연상하고 그 요부이며 촉각, 눈, 행동 등을 정밀히 관찰할 것입니다. **아동의 관찰력을 양성함에 막대한 힘이 동화에 있습니다.**²⁵⁾

손진태의 지적처럼 <개미전설>이야기를 떠올리면서 개미의 움직임, 생김새에 주목할 것이다. 이러한 관찰력은 다른 사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개미의 성격 변화를 통해서 부지런한 성향을 모방하는 것 못지않게 어린이에게 중요한 능력이 될 것이다. <개미전설>이야기를 통해 사물을 스스로 관찰하고 그 생김새와 성질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동화를 구성하는 역량을 신장시킬 것이다. 또한, 어린이는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동화를 읽고 들으면서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성장할 것이다.

V. 결론

손진태가 조선 최고의 전설로 뽑은 <개미와 토끼> 이야기는 개미의 허리가 왜 그렇게 가늘게 되었는지, 토끼가 왜 그렇게 겁쟁이가 되었는지

25) 손진태, <개미전설>, 위의 책.

지를 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개미허리가 가느다란 것이나 토끼가 겁이 많은 것은 관찰하면서 얻어낸 객관적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그 객관적 사실이 만들어진 과정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어떤 이유에서 비롯되었는지 밝힐 수도 없다. 그러나, 토끼 등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게으른 개미가 어떻게 독자적인 생존방식을 구축하게 되었는지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구연자나 작가의 상상력에 달려있다. 손진태가 제시한 것처럼 세밀한 관찰력, 교묘한 구상, 합리적 교훈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힘은 바로 이야기 창작가의 상상력인 것이다. 손진태가 이은상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선의 국보”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아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놀라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직관적으로 보이는 현실을 상상력으로 조합하는 힘이 바로 동화를 만드는 원동력일 것이다.

손진태는 『조선민담집』에서 개미와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를 채집하였다. 그리고 『별건곤』에서 요청한 조선의 전설자랑에 이야기를 소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개미와 토끼>를 선택했다. 손진태는 여기에서 개미의 유래를 밝힌 전설임에도 불구하고 예술화, 문학화의 경지에 이른 <개미와 토끼>를 통해서 동화적 가치를 논하고 있다. <개미와 토끼> 이야기는 자연적 유래 전설이면서 동시에 동화적 가치에 부합되는 훌륭한 작품인 셈이다.

손진태의 <개미전설>을 통해서 그의 동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손진태는 조선민속학의 선구자이면서 동시에 아동문학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보여준 인물이기도 하다. 앞으로 손진태의 아동 인식과 ‘동화’에 대한 탐구가 조선민속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참고문헌

자료

- 『개벽』, 『별건곤』, 『어린이』
손진태 저, 『조선설화집』, 최인학 역, 민속원, 2009.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평민사, 1989.
허경진 외 편저, 『근대 계몽기 조선의 이습우화』, 보고서, 200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논저

- 권혁래, 「손진태 『조선민담집』 연구 : 설화의 성격과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63, 2013.
김광식, 「한일 설화 채집·분류·연구사로 본 손진태 『조선민담집』의 의의」, 『동방학지』 3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6.
김명옥, 「『강감찬열전』 어린이 책 수용사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8, 한국 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1.
류정월, 「손진태 역사동화 연구」, 『한국고전연구』 44,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사희영, 「한일 아동문학 비교 및 전개양상 考察 - 1930년 류전국남(柳田國男) 『일본석화집(日本昔話集)』과 손진태(孫晉泰) 『조선민담집(朝鮮民譚集)』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80, 2019.
이정현, 「방정환의 동화론 새로 개척되는 동화에 관하여에 대한 고찰-일본 타이쇼 시대 동화이론과의 영향관계」, 『아동청소년문학연구』 3, 2008.
정선희, 「색동회원 손진태의 재발견」, 『근대서지』 20, 근대서지학회, 2019.
———, 「손진태의 『어린이』소재작품 목록재고」, 『한국문학이론과비평』 76, 한국 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7.

단행본

- 서정오, 『옛이야기 들려주기』, 보리, 1995.
전경수, 『손진태의 문화인류학』, 민속원, 2010.
정인섭, 『색동회 어린이 운동사』, 학원사, 1975.
황선미, 『동화 창작의 즐거움』, 사계절, 2006.

How to Make a Story Appearing in Son Jin-tae's <Legend of Ants>

Kim, Kyung Hee
(Gachon University)

In 1928, in *Byeolgeongon*, the Chosun Bogang issue was planned. Son Jin-tae selected <The Legend of Ants> as the best legend of Joseon in this issue. This thesis is to reveal in what sense Son Jin-tae selected <The Legend of Ants> as the best legend of Joseon. So far, Jintae Son has been known as a folklorist and a person who compiled Joseon folktales.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Legend of Ants>, we will try to find the elements of storytelling that Son Jin-tae thinks.

<Legend of Ants> is a story related to the origin of how the ant's waist came to be. The story of the ant's waist is broadly divided into the type in which the ants became thin because of hunger as in <The Legend of the Ants>, and the <Locust, Ant, Waterfowl> type, in which the waist became thin because the ants laughed too much while watching the grasshoppers and waterbirds quarrel with them. The story that is being passed down is dominated by the <Grasshopper, Ant, and Waterfowl> type. Although the current tradition of <Legend of Ants> has disappeared, the selection of the story of the hunger of ants as the best legend of Joseon among the two types is closely related to the storytelling contained in this work. The meticulous observation, clever conception, and rational instructiveness shown in <Legend of the Ants> have very important meanings in story writing.

Keywords : <Legend of Ants>, Fairy tale making, Detailed observation,
Artful conception, Reasonable teaching, Imagination

투고일 : 2021. 09. 18. / 심사일 : 2021. 10. 05. / 심사완료일 : 2021. 10. 10.

문화해석방법론으로 그림책 세계관 읽기

—앤서니 브라운의 『돼지책』을 중심으로—

김현경*

【 목 차 】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 2. 연구 문제
 - 3. 연구 방법
- II. 연구 결과
 - 1. 텍스트 내부의 세계 조사하기
 - 1) 제목과 표지 그림 읽기
 - 2) 그림책 본문 읽기
 - 3) 명화 읽기
 - 2. 텍스트 뒤의 세계 조사하기
 - 1) 문제의식을 부각한 도덕적인 책
 - 2) 만화적이고 유머러스한 그림
 - 3) 모호한 마무리
 - 3. 텍스트 앞의 세계 조사하기
 - 1) 가족 관계와 관련된 단어들
 - 2) 감정과 관련된 단어들
 - 3) 생각과 관련된 단어들
 - 4) 문제와 관련된 단어들
 - 5) 작가와 그림책 읽기에 관련된 단어들
- III. 결론

* 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dasarom_kim@naver.com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 『돼지책』에 담긴 세계관을 분석해 보기 위해 Vanhoozer의 문화해석방법론에 기초하여 ‘텍스트 자체의 세계’, ‘텍스트 뒤의 세계’, ‘텍스트 앞의 세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돼지책』에서 피곳씨의 가족들은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 대조적, 대립적으로 표현되었으며, 가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피곳씨 가족은 부유함과 재산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작가는 결말을 모호하게 마무리 지어 이들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것임을 암시했다. 독자들은 이 책을 대체로 재미있게 받아들였으나 책 속의 문제가 남자와 여자의 갈등임을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돼지책』에는 소비주의 세계관과 포스트모던 부족주의 세계관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림책에는 작가의 신념이 담겨 있고, 그림책의 세계관은 독자의 삶에 영향을 끼치므로 독자들은 그림책의 세계관을 읽으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핵심어 : 돼지책, 문화해석방법론, 그림책, 세계관

I. 서론

1. 연구의 목적

“그림책 좀 추천해 주세요.”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면 자주 받는 질문 또는 부탁이 있다. 그것은 아이가 읽을 그림책을 추천해 달라는 것이다. 1980~90년대에 한국에서 창작 그림책이 출간되기 시작한 이래로 국내 그림책의 생산량은 크게 늘었고, 그림책 문화의 저변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매일 수많은 문학작품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그림책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¹⁾

많은 경우 부모와 교사는 자녀에게 읽어줄 그림책을 자신이 직접 읽어

1) 한정희·서정숙, 「그림책 읽어주기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Vol.10 No.2,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2009, 128쪽.

보고 선택하기보다 다양한 권위에 의지하는 편이다. 상을 받은 수상작이나 그림책 전문가/전문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도서 목록, 혹은 수많은 독자에게 인기 있는 작가의 책들은 그 자체로 검증되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림책을 선정하는 데 있어 “이 그림책은 얼마나 유명한가, 얼마나 인기 있는가, 상을 받았는가?”의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그것은 “이 그림책은 어떤 세계관을 보여주는가?”이다. 왜냐하면 예술품은 예술가가 가진 신념과 목표의 결과물²⁾이며, 하나의 예술작품인 그림책은 독자의 삶에 방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부모와 교사는 이 책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 책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것은 아이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이끄는지³⁾ 질문하고 답을 찾으며 어린이 교육에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는 좋은 그림책을 선정하기 위해 자신의 가치관을 점검해 보고, 그림책의 가치를 평가하며,⁴⁾ 어린이 독자에게 어떤 세계관이 담긴 그림책을 권해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림책에 담긴 세계관을 분석해 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사랑받고 있는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 『돼지책』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문화해석방법론에 기초한 그림책 세계관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2) 니콜라스 윌터스토프 저, 신국원 역, 『행동하는 예술』, IVP, 2010, 170-171쪽.

3) 현은자·김주아·국경아, 「존 클라센의 <모자 삼부작>에 대한 세계관적 접근」, 『어린이문학교육연구』 Vol.19 No.4,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2018, 200쪽.

4) 현은자, 「어린이 그림책 서평에 내포된 윤리적 속성」, 『어린이문학교육연구』 Vol.18 No.2,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2017.

- 1) 『돼지책』의 텍스트 내부의 세계는 어떠한가?
- 2) 『돼지책』의 텍스트 뒤의 세계는 어떠한가?
- 3) 『돼지책』의 텍스트 앞의 세계는 어떠한가?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Vanhoozer⁵⁾가 제안한 문화해석방법론을 기본적인 분석 도구로 삼았다. Vanhoozer는 ‘일반 해석학의 세 차원인 저자, 텍스트, 독자를 각각 텍스트 뒤의 세계(world-behind-the-text), 텍스트 자체의 세계(world-of-the-text), 텍스트 앞의 세계(world-in-front-of-the-text)로 지칭하고 이 세 가지 세계를 모두 고려해서 문화 읽기를 해야 한다’⁶⁾고 말한다. 텍스트 뒤의 세계란 ‘이 문화 텍스트를 만든 사람은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만들었을까?’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고, 텍스트 자체의 세계란 ‘이 문화 텍스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할까?’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며, 텍스트 앞의 세계란 ‘이 문화 텍스트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말한다. Vanhoozer는 이를 통해 비로소 문화 텍스트를 다층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문화 속에 들어 있는 세계관을 읽어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문화를 변혁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텍스트 자체의 세계’를 분석하기 위해 『돼지책』의 각 장면의 글과 그림을 꼼꼼하게 읽었다. 그리고 ‘텍스트 뒤의 세계’를 분석하기 위해 작가의 창작 배경을 조사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앞의 세계’를 분석하기 위해 인터넷 서점 알라딘의 『돼지책』에 달린 독자들의 100자 서평을 분석하였다. 100자 서평을 분석하기 위해 100자 서

5) 케빈 밴후저 편저, 윤석인 역, 『문화 신학』, 부흥과개혁사, 2007.

6) 현은자·김주아, 「Vanhoozer의 신학적 문화해석에 기초한 자바카 스템토의 <빛나는 아이>(2016) 해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Vol.20 No.2,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2019, 41-73쪽.

평 텍스트를 수집하여 핵심어를 추려낸 후에 텍스트마이닝의 도구 중 하나인 VOYANT를 사용하여 단어의 빈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돼지책』의 세계관을 도출할 때는 『은밀한 세계관』⁷⁾에서 제시하는 여덟 가지의 신념 체계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⁸⁾

II. 연구 결과

1. 텍스트 내부의 세계 조사하기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 『돼지책』은 1986년에 영국에서 처음 출간되었고, 한국에는 2001년 웅진주니어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책의 줄거리는 이러하다. 피곳 씨 부부와 두 아들은 멋진 집에서 살고 있다. 아주 중요한 회사와 학교에 다니는 피곳 씨와 두 아들은 아침저녁으로 피곳 부인에게 빨리 밥을 달라고 소리친다. 피곳 부인은 여러 집안 일을 도맡아 하고 직장에도 다닌다. 어느 날 피곳 부인은 “너희들은 돼지야.”라는 쪽지를 남긴 채 사라진다. 피곳 씨와 두 아들은 돼지로 변해서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으려 애쓰고 집안은 점점 돼지우리처럼 변해간다. 드디어 돌아온 피곳 부인 앞에 피곳 씨와 두 아들은 무릎을 꿇고 집안일을 함께 나눠서 한다. 엄마도 행복했으며 엄마는 차를 수리한다.

이 책에는 ‘돼지’의 상징성이 글과 그림에 풍성하게 녹아 있어 많은 독자가 ‘그림 읽기’를 즐겨 하는 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림책의 세계관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돼지 이미지를 중심으로

7) 스티브 윌킨스·마크 샌포드 저, 안종희 역, 『은밀한 세계관』, IVP, 2013, 13쪽.

8) 스티브 윌킨스와 마크 샌포드는 『은밀한 세계관』에서 개인주의, 소비주의, 국가주의, 도덕적 상대주의, 과학적 자연주의, 뉴에이지, 포스트모던 부족주의, 종교가 된 심리 치료의 여덟 가지 신념 체계를 은밀한 세계관으로 선정하였다. 저자들은 이것이 일상 생활의 세계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 문화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으며 우리 삶을 형성하는 관점이라고 설명한다.

한 그림 읽기가 아닌, 1) 제목과 표지 그림 읽기, 2) 그림책 본문 읽기, 3) 명화 읽기로 나누어 텍스트 내부의 세계를 조사해 보았다.

1) 제목과 표지 그림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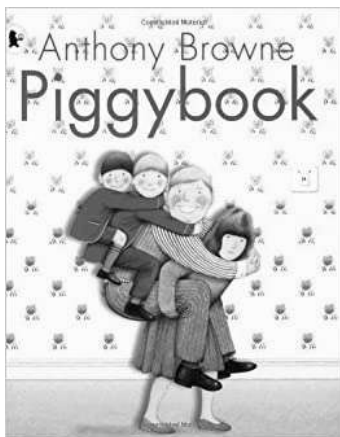
이 책의 원제는 *Piggybook*으로, 표지 그림을 참조하였을 때, 영어 단어 ‘piggyback’을 연상시킨다. 옥스퍼드 영한사전에 따르면 ‘piggyback’이란 명사로 ‘(등에) 업기(어부바), 목말 타기’라는 뜻이며, 동사구로 ‘piggyback on somebody/something’은 ‘~에 업혀가다, 편승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⁹⁾ 영어 단어 piggyback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이 책의 제목인 *Piggybook*은 표면적인 뜻은 ‘돼지책’이지만 누군가에 업혀 있는, 혹은 편승하는 뜻이 내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책 표지 그림과 더불어 생각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그림책의 표지 그림을 보면 *Piggybook*이라는 제목 아래 등장인물들이 그려져 있다. 가장 아래에 피곳 부인이 있고, 피곳 부인 등 위에 피곳 씨가, 피곳씨 등 위에 두 아들이 업혀 있다. 이들은 여러 면에서 시각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첫 번째로 인물들의 얼굴 표정을 살펴보면 피곳 부인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는 데 비해, 피곳씨와 두 아들은 이를 드러내고 활짝 웃거나 미소를 짓고 있으며 두 볼이 약간 상기돼 있다.

두 번째로 인물들의 의상을 살펴보면 먼저 피곳 부인의 상의와 치마, 구두의 색상이 푸른 빛이 감도는 낮은 채도의 회색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피곳 부인의 얼굴 표정과 더불어 우울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와 대조적으로 피곳씨의 의상은 윤택이 나는 검정 구두에 파란 양말, 파란 줄무늬 셔츠로 피곳 씨의 얼굴 표정과 더불어 자신감 있고 당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두 아들은 빨간색 교복 상의를 입고 있으며 양

9) 출처: 네이버 옥스퍼드 영한사전 <https://en.dict.naver.com/#/entry/enko/98366e2a33454d33b9f8d3ae6abc0bb7>



[그림 1] 『돼지책』 표지

말에 빨간 줄무늬가 곁들여져 있어 힘 있고 활기가 넘쳐 보인다. 일반적으로 파란색은 두 가지의 대조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상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의미가 있으면서 동시에, 자기 억제적이고 우울하다는 의미도 있다.¹⁰⁾ 파란색이 지니는 모순적인 상징성은 피곳 씨와 피곳 부인의 대조적인 모습에 각각 적용해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이들의 배경이 되는 벽지를 보면 아랫부분은 꽃무늬로 장식되어 있지만, 윗부분은 돼지 얼굴로 장식되어 있고, 콘센트의 모양도 절묘하게 돼지 얼굴을 연상시켜 무언가 이상하다, 잘못되었다는 느낌과 함께 코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벽지 하단의 꽃무늬는 인물 그림의 하위에 있는 피곳 부인을, 벽지 상단의 돼지 얼굴 무늬는 인물 그림 상위에 있는 피곳 씨 및 두 아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한 가족이지만 벽지의 하단과 상단처럼 각각 분리되어 다르게 보이고 또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 더 나아가서는 제목과 표지 그림에서 볼 수 있듯 다른 가족들이 피곳 부인의 등에 모두 업혀서(편승해서) 행복하고 자신 있게 혹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2) 그림책 본문 읽기

『돼지책』 안에서는 가족들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들은 분리되거나 혹은 대립하여 나타나는데 흥미로운 것은 가족의 위계에 따라 부모/자식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은 대부분의 장면에서 남자/여자로 나뉘어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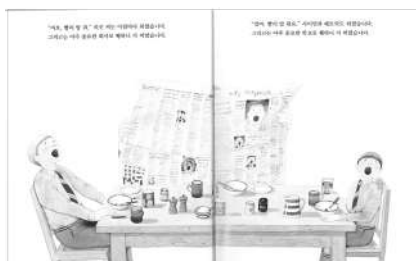
10) 이소은 · 권기남, 『아동미술』, 양서원, 2020, 122쪽.

첫 번째 펼친 면에서 가족이 소개되는 글에는 피곤편가 두 아들인 사
이먼, 패트릭과 함께 멋진 차고와 멋진 차, 멋진 정원이 있는 멋진 집에



[그림 2] 『돼지책』 첫 번째 펼친 면

두 번째 펼친 면의 식사 자리에서도 가족은 함께 있지 않다. 피곤편 씨와 두 아들이 빨리 밥을 달라고 소리칠 뿐, 피곤편 부인은 말을 하지도



[그림 3] 『돼지책』 두 번째 펼친 면

세 번째 펼친 면에서야 피곤편 부인이 등장하는데 앞에서 피곤편 씨와 두 아들이 비교적 선명하고 다채로운 색상으로 커다란 프레임 안에서 그려졌던 것과는 달리, 피곤편 부인은 흐릿한 적갈색과 회색을 주요 색상으로 하여 네 개의 작은 프레임에 나뉘어 그려져 있다. 각각의 프레임에서 피곤편 부인은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며 모두 집안일을 하거나 바깥일을 나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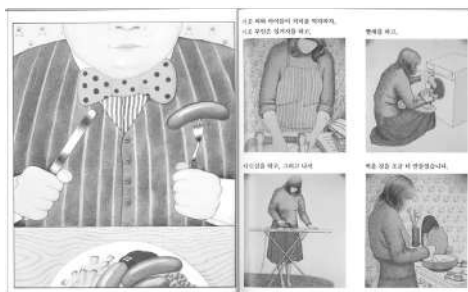
네 번째 펼친 면에서 피곤편 씨와 두 아들은 중요한 직장과 중요한 학교



[그림 4] 『돼지책』 세 번째 펼친 면



[그림 5] 『돼지책』 네 번째 펼친 면



[그림 6] 『돼지책』 다섯 번째 펼친 면

에서 돌아오자마자 피곤했던 부인을 부르며 밥을 달라고 한다. 여기에서도 피곤했던 부인은 등장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펼친 면에서 피곤했던 부인과 피곤했던 부인은 드디어 함께 그려진다. 그러나 이들은 함께 무언가를 하며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아니다. 피곤했던 부인은 왼쪽 페이지에, 피곤했던 부인은 오른쪽 페이지에 따로 떨어져서 등장하며 여러 차원에서 대조를 이룬다. 왼쪽 페이지의 피곤했던 부인은 화면이 딱 차게 커다란 프레임 안에 그려져 있으며, 그 프레임 안에서조차 피곤했던 부인이 너무 크게 그려져 있어 모습이 다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피곤했던 부인은 양손에 포크와 칼을 들고 이제 막 식사를 시작하는 모습이다. 피곤했던 부인의 노란색 나비넥타이와 빨간 도트, 접시 위의 빨간 케첩과 초록색 완두콩, 피곤했던 부인의 파란 줄무늬 셔츠의 선명하고 밝은색은 생생하고 유쾌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반면에 오른쪽 페이지는 네 개의 프레임으로 나뉘어 피곤했던 부인이 작게 여러 번 나타나는데 피곤했던 부인은 다양한 집안일로 분주한 모습이다. 피곤했던 부인은

앞에서처럼 흐릿한 적갈색과 회색을 주요 색상으로 하여 그려져 있고, 여전히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 왼쪽 면의 피곶 씨와 오른쪽 면의 피곶 부인은 모습도, 하는 일도, 그림의 크기로서 보여지는 존재감도 무척 대조적이다.

여섯 번째 펼친 면에서는 글 없이 그림만 나타나는데 프레임도 없어서 긴장이 풀어지고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저녁 식사를 한 후인지, 피

곶 씨와 두 아들뿐 아니라 개와 고양이도 나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한가로워 보이는 이 장면에 피곶 부인은 등장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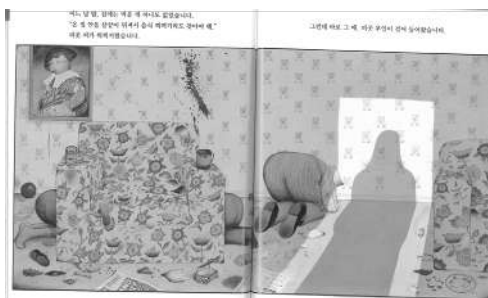
[그림 7] 『돼지책』 여섯 번째 펼친 면

일곱 번째 펼친 면부터 열 번째 펼친 면에서는 피곶 부인이 사라지면서 피곶 씨와 두 아들이 돼지로 변하고 집안이

돼지우리처럼 변해가는 장면이 나타난다. 물론 피곶 부인은 글과 그림에서 등장하지 않는다.

열한 번째 펼친 면은 집안의 더러움과 혼란함이 절정으로 치닫고, 그림 속에서 피곶 씨와 두 아들은 엉덩이만 내민 채 얼굴을 숨기고 엎드려

있다. 바로 이곳에서 피곶 부인이 드디어 그림책에 다시 등장하는데 영웅 혹은 구원자의 등장을 나타내듯 빛 가운데 실루엣으로 나타난다.



[그림 8] 『돼지책』 열한 번째 펼친 면

열두 번째 펼친 면에서는 돼지가 된 피곶 씨와 두 아들이 피곶 부인 앞에 무릎을 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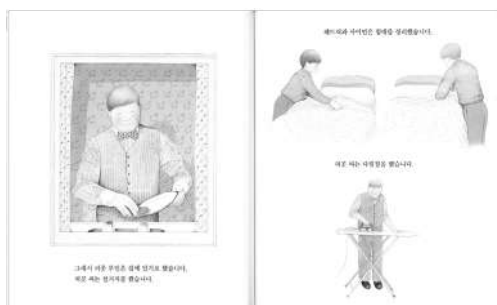
은 채로 그려져 있고, 피곳 부인은 한 손에 가방을, 다른 한 손은 허리를



[그림 9] 『돼지책』 열두 번째 펼친 면

는 ‘달라진’ 모습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피곳 부인의 머리가 검정색 프레임 밖으로 불쑥 나와 있어 틀을 깨고 나온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피곳 부인이 사라졌다가 다시 가족들 앞에 나타난 사건 이후로 피곳 씨와 두 아들의 모습도 다시 사람으로 나타난다. 열세 번째 펼친 면에서 피곳 씨는 설거지와 다림질을 하고, 두 아들은 침대를 정리한다. 그러나



[그림 10] 『돼지책』 열세 번째 펼친 면

피곳 부인은 글에서도 그림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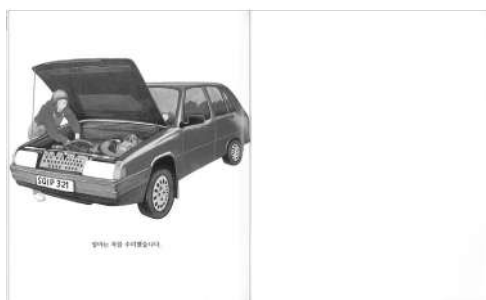
열네 번째 펼친 면에서 왼쪽 페이지에는 피곳 씨와 두 아들이 모두 요리하는 것을 돕고 정말로 즐겼다는 글과 함께 손에 음식을 들고 있는 모습이 그림으로 제시된다.

반면 피곳 부인은 이들과 함께하지 않고 오른쪽 페이지에 작업복을 입고 얼굴에 기름때를 묻힌 채로 그려져 있다. 글에는 엄마도 행복했다고 언급되어 있다.

열다섯 번째 펼친 면에서 피곳 부인은 자동차를 수리하는 모습으로 홀로 등장한다. 이것은 그림책의 맨 첫 장면과 대조된다. 처음에 가족이 소



[그림 11] 『돼지책』 열네 번째 펼친 면



[그림 12] 『돼지책』 열다섯 번째 펼친 면

개될 때는 피곳 씨와 두 아들이 집 밖에서 있었고 피곳 부인은 집 안에 있다고만 언급되었다. 반면 마지막 장면에서는 피곳씨와 사이먼, 패트릭이 집 안에 있고, 그림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대신 피곳 부인이 집 밖에서 혼자 자동차 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피곳 씨의 ‘중요한’ 회사를 상징하는 파란 색과 두 아들의 ‘중요한’ 학교를 상징하는 빨간 색은 이제 피곳 부인의 바지와 스웨터의 색상으로 그려졌다. 이전 장면에서 보았듯이 피곳 씨와

두 아들은 자켓을 벗고, 그 대신 ‘앞치마’를 두른 것으로 그려졌다. 또한 그림책 맨 첫 장면에서 피곳씨 집의 자랑거리로 소개된 자동차는 그림책 마지막 장면에서 피곳 부인에 의해 수리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번호표를 거꾸로 읽어보면 ‘123 PIGS’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가 곧 피곳 씨와 두 아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곳 부인은 단순히 자동차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곳 씨와 두 아들을 고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돼지책』에서 가족들은 피곳 부인의 부재 사건 이전에도, 이후에도 함께 어우러진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대체로 피곳 씨와 두 아들이 함께 등장하고 피곳 부인은 가족들과 분리되어 따로 등장한다. 가족들은 또한 입고 있는 옷의 색상과 그림의 크기,

상하 위치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대조를 이룬다. 그리고 이러한 분리와 대조는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3) 영화 읽기

『돼지책』에는 두 편의 영화가 차용되고 있다. 작가가 특정한 영화를 차용한 것을 단순히 장식적인 용도로만 보기는 어렵다. 영화의 주제나 상징을 통해 그림책의 의미가 더 효과적으로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편의 영화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조사해 보았다.

① 프란스 할스의 <웃고 있는 기사>



[그림 13] 『돼지책』 여섯 번째 펼친 면



[그림 14] 프란스 할스의
<웃고 있는 기사>

『돼지책』에는 피곳 씨와 두 아들이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소파 위에서 쉬는 장면이 있다. 이 장면은 글이 제시되지 않은 채로 펼친 면 가득 프레임 없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 피곳 씨와 두 아들의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극대화하고 있다. 바로 이 장면의 왼쪽 상단에서 독자들은 프란스 할스(Frans Hals, 1581~1666)의 <웃고 있는 기사>(The Laughing Cavalier) 그림을 발견할 수 있다.

프란스 할스는 17세기 네덜란드 미술사 최초의 거장으로 ‘자연스러운 구성과 활력 있는 필치의 초상화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화가’¹¹⁾로 알려져 있다. 할스의 전문 분야는 초상화로 명랑하고 활기찬 분위기가 특징적이다. 특히 <웃고 있는 기사>는 할스의 작품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꼼꼼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왼쪽 소매의 자수에 부와 사랑을 상징하는 다양한 무늬가 있다.

“화려한 하얀 레이스 장식의 목깃은 정교하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레이스의 옷을 입고 있는 기사는 상류층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당시 레이스 장식의 옷은 상류층만 입었다.

... 왼쪽 팔 옷소매의 트인 부분에 모자가 씌워진 날개 달린 지팡이는 헤르메스 신을 상징한다. 이 작품에서 헤르메스 신의 지팡이는 재산은 남자다운 미덕의 동반자라는 것을 상징한다.”¹²⁾

“기사는 사실 웃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기사도 아니다. ... 복잡하게 수 놓인 상의와 사치스러운 레이스 칼라와 커프스는 이 사람이 부유한 멋쟁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이 작품은 약혼 초상화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매에 있는

11)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71328&cid=58862&categoryId=58878> 김진희, 화가의 생애와 예술세계, 발행일: 2011.02.18.

12) 출처: 더사이언스타임즈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D%9A%8D%EA%B8%B0%EC%A0%81-%EB%B0%A9%EC%8B%9D%EC%9C%BC%EB%A1%9C-%EC%9D%B8%EB%AC%BC-%ED%91%9C%ED%98%84%ED%95%9C-039%EC%9B%83%EA%B3%A0-%EC%9E%88%EB%8A%94-%EA%B8%B0%EC%82%AC039/?cat=28> 박희숙, 획기적 방식으로 인물 표현한 ‘웃고 있는 기사’, 발행일: 2009.05.19.

이글이글 타오르는 햇불, 하트와 화살, 연인의 매듭, 꿀벌 장식은 모두 사랑의 상징이기 때문이다.”¹³⁾

이 작품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에 대한 평가가 두드러진다. 기사의 레이스 달린 옷은 그가 부유한 상류층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옷에 새겨진 헤르메스 신의 날개 달린 지팡이는 재산을 상징한다.

피곳씨 집에 할스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 것은 피곳씨의 부유함과 더불어 재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토마스 게인즈버러의 <앤드류 부부>

어느 날 저녁 피곳씨와 두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피곳 부인은 집에 없고 쪽지만 남겨져 있었다. 이 장면에서 쪽지가 세워져 있던 벽난로 위에 걸려 있는 그림은 토마스 게인즈버러(Thomas Gainsborough, 1727~1788)의 <앤드류 부부>(Mr and Mrs Andrews)로 그림책에는 약간 변형되어 그려졌다.



[그림 15] 『돼지책』 여덟 번째 펼친 면



[그림 16] 토마스 게인즈버러의 <앤드류 부부>

이 작품은 토마스 게인즈버러가 앤드류 부부의 주문을 받고 그린 것으로, 화폭의 반은 초상화에, 반은 풍경화에 할애하고 있는 점¹⁴⁾이 독특하

13) 출처: 제주도민일보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58> 제주도민일보, 프란스 할스 「옷고 있는 기사」, 발행일: 2011.12.22.

다. 앤드류 부부 옆으로 풍경이 넓게 펼쳐지도록 그린 것은 앤드류 부부가 의뢰한 것인지, 작가가 의도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잘 경작된 곡물 다발과 추수를 끝낸 들판, 자유롭게 풀을 뜯는 양떼와 소떼, 그 뒤로 드넓게 펼쳐진 영지¹⁵⁾가 이들 부부의 경제적 부유함을 드러내 준다는 점이다.

“배경에 희미하게 보이는 서드베리에서 1748년에 결혼했던 앤드류 부부는 그들의 사유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마치 이 신혼부부가 외부인들에게 사유지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것처럼...”¹⁶⁾

피곳씨 집의 벽난로 위에 걸려 있는 그림에는 앤드류씨의 얼굴 대신 돼지 얼굴이 그려져 있고, 앤드류 부인의 모습은 오려져 있다. 그림 속 앤드류 부인의 부재는 이야기 속 피곳 부인의 부재를 상징한다.

『돼지책』 작가는 두 편의 명화를 그림책 속에 배치하여 피곳씨 가족의 경제적인 부유함과 재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다. 먼저 등장한 그림의 원작은 약혼 초상화로 알려져 있고, 뒤에 등장하는 그림의 원작은 결혼을 기념하여 그린 부부 초상화로 알려져 있다. 두 그림 모두 결혼을 기념하는 목적으로 그려졌지만 『돼지책』 속 두 번째 그림은 부인의 모습이 오려져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관계의 어긋남을 보여준다. 결국 피곳 부인이 떠나게 된 원인은 그림에서 강조되고 있는 피곳씨 가족의 경제적인 부유함, 재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14) 출처: 네이버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323106&cid=40942&categoryId=33054>

15) 상동

16)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명화 1001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875578&cid=42645&categoryId=42645> 발행일: 2007.08.20.

2. 텍스트 뒤의 세계 조사하기

1) 문제의식을 부각한 도덕적인 책

작가는 자서전에서 자신이 만든 여러 이야기 중 ‘가족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돼지책』에 대해 언급한다. 작가는 가족의 사랑이 주가 되는 이야기를 많이 그려내지만 동시에 가족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도 좋아한다고 말한다.¹⁷⁾ 그중에서도 『돼지책』은 ‘그러한 문제의식을 부각한 책’¹⁸⁾이다.

“『돼지책』은 아마도 내가 만든 책 중에서 가장 도덕적인 책일 것이다. 이야기 속 가족의 모습은 상당히 평범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가 아는 한 특정한 가족에 근거해서 만들었다.”¹⁹⁾

작가의 말을 바탕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돼지책』은 작가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창작의 과정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를 인식하고 화두를 던지는 것과 문제를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것이다. 작가가 독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인지는 작가가 발견한 그 문제를 드러내는 방식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좀 더 들여다보아야 분명해진다. 작가는 자서전에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한다.

2) 만화적이고 유머러스한 그림

『돼지책』은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는데 처음 완성한 더미북은 작가 자신에게도 편집자인 줄리아에게도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한

17) 앤서니 브라운조 브라운 저, 홍연미 역, 『앤서니 브라운 나의 상상 미술관』, 웅진주니어, 2011, 102쪽.

18) 위의 책, 103쪽.

19) 위의 책, 104쪽.

다. 시간이 흐른 후 작가가 다시 더미북을 들여다보았다가 발견한 문제점은 그림이 너무 사실적이어서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낸다는 것이었다. 또, 작가는 앞서 이 책이 자신의 책 중에서 가장 도덕적인 책일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림책에 도덕적인 무거움이 없어진 것을 문제로 인식한다. 그래서 작가는 사실적인 돼지 이미지를 만화적인 돼지 이미지로 바꾸고 유머를 곁들여 이 책을 완성했다.

“몇 개의 일러스트레이션을 완성했다. 그러나 줄리아가 유례없이 따뜻미 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나는 줄리아가 이 작업의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 역시도 그다지 만족스러운 기분은 아니었다. ... 문제는 내가 돼지를 너무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것이다. ... 내가 만든 기괴한 가공의 괴물들은 보기도 무서웠을 뿐만 아니라 그 책에 내가 조금도 바라지 않은 도덕적 무거움까지 얹어 놓고 있었다. ... 한마디로 농담이라고는 없는 무거운 책이었다.”²⁰⁾

3) 모호한 마무리

작가는 자서전에서 이 책의 결말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한다. 책에서 피곳 부인은 집으로 돌아오고, 가족들은 변화한 것으로 그려졌지만 정작 작가는 그러한 변화를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언제나 피곳 부인이 머물기를 바랐지만, 불확실성에 맡겨 두는 편이 한층 흥미로운 법이다. ... 자동차의 번호판은 무조건적인 낙관론을 어느 정도 무너뜨린다. 물론 사소한 장난일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보이는 것만큼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암시일 수도 있다. 비록 가족이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겪기는 했어도 얼마 정도 지나면 남자들이 예전의 방식으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²¹⁾

20) 앞의 책, 104-106쪽.

21) 위의 책, 107쪽.

작가는 마무리를 애매하게 만든 것에 만족스러워하며 『돼지책』을 ‘남자들의 나태함을 꼬집은 단순한’²²⁾ 책으로 설명하고 있다. 작가는 이 책을 문제의식에서 시작했지만, 결말을 열어놓음으로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 독자의 해석과 판단에 맡기고 있다.

그렇다면 독자는 작가가 생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일단 독자들은 작가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남자들의 나태함’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또 작가가 피곳 부인을 통해 시도한 문제 해결 방법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작가가 제시했던 해결 방법은 가족 간의 소통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부재였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작가가 제시한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 방법을 통해 가족들이 얻게 된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위치의 전복이었다. 피곳씨의 가족들은 여전히 분리된 채로 남아 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족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보듬고 채워주며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 서로 대립하고 힘의 전복을 통해 위치가 바뀌었을 뿐임을 확인하게 된다.

결국 작가는 『돼지책』을 통해 가정에서 남자들의 나태함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가족의 문제라기보다는 ‘남자와 여자의 힘의 대립’의 문제로 이야기를 풀어갔다. 또한, 이야기를 모호하게 마무리 지음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암시한다.

3. 텍스트 앞의 세계 조사하기

텍스트 앞의 세계를 조사하는 것은 ‘이 작품이 독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어떤 반응을 끌어내는지와 관련된 것’²³⁾이다. 본 연구에

22) 앞의 책, 107쪽.

23) 현은자·김주아, 「Vanhoozer의 신학적 문화해석에 기초한 자바카 스탬토의 <빛나는 아이>(2016) 해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Vol.20 No.2,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2019,

서는 텍스트 앞의 세계를 조사하기 위해 인터넷 서점 알라딘²⁴⁾에 나와 있는 그림책 『돼지책』에 대한 독자의 100자평 128건을 수집하여 분석했다. 이것은 2001년 10월 웅진주니어 출판사에서 번역 출간된 본을 소개하는 알라딘 웹사이트에 달린 100자평으로서, 가장 오래된 평은 2007년 10월 25일에, 가장 최근에 작성된 평은 2021년 4월 8일에 작성되었다.

독자의 100자평을 1) 주제에 관한 내용, 2) 작가에 대한 언급, 3) 그림의 표현, 4) 구매 이유, 5) 독자 반응(혹은 예상 반응)으로 나누어 핵심어를 정리하고, VOYANT 사이트²⁵⁾의 도구를 통해 단어를 빈도대로 추출한 결과, 총 604개의 단어가 수집되었다. 2회 이상 등장한 단어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순서대로 단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돼지책』 독자평에 자주 등장한 단어 (빈도수순)

엄마 (57); 일깨움 (29); 아이/아이들 (28); 가족 (22); 좋음/좋아함 (21); 재미 (20); 그림 (13); 소중함 (12); 돼지 (11); 숨은그림찾기 (11); 아빠 (11); 가정 (8); 아들 (8); 앤서니 브라운 (8); 나 (7); 공감 (6); 도움 (5); 부재 (5); 생각 (5); 역할 (5); 의미 (4); 중요함 (4); 함께 (4); 고마움 (3); 남편 (3); 마음 (3); 반전 (3); 선물 (3); 설거지 (3); 슈퍼우먼 (3); 웃김 (3); 일 (3); 읽기 (3); 작가 (3); 조카 (3); 존재 (3); 즐거움 (3); 처음 (3); 추천 (3); 페미니즘 (3); 필요 (3); 행복 (3); 가르침 (2); 가사노동 (2); 가출 (2); 감동 (2); 팬클럽 (2); 그림 읽기 (2); 남녀 (2); 대단함 (2); 대화 (2); 독특 (2)

20회 이상 나타난 단어를 살펴보면, ‘엄마’가 57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일깨움, 아이(들), 가족, 좋음(좋아함), 재미의 순서로 자주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엄마와 아이, 가족과 같이 가족 관계나 특정한 가족 구성원들과 관련하여 이 책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책을 읽음으로써 다시 생각해보게 되거나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긍정

41-73쪽.

24) 웹사이트 주소 <https://www.aladin.co.kr/>

25) 웹사이트 주소 <https://voyant-tools.org/>

적이며 그 이유로 ‘재미’를 손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가족 관계와 관련된 단어들

자주 등장한 단어 중에서 먼저 가족 관계 안에서 사용되는 호칭이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돼지책」 독자평에 등장한 가족 관계 관련 단어

엄마 (57); 아이/아이들 (28); 가족 (22); 아빠 (11); 가정 (8); 아들 (8);

이 책의 줄거리를 언급하거나 책을 통해 엄마에 대해 생각해보거나 엄마인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거나 엄마 외의 다른 가족들이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주로 있었다. 혹은 이 책을 가족들에게 읽히고 싶다는 내용도 자주 등장했다.

2) 감정과 관련된 단어들

다음으로 감정과 관련된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돼지책」 독자평에 등장한 감정 관련 단어

좋음/좋아함 (21); 재미 (20); 소중함 (12); 공감 (6); 고마움 (3); 마음 (3); 반전 (3); 즐거움 (3); 웃김 (3); 행복 (3); 감동 (2); 괜찮음 (2); 대단함 (2); 독특 (2);

좋음/좋아함, 재미, 반전, 즐거움, 웃김, 감동과 같은 단어들은 이 책을 읽을 때의 독자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고, 소중함, 공감, 고마움, 마음, 행복과 같은 단어들은 이 책을 통해 깨닫게 된 가족에 대한 감정이나 자신의 감정 해소나 감정 변화에 대해 표현한 것이다. 그 밖에 괜찮음, 대단함과 같은 단어들은 책 자체에 대한 평가에 가까운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이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이 즐거

움이나 재미와 같은 감정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은 주목해서 볼만 하다. 독자는 그림책의 주제보다도 주제를 전달하는 작가의 표현 방식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생각과 관련된 단어들

감정 단어뿐만 아니라 생각과 관련된 단어들도 자주 등장했다.

[표 4] 「돼지책」 독자평에 등장한 생각 관련 단어

일깨움 (29); 생각 (5); 의미 (4); 중요함 (4); 가르침 (2); 필요 (3);

위의 단어들을 통해 독자들이 그저 재미있게 책을 읽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생각이나 태도에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4) 문제와 관련된 단어들

또한 그림책 안에 분명히 드러나 있던 문제와 관련된 단어들도 눈에 띄었다.

[표 5] 「돼지책」 독자평에 등장한 문제 관련 단어

나 (7); 부재 (5); 역할 (5); 도움 (5); 함께 (4); 존재 (3); 남편 (3); 설거지 (3); 슈퍼우먼 (3); 일 (3); 페미니즘 (3); 가출 (2); 가사노동 (2); 남녀 (2);
--

흥미로운 것은 나, 남편, 슈퍼우먼, 남녀, 페미니즘과 같이 남성과 여성에 관한 단어들이 자주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것은 독자들이 그림책 속에 나타난 가족 간의 갈등을 남자와 여자의 갈등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제 및 문제 해결 과정과 관련된 단어들로 부재, 가출과 같은 단어가 자주 사용되었는데 이는 독자들이 엄마의 부재와 가출을 꽤 인상 깊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 작가와 그림책 읽기에 관련된 단어들

마지막으로 작가에 대한 언급이나 그림 읽기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타난 점이 독특하다.

[표 6] 『돼지책』 독자평에 등장한 작가와 그림책 읽기 관련 단어

앤서니브라운 (8); 작가 (3); 그림 (13); 숨은그림찾기 (11); 그림읽기 (2); 돼지 (11); 읽기 (3);

100자평에서 작가의 이름이 언급되거나 ‘작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독자는 ‘역시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는데 이는 독자가 읽을 책을 선정하거나 책을 읽을 때, 작가의 명성에 영향을 상당히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그림책에 대해 평가할 때 그림 읽기의 즐거움을 자주 표현한 점이 눈에 띈다.

『돼지책』에 대한 독자 100자평에 자주 등장한 단어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워드 클라우드 이미지는 아래와 같다.



[그림 17] 『돼지책』 독자 100자평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Ⅲ.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앤서니 브라운의 『돼지책』에 나타난 세계관을 Vanhoozer의 문화해석방법론을 바탕으로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해 보았다.

먼저 텍스트 내부의 세계를 조사한 결과, 작가는 가족 구성원들을 여자와 남자로 나누고 다양한 면에서 대조적, 대립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그림책의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처음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이 가족이 함께 어우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림책의 앞부분에서 아빠와 두 아들은 엄마의 부재 이전까지는 주로 집 밖에 있는 사람들로 묘사되고, 엄마는 주로 집 안에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며 한 장면에 같이 등장하지 않는다. 엄마의 부재 이후 갈등이 해결된 후에는 아빠와 두 아들이 집 안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엄마가 집 밖에서 자동차 수리를 하고 있어 이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 이들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은 드물게 나타나는데, 어느 한 편이 상위에 위치하고 어느 한 편이 하위에 위치하는 ‘그림책 표지’와 ‘엄마가 돌아온 장면’이다. ‘그림책 표지’에서는 엄마가 맨 아래에서 아빠와 두 아들을 업고 있어 여자와 남자의 위치가 하위와 상위로 나뉘고, ‘엄마가 돌아온 장면’에서는 두 아들과 아빠가 옆드리거나 무릎을 꿇고 엄마가 이들을 내려다 보고 있어 여자와 남자의 위치가 상위와 하위로 나뉜다. 『돼지책』에서 인물들은 위-아래의 위치로 대조되어 그려짐으로써 이들이 하나의 가족 공동체라기보다는 남자와 여자의 대립이 강조되고 있다.

피곳씨 집에 걸려 있는 명화 두 편은 이 가족이 겪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암시한다. 두 작품 모두 초상화로서 인물을 묘사하고 있는데, 인물의 옷과 배경을 통해 부유함과 재산이 두드러지고, 과시적으로 표현된 것이 특징이다.

다음으로 텍스트 뒤의 세계를 조사한 결과, 작가는 이 책을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도덕적인 책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도덕적인 무거움을 덜어

내기 위해 사실적인 그림을 만화적인 그림으로 바꾸고 유머를 더하였다. 또한 결말을 모호하게 마무리 지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였다. 결국 『돼지책』은 피곳씨 가정의 문제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해결되어가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다. 책에서 시도되었던 문제 해결 방법은 표면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작가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신뢰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텍스트 앞의 세계를 조사한 결과, 독자들은 이 책에 대하여 가족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보게 되었다는 평가와 재미있게 읽었다는 평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이 책이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즐거움과 재미라는 단어가 100자평에 많이 나타난 것은, 독자들이 그림책의 주제만큼이나 주제를 전달하는 작가의 표현 방식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글쓴이가 주로 엄마이자 아내인 기혼 여성이었다), 남편, 슈퍼우먼, 남녀, 페미니즘과 같이 남성과 여성에 관한 단어들도 자주 등장했으며 이는 독자들이 책 속의 문제를 남자와 여자의 갈등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재, 가출과 같은 단어가 자주 사용되어 독자들이 엄마의 부재와 가출을 인상 깊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작가와 그림 읽기에 대한 언급도 자주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종합하면, 『돼지책』에는 ‘소비주의 세계관’과 ‘포스트모던 부족주의 세계관’이 담겨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소비주의란 우리의 모든 필요가 물질적 소비로 충족될 수 있다고 보는 세계관으로서 사람들은 물건을 축적하고 사용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끼고, 돈이 곧 힘이라고 생각한다.²⁶⁾ 『돼지책』의 첫 장면은 피곳씨에게 멋진 집, 멋진 정원, 멋진 차고와 멋진 차가 있다는 문장으로 피곳씨 가족이 소개된다. 또 이들은 아주 중요한 회사와 아주 중요한 학교에 다니느라 아침저녁으로 피곳 부인에게 빨리 밥을 달라고 외친다. 이는 소비주의가 드러내는 문제점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으로서, 한 인

26) 스티브 월킨스마크 샌포드 저, 안중희 역, 『은밀한 세계관』, IVP, 2013, 53-74쪽.

간으로서의 존재가 경제적 안정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포스트모던 부족주의란 마치 부족사회의 구조처럼 나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결속하기 위해 공통의 언어나 의미, 경험, 사상을 가진 작은 집단 내에서 강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근대주의의 모든 목표- 보편성, 확실성, 절대적 진리, 개인주의, 공정한 중립성, 합리성, 과학에 대한 신뢰, 정복-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근대주의에 의해 영구화된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싶어 한다.²⁷⁾ 『돼지책』은 분명 가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그 문제가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회복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가족’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보다는 ‘남자와 여자’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피곳씨와 두 아들인 남자들이 그림의 상단이나 중앙에 위치하거나 프레임에 딱 차게 그려졌고 밝고 선명한 원색 중심의 의상으로 표현되었던 반면, 나중에는 피곳 부인이 피곳씨와 두 아들을 내려다보는 위치로 그려지고 빨간색이나 파란색 옷과 같이 밝고 선명한 색상의 옷을 입은 것으로 표현된 것은 자칫 이들의 갈등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힘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대결로 비춰질 수 있다. 또한 피곳씨와 피곳 부인, 두 아들이 한 장면에 함께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고,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려고 하지 않은 점은 남자와 여자의 대립과 분리를 더욱 도드라지게 한다. 그렇다면 『돼지책』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가? 소비주의에 희생된 가족 구성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가족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가? 아니면 소비주의에 희생된 가족은 회복이 불가능하며 억압받지 않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가? 이 그림책을 선택해서 어린이에게 읽어준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읽어주는 것인가?

그림책에는 작가의 신념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림책의 세계관

27) 앞의 책, 179-205쪽.

은 독자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그림책 독자들은 그림책을 읽을 때 그림책에 녹아 있는 세계관을 읽어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어린이에게 그림책을 선정해서 읽어주는 역할을 하는 성인은 그림책의 세계관을 읽어내고 가치 있는 그림책을 분별해서 어린이에게 권해줄 필요가 있다.

모든 그림책에서 세계관을 분명하게 꼬집어 내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적어도 그림책에 작가의 세계관이 담겨 있다는 점을 생각하며 그림책을 고르고 읽는다면 한 차원 더 깊이 있는 그림책 읽기가 될 것이다. 이제 그림책을 깊이 있게 읽는다는 것은 그림책을 분석적으로 읽는 것, 그림 읽기를 하는 것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즉,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그림책의 가치를 평가해 보며 우리 삶에 유익한 방향으로 적용하는 그림책 읽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이소은·권기남, 『아동미술』, 양서원, 2020.
- 현정희·서정숙, 「그림책 읽어주기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Vol.10 No.2,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2009.
- 현은자, 「어린이 그림책 서평에 내포된 윤리적 속성」, 『어린이문학교육연구』 Vol.18 No.2,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2017.
- 현은자·김주아, 「Vanhoozer의 신학적 문화해석에 기초한 자바카 스텝토의 <빛나는 아이>(2016) 해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Vol.20 No.2,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2019.
- 현은자·김주아·국경아, 「존 클라센의 <모자 삼부작>에 대한 세계관적 접근」, 『어린이문학교육연구』 Vol.19 No.4,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2018.
- 앤서니 브라운 저, 허은미 역, 『돼지책』, 웅진주니어, 2001.
- 앤서니 브라운·조 브라운 저, 홍연미 역, 『앤서니 브라운 나의 상상 미술관』, 웅진주니어, 2011.
- 케빈 뱅후저 편저, 윤석인 역, 『문화 신학』, 부흥과개혁사, 2007.
- 스티브 월킨스·마크 샌포드 저, 안중희 역, 『은밀한 세계관』, IVP, 2013.
-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저, 신국원 역, 『행동하는 예술』, IVP, 2010.

<인터넷 참고문헌 출처>

- 1) 출처: 네이버 옥스퍼드 영한사전
<https://en.dict.naver.com/entry/enko/98366e2a33454d33b9f8d3ae6abc0bb7>
- 2)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71328&cid=58862&categoryId=58878> 김진희, 화가의 생애와 예술세계, 발행일: 2011.02.18.
- 3) 출처: 더사이언스타임즈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D%A8D%EA%B8%B0%EC%A0%81-%EB%B0%A9%EC%8B%9D%EC%9C%BC%EB%A1%9C-%EC%9D%B8%EB%AC%BC-%ED%91%9C%ED%98%84%ED%95%9C-039%EC%9B%83%EA%B3%A0-%EC%9E%88%EB%8A%94-%EA%B8%B0%EC%82%AC039/?cat=28>
박희숙, 획기적 방식으로 인물 표현한 ‘웃고 있는 기사’, 발행일: 2009.05.19.
- 4) 출처 : 제주도민일보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58>

제주도민일보, 프란스 할스 「웃고 있는 기사」, 발행일: 2011.12.22.

- 5) 출처 : 네이버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323106&cid=40942&categoryId=33054>

- 6)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875578&cid=42645&categoryId=42645>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명화 1001점, 발행일: 2007.08.20.

- 7) 출처: 알라딘 웹사이트

<https://www.aladin.co.kr/>

- 8) 출처: Voyant 웹사이트

<https://voyant-tools.org/>

Reading Worldview in Picture Books with Cultural
Interpretation Methodology
—Focusing on Anthony Browne’s *Piggybook*—

Kim, Hyeon Kyeong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this study, in order to analyze the worldview contained in Anthony Browne’s 『Piggybook』, ‘world-of-the-text’, ‘world-behind-the-text’, and ‘world-in-front-of-the-text’ were analyzed based on Vanhoozer’s cultural interpretation methodology. As a result of the study, in 『Piggybook』, Mr. Piggott’s family was divided into male and female, and expressed in contrast and opposition, and the family did not appear to be in harmony. The Piggott’s family can be seen as prioritizing wealth and the value of their property, and the author’s vague ending suggests that their problems will not be easily resolved. Readers generally enjoyed this book, but it is analyzed that they recognize that the problem in the book is a conflict between a male and female. In conclusion, 『Piggybook』 can be summarized as containing the worldview of consumerism and the worldview of postmodern tribalism. Since picture books contain the author’s beliefs, and the worldview of picture books affects the lives of the readers, readers are required to read the world view of picture books.

Keywords : Piggybook, cultural interpretation method, picture book, world view

투고일 : 2021. 09. 18. / 심사일 : 2021. 10. 05. / 심사완료일 : 2021. 10. 10.

시넷가 반 유아들이 사용하는 갈등 해결 전략

박해미*

【 목 차 】

- I. 서론
- II. 연구방법
 - 1. 연구 장소 및 참여자
 - 2. 참여관찰
 - 3. 자료 분석
 - 4. 이론적 준거-Selman의 대인이해의 구조적 발달모델
- III. 시넷가 반 유아들이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법
 - 1. 0단계 협상전략: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협상
 - 2. 1단계 협상전략: 명령이나 일방적인 협상
 - 3. 2단계 협상전략: 상호적인 교환위주의 협상
 - 1) '물건으로 유인'형
 - 2) '생각해 주는 척'형
 - 3) '은근한 설득'형
 - 4) '차근차근 설명'형
 - 4. 3단계 협상전략: 상호협력적인 협상
 - 1) '기분 좋게 양보'형
- I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 2. 제언

국문초록

본 연구는 실제 놀이상황에서 유아들이 직면하는 갈등상황을 알아보고 각 상황에서 유아들이 사용하는 갈등해결 전략을 탐색하기 위해 실행되었다. 갈등해결 전략을 알

* 경민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coat96@naver.com

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참여관찰법을 사용하였으며, 서울시에 있는 참새 유치원 4세반 유아 30명을 대상으로 6주 동안 총 16회의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과 분석은 동시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유아들의 갈등해결전략을 분석하기 위하여 Selman¹⁾의 대인이해의 구조적 발달모델이론을 준거로 하여 유아들의 수행능력을 범주화하였고, 각 범주에서 나온 시냇가 반 유아들의 다양한 유형의 문제 해결 상황을 분석하였다. 유아들은 협상결과에 동의하거나 혹은 심지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갈등상황을 해결하거나 종료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협상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 갈등, 문제해결전략, 문화기술적 연구

I. 서론

사람들에게 갈등은 흔히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갈등의 상황은 유쾌하지 않은 상황이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갈등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혹 갈등이 발생했다면 빨리 해결이 되거나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Shantz와 Hobart(1989)²⁾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갈등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외면되어 왔으며, 어떤 행동이나 말이 다른 사람에 의해 거부되는 것은 유아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나 교사는 나쁜 것 혹은 옳지 않은 것으로 보며 또래와 갈등을 일으킨 유아에 대해서도 나쁜 아이 혹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또래들과는 항상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 혹은 나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Beaty³⁾도 이와 같은 상황에

1) Selman, R. L.,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Developmental and clinical analysis*, New York: Academic Press, 1980.

2) Shantz, C. U. & Hobart, C. J., "Social conflict and development; Peers and Siblings", In T. J. Bernedts & G. W. Ladd(Eds), *Peer relationship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Wiley, 1989, pp.71-94.

3) Beaty, Lee A., "Effects of paternal absence on male adolescents' peer relations and self-image", In *Adolescence*, 30(120), pp.873+, 1995, Gale OneFile: Health and Medicine,

대하여 교육 현장의 교사들은 갈등을 일으킬만한 물리적 환경이나 상황, 그리고 사람을 사전에 미리 제거함으로써 유아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를 권한다. 교사나 부모들이 갈등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자신들이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많은 교사들과 부모들은 갈등이 단지 자연스럽게 바람처럼 어디론가 사라져 주기만을 기대한다.⁴⁾

그러나 갈등은 어떤 집단의 어떤 구성원들 간이라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다. 유아들 간의 관계에서도 행동하는 것, 믿는 것, 알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일치와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 직면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시도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대인관계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술들을 습득하여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인지 능력 및 감정 조절 능력 등이 발달한다.

Vygotsky⁵⁾는 지각과 의도적 통제를 필요로 하는 자기조절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한 학습의 최적 시기를 4, 5세부터라고 보았으며 발달의 개념을 교육과의 상호작용적 관계 속에서 설명하였다. 발달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은 발달에 선행하여 주어져야 한다. 즉 내면화를 통해 개인의 내적 사고과정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매개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인 교육이 먼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고발달을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사회 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능력이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지식이 내면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정신 과정이며 사회적 관계에 의해 형성된 발달 특성이라고 보았다. 또한 높

link.gale.com/apps/doc/A17856540/HRC?u=anon~cb76c101&sid=googleScholar&xid=afcc6988, 2021. 10. 10. 인출

4) 고인옥,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유아들의 갈등해결 전략과 교사의 역할」, 『유아교육학논집』 제6권 제1호, 한국영유아교육학회, 2002에서 재인용.

5) Vygotsky, L. S.,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은 수준의 사고는 상호작용을 통한 교육적 노력과 함께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데 낮은 수준의 사고가 성장과 더불어 주어진 교육적 상호작용에 의해 높은 수준의 사고로 변형되어 간다는 것이다.

피아제는 또래들과의 논쟁과 의견의 불일치를 통해 유아들은 반복해서 사람들이 자신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놀라게 된다고 하였다. 피아제는 어린이들은 성인들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성인들의 견해를 피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인지적 변화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성인들과의 접촉보다는 또래들과의 접촉을 더욱 가치 있다고 보았다⁶⁾. 그러나 Berk 등 비고스키로부터 영향을 받은 많은 연구들은⁷⁾ 발달 과정에서 갈등과 의견의 불일치보다 참여자들 간에 책임을 나누고 협력과 상호 존중을 보여주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따라서 유아들에게 있어서 갈등이 중요한 학습과 성장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갈등의 결과보다 갈등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관찰을 통해 시냇가 반 유아들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풀어 가는가에 대해 유치원에서의 자유 놀이 시간 동안의 관찰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탐색하게 될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유아의 또래 간 갈등상황 시 대인간 문제해결전략은 어떠한가?

-
- 6) Berk, L. E. & Winsler, A., "Scaffolding Children's Learning: Vygotsk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NAEYC Research into Practice Series, Volume 7, 1995.
 - 7) Forman, E. A., "Peer relationships of learning disabled children: A contextualist perspective", In Learning Disabilities Research, 2(2), 1987, pp.80-90.
; Perlmutter, M. & Margarita, A., "Social Influences on Children's Cognition: State of the Art and Future Directions", In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Volume 22, 1989, pp.89-144.
; Nastasi, K. B., Douglas, H. C., & Battista, T. M., "Social-cognitive interactions, motivation, and cognitive growth in Logo programming and CAI problem-solving environments", I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1), 1990, pp.150-158.
; Tudge, J., "Vygotsky, the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and peer collaboration: Implications for classroom practice", In L. C. Moll (Ed.), *Vygotsky and education: Instructional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 of sociohistorical psyc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p.155-172.

II. 연구방법

1. 연구 장소 및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시 H동에 위치하고 있는 참새 유치원에서 이루어졌다. 참새 유치원의 시냇가 반은 만 4세반으로 남아는 14명, 여아는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임교사 1명, 보조교사 1명이 함께 생활을 한다. 유치원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다.

2. 참여관찰

참여관찰은 참새유치원 시냇가 반에서 약 6주에 걸쳐서 주 3회의 관찰로 총 16회의 관찰을 시행하였다. 관찰은 유아들의 아침 등원 시간부터 하원 전까지의 자유놀이 상황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현장노트와 녹음을 병행하였다. 연구자는 관찰을 하면서 약기로 현장 상황의 특이점과 의견을 적고 후에 녹음상황을 전사할 때 애매한 부분에 대한 사례해석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현장노트의 여백에는 연구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기술 뿐 아니라 관찰자의 느낌, 해석 등 부연하고 싶은 부분을 관찰자의 의견으로 기록하였고 의문점이나 좀 더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찰 중이나 후에 유아에게 비형식적인 면담을 통하여 정보를 보충하였다.

3. 자료 분석

관찰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찰에서 돌아온 후 현장 약기를 읽으면서 분석메모를 작성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자료수집과 분석은 함께 진행되며 오랜 시간을 끝수록 연구자의 관점이 흐려지고 미결된 부분을 해결하는 일이 어려워지므로 분석은 자료수집과 가능한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Taylor와 Bogdan⁸⁾의 지침에 따라 관찰과 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유아들이 갈등을 해결해 가는 상황 기록을 Selman의 대인이해의 구조적 발달모델을 근거로 하여서 유아들의 수행능력을 범주화하였고, 각 범주에서 나온 시냇가 반 유아들의 다양한 유형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범주의 적합성을 재검토하였다.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 이외의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수 1인에게 분석의 적합성을 검증받았으며, 전사본과 연구 결과물의 일부인 ‘유아들의 개인적 특성’에 대해 담임교사에게 보여주고 서면검토를 받아 연구의 신뢰도를 높였다.

4. 이론적 준거-Selman의 대인이해의 구조적 발달모델

Selman⁹⁾(1980)은 대인이해의 구조적 발달모델에서 유아들이 대인간의 갈등상황에서 사용하는 협상 전략을 발달수준에 따라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방법에서 상호협력적인 방법까지의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0단계 협상전략- 의사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며 강제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1단계 협상전략- 명령이나 일방적인 협상을 하는 전략을 말한다. 명령을 하거나 복종의 형태로 나타나며 상호호혜성이 없다.

2단계 협상전략- 상호적인 교환위주의 협상이 이루어진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수용하는 전략이 나타난다.

3단계 협상전략- 상호협력적인 협상이 이루어진다.

8) Taylor, S., & Bogdan, R.,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e search for meanings*, New York: John Wiley, 1984.

9) Selman, R. L.,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Developmental and clinical analysis*, New York: Academic Press, 1980.

Ⅲ. 시냇가 반 유아들의 갈등을 풀어가는 방법

1. 0단계 협상전략: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협상

유아들은 놀이하다가 자기에게 불리해지거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놀이를 중지시키거나 피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유아들은 이러한 상황일 때 놀이 상황을 인식하고 인정하기보다는 놀이를 중지시키거나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게임을 하다가도 자기가 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 피우며 자리를 떠났다.

1. 평엽: 가위 바위 보

잠깐, 한 번 더. 가위 바위 보.

2. 평엽: 너 먼저 해.

3. 중빈: (주사위를 던지자 ‘가을’그림이 나온다)

4. 평엽: 가을이야, 1개 따가.

6. 중빈: (주사위를 던진 후) 오! 가을!

7. 평엽: (평엽이 차례가 되자 주사위를 던지며)

오! 앓 싸!

...중략...

12. 평엽: 내가 더 많이 가져갔어.

13. 중빈: 너 몇 개 있는데?

14. 중빈: (자기가 판 ○그림을 다 펼쳐 놓고 그림을 세어 본다)

15. 평엽: (평엽이도 자기가 판 그림을 다 펼쳐 놓고 세어본다)

나 안 할 거야.

(게임판과 그림을 다 섞어 놓고 다른 곳으로 간다)

“내가 이겼어” (관찰, 1122)

2. 1단계 협상전략: 명령이나 일방적인 협상

어떤 유아들은 상대방을 자신의 방법대로 조종하기 위해 일방적 명령이나 주문을 하였고, 어떤 유아들은 복종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때로는 유아들은 상대 유아의 강한 사회적 힘이나 위협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참거나 상대방의 요구를 더 우선하여 받아들인다.

1. 수빈: 쪽쪽 가라. 빨리 가라~
2. 아이들이 비상 탈출용 미끄럼틀 타기 위해 한 줄로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중략)...

3. 예현이가 윤희를 밀어서 윤희가 바닥에 넘어졌다.
4. 예현: (웃으며) 어~ 미안.
5. 윤희는 눈물을 글썽이다가 소리 없이 운다.

“탈출용 미끄럼타기” (관찰, 1122)

옥상에서 유아들이 대집단으로 모여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대집단이기 때문에 유아들은 길게 줄을 서 있고, 교사의 주의가 모두에게 가기 힘든 상황이었다(2).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흥분 상태에 있던 유아들은 서로 밀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수빈이는 고조된 목소리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고 있는 유아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1). 윤희의 뒤에 서 있던 예현이가 윤희를 강하게 밀어서 넘어뜨리는 상황이 발생했다(3). 윤희가 넘어지는 순간에 예현이는 미안하다고 말하였다(4). 윤희는 예현이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린다(5).

유아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보다 사회적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며 ‘놀이’ 안에서 자신의 요구대로 일방적으로 지시하며 상대방을 제압한다.

블럭 영역에는 성민이와 의진이, 진형이, 창엽이가 있다.

1. 성민: 야, 우리 싸움놀이 할 거다.

나 대장!

(의진이에게) 우리 둘이 대장.

2. 의진: 부대장은 없어?

(의진이는 블록을 주위에 쌓아 성을 만든다)

(진형이, 창엽이에게) 야, 너희들도 집 만들어야지.

3. 성민: 집은 쫄병이 만드는 거지.

4. 의진: 아, 맞아.

(성민이와 의진이는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진형이, 창엽이는 집을 쌓는다)

“대장과 쫄병” (관찰노트, 1118b)

성민이와 의진이는 자신들의 역할을 ‘대장’으로 정하고(1) 옆에서 있던 진형이와 창엽이는 쫄병(3)이라고 명명한다. 의진이는 진형이와 창엽이에게 블록으로 쌓탑기를 시킨다. 성민이가 쫄병이 집을 짓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계급’에 따른 역할의 의미를 알고 있다. 두 아이는 성을 쌓고 있는 동안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면서 유아들을 감독한다. 놀이 전체가 ‘지시’와 ‘명령’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우와 규태는 은물영역에 와서 제 6은물을 가지고 놀이를 시작하려고 한다.)

1. 현우: 야! 내가 골라줄게, 멋지게 앉아있어.

(현우는 은물영역에 있는 남아들에게 이야기 한다.)

2. 현우: 엉덩이 붙이고...

(아이들 모두가 바른 자세로 앉는다)

3. 현우: 야, 순홍이 너는 안줘. 자, 그럼 이렇게 너, 너, 너(아이들을 아무렇게나 찍으며)

“너, 너, 너” (관찰, 1115)

현우와 규태는 놀이를 시작하기 위해 편을 짜려고 한다. 두 아이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편을 나누기보다는 일방적인 지시로 편을 나누고 있었다. 현우는(1, 2, 3) ‘멋지게 앉아 있어, 엉덩이를 붙이고, 너, 너, 너!’하고 지시하였고 또래 유아들은 현우의 일방적인 지시에 갈등 상황 없이 오히려 현우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 멋지게 앉으려고 하였다.

3. 2단계 협상전략; 상호적인 교환위주의 협상

유아들은 때로는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심리적 및 행동적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물건으로 유혹하거나 생각해 주는 척하며 다가오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구를 숨기기도 하며 은근한 애교로 설득하거나 논리적인 설득의 방법도 사용한다.

1) ‘물건으로 유인’형

‘물건으로 꼬시기’형은 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관심 끌기를 시도한다. 유아들은 물품에 현혹되어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실패하기도 한다.

(은물영역에서 현우와 규태가 구조물을 쌓으면서 성을 만들고 성에 쳐들어가는 놀이를 하고 있다.)

1. 평엽이가 현우에게 와서 “나도 시켜줘”라고 말한다.
2. 현우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3. 평엽이는 다른 곳에 갔다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
“이거 마법 개구리!”하면서 색종이 접은 것을 현우에게 내민다.
4. 현우: 알았어, 너두 시켜 줄게.

“조약돌 반에서” (관찰노트 1115)

평업이는 현우와 규태가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놀이에 시켜달라고 말하지만(1) 현우는 평업이의 말을 무시하고 들은 척 하지 않는다(2). 놀이에 참여하고 싶은 평업이의 욕구가 현우에 의해서 좌절되는 갈등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업이는 색종이가 있는 영역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더니 다시 현우에게 돌아와(3) “이거 마법 개구리”하면서 현우에게 준다. 현우는 그제서야 평업이의 말에 관심을 갖고 반응을 보이며 평업이를 놀이에 참여 시켜 준다(5). 평업이는 자신이 만든 물건을 통해서 현우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

2) ‘생각해 주는 척’형

‘생각해 주는 척’형은 남을 생각해 주는 척하지만 실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잠시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끌고 간다. 아래 사례에서 보듯이 영서를 ‘생각해 주는 척’하며 접근하지만 실은 ‘편지’를 쓰는 일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었다.

1. 영서: (수빈이가 영서가 있는 곳으로 온다)
왜, 다 그렸어?
2. 수빈: 응, 내가 글씨 써 줄까?
3. 영서: 아니.
4. 윤경: (윤경이는 하트 종이에 ‘예빈아, 사랑해, 축하해’라고 쓴다)
5. 수빈: (지켜 보던 수빈이는) 야, 말이 연결 되지가 안잖아.
내가 도와줄게.
6. 영서: 아니, 됐어.
7. 수빈: 나 앞머리 예쁘게 그릴 수 있다.(자랑하는 말투로)
내가 그려 줄까?
8. 영서: 아니, 안 그려.
9. 수빈: 내 손바닥에 뭐 써야지. 나, 너한테 편지 쓰는 거다!
10. 수빈: (수빈이는 자기 손바닥에 남색 싸인펜으로 무언가를 그린다(쓴

다)) 아, 잘못 그렸다. (바닥에 침을 묻혀 다른 손으로 닦는다)

11. 수빈: 나 여기다 그림 그려야지. (자기 손등에다 그림을 그린다)

...(중략)...

12. (하얀 종이에 ‘영서에게’라고 쓴다. 이어서 글을 쓰다가) 어, 글씨가
틀렸네. 다시 써야지.

“도와줄게” (관찰노트, 1118a)

수빈이는 영서에게 말이 연결되지 않으니 자신이 도와준다고 이야기
하지만(5) 수빈이는 거절당한다(6). 다시 자기는 예쁘게 앞머리를 그릴
수 있다고 자랑하는 말투로 대신 그려 준다고 말하지만(7) 역시 거절당
한다(8). 수빈이는 자신도 편지 쓰는 일을 하고 싶은데 자신의 뜻이 받아
들여지지 않자 결국 원래 하고 싶었던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다.

3) ‘은근한 설득’형

유아들도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1. 석재와 성민이가 은물영역에서 구조물을 쌓으며 놀이하고 있다.
2. 석재: 우와~ 대포 발사~ 발사~ 부부분.
3. 석재는 규태의 구조물을 부수었다.
4. 규태: 야~ 나 집 만들거야.
5. 집을 만들고 있는 것이지, 전쟁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부수지 말
라는 거야
6. 다른 영역에 있던 평엽이가 와서 “나도 시켜줘”라고 부탁한다.
7. 규태: 안돼!
8. 성민: 시켜줘~ 시켜줘~

“시켜줘~”(관찰, 2004. 11. 15.)

석재와 성민이는 쌓기놀이 영역에서 구조물을 만들었다(1, 2). 석재는 규태가 열심히 만든 구조물을 부수었지만(3) 규태는 ‘자신은 집을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이 하는 일은 전쟁놀이가 아님을 확인시킨다(4). 다른 영역에 있던 평엽이가 새로 와서 시켜달라고 했을 때, 규태는 안된다고 하였지만(7), 자신의 놀이 단짝인 평엽이를 놀이팀에 끼워주기 위해 성민이는 ‘시켜줘~ 시켜줘~’ 라는 애교 섞인 말로 규태를 설득하고 있다(8). 설득이란 자신의 의견이나 제안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인데, 성민이는 애교 섞인 은근한 설득 전략을 사용하였다.

4) ‘차근차근 설명’형

반박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해 줌으로써 이해시키는 것이다. 아래 사례 역시 놀이 도중 그만두고 간 규태가 다시 돌아오자 수인이는 규태에게 블록이 없어서 게임을 못하는 것이라고 규태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고 블록을 나누어 주어 규태가 갈등을 겪지 않고 놀이에 개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유아들도 ‘차근차근 설명유도’하는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한다.

수인, 종민, 규태, 현우가 넷이서 조작영역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 흙이 파 있는 판 위에 정육면체의 블록을 끼어 넣는 교구를 사용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판 위에 블록을 쌓는 게임을 한다.

...(중략)...

1. 3번씩 돌아가면서 블록을 쌓았다.
2. 두 명씩 편을 나누어서 게임을 하기 위해 편을 나누는 방법으로 ‘데넌찌’를 시도하였으나 편이 나누어지지 않았다.

...(중략)...

3. 현우, 종민, 규태, 수인의 순서로 블록을 쌓는다.
4. 규태가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블록을 손으로 쳐서 무너뜨렸다.
5. 현우: 너 그럴려면 빼!
6. 규태: 알았어(일어서서 다른 곳으로 간다).
7. 규태, 종민: (규태는 다른 곳으로 가고 남아있는 종민이가 규태 앞에 놓여있던 블록 중 몇 개를 가져간다.)
8. 현우와 수인이라도 조금씩 자기 앞으로 가져간다.
9. 규태: (잠시 후에 규태가 다시 돌아 온다.)
10. 수인: 너 (블록)없어서 못해!
11. 잠시 후에 수인이는 자기의 블록 중에서 3개를 규태에게 돌려준다.
“테넌찌!” (관찰, 1122)

수인, 종민, 규태, 현우는 같이 블록을 쌓아가는 중 규태는 상대 친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행동을 함으로써 언어적 경고를 듣는다(5). 그러한 상황에서 규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보다는 놀이 도중에 나와 버린다(6). 나머지 유아들은 규태의 행동에 화를 내지 않고 다시 놀이를 한다. 규태가 있던 자리에 종민이는 친구들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그 자리를 메꾸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놀이가 진행된다(7). 잠시 후 다시 규태가 놀이에 개입하려 하자 수인이는 화를 내거나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블럭’이 없기 때문에 놀이를 할 수 없음을 차근차근 설명한 후(10) 규태에게 블록을 돌려준다(11). 규태는 수인이의 말에 수궁을 하며 수인이와 다른 아이들이 주는 블록으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다시 놀이를 진행해 나간다.

4. 3단계 협상전략; 상호협력적인 협상

유아의 또래관계는 평등적 관계이며, 자기중심적 행동과 태도를 현실에 맞게 더 성숙한 형태로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관계로써,¹⁰⁾ 공감

및 상호이해가 또래관계의 기본이 된다.¹¹⁾ 실증연구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견해를 추론할 수 있는 역할조망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며,¹²⁾ 지지, 이해, 수용이 또래관계 형성의 주요 요소임¹³⁾을 밝히고 있다.¹⁴⁾

1) ‘기분 좋게 양보’형

유아들은 자신의 소망과 상대방의 소망을 함께 변화시키기 위하여 성인과 같이 세련되지는 않지만 서로 양보하는 상호 호혜적인 전략도 사용한다.

“기분 좋게 양보”형은 유아 스스로 양보하지는 않았으나 또래의 중재에 의해 기분 좋게 양보하기도 했다. 유아들은 상대방에게 양보하기를 힘들어한다. 그러나 말에 수긍하며 성민이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는 세진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언어적 중재를 하는 두 유아들은 ‘다음엔 너가 앉으라고’이야기 해 줌으로써 세진이가 기분 좋게 양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1. 담임: 자 이제 영어 할 건데요. 스티커 때문에 방해되니까 옷에 붙이거나 정리하고 오세요. (성민이는 바이올린을 정리하고 빈자리를 찾는다. 유아들이 모여 앉는 자리 중 뒤는 벽에 고정된 의자로 되어 있다. 성민이는 의자에 앉는다)

10) 정경미, 「아동의 역할조망과 우정개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11) Bigelow, B. J., Tesson, G., & Lewko, J. H., *Learning the rules: The anatomy of children's relationships*, Guilford Press, 1996.

12) Damon, W., “The Development of Justice and Self-Interest during Childhood”, In Lerner, M. J., Lerner, S. C. (eds), *The Justice Motive in Social Behavior, Critical Issues in Social Justice*, Springer, Boston, MA, 1981.

13) Lowenthal, B., Piaget's Preoperational Stage of Development and Applications for Special Preschoolers, 1975, ED116438.

14) 정현희, 오미경,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또래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4), 1999.

2. 세진: 야, 김성민, 여기 내 자리야, 빨리 일어나.
3. 성민: (세진이랑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다.)
4. 형철: 성민이가 먼저 앉았으니까 이제 성민이 자리지.

오늘은 성민이 여기 앉으라고 해.

“성민이의 바이올린 연주 후” (관찰, 1028)

세진이가 정리하는 동안 성민이가 세진이 자리에 앉는다(1). 세진이는 자기 자리에 성민이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라고 하자(2) 형철이는 먼저 앉았으니까 성민이 자리라고 하며 성민이가 그냥 앉을 수 있도록 양보하기를 권유한다(4). 세진이는 아이들의 말대로 다른 자리에 가서 앉았고 아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진이는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기분 좋게 양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세진이가 끝까지 자기 자리임을 주장하였다면 세진이와 성민이 사이에 갈등 상황이 일어날 수 있었지만 형철이와 석중이의 언어적 중재로 세진이는 기분 좋게 양보할 수 있었다. 유아들도 때로는 언어적인 중재 방법을 사용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기도 한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만 4세 시냇가 반 유아들의 갈등상황에서의 문제 해결 수행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관찰 방법을 사용하여 시냇가 반 유아들이 놀이나 활동 상황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들은 놀이를 하다가 자기에게 불리해 지거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놀이를 중지시키거나 피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유아들은 이러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놀이 상황을 인식하고 인정하기 보다는 자기

의 불리함을 놀이 중지 또는 회피로 무마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게임을 하다가도 자기가 져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고집피우며 자리를 뜨는 모습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많은 놀이경험과 상호작용의 기회가 유아들에게 상대방의 기분을 조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수빈이는 많은 갈등 상황 가운데 있던 유아로 관찰되었다. 관찰 결과 수빈이는 언어적, 관계적, 공격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아였다. 수빈이와 같은 유아에게는 교사의 주의 깊은 관찰과 개입을 통해 정서를 조절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인지적·정서적 지원이 요구된다. 반면 어떤 유아는 친구들보다 많은 힘을 행사한다. ‘놀이’에 끼여주는 대신 자신의 요구를 지시하거나 명령하기도 하였다.

박성주와 홍용희 (2002)¹⁵⁾에 의하면 17명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행동에 적응시켜 본 결과, 지배를 위한 행동으로 위협을 주는 몸짓, 신체적 공격, 그리고 소유물/자리에 대한 싸움이 있었고, 도움청하기, 복종, 소유물/자리 뺏기기, 무반응, 맞서기는 지배에 맞서는 대응 행동이 있었다고 한다. 시냇가반 유아들의 경우에도 힘을 가진 유아와 힘을 따르는 유아의 반응이 나타났다. 어떤 유아들은 상대의 강한 사회적 힘이나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이 경우 대부분의 유아들은 참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유아교육기관에서 힘이나 위협을 사용하는 유아나 위축되어 있는 유아 모두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위축되어 있는 유아들은 이후의 활동에서도 소극적인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아들에게는 자신의 생각을 자신감을 갖고 표현하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어떤 유아들은 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관심 끌기를 시도한다. 물품을 제공한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물건은 유아들의 호기

15) 박성주, 홍용희, 「유아들의 사회적 힘의 부정적 사용 양상 및 특성」, 『아동학회지』 23(5), 2002, pp.105-121.

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적절한 행동과 반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가 나타났다.

넷째, 유아들도 때로는 기분 좋게 자신의 요구를 포기하고 양보하기도 한다. 이 경우 특히 언어적 중재를 하는 또래를 통해 더 평화롭게 해결되기도 하였다. 유아들의 발달 특성상 스스로 양보하는 경우보다 친구들의 중재를 통해 양보하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났다.

유아는 교사의 모습을 보고 긍정적인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으므로 올바른 모델링을 보여주고, 유아들에게 집단 게임이나 그룹게임과 같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양한 놀이 전략(규칙, 방법) 수립 경험과 문제 해결 경험으로 유아들의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는 특정 참새 유치원의 시냇가반에 관한 이야기이므로 연구의 결과를 보편화하는데 무리가 있다. 본 연구는 시냇가 반의 특수한 교실 문화에 대한 이해와 유아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 참고할 때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한정된 관찰 시간과 기간 또한 제한점임을 밝힌다.

이러한 관찰과 분석을 기반으로 시냇가 반의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유아의 갈등 상황 해결 방향 유형에 따른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였을 때 변화양상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고인옥,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유아들의 갈등해결 전략과 교사의 역할」, 『유아교육학논집』 6(1), 2002.
- 박성주, 홍용희, 「유아들의 사회적 힘의 부정적 사용 양상 및 특성」, 『아동학회지』 23(5), 2002.
- 정경미, 「아동의 역할조망과 우정개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정현희, 오미경,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또래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4), 1999.
- Beaty, Lee A, “Effects of paternal absence on male adolescents’ peer relations and self-image”, In *Adolescence*, 30(120), 1995, Gale OneFile: Health and Medicine, link.gale.com/apps/doc/A17856540/HRCA?u=anon-cb76c101&sid=googleScholar&xid=afcc6988, 2021. 10. 10. 인출
- Berk, L. E. & Winsler, A., “Scaffolding Children’s Learning: Vygotsk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NAEYC Research into Practice Series*, Volume 7, 1995.
- Bigelow, B. J., Tesson, G., & Lewko, J. H., *Learning the rules: The anatomy of children’s relationships*, Guilford Press, 1996.
- Damon, W, “The Development of Justice and Self-Interest during Childhood”, In Lerner, M. J., Lerner, S. C. (eds), *The Justice Motive in Social Behavior*, Critical Issues in Social Justice, Springer, Boston, MA, 1981.
- Forman, E. A, “Peer relationships of learning disabled children: A contextualist perspective”, In *Learning Disabilities Research*, 2(2), 1987.
- Lowenthal, B., Piaget’s Preoperational Stage of Development and Applications for Special Preschoolers, 1975, ED116438.
- Nastasi, K. B., Douglas, H. C., & Battista, T. M., “Social-cognitive interactions, motivation, and cognitive growth in Logo programming and CAI problem-solving environments”, I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1), 1990.
- Perlmutter, M. & Margarita, A., “Social Influences on Children’s Cognition: State of the Art and Future Directions”, In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Volume 22, 1989.
- Selman, R. L.,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Developmental and clinical analysis*, New York: Academic Press, 1980.
- Shantz, C. U. & Hobart, C. J, “Social conflict and development; Peers and

- Siblings”, In T. J. Berned & G. W. Ladd(Eds), Peer relationship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Wiley, 1989.
- Tudge, J., “Vygotsky, the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and peer collaboration: Implications for classroom practice”, In L. C. Moll (Ed.), Vygotsky and education: Instructional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 of sociohistorical psyc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Taylor, S., & Bogdan, R.,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e search for meanings, New York: John Wiley, 1984.
- Vygotsky, L. S.,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England, 1978.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used by Children in the Stream Class

Park, Hae Mee
(Kyungmi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quire how children react and what strategies they use in conflicts to resolve the situations. To collect data, we used participatory observation method at a kindergarten in Seoul, Korea. The 30 children ages 4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they were observed total 16 times during 6 weeks.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were conducted concurrently. Selman(1980)'s the structural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was used as a theoretical framework to analyze data. We found that children in conflicts use different behavioral procedures in order to solve or put an end to controversies either in agreement or in dissent.

Keywords : conflict, problem-solving strategy, cultural and technical research

투고일 : 2021. 09. 20. / 심사일 : 2021. 10. 05. / 심사완료일 : 2021. 10. 10.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음악프로그램 개발 연구

—만 5세를 대상으로—

윤수진*

【 목 차 】

- I. 여는 말
- II.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음악프로그램 개발 절차
 - 1. 프로그램 구성 절차
 - 2. 문헌고찰
 - 3. 그림책 선정
- III.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음악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 1.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 2.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방법
 - 3. 교육과정의 평가방법
 - 1) 유아를 위한 평가
 - 2) 교사를 위한 평가
 - 3) 교수·학습 방법 평가
- IV.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음악프로그램 개발
 - 1. 음악프로그램 개발
 - 2.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음악프로그램 내용 타당도 검증
- V.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만 5세아를 대상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음악프로그램을 개발 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유아음악프로그램은 유아들에게 있어서 친근한 매체인 그림책과 음악을 서로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다양한 음악적 감성과 표현력을 기르고 나

* 송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angela0515@hanmail.net

아가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음악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핵심어 : 그림책, 음악프로그램

I. 여는 말

본 연구는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음악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림책은 음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림책을 읽고 순수하게 일어나는 심미감을 음악으로 다시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활동은 유아의 문학적·음악적 상상력을 결합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유아의 실제 삶 속에서 예술적 표현활동을 즐겨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그림책은 음악교육을 위한 좋은 교육 매체로 활용되고 있다. 유아들에게 있어서 친근한 매체인 그림책과 음악을 서로 통합하여 전개될 수 있다. 즉, 그림책과 음악은 각 영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타 영역과 적극적으로 통합하여 다양한 음악적 감성과 표현력을 기르고 나아가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신장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그림책에 줄거리와 사건이 존재하듯이 음악에도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그림책과 음악에 담긴 이야기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림책의 이야기가 구체적인 반면, 음악의 이야기는 추상적인 형태를 나타낸다. 그러나 그림책의 구체적인 이야기와 음악의 추상적인 이야기를 통합하면 음악에 담긴 추상적 이야기를 다양한 의미로 해석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또한 다양한 표현활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¹⁾

Mandler과 Johnson에 의하면 그림책에 나타난 반복, 규칙과 리듬이 있듯이 음악에도 전체적인 음악적 흐름이나 반복되는 규칙과 리듬이 있다. 유아는 그림책에 있는 리듬과 반복을 즐기며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

1) 이숙희, 「통합적 유아음악교육이 유아의 음악적 흥미와 음악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Vol. 12 No.1, 미래유아교육학회, 2010, 34쪽.

는 이야기에 많은 흥미를 보인다. 이러한 특징들은 내용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다.²⁾ 유아는 그림책의 내용을 표상하는 활동을 통해 그림책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특징과 역할, 사건의 변화와 줄거리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음악이라는 표상양식에 맞도록 그림책의 내용을 변환하거나 재구성하면서 다양한 표상양식과 의사소통방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유아음악교육을 위한 교수매체로서 그림책을 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림책과 음악이 연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책과 음악이 가지고 있는 연계성을 살펴보면 등장인물은 소리와 음색, 분위기는 박자, 멜로디, 패턴은 리듬, 속도는 빠르기, 소리효과는 셈여림, 크기 높낮이는 음높이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책과 음악적 요소는 첫째, 그림책의 등장인물의 특징은 음악적 요소인 소리와 음색을 통해 그려낼 수 있다.³⁾ 유아는 음에 색깔이 있다는 것을 개념화하여 사람의 목소리, 악기 소리를 변별하여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다. 둘째, 줄거리, 분위기와 의사전달은 멜로디에 노랫말을 지어 노래로 부르거나 주변 환경과 자연의 소리를 악기연주를 통해 표현할 수 있다. 셋째, 그림과 이야기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움직임, 의성어, 의태어의 리듬감, 문장 패턴 등은 음악적 요소인 리듬과 빠르기로 해석하여 악기연주와 신체 표현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넷째, 그림책에 나타나는 소리효과, 감정, 공간의 크기와 높낮이는 셈여림과 음의 높낮이로 해석하여 노래부르기와 악기 연주하기를 통해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그림책과 음악은 표현과 적용방식이 유사하여 많은 특성을 공유하며 서로 연관된 의사소통 체계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그림책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음악적 언어는 음악학습에 사용할 수 있다. 음악을 가르치는데 있어 그림책을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

2) 임영실, 「덧밭가꾸기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만족지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양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23쪽.

3) Bayless, K. M. & Ramsey, M. E. 『Music : A Way of life for the young child(4th ed.)』, Prentice Hall College Div, 1991.

은 조화이며 유아는 쉽게 다양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그림책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다양한 음악활동은 유아의 음악적 동기와 자발적인 표현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유아에게 그림책과 음악적 지식을 접목하여 다양한 음악활동을 실제로 경험해 봄으로써, 음악적 요소를 이해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음악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음악프로그램의 교육철학과 방향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음악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연구문제 3.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음악프로그램의 운영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Ⅱ.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음악프로그램 개발 절차

1. 프로그램 구성 절차

프로그램의 구성 절차를 살펴보면 이와 같다.

첫 번째로 기초연구 및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음악프로그램 1차 개발을 위해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분석하고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두 번째로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음악프로그램 2차 개발을 위해 현장 전문가 5명과 유아교육 전문가 3명의 조언을 참고하여 현황을 조사하였다. 세 번째로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음악프로그램 예비 처치를 하기 위해 만 5세 유아 20명에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수정한 부분은 활동과의 균형적인 부분, 교사의 질문법과 교수법에 관한 것이었다. 네

번째로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음악프로그램 3차 개발 확정을 위해 현장 전문가 5명과 유아교육 전문가 3명에게 프로그램을 검증받았다.

2. 문헌고찰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음악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이론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 분석을 통해서 시사점을 도래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음악프로그램과 관련된 학위논문, 정기간행문, 단행본, 각종 학회 자료를 검색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해 음악 프로그램 관련 연구물을 검색하였다.

3. 그림책 선정

김태영⁴⁾의 연구에서 선정한 그림책을 현장 전문가 5명과 유아교육 전문가 3명의 조언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그림책은 이와 같다.

[표 1] 선정된 그림책

제목(출판연도)	저자	출판사
종이 봉지공주(1998)	로버트 문치	비룡소
숲속으로(2004)	앤서니 브라운	베를북
수박 수영장(2015)	한담희	창비
두더지의 소원(2017)	김상근	사계절
백 번째 양 두두(2017)	박준희	책고래
최고 멋진 날(2013)	고정순	해그림

4) 김태영, 「만 3-5세 유아의 그림책 해석 능력에 대한 탐구」, 『열린유아교육연구』 제24권 2호, 한국열린교육학회, 2019, 23쪽.

Ⅲ.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음악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본 프로그램은 Tyler 교육과정 구성 체계에 기초하여 음악프로그램의 목적 과 목표 설정, 교육내용 조직, 교수전략과 교수원리를 적용하여 교수·학습 단계로 구성하였으며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이전에 알고 있던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제시 된다. 유아교육의 내용 구성 원칙에 근거하여 유아 음악프로그램을 구성 하였다.

1.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음악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음악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미적표현이 발달하고 창의성을 높이고 유아의 자율성이 발달하여 스스로 학습과정을 성찰하도록 하고자 한다.
- (2)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음악프로그램 활동을 하면서 유아 스스로 판단하고 지각하여 새롭고 발전된 표현방식으로 실천하고 의사결정하도록 한다. 그 과정에서 유아가 다양한 문화권 속에서 산물을 창조해 낼 수 있는 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갖게 하고자 한다.
- (3)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음악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감수성과 심미감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방법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음악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아들이 처음 접하는 문학적 매체는 그림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아는 그림책을 읽으며 문학의 즐거움과 재미를 경험한다. 그림책이란 화가와 작가, 편집자가 함께 만들어낸 이야기와 그림이 있는

책이다. 이야기가 담겨진 그림책은 그림과 글이 어느 한 부분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미지의 완성을 위해 그림과 글이 서로 다른 매개체로 표현을 하여 의미있는 이야기 세계를 창조해 낸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유아에게 있어 그림책은 친숙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최초의 예술작품이며, 글과 그림의 텍스트가 독특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유아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도구이다.⁵⁾ 유아는 그림책 속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확산적 사고를 하고 자신이 깨달은 지식을 또 다른 상황에 적용해 보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른 방법과 통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낸다.⁶⁾ 또한 그림책은 현실에서 볼 수 없는 흥미진진한 환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상상력을 자극하고 새롭고 독특한 생각을 다양하게 이끌어 창의성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Jalongo에 의하면 그림책은 유아들이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그림과 글을 매개체로 전달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지적 발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림책의 가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들은 문학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한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연관시켜 그들의 실생활에 대한 새로운 정신과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좋은 문학작품은 유아들에게 밝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길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⁸⁾ 둘째,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유아는 어른들이 들려주는 그림책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야기의 순서를

5) 현은자 외,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연구』 제24권 5호, 한국유아교육학회, 2014, 45쪽.

6) 박선희, 「전통놀이를 활용한 통합적 유아교육활동 지도법 연구 : 율놀이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79쪽.

7) 김수영,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2권 3호, 2016, 20쪽.

8) 장영희 외,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유아교육 혁신」, 『이화교육총서』 제2003권, 2호,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2003, 59쪽.

구성한다. 또한 새로운 단어를 접하면서 어휘력이 신장되고, 책이 가지고 있는 구조들도 알 수 있게 된다⁹⁾ 셋째,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준다. 즉 그림책을 통하여 상대방의 가치를 알게 되며 성역할, 사회규범, 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 등을 익혀나간다. 또한 유아에게 제시하기 어려운 사회적 가치관을 제시하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유아들은 그림책을 통하여 자신의 주위환경을 넘어 바깥세상에 대해 알게 되고,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학습하게 된다. 그리고 유아들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무엇인지도 이해하게 되며 성인이 되었을 때의 역할도 학습한다.¹⁰⁾ 넷째, 정서생활을 풍요롭게 한다. 유아는 예술적 감흥을 체험하고 그림책의 주인공과 정서적 경험을 하게 되어, 정서적 안정감과 심미감을 발달시키게 된다.¹¹⁾

Glazer는 다양한 문학 접근으로, 문학과 미술, 문학과 음악, 문학과 동작의 통합 활동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박선희¹²⁾는 그림책을 통해 유아의 상상력을 보충하고 개발하여 미술과 예술을 간접적으로 가르칠 수 있으며, 유아는 이야기를 경험으로써 이야기 문법이나 구조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고 문학 감상과 예술 감상의 확장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3. 교육과정의 평가방법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음악프로그램의 평가는 유아의 평가와 교사의 평가로 구분된다. 교사의 자기 평가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교수 방법에

-
- 9) 김덕희, 「그림상징에 대한 유아의 표상능력과 이해능력 발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101쪽.
 - 10) 김경희, 「개념적 접근법에 의한 음악감상이 유아의 음감과 리듬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20쪽.
 - 11) 이상금, 「역할놀이를 통한 집단상답이 유아의 조망수용능력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61쪽.
 - 12) 박선희, 「전통놀이를 활용한 통합적 유아교육활동 지도법 연구 : 윷놀이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38쪽.

대해 평가가 이루어지며 유아에 대한 평가는 유아의 참여 태도, 이해 정도, 만족도 등이 평가된다. 교사의 자기 평가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준비하고 실행한 수업이 유아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평가한다.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수업 관찰 자료에 대한 분석, 수업에 대한 반성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평가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고 그 다음 활동에 반영한다. 연구의 평가는 교실 상황에서 교육계획, 교수·학습 방법, 유아의 활동 상태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1) 유아를 위한 평가

- 첫째, 유아가 음악 프로그램에 관심과 흥미를 갖는가?
- 둘째, 유아가 음악 프로그램을 골고루 경험했는가?
- 셋째, 유아가 음악 프로그램이 전개되는 절차를 이해하는가?
- 넷째, 유아가 음악 프로그램의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는가?

2) 교사를 위한 평가

- 첫째, 프로그램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였는가?
- 둘째, 유아 음악 프로그램은 유아들의 발달단계에 적합했는가?
- 셋째, 유아가 음악 프로그램 내용 간에는 균형을 이루었는가?

3) 교수·학습 방법 평가

- 첫째, 다양한 선택의 기회와 탐색을 제공했는가?
- 둘째, 교수·학습방법은 적절했는가?
- 셋째, 구체적 자료를 활용했는가?
- 넷째, 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게 지도하였는가?
- 다섯째, 유아 음악 프로그램 과정에서 융통성을 보였는가?

이런 평가는 순환적 의미를 지니며 연구자와 교사가 꾸준히 협의하여

수정보완하면서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또한 유아 음악 프로그램에서 평가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겠다.

IV.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음악프로그램 개발

1. 음악프로그램 개발

음악 영역의 하위요소별 회기차시는 다음과 같다.

[표 2] 그림책을 활용한 음악영역 하위요소별 회기차시

회기 날짜	1(10.4)	2(10.6)	3(10.8)	4(10.11)	5(10.13)	6(10.15)	7(10.18)
음악 요소	리듬 (박자)	가락 (고저)	리듬 (리듬 패턴)	음색 (음악적 소리)	가락 (정지 생략)	음색 (비음악 적 소리)	가락 (음흐름)
그림책	두더지의 소원		종이 봉지공주			백 번째 양 두두	
	8(10.20)	9(10.22)	10 (10.25)	11 (10.27)	12 (10.29)	13 (11.1)	14 (11.3)
	형식 (반복)	조직 (탄성)	표현의 질 (빠르기)	형식 (대조)	표현의 질 (셈여림)	조직 (화성)	표현의 질(변화 하기)
	숲속으로		수박 수영장			최고 멋진 날	

2.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음악프로그램 내용 타당도 검증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음악프로그램은 유아교육 현장 경험이 5년 이상 된 유아교육전문가 3인, 교사 2인에게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이는 개발한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을 위해 개선할 점과 고려할 점들을 발견하기 위해서였다. 연구자는 내용 타당도 검증 시 ‘매우 그렇다’(4점), ‘그렇

다’(3점), ‘아니다’(2점), ‘전혀 아니다’(1점)의 4점 평정 점수로 답변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내용 타당도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그림책을 활용한 음악영역 하위요소별 회기차시

번호	내용	평정점수
1	프로그램의 개념, 목적과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이 유아 음악 활동 이론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62
2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내용이 유아의 발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55
3	유아교육 현장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31
4	프로그램 내용이 유아의 흥미를 유발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까?	3.80
전체		3.57

전체 3.57 평균점으로 유아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임을 검증 받았다.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음악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다.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음악프로그램 구성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기초연구 및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음악프로그램 1차 개발을 위해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분석하고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두 번째로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음악프로그램 2차 개발을 위해 현장 전문가 5명과 유아교육 전문가 3명의 조언을 참고하여 현황을 조사하였다. 세 번째로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음악프로그램 예비 처치를 위해 만 5세 유아 20명에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수정한 내용은 활동과의 균형적인 부분, 교사의 질문법과 교수법에 관한 것이었다. 네 번째로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음악프로그램 3차 개발 확정을 위해 현장 전문

가 5명과 유아교육 전문가 3명에게 프로그램을 검증받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을 기초로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음악프로그램은 유아가 Gardner의 교육이론에 기초한 음악 활동을 통해 심미감이 발달하고 창의성이 높아지며 유아가 자율적으로 학습과정을 성찰하도록 한다. 또한 유아가 스스로 의사 결정하고 발달된 표현방식으로 실천하도록 하며 다양한 문화권 속에서 산물을 창조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음악프로그램을 통해 내면의 감성을 표현하고 심미감을 길러주며 감수성을 키우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음악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음악을 가르치는데 있어 그림책을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조화이며 유아는 쉽게 다양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그림책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다양한 음악활동은 유아의 음악적 동기와 자발적인 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유아에게 그림책과 음악적 지식을 접목하여 다양한 음악활동을 실제로 경험해 봄으로써, 음악적 요소를 이해하게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셋째, 본 음악 프로그램의 평가는 유아의 평가와 교사의 평가로 구분하였다. 교사의 유아에 대한 평가는 음악 활동에 대한 유아들의 참여 태도, 이해 정도, 만족도 등이 평가되었고 자기 평가로는 활동과 교수 방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예비처치만을 실시하여 유아음악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한 실험처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만 5세아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다른 연령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 김경희, 「개념적 접근법에 의한 음악감상이 유아의 음감과 리듬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 김덕희, 「그림상징에 대한 유아의 표상능력과 이해능력 발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 김수영,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2권3호, 2016.
- 김태영, 「만 3-5세 유아의 그림책 해석 능력에 대한 탐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4(2), 2019.
- 박선희, 「전통놀이를 활용한 통합적 유아교육활동 지도법 연구 : 율놀이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 이상금, 「역할놀이를 통한 집단상담이 유아의 조망수용능력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이숙희, 「통합적 유아음악교육이 유아의 음악적 흥미와 음악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12권1호 미래유아교육학회, 2010.
- 임영실, 「덧밭가꾸기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만족지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양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장영희 외,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유아교육 혁신」, 『이화교육총서』 제2003권2호,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2003.
- 현은자 외,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연구』 제24권5호, 한국유아교육학회, 2014.
- Bayless, K. M. & Ramsey, M. E., *Music : A Way of life for the young child(4th ed.)*, Columbus, OH: Merrill Publishing, 199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fant Music Programs Using Picture Books

Yoon, Soo Jin
(Songw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infant music program using picture books for 5-year-olds. In this study, the infant music program was organized by integrating picture books and music, which are familiar media for infants. It was intended to help develop various musical sensibilities and expressive skills and further enhance the basic ability to enjoy music. Therefore, an infant music program using picture books was developed.

The results of this study through the program composition procedure are as follows. First, in this study, objectives and goals were set based on literature review. The music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allows infants to increase creativity through artistic activities based on Gardner's educational theory, develop aesthetic expressions by comparing their own and others, develop observation, analysis, interpretation, and judgment skills, and reflect on the learning process themselves. Second, in this study, an infant music program using picture books was developed. Using picture books in teaching music is a natural harmony, and infants can easily understand various meanings. Third, the evaluation of this music program was divided into teacher evaluation and infant evaluation.

Keywords : picture book, music program

투고일 : 2021. 09. 14. / 심사일 : 2021. 10. 04. / 심사완료일 : 2021. 10. 10.

그림책과 멀티미디어 동화를 활용한 독서교육에서 유아의 반응연구 -언어적 반응과 비언어적 반응을 중심으로-

윤지아*

【 목 차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 문제
- II. 본론
 - 1. 이론적 배경
 - 1) 그림책
 - 2) 멀티미디어 동화
 - 2.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 2) 연구 도구
 - 3) 연구 절차
 - 4) 연구 분석
- III.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과 멀티미디어 그림책에 대한 영유아의 반응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두 매체를 비교해 유아 독서교육에 적합한 매체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림책을 읽는 활동은 읽어주는 교사 또는 학부모와 감정을 교류하고, 다양한 방식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생각을 확장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 석사과정, yja95@naver.com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은 유아와 교사, 유아와 부모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 증진 및 유아의 문제해결 능력과 분석적 기능 등 사고력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서 어떤 정보, 어떤 이야기를 유아들에게 전할 것인지에 따라 전달 매체를 선택해야만 장단점을 살린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정확한 사실 전달과 학습 지도, 응용력의 조화를 위해서는 교사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핵심어 : 그림책, 멀티미디어 동화, 영유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세기에 들어 그림책은 그림으로 지식이나 이야기를 전하는 어린이 책의 대명사가 되었다. 글과 그림이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그림책이 다양하게 출판되면서 시각적 표현의 구체적 의미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달라져 왔다.

그림책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입체 그림책, 소리 나는 그림책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그림책이 유아교육의 중요한 매체로 발달하고 있다.

여러가지(multiple) 매체(media)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멀티미디어는 문자, 정보, 그림, 소리 정보,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통합시킨 컴퓨터를 기본으로 하는 복합 다중매체를 말한다.¹⁾ 멀티미디어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감각적으로 보고 듣고, 읽고,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체들을 하나의 멀티플랫폼으로 학습자들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멀티미디어는 유아로 하여금 시각, 청각, 촉각 등 모든 감각기관을 이용하여 학습하게 함으로써 유아의 흥미를 유발시켜 효과적인 학

1) 장영숙 외,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그림책 만들기 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16권4호, 미래유아교육학회, 2009, 74쪽.

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아가 새로운 지식의 정보를 창출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데 활용될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멀티미디어를 학습에 이용하면 짧은 시간내에 다양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교육과정의 목표를 성취하는 새로운 학습 방법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 시간의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²⁾

정보화 시대에는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읽기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유아기의 아이들에게는 모든 종류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을 가지고 있기에 그림책 속에 들어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읽기 능력이 길러주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읽기 능력을 키워주는 활동인 책을 읽어주는 활동은 주변 세계에 대한 유아의 일반적 지식을 확장시키고, 예술적 표상에 대한 흥미감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유아의 어휘발달, 언어발달에 효과가 높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그림책은 시각적인 영상을 통해서 그 그림이 담고 있는 의미와 분위기로 그림의 내용이 전개되는 상황을 알게 해준다. 그리고 어린 유아일수록 공부로서가 아닌 즐거운 놀이의 하나로서 그림책을 대하게 된다. 또한 유아를 정서적이고 인지적인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여 줄 뿐만 아니라 부모와 교사의 풍부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된다. 즉 그림책을 통하여 서로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게 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여준다.³⁾

Kilpatrick, Wolf와 Wolfe에 의하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이야기로서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다른 말로 인생은 그 자체가 이야기이며 우리는 우리 자신

2) 장영숙 외,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그림책 만들기 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16권4호, 미래유아교육학회, 2009, 75쪽.

3) 오길주, 『현장적용을 위한 독서교육의 이해』, 기역, 2014, 148쪽.

의 이야기 주인공이라고 말한다.⁴⁾ 유아들은 이야기를 읽거나 듣는 과정에서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야기에 참여하게 되며 좋아하는 주인공의 생각과 느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간다. 따라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림책은 유아들에게 가장 흥미 있는 교구이며 유아에게 풍부한 삶의 경험을 제공하고 현실에서의 삶의 방법을 터득하도록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매체라고 볼 수 있다.

그림책을 활용한 활동은 유아에게 인지적, 언어적, 사회·정서적 능력을 증진할 수 있고 유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가 담겨있어 이를 통해 인지적 발달에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다.⁵⁾

멀티미디어 동화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상에서 동화를 보고 들을 수 있다. 또 인쇄매체에서 불가능했던 동영상 애니메이션과 전문 구연가의 육성으로 동화를 보고 들을 수 있고 그림책을 플래시로 제작한 멀티미디어 동화는 그림책의 문학적 요소와 예술적 요소의 특성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림책의 원본을 스캔 작업하여 그림책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⁶⁾

멀티미디어 동화 보기의 유아 교육적 가치를 살펴보면 그림책에 비해 유아에게 인상적이고 선명한 시각적 그림을 제공할 수 있고, 움직임, 음악, 대사, 음향 등을 사용한 종합 예술적 성격을 가짐으로써 예술적인 면에서 완성도가 높은 작품 등을 유아에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들에게 이야기 구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또한, 시각과 청각에 다양한 자극을 제공하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그림책은 자극에 민감한 어린 유아들의 유아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다양한 이미지, 음악과

4) 김명화 외, 「유아교육기관의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의 실태 및 요구조사」, 『어린이미디어연구』 제8권2호, 한국어린이미디어 학회, 2009, 148쪽.

5) 송순옥, 「그림책을 활용한 정서표현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2쪽.

6) 유미, 「동화<강아지똥>의 매체 변용에 따른 아동의 문학 반응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30-32쪽.

소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아가 언어적으로 반응하도록 하여 유아의 언어능력을 발달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⁷⁾

대부분 유아기의 유아들은 다른 사람이나 매체를 통한 간접적인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시기이다. 그리고 유아에게 어떠한 교수매체를 사용하여 동화교육을 하느냐에 따라 동화내용에 대한 이해와 흥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언어활동의 동화 제시 방법에 있어서도 그림책, 인형을 이용한 동화, 슬라이드, TV 동화, 음판 동화, 막대 동화, 그림자 동화, 손가락 동화, 자석 동화, 테이블 동화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동화 제시 방법이 주목을 받아 유아에게 제공되어지고 있다.⁸⁾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서 멀티미디어의 활용은 평범한 사고를 창의적인 사고로 전환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머리로 생각한 것을 눈을 통해서 실제로 볼 수 있게 되고 조작할 수 있다. 또한 용이하게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고를 가능케 하는 뛰어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멀티미디어의 활용은 유아교육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멀티미디어 활용은 이야기 나누기, 음률지도, 자유선택활동, 동화, 동시, 게임, 등 유아교육기관의 대부분의 수업 상황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다. 특히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멀티미디어 활용은 동화 들려주기 활동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멀티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동화에 대한 유아의 초기 경험에 있어서도 점차 영상 매체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⁹⁾

멀티미디어 동화는 늘 찬반론이 따르고 있다. 오늘날의 어린이들은 이런 매체를 일반 그림책보다 훨씬 이른 시기부터 접했기에 더 자연스러운 시각 매체로서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다. 시각과 청각이 분리되지 않은,

7) 장영숙 외,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그림책 만들기 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16권4호, 미래유아교육학회, 2009, 75쪽.

8) 고은애, 「컴퓨터를 활용한 그림 동화 만들기 활동이 유아의 이야기 꾸미기 능력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13-15쪽.

9) 권성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동화 들려주기 방법이 유아의 언어 및 사고력 발달에 미치는 효과」, 『어린이미디어연구』 제9권3호,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2010, 32쪽.

텔레비전을 비롯한 영상 매체는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여, 시청각을 관련지으면서 자연 현상처럼 인공의 세계를 펼치고 있으며 자연보다 세밀한 정보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제시하고 주입하므로 유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처럼 그림책과 멀티미디어 동화는 유아의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간접경험을 증대시킨다. 따라서 이런 매체는 유아들의 언어발달 및 읽기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이유로 하여 그림책과 멀티미디어 그림책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두 매체를 비교 함으로써 유아들의 독서교육에 대한 적합한 매체를 찾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멀티미디어 동화 활용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살펴보고 유아들에게 바람직한 멀티미디어 동화를 활용한 활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그림책과 멀티미디어 동화 보기에서 유아의 언어적 반응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그림책과 멀티미디어 동화 보기에서 유아의 비언어적 반응은 어떠한가?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1) 그림책

그림책은 ‘어린이를 위한 문학’, ‘어린이에게 보여주는 최초의 예술품’으로 일컬어진다. 그림책의 표현은 실제 모습의 특징을 살려 재현한 것

으로, 필요 이상의 설명은 가능한 생략하여 분명한 메시지만 읽게 한다. 이런 표현은 어린이가 자기 표현 시 간단한 요약의 효과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이끌어 준다. 즉, 어린이의 주관과 개성을 살리며 상상력을 통해 그림책의 세계를 해석하게 한다.¹⁰⁾

그림책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은 책장을 넘기는 행위, 즉 글을 읽는 시간이 독자의 이해와 독자의 손에 펼쳐진다는 점이다. 책을 읽는 시간, 이야기를 이해하는 시간을 독자 스스로 선택하고 정한다는 것은 어린이의 매우 섬세하고 개별적인 능력과 개성이 존중됨을 뜻한다. 아주 천천히, 한 장면에서 여기저기를 돌아본 다음 다음 장으로 갈 수도 있고, 두세 장을 한꺼번에 넘길 수도 있다. 그 결과 각각 다른 전개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림책이 가지는 가장 큰 가치는 그림책이 글과 그림을 통하여 영유아들이 세상과 소통하도록 돕는다는 것이고, 영유아들이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거나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일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상황과 상대에 따라 감정을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는 등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의 매체가 됨을 알 수 있다.¹¹⁾

그림책은 영유아가 처음 접하는 책으로 인생에서 처음 만난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책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게 되며 책과의 만남에서 즐거움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책과 친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긍정적인 독서 태도를 형성할 수 있으며 글자를 모르는 유아도 유능한 독자로 성장할 수 있다.

요즘의 그림책 독자는 유아뿐 아니라 성인까지 이미 확대되었으며 그림책은 유아만 읽는 책이 아닌, 성인도 즐길 수 있는 책이 되어가고 있다. 그림책의 내용은 인간성 원형을 담고 있고 인간 삶을 말하고 있기에

10) 신명호, 『그림책의 세계』, 주니어 김영사, 2009, 309쪽.

11) 정선명, 「만 2세 영아가 그림책과 친숙해지는 과정」,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2쪽.

그림책의 기능과 가치가 확대되었기에 독자층도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림책이라고 부르는 책에서는 글이 그림 없이 그 자체로만 존재할 수 없으며 그림이 없다면 이야기의 의미는 불분명해진다.

2) 멀티미디어 동화

멀티미디어는 여러 가지 매체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즉, 문자, 그래픽,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합하여 컴퓨터와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매체를 의미한다.¹²⁾

이와 같이 멀티미디어의 다양한 특성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동화를 접목시킨 것이 멀티미디어 동화이다. 멀티미디어 동화란 종이책으로 만들어진 동화로 인터넷에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 즉, 멀티미디어 요소를 사용하여 제작된 전자 방식의 책을 컴퓨터상에 나타나게 하여 음성과 영상을 통해 나타나는 동화책을 말한다.

그림책 장르에 기제가 도입되면서 인간의 능력을 더욱 활용하여 시청각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림책이 만들어졌다. 오디오 그림책에 결합되어 있는 시각 요소를 첨부한 멀티미디어 동화가 등장한 것이다. 멀티미디어 동화는 실제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로 저연령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발달했다. 실제로는 어른 대신 그림책을 읽어주는 역할이 강해졌기에 그림책에서 비롯되는 어린이와 어른의 대화를 빼앗았다는 비평을 받게 되면서 큰 발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멀티미디어 동화는 평면 그림책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공간 이동을 더욱 리얼하게 펼침으로써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다. 그림책의 요소를 중심으로 하면서 청각을 도입한 형태로 시각에 중점을 둔 시청각 전개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다.

12) 이승배, 「그림책과 멀티미디어 동화 보기에서 나타나는 영아의 반응」,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12쪽.

교육수단으로서의 멀티미디어의 활용은 문자 정보, 소리 정보, 비디오 영상, 사진, 그림, 애니메이션 등으로 유아들이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함으로써 유아의 학습에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은 유아의 감각적 기능을 자극함으로써 유아 발달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아들이 가정 환경에서 멀티미디어 경험을 통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음을 인지할 수 있고 교육과의 접근성을 제기했을 때 동기부여의 수준이 높아 진다. 주의집중 시간에 따른 교육적 효과도 더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시청각 매체는 생생한 현장감을 제공한다. 시각과 청각적 경험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유아가 마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이러한 멀티미디어 그림책은 대부분 학습물 또는 오락물로, 유아의 반사적 반응과 호기심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아들은 새로운 것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언제나 변함없는 것에서 안도감과 위안을 얻고 아직 자기 의식이 형성되지 못한 유아들은 실 곳이 필요하다. 보금자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자극과 호기심에 매달리게 할 경우 문제가 따른다. 즉, 장단점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멀티미디어 동화책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유아들에게 일상생활과 인공 세계의 경계나 일상성과 오락의 경계가 구분되지 않은 부문별 상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구분 능력이 불충분한 유아는 실사적, 실제적 설명인 영상을 보고 쉽게 이해는 하지만, 모두를 현실로 해석하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매체를 사용한 메시지의 전달은 매체의 특성이 충분히 파악된 경우 효과적으로 활용 될 수 있다.

2.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특별시 D구에 위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만 5세반 영아 20명이다. 실험집단의 교사 경력은 4년차, 3년차였으며 모두 4년제 대학 졸업자이다.

2) 연구 도구

① 유아용 그림책 선정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그림책은 30년 넘게 독서교육을 연구, 실행한 전문단체에서 에서 선정된 좋은 그림책 목록 중 하나를 선정하였다.¹³⁾ 이 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좋은책을 선정하고 있다.

- 첫째, 문학적 감동을 줄 수 있는 책
- 둘째, 참다운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
- 셋째, 올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책
- 넷째,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책
- 다섯째,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책
- 여섯째, 아이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채워주는 책
- 일곱째, 발달적 수준을 고려한 책
- 여덟째, 예술적 표현이 뛰어난 책

② 유아용 멀티미디어 동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멀티미디어 동화는 유아들의 발달수준에 적합하

13) (사) 한국문예원언어콘텐츠연구원은 언어 학술 연구 활동, 글쓰기 교육과 독서 교육을 통한 창의적 글로벌 인재 육성, 독서 문화의 저변확충 기여 및 봉사, 문화콘텐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연구원이다.

며 주의집중이 가능한 동화로 친사회적 행동의 교육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화의 길이와 화면 수가 비슷하고 그래픽이 매력적이며 음향과 음성이 유아에게 흥미롭고 동일한 그림 동화자료 제작이 가능한 지를 고려하여 위의 기관에서 선정 기준으로 「아름다운 우리 지구」를 활용하였다.

그림 동화를 멀티미디어 동화로 제작하여 제시하였으며, 그림 동화 내용과 동일하게 들려주었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21년 5월 28일, 5월 29일, 6월 3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만 5세반 영아 20명에게 「아름다운 우리 지구」그림책과 멀티미디어 동화를 보여 준 활동을 실시하였고 유아의 반응을 관찰, 분석한 후 교사와 면담을 진행하였다.

① 유아의 반응 유형 분석 도구

교사가 그림책과 멀티미디어 동화를 보는 동안 영아가 나타내는 Whitehurst와 Vadlez-Menchaca의 분석 기준을 토대로 최은주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것을 기초하였다. 그리고 권민규가 수정한 내용을 본 연구자가 예비연구를 통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아래와 같이 수정, 보완하였다.¹⁴⁾

반응	유형	조작적 정의	예
비언어적 반응	소리내기	책에 대해, 교사에 대해 비언어적 소리내기	소리내며 웃기
	말없이 책(화면) 쳐다보기	가만히 책(화면)을 쳐다보며 시선 집중하기	교사의 말과 행동에 시선 주지 않고 책(화면)보기

14) 이승배, 「그림책과 멀티미디어 동화 보기에서 나타나는 영아의 반응」,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19쪽.

	모방하기	비언어적 행동 모방하기	교사의 행동을 보고 따라 하기
	탈상황적 행동하기	책과 관련 없는 행동하기	옆 사람과 장난하기
	비언어적 응답하기	교사의 질문에 비언어적 반응하기	교사의 질문에 고개 끄덕이기
언어적 반응	명명하기	그림에 있는 대상의 이름, 소리(의성어) 말하기	풍선, 노란 색
	응답하기	교사의 질문에 언어적 반응하기	교사: 이게 뭐야? 유아: 풍선
	질문하기	교사의 언어적 반응 요구하기	이게 뭐야?
	자발적 대화	유아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표현하기	풍선이 없어, 어떡해
	혼잣말 하기	교사와 상호작용에 상관없이 혼자 이야기하기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

4) 연구 분석

① 그림책 보기에서 유아의 반응

20명의 유아가 그림책을 교사와 읽으며 나타난 유아의 언어적 반응은 다음과 같다. 책의 등장인물을 그대로 말하는 명명하기 반응을 보이고 교사가 “펭귄들에게 이사를 가기 위한 좋은 해결책은 무엇일까?”라는 물음에 “썩은 나무를 없애요.”, “사탕을 버리지 말아야 해요” 등 응답을 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펭귄은 남극에 살아요” 같은 질문(응답) 상호작용을 하고 “와, 펭귄 귀엽다”와 같은 혼잣말 하는 반응을 보였다.

유아의 비언어적 반응은 다음과 같다. 유아들은 그림책을 교사와 함께 읽으며 말 없이 책을 쳐다보는 반응을 보이며 집중하였고 교사와 상호작용을 하는 비언어적 응답하는 반응을 보였다. 자신이 좋아하는 장면에 피식 소리를 내기도 하고 선생님이 책의 제목을 말할 때 똑같이 말하는 모방하기 반응과 옆 사람에게 장난을 치는 등 탈상황적 행동하는 반응을 보였다.

[표 1] 그림책 보기에서 유아의 반응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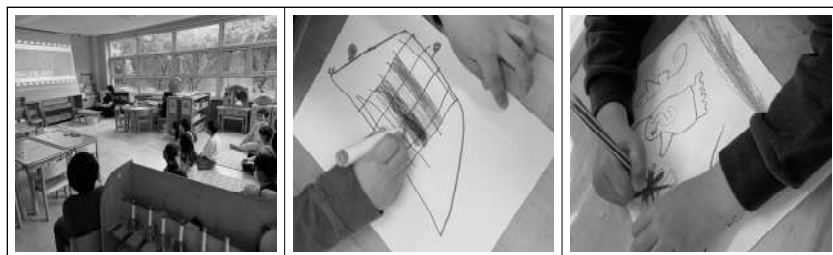


② 멀티미디어 동화 보기에서 유아의 반응

유아의 언어적 반응으로는 “그림이 움직인다”, “목소리가 다르다” 같은 혼잣말 하기와 “펭귄이 살아 움직이네” 같은 명명하기 반응을 보이고 “펭귄들이 집이 없어져서 어떡해”라는 자발적 대화 반응을 보였다. 교사가 “영상을 보고 나서 어땠어요?”라는 물음에 “재밌다”라는 응답을 하고 “선생님과 목소리가 달라요”라는 질문하기 반응을 보였다.

비언어적 반응에서는 말 없이 화면을 쳐다보며 옆 친구에게 장난을 치는 탈상황적 행동을 하고 음악이 나올 때 소리를 내며 웃는 반응을 보였다.

[표 2] 멀티미디어 동화 보기에서 유아의 반응 활동



두 매체 모두 말없이 책(화면) 쳐다보기 반응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그림책과 멀티미디어 동화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여 주의 깊게 응시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유아의 응답하기는 그림책과 멀티미디어 동화를 보는 동안 교사의 질

문에 응답하거나, 동화 속 질문에 영유아가 응답하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꽃을 심으면 되지’ 같은 그림책에서의 문제 해결을 말하거나 ‘펭귄들이 어디로 갈까’ 등 유아가 이야기 속 해설자 혹은 등장인물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또한 그림책과 멀티미디어 동화 속 세계에 영아가 몰입하여 의사소통 상대자로서 적극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자발적 대화는 유아가 책에 나오는 장면에 대해 묘사하거나 이전에 영아가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여 이야기하는 형태의 자발적 대화가 주로 많이 나타났다.

③ 독후 활동 비교 고찰

그림책 읽기 뿐 아니라 이후 활동을 통한 유아의 반응을 연구하고자 독후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 그림책

그림책을 읽고 난 후 독후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등장인물이 살고 있는 바다의 모습을 그리기도 하고 바다에 살고 있는 펭귄들의 집을 찾아주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그림을 그렸다. 또한 더러운 물을 표현하며 펭귄들이 살지 못하는 모습을 그렸다. 이를 통해 스토리, 사건 전개 등에 관심을 갖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내용 전반에 대한 이해와 감상이 이루어지고 풍부한 상상력이 표출된다는 것

[표 3] 그림책을 읽은 유아의 독후 활동



을 볼 수 있다. 그림책을 통한 독후활동이 더 풍부하고 재미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멀티미디어 동화

멀티미디어 동화를 보고 난 후 그리기를 활용한 독후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펭귄들이 타고다니는 배를 그리거나 바닷 속에 사는 물고기를 그리는 등 책 전반의 흐름에 대한 이해보다 등장인물에 중점을 두었다. 특정 장면, 강한 인상을 남기는 주인공에 주목하여 그렸고 한 장면, 특정 자극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책을 통한 독후활동이 더 풍부하고 재미있었다. 또한 특정인물, 주인공 등 본인이 화면을 통해 자극을 받았거나 강하게 머리 속에 남는 장면들을 주로 그린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적인 서사구조나 글의 흐름보다는 단편적인 인상에 집중하는 표현들이 나타났다.

독후활동을 그리기로 실시하였을 때 멀티미디어 동화보다 그림책을 읽은 후의 활동이 더 풍부하고 세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멀티미디어 동화의 독후활동을 대다수의 유아들이 비슷하게 특정장면을 표현하였다.

[표 4] 멀티미디어를 읽은 유아의 독후 활동



④ 교사 면담

교사 면담은 3년차, 4년차 교사와 20분 동안 진행되었다. 그림책의 경우 두 교사 모두 아이들의 활동 후 결과물이 더 좋다고 말하였고 그림책을 보고 난 후 아이들의 그림을 보았을 때 색감이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다고 보았다.

교사가 그림책을 읽어줄 경우 선생님이 상호작용 방법에 따라 아이들의 반응이 달랐으며 집중력이 더 좋고 내용에 대한 이해가 좋다고 하였다.

멀티미디어 동화의 경우 교사와의 상호작용 부족이 아쉽다고 말하였고 집중도가 낮았다고 보았다. 멀티미디어 동화의 효과 면에서 좋을 수 있지만 일시적이고 내용에 큰 집중을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아이들의 활동으로 보았을 때는 색감이나 내용 면에서 그림책을 읽고 난 후 활동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하였다.

그림책을 보고 난 후 유아들은 활동을 하며 그림책의 내용을 상기 시키는 경우의 대화를 많이 하며 책의 내용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멀티미디어 영상을 본 후 활동을 하며 유아들은 등장인물에 대한 대화를 하기도 하며 친구와 멀티미디어 동화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림책과 멀티미디어 동화를 비교한 비언어적과 언어적 반응에도 차이 뿐만 아니라 독후활동을 통해 유아들의 그림책과 멀티미디어 동화의 비교를 볼 수 있다.

Ⅲ. 결론

본 연구는 그림책과 멀티미디어 동화를 활용한 독서교육에서 유아의 반응연구를 언어적 반응과 비언어적 반응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봄으로써 두 매체가 유아들의 독서교육에 대한 적절한 매체를 찾고자 하였으며 그에 따른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같은 제목의 그림책과 멀티미디어 동화를 유아들에게 제시하였을 때 그림책을 읽은 후 유아들의 언어적 반응에서 문제 해결을 말하거나 유아가 이야기 속 해설자 혹은 등장인물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또한 그림책과 멀티미디어 동화 속 세계에 유아가 몰입하여 의사소통 상대자로서 적극적임을 드러낸다.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했으며 유아가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여 이야기하는 형태의 자발적 대화가 주로 많이 나타났다.

비언어적 반응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장면에 피식 소리를 내기도 하고 선생님이 책의 제목을 말할 때 똑같이 말하는 모방하기 반응과 옆 사람에게 장난을 치는 등 탈상황적 행동하는 반응을 보였다.

멀티미디어 동화를 읽은 후 유아들의 언어적 반응에서 혼잣말 하기와 명명하기 반응을 보이고 자발적 대화 반응을 보였다.

비언어적 반응에서는 말 없이 화면을 쳐다보며 옆 친구에게 장난을 치는 탈상황적 행동을 하고 음악이 나올 때 소리를 내며 웃는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결론을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책을 읽는 활동은 읽어주는 교사 또는 학부모와 감정을 교류하고, 다양한 방식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생각을 확장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은 유아와 교사, 유아와 부모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 증진 및 유아의 문제해결 능력과 분석적 기능 등 사고력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독서교육에서 볼 때 일반 그림책의 독서법은 그림과 내용을 눈으로 읽은 다음, 얻은 정보를 자기 경험과 감정으로 입체적, 공간적으로 이해하도록 이끌며 유아의 주관과 개성을 살려준다. 상상력을 통해 그림책의 세계를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멀티미디어 동화는 작가의 의도와 관점에서 정해진 화면과 시간의 흐름 속에 시뮬레이션화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한다. 설명 요소를 담아가면서 일정한 속도로 전달하는 내용은 쉽게 이해되지만, 유아의 이야기 세계를 자기 생각과 시각에서 재조명하기는 힘들다. 작가의 의도가 일정한 틀인 이야기로 전해져 유아의 입장에서 볼 때 수동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이야기 안에 개인 공간, 개인적 견해를 펼칠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서 어떤 정보, 어떤 이야기를 유아들에게 전할 것인지에 따라 전달 매체를 선택해야만 장단점을 살린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정확한 사실 전달과 학습 지도, 응용력의 조화를 위해서는 교사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세 번의 사례연구로 진행되었기에 반응성을 충분히 살펴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정확한 비교 분석을 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는 이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오길주, 『현장적용을 위한 독서교육의 이해』, 기억, 2014.
- 김명화 외, 「유아교육기관의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의 실태 및 요구조사」, 『어린이 미디어연구』 제8권2호,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2009.
- 송순옥, 「그림책을 활용한 정서표현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12.
- 유미, 「동화 <강아지똥>의 매체 변용에 따른 아동의 문학 반응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 고은애, 「컴퓨터를 활용한 그림 동화 만들기 활동이 유아의 이야기 꾸미기 능력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신명호, 『그림책의 세계』, 주니어 김영사, 2009.
- 정선명, 「만 2세 영아가 그림책과 친숙해지는 과정」,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12.
- 이승배, 「그림책과 멀티미디어 동화 보기에서 나타나는 영아의 반응」,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이현지, 「유아교사의 멀티미디어 활용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20.
- 장영숙외,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그림책 만들기 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16권4호, 미래유아교육학회, 2009.
- 전진영, 「그림책 읽기에서 나타나는 유아 반응 탐색」,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 전공 박사학위 논문, 2021.
- 한은경, 「멀티미디어 동화듣기 활동이 창의성 및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A Study on the response of preschool in Reading Education
using Picture books and Multimedia Fairy tales
—Focusing on verbal and nonverbal reactions—

Yoon, Ji A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tudy the responses of infants and toddlers to picture books and multimedia picture books, and to compare the two media to find media suitable for early childhood reading education.

The activity of reading picture books can be said to be a process of interacting with emotions with teachers or parents who read them, expanding their thoughts through various ways of interaction, and understanding the contents. In addition, the use of multimedia can be said to be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thinking skills, such as improving reading and writing skills, problem-solving skills, and analytical functions of infants.

Considering these differences, a desirable effect of utiliz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can be expected only by selecting a delivery medium according to what information and story to convey to infants. In addition, in order to accurately convey facts, harmonize learning guidance, and application skills, wise judgment of teachers is necessary.

Keywords : picture books, multimedia picture books

투고일 : 2021. 09. 19. / 심사일 : 2021. 10. 06. / 심사완료일 : 2021. 10. 10.

재미 한글학교의 발전적 방향에 대한 연구

—재미 한글학교 교사 대상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중심으로—

홍유화*

【 목 차 】

- I. 서론
- II. 한글학교의 정체성과 시대적 과제
 - 1. 한글학교의 정체성과 현황
 - 2. 재미 한글학교의 시대적 과제
- III. 연구 방법
- IV. 재미 한글학교의 발전적 방향
 - 1. 한글학교의 내부 구성원의 세대교체
 - 2. 미국내 ‘외국어로로서의 한국어’ 입지의 변화
 - 3. 해외 한국어 보급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변화
- V.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재미 한글학교가 당면한 시대적 변화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재미 한글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향후 재미 한글학교가 나아갈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인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활용하였으며, 인터뷰를 통해 현지에서 오랫동안 한글학교에 몸담아 온 교사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적 견해를 수집하였다. 재미한글학교가 대면한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재미동포의 세대교체’, 거주국 미국의 정책적 변화로 ‘현지 대학 입시에서 한국어 과목 폐지’, 모국인 한국의 자국어 보급 정책으로 ‘세종학당의 미국 진출’이 그것이다. 인터뷰를 통하여, 이

*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외국어로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석사, 201956144@hufs.ac.kr

러한 변화들이 한글학교에 실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을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글학교가 나아갈 발전적 방향을 논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세대교체로 인한 다양한 학습자와 그 동기에 대처할 수 있는 내용과 시스템 구축하고 순발력 있게 대처해야 하며, 다음으로, 입시 준비반의 폐지로 한글학교를 떠나는 청소년 재미동포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스쿨로 거듭나야 하고, 마지막으로 세종학당의 추진사업들과 연계해서 한글학교 교사들의 오랜 경험을 활용될 수 있도록 교사 역량 증진에 힘써야 한다.

핵심어 : 한국어 교육, 재미동포, 한글학교, 정체성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재미 한글학교가 당면한 시대적 변화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재미 한글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향후 재미 한글학교가 나아갈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인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¹⁾를 활용하였으며, 인터뷰를 통해 현지에서 오랫동안 한글학교에 몸담아온 교사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적 견해를 수집하였다.

외교부가 2020년 제공한 재외동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750만여 명에 육박하는 재외동포 중 가장 많은 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그 수는 260만여 명(33.99%)에 이른다. 중국이 250만여 명(32.85%)으로 그 뒤를 잇고 있지만 동포 증감 비율에 있어 미국이 2017년 대비 2.20(%) 증가한 데 비해 중국은 3.40(%) 감소하는 추세로 동포의 수나 그 증가율에 있어서 미국이 단연 선두를 지키고 있다.²⁾

1) 포커스그룹인터뷰는 최근 많이 사용하는 질적연구 기법으로,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참여자들이 주제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연구자가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연구 초기 단계의 주제에 대한 이슈를 파악하는 경우에 자주 활용된다.(정진현, 「초입 한국어 교사의 불안 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1(5), (사)아시아문화학술원, 2020.)

2) 홍유화,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한 플립러닝 모형 개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KFL

해외에서 재외동포와 그 자녀를 교육하는 기관은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가 있다. 한국학교는 해외 파견자 등의 임시 거주자 자녀를 위해 국내 및 지역 정규 과정을 교육하는 정규학교이고, 한국교육원은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사,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사회 교육 기관이다. 재외동포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했다는 점에서 나머지 두 기관과의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한글학교³⁾는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지역의 차세대 재미동포에게 계승어로서의 한국어(Korean as a Heritage Language, KHL)와 역사, 문화를 교육한다.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미주 지역에는 한국학교가 설립되지 않았고, 한국문화원은 총 7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글학교는 현재까지 753개교⁴⁾가 설립·운영되어, 그간 한글학교가 월등히 큰 규모로 재외동포 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해외 이민의 역사가 1세기를 넘어, 해외동포의 수가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이르게 된 현시점에서, 재외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미주 지역의 차세대 교육을 담당해온 한글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시대에 맞는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한글학교의 재도약을 위한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II. 한글학교의 정체성과 시대적 과제

이 장에서는 재미 한글학교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정체성을 이해하고 새롭게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파악할 것이다. 먼저, 재미 한글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기관들의 설립목적과 재미 한글학교의 전형적 특징들을 살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3) 이민 초기에 한글을 위주로 교육하던 재미 한글학교는 역사와 문화 교육을 병행하기 시작하면서, ‘한국학교’로 명칭을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본 고에서는 한국학교와의 구별을 위하여 편의상 ‘한글학교’로 기재하도록 한다.

4) 2021년 교육부 제공 자료 참조(<https://moe.go.kr/>).

펴보는 것을 바탕으로, 한글학교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정체성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한글학교의 내부적 변화, 거주국인 미국 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와 관련한 상황의 변화, 모국인 한국의 ‘해외 한국어 보급과 관련한 정책적 변화’로 나누어 한글학교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다각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글학교의 정체성과 현황

재미 한글학교는 자생적, 자발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개별 학교가 그 설립 취지를 뚜렷이 앞세우고 있지는 않다. 이에, 재미한글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재외동포 재단과 재미 한국학교협의회(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NAKS)의 설립목표와 사명을 살펴보는 것은 지금까지 재미 한글학교가 유지해 온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재외동포 재단은 그 설립목적을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고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⁵⁾이라고 표방하고 있다. 또한,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는 설립목적 및 사명을 ‘한국어, 한국문화 및 역사 교육의 개발과 육성, 한국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한 긍지 함양, 교육정책에 대한 건의와 협조 추구 등 한인 차세대들에게 올바른 정체성과 긍지를 심어주는 종합 한인 교육기관’⁶⁾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재미 한글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이 두 기관의 설립목적을 통해 재미 한글학교의 정체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재미동포가 한국어, 한국문화와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하여 민족적 긍지와 유대감을 가지면서도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5) 재외동포 재단 참조(<https://www.okf.or.kr/>).

6) 재미한글학교협의회 참조(<https://www.naks.org/jml/>).

한글학교가 가지고 있는 다음의 몇 가지 전형적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한글학교의 독특한 정체성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재미 한글학교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헤리티지 학교의 성격이 강하다. 재미 한글학교는 재미동포들이 다음 세대에게 한국어와 이를 바탕으로 한 문화, 소수민족으로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전수하기 위해 설립한 헤리티지 학교(heritage schools)이다.⁷⁾

이와 동시에, 대부분의 한글학교가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지역사회 내 한인회나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자녀들에게 한글교육을 시작한 것이 한글학교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지역 한인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함께 교류하는 커뮤니티 스쿨(community school)의 성격도 띠고 있다.⁸⁾

또한, 재미 한글학교는 자생하지 못하고 물적·인적 자원을 동포 기관의 지원을 받는다. 재외공관에 등록된 한글학교는 국제교육진흥원에서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원 받고 재외동포재단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학교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글학교는 자체적으로 공간을 갖지 못하고 공관이나 교회 등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건물을 일정 요일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체험이나 행사 등을 위한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동포기관을 통해 부족한 인적자원을 확충하기도 한다.⁹⁾

마지막으로, 재미 한글학교는 교사와 학습자, 그리고 이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에 있어서 여타 기관과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다. 한글학교의 교사는 대부분 학부모와 유학생 등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고학력자이지만 한국어교육 비전공자이며, 본

7) 강희룡, 「인종화, 융합, 그리고 집단적 정체성: 재미 한글학교 위기의 문화정치학」, 『교육과정연구』 31(1), 한국교육과정학회, 2013.

8) 김선정, 「미국 중소 도시 인디애나폴리스(Indianapolis) 한인 사회의 성립과 발전」, 『역사문화연구』 제28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7.

9) 홍유화,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한 플립러닝 모형 개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KFL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연의 직업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글학교의 주된 학습자층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연령대의 아동들이며, 중학교 이상의 연령대의 학습자 수는 급감하는 경향이 있는데, SAT2(SAT Subject Tests)¹⁰⁾ 한국어 반을 운영하는 한글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연령대의 학습자 수가 다시 증가하기도 한다.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이민 초기에 한글교육에 집중하여 교육하던 것을 한국문화·역사교육으로 확장하게 되었고, 현재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태권도, 종이접기, 미술, 한자, 음악, 수학, 사회 등의 등의 교과도 추가하여 선택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¹¹⁾

재미 한글학교는 수시로 설립되거나 폐교되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나, 교육부가 2021년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753개의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한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은 40,390명, 교원은 7,944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설립 이래,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교사들을 주축으로 꾸준히 성장해 온 재미 한글학교는 이제 차세대 재미동포의 현지화와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 속에 정체성의 혼란의 시기와 직면하게 되었다. 다음 장에서 한글학교가 대면한 시대적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재미 한글학교의 시대적 과제

재미 한글학교가 대면한 상황은 한글학교 ‘내부적인 변화’, 거주국인 미국에서의 ‘한국어와 관련한 변화’, 모국인 한국의 ‘해외 한국어 보급의

10) SAT는 대부분의 미국 대학에 지원하는 데 쓰이는 표준화 시험으로, Scholastic Aptitude Test의 준말이었으나, 1993년 이후 SAT라는 이름으로 고유명사가 되었다. ‘SAT 논리력시험(SAT Reasoning Test)’과 ‘SAT 과목시험(SAT Subject Tests)’으로 구성된다. SAT는 읽기/쓰기, 수학, 에세이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SAT Subject test는 과목별로 골라서 보는 시험으로 심화수학, 과학, 역사, 외국어 등이 있다.

11) 김봉섭, 「재미 한글학교 현황 -재외동포재단의 지원현황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65권, 한국민족연구원, 2016.

정책적 변화’, 세 가지 각도에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첫째, 한글학교는 구성원의 세대교체로 인해 한국문화에 대한 경험치가 이전보다 현저히 낮은 학습자들이 증가하고, 문화적 배경이 더욱 다양한 학습자가 한 교실에 모여 수업하는 다문화적 환경으로의 변화를 겪고 있다.

현재 한글학교의 교사와 학습자들은 주로 재외동포 2세, 3세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동포기관에 연계되어 생활하면서, 민족적 유대감과 정체성을 끈끈하게 유지하며 살아왔던 1세대 이민자들과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규모 자영업 종사자 비율이 높았던 과거에 비하여 일반 노동시장의 사무직과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대도시에서 모여 살았던 재미동포들이 도시외곽으로 활발히 이주하기 시작하였으며, 타민족과의 혼인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로, 이러한 경제적·지리적·문화적 변화는 재미동포가 주류사회의 미국의 생활양식에 흡수되는 비율을 가속화시키고, 한국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낮은 동포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초래한다.¹²⁾ 이러한 현상은 다른 나라보다 미국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는데, 재미동포의 한국어 계승 비율은 동남 아시아나 중남미계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으며, 영어 및 문화에 대한 동화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난다.¹³⁾

둘째, 미국의 대입 시험에서 한국어 과목이 폐지됨으로서 미국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케이팝(K-pop)과 케이드라마(K-drama) 등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위상이 올라가고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 미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칼

12) 윤인진, 「재외동포사회의 변화와 미래 한국어교육의 방향」, 『한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9권 제1호, 한국어교육학회, 2009.

13) Choi, J. K, “Identity and language: Korean speaking Korean, Korean-American speaking Korean and English?”, *Language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15(2), 2015.

리지 보드(College Board)¹⁴⁾가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모여서 시험보는 것에 대한 부담과 특수 상황에서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2021년부터 수능능력시험(SAT)의 교과목 테스트(SAT2)의 전격 폐지를 결정하였다. 이에, 1994년 공식 신설되었던 SAT2의 한국어 시험도 26년 만에 없어지게 되었다. 오랫동안 개진되어 왔던 대학학점 선이수제(Advanced Placement, AP)¹⁵⁾ 한국어 과목 개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칼리지 보드(College Board)가 제시하는 조건¹⁶⁾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능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어 진흥재단이 2021년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1994년 SAT2 한국어 시험 신설 이래 한국어반을 제공하는 미국의 정규학교가 1997년 19개교에서 2021년 현재 189개교로 늘어났다. SAT2 한국어 과목의 폐지는 미국 정규 학교의 한국어 과목 학생 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될 뿐 아니라, SAT2 한국어 준비반을 운영하며 재미동포 청소년 학습자를 교육해왔던 한글학교 학습자 수의 감소로도 즉각적으로 연결된다.

셋째, 한국 정부는 2009년 전 세계에 흩어진 한국어 해외 보급 기관의 명칭을 ‘세종학당’(King Sejong Institute)으로 통합 브랜드화하여 이를 거점으로 한국어와 문화를 보급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¹⁷⁾

이는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한국어교육이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

14) 1900년에 설립된 College Board는 6000여개의 교육기관으로 이루어진 연합 비영리 단체이다. SAT와 AP 등 표준화 시험을 주관하는 단체이며, 일부 대학에서 재정보조 판단용으로 사용하는 CSS Profile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https://www.collegeboard.org/>).

15) AP는 우수한 학습 능력을 갖춘 고등학생이 미리 고교에서 대학 학점을 수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칼리지보드가 시행하는 AP시험에 합격하면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AP과목으로 개설된 외국어는 중국어·일본어·스페인어·프랑스어·독일어·이탈리아어·라틴어 등 모두 7개다.

16) AP 한국어시험 신설 조건으로 한국어 정규과목 개설 고교가 최소한 250곳, AP 한국어 학점을 인정해줄 대학 100곳을 확보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AP한국어시험 개설에 힘 모으자, 미주한국일보, 2021년01월22일,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10121/1346809>)

17) 원준철, 「세종학당과 공자학원의 운영 및 교원 양성 과정에 관한 비교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부, 교육부 등의 다양한 기관이 주최하며 통합적 보급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한 비효율적 실정 속에서 한류의 확산과 한국어교육 수요의 증가에 부흥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이다. 2021년 세종학당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76개국에 213개소의 세종학당이 개설되어 있으며, 미국에는 이 중 13개¹⁸⁾의 세종학당의 진출하여 현지 대학이나,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과 연계하여 통합 운영되고 있다. 재외동포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한 교육은 단순한 언어교육 이외에 한국어를 배우는 행위에 대한 가치 교육, 흥미와 성취감 고조, 맞춤형 방안의 모색 등 정의적 영역에 대한 보다 면밀한 교육 설계가 필요하다.¹⁹⁾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고려되고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현지 맞춤형 교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바,²⁰⁾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에서의 지향점은 해외 한국어 보급기관을 모두 일원화하여 교육한다는 세종대학의 방향성과는 다소 상충되는 면이 있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재미한글학교의 추후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을

-
- 18) 미국에 진출한 13개소 중 5개소가 현지의 대학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고, 다른 5개소는 한국문화원과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3개소는 로스앤젤레스, 시키고, 휴스턴 지역에서 한국교육원과 연계하여 통합 운영되고 있다. (<https://www.ksif.or.kr/intro.do>)
- 19) 김태진, 「재미동포 한국어 학습자 정체성 구성 요인과 계승어 교육」, 『이중언어학』 제54권, 이중언어학회, 2014.; 강승혜,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Korean Education as a Heritage Language)에 대한 소고: 방향과 향후 과제」, 『언어사실과 관점』 제31권,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013.
- 20) 김은경·정호선·유승원, 「해외 초·중등학생 대상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몽골 초중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제29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20.; 최승희, 「재외동포 아동용 한국어 교재의 과제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강승혜,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Korean Education as a Heritage Language)에 대한 소고: 방향과 향후 과제」, 『언어사실과 관점』 제31권,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013.

수렴하고자 재미 한글학교 교사 중 초점집단(focus group)을 선정하여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하였다.

초점집단의 조건은 첫째, 재미한글학교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 둘째, 재미한글학교 교장이나 재미한글학교협의회(NAKS)에서 직책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 교사로 제한하였다.

초점집단을 선정함에 있어 경력과 직책에 제한을 둔 것은, 오랜 기간 현장에서 교육에 힘써온 교사들이 악조건 속에서도 한글학교가 성장해 온 동력과 정체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기관을 이끌어 가는 리더로서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통찰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재미 한글학교 교사 3명은 연구자와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연구 참여자들 간에도 오랜 지인 관계이기 때문에, 인터뷰 시에도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대화 분위기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NAKS 소속으로, 2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한글학교 교장이나 지역 협의회의 장을 겸하고 있어 재미 한글학교 교사로서의 관점 뿐 아니라, 한글학교의 및 역할에 대한 보다 거시적인 안목을 겸비하고 있다. 초점 집단의 개인 변인에 대한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초점집단 개인 변인

기호	경력	연령	이민 세대	지역	교육 관련 자격	직책
교사 A	32년	60대	1.5세대	캘리포니아	미국 교사 자격 보유	한글학교 교장
교사 B	31년	60대	1.5세대	캘리포니아	한국 초등학교 교사 자격 보유	한글학교 교장 및 NAKS 임원
교사 C	28년	50대	1세대	캘리포니아	한국 유치원 교사 자격 보유	NAKS 임원

인터뷰는 2021년 9월 22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하여 약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되었다. 인터뷰에 앞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사전에 유선과 메일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인터뷰 방법에 대해 안내하여, 참여자들의 경험과 의견을 미리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 실전에서는 연구자가 사전에 준비한 질문 개요를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하되 연구자는 발언의 기회가 편중되지 않게 주의하였다. 모든 인터뷰 자료는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고, 전체 내용을 전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전화, SNS 등을 통해 확인하고 보충하여, 연구 참여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것이 맞는지 검증하는 절차(member checking)을 거쳤다.

인터뷰의 내용은 재미 한글학교가 대면한 변화적 상황과 그에 대한 한글학교의 발전적 과제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것이며, 전사한 인터뷰 내용은 분류 분석(taxonomic analysis)과 영역 분석(domain analysis)을 반복하여 재구성 하였다.

IV. 재미 한글학교의 발전적 방향

영역 분석과 분류 분석을 통하여 재미한글학교의 발전적 방향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을 세가지 관점으로 정리하였다. 이 관점은 재미 한글학교가 대면한 변화적 상황에 대한 관점으로, 한글학교 내부적 관점, 미국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 관련한 정책 상황과 관련한 관점, 한국의 ‘해외 한국어 보급 정책’과 관련한 관점의 세가지이다.

1. 한글학교의 내부 구성원의 세대교체

연구 참여자들은 한글학교 구성원의 세대교체로 그 어느 때보다 학습자 변인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모두 동의하였다. 세대를 거듭

하면서, 한국문화의 경험치가 낮아지는 자연스러운 현상뿐 아니라, 타인 종과의 결혼 비율이 높아지면서, 아예 한국문화를 경험해 보지 못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학습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들, 혹은 한국 친구를 따라 온 외국인 아동 학습자들이 차츰 한글학교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글학교에서는 한 쪽 부모 이상이 한국인이어야 재외동포 재단에 등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한글학교를 찾아 오는 외국인들을 온전히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하였다.

이제는 교사들도 2세대인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은 2, 3세대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4세대까지도 내려가죠. 이제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우리 학교에 다시 오는 일이 흔한 일이 되었어요. 제가 우리 학생이었던 학부모들에게 “누구야!”하고 이름 부르면, 아이들이 너무 신기해 하죠. (교사 B)

한번은 미국 경찰들이 우리 한글학교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찾아 왔어요. 알고 봤더니, 재외동포 2세와 결혼한 중국인, 미국인 경찰들이더라구요. 한국인 남편의 부모님들이 70년대 처음 이민 오셔서 경찰소에서 청소일을 하시다보니, 미국에서 대우받고 살려면 자식들 경찰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신거예요. 자녀들이 그 뜻을 따라 다 경찰이 되었고, 또 결혼도 같이 일하는 경찰들하고 해서 경찰 가족이 된거지. 그러니까 한국인 경찰 남편들을 둔 미국 경찰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우리 학교에 왔는데, 우리 학교가 성인반이 없고, 재외동포가 아니니까 받을 수도 없고. 좀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수업은 못해주니까, 한달에 한번씩 우리 문화수업 하는 날마다 따로 연락을 해서 불렀죠. 같이 김장해서 먹고, 강강술래 하면서 놀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자식들도 데리고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우리 한글학교에 기부금을 내요. 그러면서 위켄드 코리안 스쿨 (Weekend Kroean School)이 자기들도 받아주면 좋겠다고 하더라구요. (교사 A)

가끔 한국 친구 따라 오는 미국 아이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정원외, 별책 부록 같은 거예요. 재외동포가 아니니까 등록을 못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몇 명 이상 될 때는 아주 적은 수업비를 받아서 따로 반을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외동포 재단에는 보고를 못해요. 우리학교 뿐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그런 학생들이 서너명 정도는 있을거예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재외동포 재단에서 하는 대회에는 참여 못해요. 교내에서 하는 것은 다 참여하지만, 재외동포 재단 행사에서는 소외되는 거지. 그래도 언젠가부터 입양아들까지는 받아주시니까 좀 나아졌죠.

한글학교에 재외동포만 받으라는 규정이 없으면 훨씬 더 활성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주변에 일본 학교들은 다른 나라 아이들도 받아주거든요. 우리 한글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한글학교도 다니고, 일본 학교가서 일본어도 배우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한국 엄마들이 또 교육에 열심이니까. (교사 B)

코로나19로 한동안 멈추었던 대면 수업을 재개하게 되면서 이전에 없었던 변화들이 관찰되고 있는데, 학습자의 배경이 다양해진 것만큼이나, 학습자의 동기가 다양해진 점이다. 등록하는 신규학생의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자발적 동기에 의해 한글학교를 찾는 학습자가 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간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자 동기 부족’은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바, 이에 대한 고무적인 현상이다.

저희 학교 이번 학기 등록을 보면, 유치부와 1학년이 50명으로 가장 많고, 9살부터 14살까지의 학생 중에서 한국어 처음 배우려고 온 학생들이 14명이나 되요. 예전에는 유치원 때 안 배우다가 초등학교 3, 4학년이 되어서 새로 오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말하기를, 예전에 유치원 때 다녔었는데 너무 지루해서 그만뒀고, 학교 가니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어를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답하려고 배우러 왔다고 하는 친구들이 5,6명 정도 되더라구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외국인 친구들을 또 데리고 왔어요. (교사 C)

어떤 친구는 할머니가 입양인데, 할머니가 인도사람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남편 나라인 인도네시아에 가보니까, 지금 그쪽에서 한국어 붐이 일어났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늦었고 이제 자식들은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 손녀를 데리고 왔어요. 이제는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동기가 너무 다양하고 새로워졌어요. 그 아이들은 입양인 자녀들이니까 재외동포 재단에서 인정을 해주거든. 그 아이가 이번 학기 새로 등록해서 이제 수업한지 4주 되어가는데 너무 재밌어해요. (교사 A)

아이 엄마가 재미동포 2세인데 홍콩 사람이랑 결혼해서 남편 일 때문에 홍콩 가서 살았대요. 그런데 또 홍콩에서 한국어 배우는 것이 붐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홍콩에서 직장 파견이 끝나고 미국에 들어오자마자 아이를 한글학교에 데리고 왔더라구요. 엄마가 어릴 때는 이렇게 한국어 배울 생각 못했다면서... (교사 B)

교사 A는 다양한 동기의 학습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사가 학습자들을 순발력 있게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신선한 변화들을 한글학교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제는 자발적 동기로 하는 친구들이 생기는거지. 물로 아직도 토요일 아침 세수도 못하고 자다가 엄마 손에 끌려오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지. 그래도 자기가 하겠다고 오는 아이들이 생기고 있는 거야. 한동안 비대면 하면서 또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더라구요. 이번에 대면으로 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실들은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동기가 바뀌고 새로운 동기 유발이 되면서 우리 교사들이 빨리 빨리 적응해야해. 아이들이 동기가 어떻게 변하고 있나 빨리 알아채서 원하는 걸 제공해 줘야 해요. 그게 관건이에요. 이번에 독립투사의 심정으로 우리 한글학교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2. 미국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입지의 변화

2021년부터 수학능력시험(SAT)의 교과목 테스트(SAT2)의 전격 폐지와 함께 한국어 시험이 폐지되면서 9학년 이상의 학습자들이 한글학교에서 빠져나가는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SAT수업이 없어진 이후, 청소년 학습자들이 한글학교에 재등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학생들은 자원 봉사자로 참여하며 커뮤니티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예전에 SAT2가 필수 시험일 때는, SAT2 대비반 학생들이 많았죠.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20명씩 2반을 운영했어요. 주중에 한번, 토요일에 한번, 이렇게 주 2회를 수업했을 정도로. 우리 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8명에서 12명씩, 그러니까 한 반 정도는 꼭 SAT 한국어 시험 준비반이 있었죠. 한글학교 5년 7년 정도 다니면 이제 8학년 정도되거든요. 그럼 중 3인데, 9학년부터 바로 SAT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다니는 아이들이 SAT반도 이어서 하죠. 아주 작은 학교 빼고는 SAT 준비반은 다 있었어요. (교사 A)

몇 년 전부터 SAT2가 선택사항이 된 다음부터는 학생 수가 한 차례 줄었죠.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어 선택해서 시험 보면 인정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무근이에요. 미국 교육국에서는 한국인이 한국어 시험 봤다고 점수 안주고 그런 것은 없어요.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이 과목을 공부했는지 그 과정이 중요하게 보는거지. 물론 약대를 지원하는데, 언어과목 시험을 보면 그건 별로 인정받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선택한 전공에 따라 한국어 시험이 유리하냐 아니냐가 달라지는 거지. 한국인이라고 한국어 시험 점수를 인정 못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국인으로서 모국어를 확실하게 해서 점수 잘 받아서 학점 미리 인정받고, 대학 가서 시간 아끼고 다른 과목 공부 더할 수 있게 되면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부터 SAT2가 폐지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안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잘 안나오는데, 바쁜 9학년 이상 된 학생들이 우수수 다 나갔어요. (교사 B)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수업할 때는 우리 SAT2 준비반 고등학교 아이들은 아예 수업을 안들어오다가, 대면 수업 재개 되면서 자원 봉사자로 오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학교는 14명 중에 8,9명은 나오고 있어요. (교사 C)

한글학교에서는 청소년 재미동포들을 붙잡기 위해서 적응이 필요한 신규 아동 학습자들의 보조교사로 재미동포 청소년들을 활용하거나, 청소년 리더십 캠프를 개최하는 등의 다양한 자원봉사나 경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청소년 학습자들이 한글학교를 중심으로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대입 에세이에 담아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경우들도 있다고 하였다.

차세대 청소년들을 리더로 자원봉사자로 더 많이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중에 한글학교에서 봉사한 걸로 미국대통령 봉사상 받는 친구들도 있고, 신분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아닌 아이들은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상도 줘요. 차세대를 한글학교에 자꾸 오게하고 이끌면서 선배들과 같이 연계되어 서로 공존하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만들어 주려고 청소년들을 붙잡고 있어요. (교사 B)

요즘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움직이지 않아요. 한글학교에서 다양하게 봉사경력을 쌓을 수 있게 해주면 좋죠. 한글학교에서 오랜 봉사 경력이 있어서 그걸로 조금 떨어지는 학과 성적을 커버해서 대학을 가는 경우도 실제로 있고, 미국 대학들은 경험을 중요시 해요. 대학 카운슬러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교사 자녀가 워싱턴으로 대학을 갔는데, 에세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우리 부모가 새 땅으로 이민온 것, 내가 한국인으로서 한국학교를 다녔던 것, 그러면서 한국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 등을 잘 연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또 역사 전공하고 싶어 하는 아이거든요. 동방의 역사는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것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키우는 것은 미국에서도 중요한 과제이거든요. 대학에서 학생을 입학

시킨 것에 대해 소감을 보내주는데, 입학 사정관이 너의 에세이에 모국어를 배운 경험과 그것을 둘러싼 경험들이 너무 좋았다고 써주었대요. 한국 아이들이나 미국아이들이나 공부들은 다 잘해요. 뭔가 특별한 하나가 더 인정을 받아요, 여기서는. (교사 C)

우리 한글학교 선생님 아들도 공부 잘 못했거든요. 엄마는 직장 나가니까 신경도 잘 못쓰고... 그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이민을 왔는데, 9학년부터 여기 한글학교에서 꾸준히 보조교사를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 엄마 말로는 아들이 공부 잘하지 못했는데, 좋은 학교 간 것이 여기 한글학교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잘 어필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교사 A)

3. 해외 한국어 보급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변화

해외 한국어 교육을 일원화 하여 보급하는 세종학당의 미국 진출은 한글학교의 성격과 다소 상충하는 면이 있어 보인다. 한글학교의 교사들은 재외동포 아동이 그 교육 대상이라는 점에서 지식적 전문성 외에도 정의적인 영역의 역량이 요구된다는 특수성이 있다.²¹⁾ 한글학교의 교사들의 전문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글학교 교사들이 거주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차세대가 겪는 정체성 확립의 과정을 가까이에서 보고 이해하며, 학부모로서 지역학교의 성격이나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의적 영역의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교육원이 지금 미국정규학교에 한국어 반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반을 하나 만들면 실적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학교 일보다는 실적에 인정이 되는 미국학교 한국어 교실 만드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

21) 홍유화,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한 플립러닝 모형 개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KFL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학교에 한국어 반이 만들어 지는 것 만큼이나, 그 반이 잘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있는 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막상 일년 기초과정을 끝내고 초급과정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마땅한 교사가 없어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를 종종 봐요. 물론 아이들이 막상 배워보니 기대와 다르게 재미가 없어서 신청을 다시 안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도 그런 학생들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동기를 유발하고 순발력 있게 끌어주는 것이 교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실력 있는 교사들이 있으면, 아이들 동기 유발을 해서 끌어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끌어주는 교사들이 있으면 그 학교의 한국어 수업이 유지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교사 C)

여기 한글학교 교사들은 경험이 많잖아요. 토요일 아침에 졸린 눈 비비면서 세수도 안하고 엄마 손에 이끌려서 한글학교 오는 친구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가르칠까만 생각해온 사람들이예요. 한글학교 주 3시간 수업을 위해서는 적어도 그 배의 시간을 들어서 연구해서 와야 하거든요. 이제는 부모들도 2세대이고, 학생들에게는 완전히 외국어인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모국어이지만은 외국어임을 인정하고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한국어 교사들이 미 정규학교에서도 이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 지역에서 현지에 맞게 특성화되어 있는 교사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일인 것 같아요.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들이 한글학교에서 만난 교사들이 미국학교에 들어와 있으면 또 반가운 마음에 그 반에 들어오거든요. (교사 A)

기존의 한글학교를 잘 활용하는 것이 양쪽이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왔고, 이런 생각들을 늘 어딘가 말 하고 싶었어요. 미 정규학교에 한국어 교사 들어가는 것도 한글학교 교사를 더 훈련 시켜서 들여보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미국 정규학교에 들어가는 교사분들은 세종학당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한국 가서 교육을 받고 오고. 캘리포니아 교사 자격증, 폴 자격증은 아니라도, 이중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들을 활용 하

시더라구요. 지역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각 국가 커뮤니티에서 나와서 노래 가르치고 스토리텔링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국학교 교사들을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국학교에 다녔던 차세대들을 활용해도 좋고요. 너무 아까운 인력들이거든요. (교사 B)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재미 한글학교를 둘러싼 상황이 그 어느때보다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재미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기반으로 재미 한글한글학교의 발전적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한글학교 내부적으로 구성원의 세대교체가 일어나면서 한국문화의 경험치가 낮은 재외동포의 비율이 증가하고, 아예 이질적인 문화의 외국인 학습자가 한글학교를 찾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학습동기의 다양화와 폭넓은 연령대의 신규 학습자의 증가로 이어지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글학교는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문화적인 요소를 더욱 강하게 담아 전달할 필요가 있다. 한글학교를 찾는 외국인 학습자를 받아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하며, 다양해진 학습자들의 동기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과 프로그램을 시도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 상황에 대한 교사들의 적극적이고 순발력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미국 입시에서 칼리지 보드(College Board)의 SAT2 폐지와 함께 자동적으로 한국어 시험이 없어지게 되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가 입지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미국 정규학교 한글반 학습자의 수가 감소할 우려로 이어질뿐 아니라, 한글학교 청소년 학습자 수의 급감으로 즉각 연결된다. SAT2준비반 수업이 중단되면서 청소년 학습자들은 더 이상 한글학교를 신규 등록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학습자들만이 자원봉사자로 커뮤니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차세대 재미동포 학습자들이 한글학교를 중심으로 또래 간 세대 간 교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한글학교가 봉사활동이나 리더십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경험 창출의 장으로 거듭나야 하며, 이를 위해 커뮤니티 스쿨의 성격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한국어 보급을 일원화하여 실시하는 정책적 변화는 지식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의적 영역에서의 소양이 요구되는 한글학교 교사의 특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세종학당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특성화된 한글학교 교사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숙련된 인력을 활용해야 하는 한편, 재외동포재단이나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는 아동상담, 이중언어교육 자격 관련 강의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한글학교 교사들의 역량 증진을 위해 힘써야 한다.

본 연구는 한글학교의 발전적 방향에 대해 현장 교사의 의견을 듣고 한글학교의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한 기초 연구로, 향후 관련 부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모색한 방향을 구체화 해나가는 것은 추후의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승혜,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Korean Education as a Heritage Language)에 대한 소고: 방향과 향후 과제」, 『언어사실과 관점』 제31권,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013.
- 강희룡, 「인종화, 봉합, 그리고 집단적 정체성: 재미 한글학교 위기의 문화정치학」, 『교육과정연구』 31(1), 한국교육과정학회, 2013.
- 김봉섭, 「재외 한글학교 현황 -재외동포재단의 지원현황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65권, 한국민족연구원, 2016.
- 김선정, 「미국 중소 도시 인디애나폴리스(Indianapolis) 한인 사회의 성립과 발전」, 『역사문화연구』 제28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7.
- 김은경·정호선·유승원, 「해외 초·중등학생 대상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몽골 초중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제29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20.
- 김태진, 「재미동포 한국어 학습자 정체성 구성 요인과 계승어 교육」, 『이중언어학』 제54권, 이중언어학회, 2014.
- 민혜경·이영희, 「국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의 문화충격 요인에 대한 질적 연구: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제76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0.
- 박채형, 「한글학교의 실태와 과제 -미국 플로리다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교육과정연구』 8(2),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2014.
- 배재원·이승연, 「문화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사 교육 방향 연구 -한국어 교사 대상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제31권,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6.
- 원준철, 「세종학당과 공자학원의 운영 및 교원 양성 과정에 관한 비교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윤인진, 「재외동포사회의 변화와 미래 한국어교육의 방향」, 『한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9권 제1호, 한국어교육학회, 2009.
- 정진현, 「초임 한국어 교사의 불안 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1(5), (사)아시아문화학술원, 2020.
- 최승희, 「재외동포 아동용 한국어 교재의 과제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홍유화,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한 플립러닝 모형 개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Choi, J. K, "Identity and language: Korean speaking Korean, Korean-American speaking Korean and English?", *Language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15(2), 2015.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Korean Language Schools in America

—Focused on a focus group interview with teachers in
Korean language schools—

Hong, Yoo Wha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nges of the times that Korean schools in America are facing, and to collect the opinions of teachers of Korean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in this regard, and to find the direction for future development of Korean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For this purpose, focus group interview (FGI), one of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was used, and through the interviews, insightful views from the experiences of teachers who have been at Korean schools for a long time were collected.

The rapidly changing times faced by Korean language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categories: ‘generational change of Korean Americans’ internally, ‘abolition of Korean language courses in local university entrance exams’ due to policy changes in the US, and dissemination of the native language of Korea. The policy is ‘King Sejong Institute’s entry into the US’. Through the interview, the practical effects of these changes on the Korean language school were identified,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Korean language school was discussed in the background. The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build a content and system that can cope with various learners and their motives due to generational change and to respond promptly. Second, the abolition of the entrance exam preparation class can provide various experiences to young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who are leaving the Korean language school. It should be reborn as a community school that has a place for it, and lastly, in connection with

the projects promoted by King Sejong Institute,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eacher competency so that the long experience of Korean language school teachers can be utilized.

Keywords : Korean education, Korean Americans, Korean school, identity

투고일 : 2021. 09. 15. / 심사일 : 2021. 10. 05. / 심사완료일 : 2021. 10. 10.

책세상

평화와 공생을 꿈꾸고 실천했던 동화작가 미야자와 겐지의 그림책 시리즈 〈미야자와 겐지 컬렉션〉

박종진*



[비에도 지지 않고] 표지



[은행나무 열매] 표지



[첼로 켜는 고수] 표지

1. 여유당의 그림책 시리즈 〈미야자와 겐지 컬렉션〉

미야자와 겐지(宮沢賢治, 1896-1933)는 일본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인이며 동화작가이다. 여유당 출판사는 겐지 작품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이 쉽고 즐겁게 읽으면서도 생각거리를 발견할 수 있는 명작을 골라 아름다운 그림책으로 만들어 <미야자와 겐지 컬렉션>으로 연속해서 발간하고 있다. 현재까지 『비에도 지지 않고』(2020.2), 『은행나무 열매』(2020.11), 『첼로 켜는 고수』(2021.7)로 이어지고 있다.

* 연세대 학술연구교수, 아동문학 연구자, 번역가, pmirine92@gmail.com

겐지 작품은 거의 대부분이 원고 상태로 남아 있다가 작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책으로 간행되었다. 생전에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현재는 겐지 전집을 비롯해서 수많은 작품집, 그림책, 비평서, 연구서가 발간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겐지학’이라는 독립 장르로 인식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확장되는 학문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그림책 작가라면 한번쯤 겐지 동화를 그림책으로 표현하고 싶어하지만, 쉬운 작업은 아닌 듯 하다. 왜냐하면 겐지 동화는 이미 문장 자체가 그림처럼 생생하기 때문에 실제 장면이 눈 앞에 펼쳐지는 듯하다. 그런데 그 장면은 백 명이 있다면 백 명 모두 다른 그림으로 떠올리기 때문에 어떤 장면을 잡아서 어떻게 그려내야 할지 그림작가들은 쉽지 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작가마다 새로운 해석으로 해마다 새로운 겐지 그림책이 나올 수 있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2. 실천하는 삶을 염원한 기도문 『비에도 지지 않고』

<미야자와 겐지 컬렉션> 첫 번째 그림책 『비에도 지지 않고』는 그림이 아주 독특하다. 겐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수첩에 남긴 시 「비에도 지지 않고」를 바탕으로 이미 여러 권 그림책이 나왔지만, 유노키 사미로의 그림은 표지만으로 단번에 눈길을 사로잡는다. 흰 바탕에 단순하면서도 대담한 선과 색을 사용해서 겐지 시와 함께 장면마다 시선을 멈추게 한다. 검은 선으로 테두리를 친 선명한 빨강, 노랑, 파랑과 녹색은 화면을 밝고 선명하게 꾸미면서도 인생의 진한 희로애락을 느끼게 한다. 유노키 사미로는 1922년생으로 올해 만100세를 맞이한 원로 염색공예가이기도 하다. 3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시인의 삶과 철학을, 한 세기를 살아낸 그림작가가 그려낸 장면에서는 깊은 내공이 느껴진다. 시련과 고통에 지지 않고 아무 욕심도 없이 타인을 위한 삶이 되기를 기원한 시인의 기도

가 잔잔하고 긴 여운을 남기며 자꾸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 이 시는 겐지의 극히 개인적인 기도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수첩에 적어넣은 절절한 기도에는 겐지의 삶과 철학이 응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 여운으로 남는 것인지 모르겠다.

3. 홀로서기를 위한 이별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

『은행나무 열매』

컬렉션 두 번째 그림책 『은행나무 열매』은 이별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이다. 작가는 은행나무를 어머니로, 은행 열매를 천 명의 아이들에 비유하여 이야기를 펼쳐나간다. 가을 찬 바람에 후두둑 떨어지는 은행열매를 보면서 작품을 구상했을지도 모른다.

그림 작가 오이카와 겐지의 그림은 검정과 노랑 그리고 회색을 기조로 하면서 아이가 그린 듯 활발하고 자유롭다. 아이들의 다채로운 개성에 주목하며 여행에 대한 불안과 희망을 나누는 왁자지껄한 아이들의 대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슬픔을 견디며 여행길을 돕는 어머니의 모습은 대조적이다. 여행은 불안하고 슬프지만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다. 황금 햇살을 맞으며 아이들이 퐁퐁퐁 한꺼번에 뛰어내리는 장면은 화면 한 가득 장관을 연출한다. 시끌벅적 와글와글 아이들이 북풍을 타고 여행을 떠난 뒤 언덕에 홀로 남은 어머니를 해님은 따스하게 감싸준다.

아이의 성장과 독립을 인정하지 못해서 손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우리는, 올바르게 홀로 설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배운다. 우리 아이들은 어떤 여행을 떠나고 싶어할까, 그림책을 같이 들여다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4. 첼로 선율에 실린 환상과 치유 판타지 『첼로 켜는 고슈』

가장 최근에 나온 그림책 『첼로 켜는 고슈』는 진정한 예술에 대한 이야기이다. 기승전결이 뚜렷하고 아직 ‘음악치료’라는 개념도 없던 시절에 음악과 치유라는 관점에 주목한 동화로도 유명하다. 우리나라에는 1960년대에 번역되기 시작해서 「은하철도의 밤」 「주문 많은 요리점」과 함께 겐지의 대표작 중 하나로 오랜 세월 사랑받았다. 사실 개인적으로 번역가로 처음 일을 시작한 작품인지라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

그림은 『은하철도의 밤』(여유당, 2013) 일러스트를 담당한 오승민 작가가 그렸다. 오승민 작가는 2004년 『꼭꼭 숨어라』를 시작으로 200여편이 넘는 작품을 발표하며 다양한 기법과 뛰어난 표현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첼로 켜는 고슈』는 전편에 첼로 선율이 흐르고, 앞표지에서 뒷표지까지 별빛이 감돈다. 대부분의 에피소드가 밤을 배경으로 하는데, 찾아오는 동물마다 고유 색채를 부여하여 특색있으면서도 안정감을 준다. 고슈가 일을 끝내고 걷는 들판에는 은하수가 드넓게 펼쳐져 있다.

첼로 실력이 좋지 못한 첼리스트 고슈는 연주회를 앞두고 지휘자에게 들볶인다. 고슈는 지휘자의 말에 상처받고 눈물을 떨군다. 일을 마치고 외딴 오두막에 돌아온 고슈는 밤새도록 연습을 거듭하는데, 연습에 지쳐 몽롱한 고슈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밤마다 동물들이 고슈를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첫째날 밤에는 고슈 연주를 듣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얼룩 고양이가 와서 슈만의 「트로이메라이」를 연주해달라고 한다. 두 번째 날에 빠꾸기는 외국에 나가기 전 도레미파를 배우기 위해 고슈를 찾아온다. 세 번째 밤에는 아기 너구리가 첼로 소리에 복장단을 맞추어 함께 연주를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네 번째 밤에는 아픈 아기 쥐 때문에 들쥐 모자가 오두막을 찾아온다. 동물들이 고슈를 찾아온 목적은 조금씩 다르지만, 한결같이 첼로 소리를 중심으로 한다. 고슈는 동물들

과 함께 첼로를 연주하는 가운데 격정적인 감정표현, 끈질긴 노력, 박자 감각 등 첼로 연주자에게 중요한 것을 익히게 된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고슈의 첼로 소리는 아픈 동물들을 치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분명 동물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 말에 상처 받았던 고슈의 마음 역시 위로받았을 것이다.

첼로는 작가 겐지가 가장 좋아했던 악기였다. 직접 연주도 했지만 실력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한다. 『첼로 켜는 고슈』에서 첼로 실력 때문에 날마다 지휘자에게 들볶이는 고슈는 작가 자신을 투영한 모습이기도 하다. 겐지가 꿈꾸던 세계에서는 우주 만물과 자연과 인간이 서로 얹히고 품어주며 공존한다. 여기에서 음악은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고 흥을 돋우며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그림책 출간 후 독자들과 가졌던 북토크에서 “지금 나에게 찾아와 주었으면 하는 동물이 있다면?”이라는 질문을 받았다.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만 번 모두 다른 ‘빠꼭’을 위해 목에서 피를 토할 때까지 연습한다는 ‘빠꾸기’라고 대답했지만, 아무래도 음악을 사랑하며 즐거움을 아는 너구리가 더 필요하다. 독자들은 어떤 동물이 찾아와 주길 바랄까?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

<미야자와 겐지 컬렉션>은 현재까지 세 권이 나왔다. 겐지의 삶과 철학을 뛰어넘은 그림과 함께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세 권을 번역하는 내내 작품에 흠뻑 빠져서 자연 만물의 일부로 녹아 들어가며 희로애락을 공유할 수 있었다. 겐지 작품을 통해 우리는 땅 위를 기어가는 개미 한 마리에서 우주공간을 달리는 은하철도까지 무한히 확장과 축소를 거듭하는 시야를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서 발견하는 감정의 울렁임과 인생의 깊은 통찰, 그리고 그림책을 읽는 즐거움이 있는 한 앞으로도 <미야자와 겐지 컬렉션>에는 새로운 그림책들이 한 권 한 권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READING ACAGORA ASSOCIATION OF KOREA」¹⁾라 하며, 약칭은 「RAAK」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독서 이론의 학구적 학술 연구와 독서 교육의 진취적 학습 운영과 독서 활동의 역동적 확산 운동 등 독서 전반의 주요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한국 독서 문화 전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발표 및 강연회 개최
2. 학술지 및 자료집 발간
3. 독서 학술 논저 공모제 시행
4. 독서 교육 심포지엄 및 컨퍼런스 개최
5. 독서 문화 자료 전시회 개최
6. 기타 필요한 사업

1) 명칭 중 ‘아카고라(ACAGORA)’는 아카데미(Academy)와 아고라(Agora)를 합성한 축약어로, 독서이론의 학술성(academy)과 독서운동의 열린 활동성(agora)을 공히 표방한 것이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독서, 책, 출판, 미디어, 교육 등의 전공자이거나 관련 학문에 관심이 있는 자
 - 2) 독서 관련 학술 연구 및 저술가
 - 3) 다양한 교육기관 종사자
 - 4) 독서문화 유관 직종 종사자
 - 5) 본 학회의 뜻을 존중하고 학회의 발전을 돕는 자
2. 명예 회원은 본 학회에 발전에 공헌이 많은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1) 명예 회원의 후보는 회장 및 회장단, 또는 과반수의 이사, 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지명한다.
 - 2) 명예 회원 지명 발의자는 별지 양식의 심의 자료를 작성 제출한다.
 - 3) 이사회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심의 의결하고, 회장은 이를 인준한다.
3.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정회원이 아닌 자로서 본 학회의 활동에 관심 있는 자
 - 2)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비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가입 의사를 밝힌 자
4. 기관회원은 도서관, 출판사, 어린이, 문학, 교육 관련 기관 및 대학의 학과 등으로 기관 연회비를 납부한 단체로 한다. 기관회원에게는 학술대회 홍보 및 학회 행사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학회지를 배부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은 본 학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2. 회원은 본 학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3. 회원은 소정의 회비 및 납부금을 납부해야 한다.
4. 명예 회원과 준회원에게는 본 학회의 제반 사업과 활동에 참여 및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본 학회와의 개별 약정을 준행할 의무를 진다.

제7조 (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명예회원은 학회의 제반 사업과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권을 가지며 이사로 취임할 수 있다.
3.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준회원으로 할 수 있고, 그의 권리를 제한한다.
4. 준회원은 이사회의 복권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5. 모든 회원은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할 수 있다.
6. 모든 회원은 학술지에 논문 등을 게재할 수 있다.
7.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 회의 각종 회원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이 규제되거나 제명될 수 있다.

1. 정회원으로서 특별한 사유 없이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고, 5년 이상 경과 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2. 본 학회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3. 본인의 사퇴의사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9조 (조직)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구성한다.

1. 회장: 1인으로 하고 운영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2. 부회장: 2인 이내로 한다.
3. 이사회 의장: 1인
4. 이사: 10인 이내
5. 감사: 2인 이내
6. 고문: 5인 이내
7. 위원장: 각 부서별 1인
8. 간사: 약간 명
9. 자문위원: 약간 명
10. 기획위원회: 위원장 및 10인 이내의 위원
11. 총무위원회: 위원장 및 10인 이내의 위원
12. 학술위원회: 위원장 및 10인 이내의 위원
13. 편집위원회: 위원장 및 10인 이내의 위원
14.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및 10인 이내의 위원
15.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5인 이내의 위원

제10조 (임원의 선출과 임원)

1. 회장과 부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총회에서 1인의 부회장을 지명하거나 지명권을 위임받을 수 있다.
3. 이사회의 의장은 본 학회 회장, 또는 회장 외 이사회 구성원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선출 방법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4. 이사와 위원장과 간사와 자문위원은 회장 또는 회장단이 선임한다.

제11조 (임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장은 본 회의 대표로서 학회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주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역할을 보좌하고, 회장이 위임하는 회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3.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장이 발의하는 각종 회무를 심의, 의결한다.
4.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의 장으로서 그 책무를 수행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연간 사업 및 회계 결과를 연 1회 이상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6. 간사는 회장의 재량으로 주어진 소정의 업무 보조를 수행한다.
7.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 학회의 운영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제4장 회의

제12조 (총회)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고, 의장은 본 학회의 회장으로 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3.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회장, 이사 5명이상, 회원 2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5.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일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해야 한다.
6.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회칙의 제정 및 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7. 총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회칙의 채택 및 개정
 -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3) 회장단 및 감사의 선출

- 4) 이사회회의 주요 안건 및 기타 주요 사안 심의, 의결
- 5)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

제13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단이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 2~3인과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회의 인원은 10인 내외로 한다.
3. 이사회회의 의장은 이사회회의를 주관하고, 회의 결과를 회장을 경유해서 총회에 보고한다.
4. 이사회회의는 다음 업무를 심의, 의결하여 총회에 보고 또는 의안상정한다.
 - 1) 정회원과 명예회원의 심의, 준회원의 결정, 회원의 자격 제한
 - 2) 고문 및 자문위원의 추대
 - 3)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의 제정과 개폐
 - 4) 총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와 의결
 - 5) 부서 업무의 집행 사항
 - 6) 기타 안건 상정 승인 사항
5. 이사회회의 회의는 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고, 가부 동수의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1. 본 학회는 각 부서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각 위원회의 위원 인수는 해당 위원회의 업무 실정에 부합되도록 확정한다.
3. 운영위원은 회장단과 이사, 간사,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된 안건을 회장에게 보고하여, 안건 처리를 위한 소정의 절차를 밟는다.
5. 회장은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6.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된 업무를 전결 처리하거나 이사회

에 안건 상정을 할 수 있다.

7.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가 의결한 집행에 대한 문제
- 2) 총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3) 본 학회 사업의 세부운영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의 결정
- 4) 위원회 상호간의 업무 연계 및 협조사항에 대한 결정
-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 (위원회)

기획위원회, 총무위원회, 학술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편집위원회, 사업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위원회는 사업 계획의 수립과 그 진행 과정을 점검 및 지원한다.
2. 총무위원회는 본 회의 경영 실무와 재무의 관리 운영 및 독서 문화 자료 전시회 등 각종 현장 활동을 한다.
3. 학술위원회는 학술회의 개최와 학술지의 연찬과 학술 논저의 평가와 독서 교육 심포지엄과 독서 콘텐츠 컨퍼런스 등을 수행한다.
4. 대외 협력위원회는 ① 본 회의 학술과 교육과 기간 사업과 현장 활동 등 독서 관련 사업에 관련된 대외 협력 활동을 수행한다. ② 국내외의 각종 독서 관련 기구와 연계 활동을 수행한다.
5. 편집위원회는 ① 학술지에 게재될 논문의 심사과 편집을 주관하고 결정한다. ② 학회에서 발간하는 제반 출판물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③ 학회의 학술연구 활동을 통하여 축적된 연구업적들을 전문도서 및 학술논문으로 발간한다. ④ 학회지의 논문 심사 규정 및 논문투고 요령을 결정한다.
6. 사업위원회는 본 회의 각종 저작물의 출판과 보급 업무를 수행한다.
7.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 윤리 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6조 (학술지발간)

1. 본 학회는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한다.
2. 학술지 및 기타 학술자료 발간에 대한 세부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7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정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각종 지원금 및 찬조금, 연구 및 활동 기금, 사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 (회비) 본 학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10,000원
2. 연회비: 40,000원 (정회원), 20,000원(준회원), 기관회원(100,000원)
3. 입회비 및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9조 (회계연도와 결산보고)

1. 회계연도는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장은 결산 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3. 본 학회는 매 회계연도 말에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여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6장 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각 위원회의 운영세칙은 각 운영회가 정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감사

1. 감사는 본 학회의 제반 활동과 재정 및 회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한 결과를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2. 감사는 감사 결과 회칙과 운영세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그 시정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즉각 요구하고 총회나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장 회칙 개정

1. 회칙의 개정은 총회의 의결로서 하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 또는 긴급을 요구할 때, 이사회의 결의로써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본 회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독서아카고라연구』(Acagora Reading Research)

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정관에 의거하여 학회 내에 설치한다.

제2장 구성

제3조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독서분야에서 연구 활동이 활발한 연구자로 구성한다.

제4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② 편집위원은 이사회 또는 편집위원장이 추천한다.
- ③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 ① 학회의 활동 목적에 동가하는 관련 전공자
- ② 연구 업적이나 활동 면에서 국내·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학자
- ③ 연구 실적이 뛰어나며, 새로운 학문 이론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신진 학자
- ④ 연구 분야가 영역별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적정 인원을 배정하여 선정
- ⑤ 소속된 기관의 지역을 적절히 안배하여 선정

제3장 소집 및 의결

제6조 소집

- ①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학술지 발간을 위한 정기 편집회의는 학술지 발간 60일 전에 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의결

- ① 편집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일 때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한다.

제4장 역할

제8조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편집과 논문 심사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논문 심사의 절차와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9조 본 위원회는 『독서아카고라연구』 논문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 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10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진다.

제5장 논문게재 결정

제11조 『독서아카고라연구』 수록 논문은 한 호에 20편 이내로 한다. 단, 기획호의 경우 편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2조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게재할 논문을 최종 결정한다.

제13조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 게재할 논문 대상을 결정한다.

- ① 심사위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우수 논문을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 ② 연구소에서 주관한 특집 논문과 학술대회 논문을 우선 게재한다.

- ③ 심사 결과 동일 점수의 경우 먼저 투고한 논문을 우선 게재한다.
- ④ 논문 심사는 『독서아카고라연구』 논문 심사 규정에 의거하도록 한다.

제6장 부칙

제14조 그 밖의 내용은 관례에 따른다.

『독서아카고라연구』(Acagora Reading Research) 논문 투고 규정

제1조 학술지 목적

본 학회의 학술지 『독서아카고라연구(Acagora Reading Research)』는 독서 전반의 주요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한국 독서 문화 전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세계 각국의 독서학회와 연계하여 총체적 독서 문화의 글로벌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 투고 시기

1. 『독서아카고라연구』는 매년 10월 30일 연간 간행한다. 단 창간호는 10월 26일에 발행한다. 논문 마감 시한은 매년 8월 31일이다.

제3조 투고 자격

1. 『독서아카고라연구』의 수록 내용은 논문으로 구성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논문: 독서와 관련한 학술 연구 결과로서 일반적인 논문 형식을 갖춘 글
2. 논문 투고는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회원에 한한다. 이미 다른 학술지나 기타 간행물에 게재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원고는 게재할 수 없다.
3. 본 학회의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원고의 투고로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미 발행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논문 투고자는 회원 자격에 해당하는 당해 연도 회비를 완납해야 한다.

5. 투고 논문은 중복 투고를 인정하지 않는다. 중복 투고나 표절로 판명 될 경우에는 <연구 윤리 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에 따라 향후 본 학술지 활동에 제한을 둔다.

제4조 논문 제출

1.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신청서와 연구 윤리 약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논문 투고자는 심사료 6만원을 본 연구소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심사는 심사료 입금 확인 후 진행한다.
3. 논문 투고는 본 학회 홈페이지 <논문투고하기>를 이용한다.
4. 투고한 논문은 KCI 논문 유사도 검사 등 표절 검사 소프트웨어를 통한 점검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심사에 회부 한다. 일치율 20%이상이면 반려한다.

제5조 지필요강

1. 전체 구성
 - 1) 논문 제목을 맨 윗줄에 적고, 두 줄 아래에 저자 이름을 적는다.
(공동연구일 경우 교신저자, 제 2저자, 제 3저자의 순으로 적는다.)
 - 2) 저자 이름 옆에 별표 각주를 달고, 각주 설명에 소속을 적는다.
 - 3) 저자 이름 두 줄 아래에 목차를 적는다.
 - 4) 목차 두 줄 아래에 논문 국문 요약을 싣는다. (뒤에 자세히 설명)
 - 5) 본문 내용 기술이 끝나면, 다음 장에 참고문헌을 적는다.
(뒤에 자세히 설명)
 - 6) 참고문헌 다음 장에 논문 영문 요약을 싣는다. (뒤에 자세히 설명)
 - 7) 페이지 번호는 매기지 않는다.
2. 용지 종류 및 용지 여백
 - 1) 용지 종류 - 크라운판: 176×248mm
 - 2) 여백
 - ◆ 위: 22, ◆ 아래: 16, ◆ 왼쪽: 22, ◆ 오른쪽: 22,
 - ◆ 머리말: 0, ◆ 꼬리말: 12.5

3. 글자 모양

- 1) 글꼴: (한글)신명조, (영문)신명조, (한자)신명조
- 2) 장평: (한글)100, (영문)100, (한자)100,
- 3) 자간: (한글) - 6, (영문) - 3, (한자) - 5
- 4) 글자 크기
 - ① 논문 제목: 15(맑은고딕 진하게)
 - ② 머리말, 서론, 맺음말: 13(맑은고딕 진하게)
 - ③ 장 제목: 11(맑은고딕 진하게)
 - ④ 절 제목: 10.2(맑은고딕 진하게)
 - ⑤ 소절 제목: 10.2(맑은고딕)
 - ⑥ 저자 이름(소속학교): 10(신명조)
 - ⑦ 본문: 10.8(신명조)
 - ⑧ 각주: 8.5(신명조)

4. 인용

인용은 위아래로 본문과 1줄을 띄어 두고 작성한다.

- ① 글자 크기: 9, ② 줄간격: 150, ③ 왼쪽여백: 10pt

5. 주(註)

주는 외각주로 표기한다.

- ① 외각주는 해당 면의 아래에 참조(인용 문헌)와 내용주를 표기한다.
- ② 외각주의 표기 예는 다음과 같다.

◆ 단행본

구인환, 『한국 근대 작가의 삶과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271쪽.

Horton, R. W. & Edward, H. W., *Background of American Literacy Thought*,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52, pp. 339~372.

◆ 논문 및 잡지 기사

김대행, 「고등학교 교과서와 독서교육」, 『독서아카고라연구』 제1호,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2016.

박영목, 「독서교육 연구에 있어서의 사회 문화적 접근」, 『독서아카고라연구』 제7호,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2016, 3~5쪽.

Gough P. B., “One second of reading”, In Kavangh, J. A. & Mattingly, I. G. (eds.), *Language by Ear and by Eye*, Cambridge, Mass: MIT Press, 1972, pp. 20~26.

◆ 학위 논문

이경화, 「담화 구조와 배경 지식이 설명적 담화의 독해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20~26쪽.

◆ 번역서(문)

John A. Walker, *Art in the Mass Media*(1983), 정진국 역, 『대중 매체 시대의 예술』, 열화당, 1987, 17~21쪽.

Augustin Girard, 「문화산업(Cultural industries: a handicap or a new opportunity for cultural development)」, 강현두 편, 『대중문화론』, 나남, 1992, 460~470쪽.

6.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 정리한다.

- ① 내용 순서: 분량이 많아 나눌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단행본과 논문으로 나누어 표기한다.
- ② 표기 언어의 순서: 국내 문헌을 맨 처음에 놓고, 이어 일본어, 중국어, 기타 동양권 문헌,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기타 서양권 문헌의 순서로 배열한다.
- ③ 국내 문헌: 저자의 성(姓)을 가나다 순서로 배열한다.
- ④ 동양권 문헌: 이름의 한자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음독(音讀) 가나다 순서로 배열한다.
- ⑤ 서양권 문헌: 저자 성(姓, first name)의 알파벳 순서로 한다.
- ⑥ 단행본의 쪽수는 따로 쓰지 않는다. 단, 학술지 논문의 경우 쪽수를 제시하여 해당 논문이 학술지의 몇 쪽에 위치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 ⑦ 참고문헌의 표기 예는 다음과 같다.
박용숙, 『한국의 시원 사상』, 문예출판사, 1985.

노명완, 「읽기의 개념과 읽기 지도의 문제점」, 『교육한글』 제3호, 한글학회, 1990, 5~44쪽.

도정일, 「90년대 소설의 영화적 관심과 형식 문제」, 『세계의 문학』 제67호, 민음사, 1993.

Hillman, L. H., *Reading at the University*, MA: Heinle & Heinle Pub, 1990.

Dole, J. A., "Explicit and implicit instruction in comprehension",
In B. M. Taylor, M. F., Graves & P. V. D. Broek(eds).
Reading for Meaning, NY: Teacher College Press, 2000.

7. 국문 요약 및 핵심어

논문 목차 두 줄 아래에 국문 요약과 핵심어를 신는다.

- ① ‘초록’ 글자 두 줄 아래에 논문 제목을 적는다.
(신명조, 15pt, 가운데정렬)
- ② 논문 제목 두 줄 아래에 저자 이름을 적는다.
(신명조, 10pt, 가운데정렬)
- ③ 저자 이름 두 줄 아래 국문 요약 내용을 적는다. (200자 내외)
- ④ 마지막 줄에 핵심어를 제시한다(10 단어 내외).
(핵심어 글자꼴: 맑은고딕, 글자 크기 8, 줄간격 140)

8. 영문 요약 및 Keyword

논문의 마지막 장에는 국문 요약과 핵심어를 신는다.

- ① 논문의 영어 제목을 적는다. (신명조, 15pt, 가운데정렬)
- ② 논문 제목 두 줄 아래에 저자 이름을 영어로 적는다.
(신명조, 10pt, 가운데정렬)
- ③ 저자 이름 두 줄 아래 영문 요약 내용을 적는다. (200자 내외)
- ④ 마지막 줄에 Keyword를 제시한다(10 단어 내외).
(keyword 글자꼴: 맑은고딕, 글자 크기 8, 줄간격 140)

제6조 기타

모든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한다.

<http://www.acagora.or.kr>

『독서아카고라연구』(Acagora Reading Research) 논문 심사 규정

제1조 학술지 목적

본 학회의 학술지 『독서아카고라연구(Acagora Reading Research)』는 독서 전반의 주요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한국 독서 문화 전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세계 각국의 독서학회와 연계하여 총체적 독서 문화의 글로벌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 심사 대상

1. 심사는 청탁한 논문을 제외한 접수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2. 논문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가 정한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심사 절차

1. 해당 권 호의 논문을 마감한 후 편집위원회를 열어 본 학술지의 게재 조건을 만족하는지 형식 심사를 한다.
2. 형식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해당 분야의 전공자 3인을 위촉하여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3.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알려 주어야 한다.
4. 심사 결과가 모이면 편집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수록할 논문을 최종 결정한다.
5. 논문 심사를 의뢰할 때는 필자의 신분과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제4조 통보 및 이의 신청

1. 심사 결과가 나오면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2. 심사 위원들의 평가가 크게 다를 경우,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심사결과에 대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3. 재심 요청이 들어 왔을 때 편집위원회에서는 재심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운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재심한다. 재심에서 게재 결정 시 다음 호에 게재한다.

제5조 심사 기준

1. 논문은 주제의 참신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2. 연구 방법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3. 연구 내용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4. 연구 성과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제6조 심사 방법

1.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결과서’에 명시된 각 심사 기준에 점수를 부여한다.
2. 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 택일하여 날인하고 심사 요지를 상술한다.
3.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때에는 수정 사항을 명기하고, ‘게재 불가’로 판정한 때에는 의견서에 게재 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4. 심사위원은 학문적 견해에 따른 주관적인 판단은 배제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사에 임해야 한다.

제7조 게재 여부 결정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심사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
2. 게재 가능 논문은 다음과 같다.
 - ①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 가’로 판정한 논문

- ② 2명의 심사위원이 ‘게재 가’, 1명의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를 요청한 논문
단, 필자에게 다시 논문을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한다.
- 3. 게재 반려 논문은 다음과 같다.
 - ①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
 - ② 2명의 심사위원이 각각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논문
- 4. 논문 수정 제의에 대해 응답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제8조 논문 취소

학위논문을 요약하거나 다른 학회지에 게재된 것이거나 혹은 이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게재한 논문 수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기타

- 1.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즉시 알린다.
-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독서아카고라연구』(Acagora Reading Research)

연구 윤리 규정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READING ACAGORA ASSOCIATION OF KOREA. 이하 학회)는 독서 이론의 학구적 학술 연구와 독서 교육의 진취적 학습 운영과 독서 활동의 역동적 확산 운동 등 독서 전반의 주요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한국 독서 문화 전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세계 각국의 독서계와 연계하여 총체적 독서 문화의 글로벌화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회원은 출판, 연구 발표 등 제반 학술 연구 활동에서 연구자로서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학술적 성과에 대한 신뢰도를 진작시키고 학회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을 의무를 갖는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학회의 학술 연구 활동에서 연구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 규정을 공표하고,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증하기 위한 연구윤리 위원회의 설치 및 검증 이후의 후속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은 학회의 모든 회원과 본회의 학회지나 기타 학술 간행물에 투고한 자,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연구자에 대한 윤리 규정

제3조 위조, 변조, 표절, 이중 게재 금지

학회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행해진 ‘위조’, ‘변조’, ‘표절’, ‘이중 게재’ 행위를 대표적인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한다. ‘위조’, ‘변조’, ‘표절’, ‘이중 게재’에 관한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조’는 연구자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자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것을 말한다.
3. ‘표절’은 연구자가 이미 발표된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중 게재’는 연구자 본인이 이미 발표한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중복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가 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되고 편집되어 학회지의 특집호로 게재되는 경우에는 이중 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4조 저자 표기

1. 저자는 연구에 실제로 참여한 자만 인정받는다.
2. 공동 저자인 경우, 상대적인 지위나 직책에 관계없이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제1저자를 정한다.
3.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

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 예우나 감사의 표시를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인용 및 참고 표기

1. 타인의 아이디어,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을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원저자와 출처를 밝혀야 한다.
2. 원저자와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 표시 없이 상당히 많은 양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3. 자신이 발표한 논문이나 저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인용해야 한다.

제6조 생명윤리

1. 연구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인간대상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생명윤리 정책과 02-2023-7614)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회에 대한 윤리규정

제7조 편집위원의 책무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논문을, 투고자의 성별, 연령, 인종, 소속 기관, 개인적인 친분 등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을 선정해야 하며, 게재 여부의 판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편집 과정에서 대상 논문의 저자 및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편집위원은 게재 예정인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발표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
4. 편집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제보될 경우,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심사위원에 대한 윤리규정

제8조 심사위원의 책무

1. 심사위원은 개인의 학술적 지향을 떠나, 논문의 질적 수준과 규정 준수 여부를 판정 기준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대상 논문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3. 심사위원은 게재 예정인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발표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에 신속하게 제보해야 한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1. 학회는 회원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6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은 학회의 회원 중, 회장의 제청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출석 숫자에는 포함하나, 의결 숫자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4. 피제소자와 관련된 위원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부정행위의 제보

1. 연구 부정행위는 학회의 운영위원회나 편집위원회에 전화, 전자우편,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2. 제보는 실명 혹은 익명으로 할 수 있으나, 단 익명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제보해야 한다.

제12조 부정행위 검증 절차

1. 위원회는 상당한 의혹이 있는 구체적인 제보가 접수되는 경우, 회장 또는 위원장의 심사 요청에 의해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를 개시한다.
2. 위원회는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며, 경우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를 협의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제보자나 피제소자에게 소정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최종 판정에 앞서 피제소자에게 소명의 권한을 부여하고, 소명 자료 준비를 위한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13조 심사 결과 보고

1. 위원회는 부정행위 심사 결과를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2. 보고서에는 심사 대상 논문, 부정 행위의 내용, 심사위원의 명단 및 절차, 피제소자의 소명 내용, 판정 결과, 후속 조치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3. 보고서는 학회에서 5년간 보존한다.

제14조 제보자와 피제소자에 대한 보호

1. 위원은 연구 부정행위 심의 과정에서 제보자와 피제소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2. 피제소자의 연구 부정행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위원회는 부정행위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제소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제15조 후속 제재 조치

연구 부정행위가 입증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가하되,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연구자의 학회 회원 제명
2.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의 경우 게재 취소
3.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공시
4. 학회 논문 투고 3년간 금지
5. 위원회 명의로 견책 통지 발송
6.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 통보
7.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제16조 재조사 및 명예회복

1. 제보자 또는 피제소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심사 결과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된 경우, 위원회는 피제소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피제소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고의로 허위 제보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 자격 박탈, 관련 사실의 공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일부터 유효하다.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임원

회 장 : 오길주 (경민대학교)

부 회 장 : 김현경 (경민대학교)

감 사 : 김연홍 (기연)

정명자 (중원대학교)

기획이사 : 김장호 (경민대학교)

총무이사 : 김현경 (경인교육대학교)

출판이사 : 김경희 (가천대학교)

콘텐츠이사 : 윤수진 (송원대학교)

사업이사 : 강병동 (한국교육지원센터)

대외협력이사 : 김용환 (리딩게이트)

국제이사 : 미국: 윤재영 (Purdue University), 중국: 전금화 (吉林大學)

총무간사 : 윤지아 (중앙대학교)

편집위원회

위원장 : 김명석 (성신여자대학교)

위 원 : 김경희 (가천대학교)

오세정 (충북대학교)

이정선 (호서대학교)

정민경 (제주대학교)

편집간사 : 김수연 (경희대학교)

박종진 (연세대학교)

윤수진 (송원대학교)

장정희 (서울대학교)

황선미 (서울예술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 문홍철 (백석대학교)

위 원 : 노경실 (작가)

간 사 : 권민주 (성균관대학교)

독서아카고라연구 3호

2021년 10월 26일 인쇄

2021년 10월 26일 발행

발행인 / 오길주

발행처 /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편집 · 인쇄 / 한국학술정보(주)(☎ 031-940-1007)

<http://www.kstudy.com>

한국독서아카고라학회

11618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545 경민대학교 총의관 211호

☎ 031-828-7166

<http://www.acagora.or.kr/>

ISSN 2672-1309

죽을 뻔했던 이야기



죽을 뻔했던 이야기 **햇살어린이 77**
이주영 글 | 김홍모 그림 **내가 겪은 이야기**

누구나 살다 보면 몸과 마음에 위험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힘들거나 분하거나 억울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도 '잠깐! 멈추고 숨을 크게 쉬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겨내기 바랍니다.

무기 팔지 마세요 **햇살어린이 69 동화**



위기철 글 | 이희재 그림

세상에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어, 무기도 없고,
군인도 없었으면 좋겠어.
총을 맞고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어.
폭탄에 맞아 부서지는 집이 없었으면 좋겠어.
화약 냄새 가득한 들판에 뼛을 잃고 앉아 있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어.

강치야 독도야 동해바다야 **천천히 읽는 책 48**



주강현 글

동해바다 외로운 섬 독도는 대한민국 바다 영토의 상징입니다. 독도를 많이 생각하고, 일본의 야망에 맞설 수 있는 배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독도 강치의 멸종으로부터 독도의 역사, 독도의 어머니 섬인 울릉도의 역사, 독도를 지켜온 사람들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책 한 권으로 독도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평화인물전 우리는 이미 평화의 길 위에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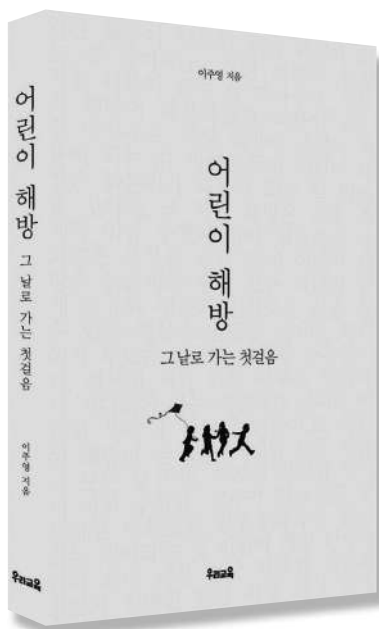
저자: 김재신
일러스트: 이우현
출간: 2020년 12월 25일
크기: 153*225mm
면수: 484쪽
가격: 28,000원
도서출판기역(책마을해리)

폭력의 세기인 20세기가 지나고 21세기에는 평화의 시대가 펼쳐
지리라는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오히려 깨닫게 된 것은 폭력
의 원인이 우리의 내면세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외면세계는 내면세계의 반영이다. 우리 내면의 온갖 억압되고 왜
곡된 욕구들은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굳어져 우리를 외부세계의
잔인함과 비참함에 무감각해지게 만들었다. 이제 폭력의 뿌리를
제거하는 일은 우리 존재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변화시키는 일
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폭력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일은 불가능
한 일일까? 진정한 평화는 이룰 수 없는 꿈에 불과한 것일까?



어린이 해방

그날로 가는 첫걸음



이주영 지음
232쪽 | 12,000원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착각함으로써 시작된 폭력
‘어린이 인권’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다

어린이가 이 땅에 태어날 자유와 권리를 억압 받지 않는 어린이 해방 세상, 헌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자기 능력에 맞게 평등하고 평화롭게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 어린이 해방 세상, 어린이들이 참된 어린이 문화를 누리면서 어린이답게 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 받는 어린이 해방 세상이 되어야 한다. 어린이 해방은 시민 해방, 계급 해방, 여성 해방을 넘어 인류가 완성해야 할 인간 해방이 나아갈 길이다. 어린이 해방 세상이 되어야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 그리고 평화를 누리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교육 쑥쑥문고 학년별 동시집 이주영 엮음

- 1학년 동시집 꽃이파리가 된 나비
- 2학년 동시집 별님 동무 고기 동무
- 3학년 동시집 우주 자전거
- 4학년 동시집 고구마 순 놓기
- 5학년 동시집 엄마의 장바구니
- 6학년 동시집 모래밭에 그리는 꿈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29(서패동) 2층
전화 031-955-9680 팩스 031-955-9682

2020
제8회 교보문고
스토리공모전
동화 부문 수상작!



길 잃은 생각 의사를 위한 생각 속 응급 구조법

권태윤 글 | 김미진 그림 | 고래가숨쉬는도서관
152×210mm | 164쪽 | 13,000원 | 초등 중학년 이상

생각이 너무 많은가요?
생각 의사를 찾아오세요!
머릿속에 잔뜩 쌓인 쓸모없는 생각들을 제거해 보세요.



에이아이 내니 영원한 내 친구

박미정 글 | 이주미 그림 | 고래가숨쉬는도서관
152×210mm | 164쪽 | 13,000원 | 초등 중학년 이상

AI 내니 1호 탄생!
버려진 아기, 로봇 엄마를 만나다.

한국안데르센상 수상작!

거북이 버스



차율이 글 | 차상미 그림 | 고래가숨쉬는도서관
152×210mm | 100쪽 | 12,000원 | 초등 저학년 이상

숲속에서도 바다에서도
쫘쫘 달리는 멋진 거북이 버스!
“어디든 안전하게 모셔다드리겠습니다. 출발!”

